

동 책자에 실린 내용은 통일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독일 통일 20년 계기 -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제3권 참고 자료

3.1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 일람

CONTENTS

독일통일 20년 계기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 일람

서문 · 6

연방 정부 · 7

연방경제 · 기술부(BMWi) · 18

연방법무부(BMJ) · 35

연방 · 교통 · 건설 · 도시개발부(BMVBS) · 37

연방재무부(BMF) · 48

연방보건부(BMG) · 51

연방가족 · 노인 · 여성 · 청소년부(BMFSFJ) · 52

연방노동 · 사회부(BMAS) · 61

연방교육 · 연구부(BMBF) · 72

연방식품 · 농업 · 소비자보호부(BMELV) · 89

연방내무부(BMI) · 92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 일람

서문	6
연방 정부	7
연방경제 · 기술부(BMWi)	18
연방법무부(BMJ)	35
연방교통 · 건설 · 도시개발부(BMVBS)	37
연방재무부(BMF)	48
연방보건부(BMG)	51
연방가족 · 노인 · 여성 · 청소년부(BMFSFJ)	52
연방노동 · 사회부(BMAS)	61
연방교육 · 연구부(BMBF)	72
연방식품 · 농업 · 소비자보호부(BMELV)	89
연방내무부(BMI)	92

서문

독일의 통일 과정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연방주 지역을 구연방주 지역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했기에 국가 차원의 수많은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부분 의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의회는 또 다시 이러한 정책에 소요될 재정을 승인하였다. 계획과 결정, 실행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에는 여러 차원의 기관들이 다수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한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 의회와 정부, 부처 등 국가(연방) 차원의 기관
- 연방 주 차원의 기관
- 재건신용은행, 연방노동청과 같이 특수한 지위를 지닌 기관
-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지만 절반, 혹은 완전히 민영적 성격을 지닌 지원 기관(예: 의료보험사 및 지원 기구)

참여 기관의 다양성은 종종 고된 의견 조율과 협력의 과정을 필요로 했다. 재정 조달 측면에 있어서는 외부적 규정의 제약과 더불어 개별 연방 주 간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장기간에 걸쳐 정책이 실행될 경우, 기간 별로 치러지는 선거로 정치 구도의 변화가 일어나 정책의 무게 중심이 바뀌는 결과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몇몇 프로그램의 경우 상호 연관을 맺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 기간에 있어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의견 조율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연방 정부가 실행한 지원 정책들은 매우 광범위한 범위를 아우르고 있었다. 전통적인 프로그램(노동 창출 조치)들과 더불어 인프라 개선, 개보수, 연구, 혁신, 문화(예; 문화 기관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원금), 특정 사회 계층(여성과 아동)을 위한 지원, 성장 핵심과 국제 협력 구축을 위한 지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음의 정책 일람은 다니엘라 클라우스(Daniela Claus)와 이지환이 작성한 내용으로, 연방 차원의 정책을 중심으로 일람 형태로 요약되어 있음을 앞서 밝힌다.

연방 정부

퇴직 연금 및 유가족 연금 평준화

- 내용
구동독 지역의 연방, 주, 지자체 공공 근로자의 퇴직 연금 및 유가족 연금을 구서독 지역 수준에 맞춰 추가 지급
- 발효일자 : 1997년 1월 1일

동독 시절에 발생한 구채무에 관한 규정 법(Altschuldenregelungsgesetz)

- 내용
해당 법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자산을 통해 확보 가능한 현금의 최대 7억 3천 5백만 마르크(DM)가 신연방주 지역의 구채무 청산을 위해, 5천만 마르크가 문화재 보호를 위해 투입되어야만 했다. 해당 자금은 거의 모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발효일자 : 1997년 3월 7일 발효 (2001년 12월 20일 연대협약 지속법을 통해 개정)

청구권 및 권리계승권 전환법의 개정 및 보완(AAÜG)

- 내용
새로운 규정을 통해 1998년 31,800 마르크 이상을 받던(월 2,650 마르크) 국가 기관의 직원들의 연금 포인트는 1점으로 낮아진 데 반해, 31,799 마르크를 받던 직원들의 연금 포인트는 1.8 점으로 산정되었다.

- 발효일자 : 1997년 1월 1일 발효

추가 일자리 15,000개 지원

- 내용
 -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합의
 - 연방 정부는 2000년까지 약 2억 마르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 지원 개혁 법(AFRG)

- 내용
 - 노동 지원법은 AFRG를 통해 사회 법전 3권에 통합되었다. 이를 통해 노동 지원법 (AFG)은 삭제되었다. 해당 법령은 사회 보험의 두 가지 주요 부문인 의료 보험 및 연금 보험과 더불어, 법정 사회 보험의 가장 중요하며,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문을 규정하고 있다.
- 목표/기대효과
 - 보험의 보호를 받게 되는 대상자는 미니잡 이상의 근로 활동을 하는 모든 근로자들이며; 여러 개의 미니잡을 동시에 수행하는 자들은 앞으로 실업 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모성보호법 개정법

- 내용
 - 조산모 및 가사 도우미 지원을 위한 개선된 모성보호. 소규모 작업장의 고용주들은 법정 의료 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모성보호 비용을 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 발효일자 : 1997년 1월 1일 발효

노동 지원법 개혁

- 내용
 권리 동등화
- 발효일자 : 1997년 4월 1일

청구권 및 권리계승권 전환법의 개정 및 보안을 위한 제 2차 법령 (2. AAÜG-Änderungsgesetz- 2. AAÜG-ÄndG)

- 내용
 - 동독 시절의 추가 및 특별 공급 시스템에 대한 청구권 및 권리계승권 전환법의 개정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실행)은 강제적인 헌법적 요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 일명 시스템 결정 - 동독 시절의 추가 및 특별 공급 시스템에 대한 청구권 및 권리계승권을 연방 독일의 연금법으로 전환할 시에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을 통해 제한 - 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수용되었으며, 변경된 내용 없이 유지된다.
- 발효일자 : 개정법의 효력은 1999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발효

환경 정화 작업(Altlastensanierung)을 위한 일반 협약

- 내용
 연방 정부와 튀링엔(Thüringen) 지방 정부 간의 일반 협약
 해당 협약은 환경 정화를 위한 재정 의무를 최종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목표/기대효과
 이러한 협정을 통해 환경 정화를 위한 단독 책임은 지방 정부 측으로 이양되며, 이로

인해 실행되어야 할 환경 정화 조치에 관한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합의는 불필요해졌다.

○ 발효일자 : 1999년 2월

○ 주별(州別) 실행

- 계약 체결을 통해 해당 자치시는 환경 정화를 위한 단독 책임을 지게 되었다. 연방 정부는 해당 자치시에 4억 6천 770만 유로에 달하는 비용 분담금을 지급해 왔다. 이러한 분담금은 1999년 6월부터 튀링엔 지방 정부가 환경 정화 사업을 위해 마련한 특별 자산으로 유입되어 왔다. 이 분야에 대한 튀링엔 지방 정부의 분담금은 연간 1,330만 유로로 2016년까지 납입될 예정이다.
- 대규모 프로젝트 “Kali”와 “Rositz”와 더불어 1999년부터 2008년 말까지 1,026 곳의 환경 정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종합적으로 입지 조사, 탐사, 정화 등 2천 개 이상의 조치가 취해졌다. 2008년 말까지 이러한 조치들을 위해 특별 자산을 통해 3억 7,500만 유로가 지원되었다. 민간 기업들 역시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과거의 지역에 9억 유로를 지원하고, 12,000 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것을 의무화 했다.

○ 출처

http://www.recyclingportal.eu/artikel/21481_shtml

http://www.recyclingportal.eu/artikel/21481_shtml

직업교육 합의

(연방 정부와 노동, 직업 교육, 경쟁력 연맹의 소속 단체 간의 합의)

○ 내용

1999년 직업 교육 시작 시점까지 직업 교육 일자리를 알선 받을 수 없었던 모든 지원자들은 지역적 가능성에 따라 주거지에서 가능한 가장 가까운 직업 교육 일자리를 원하는 직업 분야를 통해 제공받게 된다.

○ 목표/기대효과

연맹 파트너들은 차별 받는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전국적인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자 한다.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지자체, 기업과 노조, 연방 노동청은 이러한 지원에 기여해야 한다. 연맹 소속 단체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적합한 직업 교육 이니셔티브들을 통해 새로운 고용 분야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일자리 감소를 방지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 발효일자 : 1999년 7월 6일

○ 출처 : <http://www.bmbf.de/pub/buendnar.pdf>

미래 투자 프로그램

○ 내용

- 미래 지향적 예산 지출의 비중이 높아질 예정이다.
- UMTS 라이선스 양도를 통해 이자를 절감해 재정을 조달하고, 그와 관련된 채무 탕감을 유도한다.
- 태양열 발전소, 지열을 이용한 전기 생산, 해안 지역 풍력 에너지 활용, 바이오 매스 활용, 연료 전지 분야의 친환경 연구를 위한 총 3천만 유로의 예산이 배정 되었다.

○ 목표/기대효과

국가 예산 지출의 질적 개선 도모

○ 발효일자 : 2001년 ~ 2003년

○ 주별(州別) 실행

- 프라이베르크(Freiberg) / 작센(Sachsen) 주에서는 메탄올과 BTL 연료를 FT 합성 방법을 통한 소기술 생산을 위해 제 1차 1 메가와트 단위의 시험 시설이 완공될 수 있었다.
- 총 1억 3천만 마르크에 달하는 50 개 프로젝트에 관한 제안서가 제출되었다.

○ 출처

<http://www.bmvbs.de/cae/servlet/contentblob/44026/publicationFile/1136/matrixbericht-der-expertenarbeitsgruppe-der-bundesregierung.pdf>

구채무 청산 규정(Altschuldenhilfe) 개정법

○ 내용

해당 개정법은 주택 공동화 비율이 15%를 넘고, 경제적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는 주택 건설 업체들이 주택 철거 시 구채무를 추가로 탕감 받을 수 있는 개별 전제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목표/기대효과

- 주택 경기와 주택 시장의 안정화
- 연방 정부는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7억 마르크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 발효일자 : 2001년 1월 1일 발효

전독일 주거 보조비 개정법

○ 내용

- 주거 보조비 개혁을 통해 구동독 지역의 주거 보조비와 구서독 지역의 주거 보조비가 하나로 통합 된다.
- 신연방주 지역의 비교적 높은 주거 보조비 수준은 2000년 말로 기한이 정해진 과도기 규정 만료 후에도 주거 보조비 수령자들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된다. 동서독 주거 보조비 평준화를 보완하고 있는 것은 피해 보상 규정(Härteausgleichsregelung)이다.
- 뿐만 아니라, 신연방주 지역에는 추가적인 주거 보조비 수령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자녀를 둔 가족들이 보조비 수령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

○ 목표/기대효과

- 저소득층 가정은 주거 보조비 지원을 통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 사회 보조금 수령자를 위한 특별 임대 보조금(지금까지의 일괄 주거 보조비)과 일반 주거 보조비(지금까지의 소득 순위별 주거 보조비) 간의 균형이 부활되었다.

○ 발효일자 : 2001년 1월 1일 발효

사회적 이동성 지원(Mobilitätshilfen)

○ 내용

특히 구조가 취약한 지역의 실업 청소년들이 노동 시장의 상황이 더 나은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이동성 지원

○ 목표/기대효과

- 최소 실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그와 더불어 장기 실업의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은 새로운 일자리가 최소 100 킬로미터 혹은 출퇴근 시간이 (편도) 과거의 주거 지로부터 1 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대표적인 사회적 이동성 지원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취업 후 6 개월 내 이사 비용 부담, 취업 후 6 개월 내 매주 본가 방문 비용 부담, 보조금으로서의 사회적 이동성 수당 지급, 청소년들의 사회 교육학적 동반에 필요한 비용 부담
- 사회적 이동성 지원 보장을 위해 해당 지역의 노동청들은 법정 지원 가능성 및 기타 긴급 프로그램의 서비스들을 개인별 맞춤형 알선 지원을 통해 확대하기 위해 할당 받은 긴급 프로그램 자금의 최대 5%를 투입할 수 있다.
- 구동독 지역의 높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프로그램 자금의 40%가 우선적으로 신연방주에 할당되었다. 2000년 긴급 프로그램 예산 지출액은 8억 9백만 마르크(총 예산 지출의 43.5%)로 계획된 할당량을 초과하였다. 2001년부터는 신연방주 지역에 대한 지원 할당량이 50%로 확대되었다.

○ 발효일자 : 2001년 1월 1일 - 현재 지속 추진 중

노동청과 사회복지기관 간의 협력 개선을 위한 모델 계획 - MoZArT

○ 내용

노동청과 사회복지기관의 협력 개선

○ 목표/기대효과

MoZArT 프로그램의 목표는 노동청과 사회복지기관 간의 협력 개선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연방사회부조법(Bundessozialhilfegesetz)에 의거 실업수당과 생활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의 일자리 알선과 취업 활동으로의 편입을 용이케 하며, 행정절차를 시민의 편의에 입각해 단순화하는 것이다.

○ 발효일자 : 2001-2004

○ 주별(州別) 실행

- 메클렌부르크-포르폼머른 (Mecklenburg-Vorpommern) 주: 슈트랄준트 (Stralsund)
- 슈트랄준트 지역의 MoZArT 프로젝트 ALFA 팀은 노동청에 위치해 추가적인 사회 지원을 통해 초기부터 컨설팅, 취업 지원, 알선과 같은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는 노동청과 사회복지 사무소의 공동 서비스 센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 출처

http://www.bmfsfj.de/Publikationen/handlungskonzept/01-Redaktion/PDF-Anlagen/bma-mozart.de_property=pdf_bereich=handlungskonzept_rwb=true.pdf

<http://www.memo.uni-bremen.de/docs/mozart.pdf>

전염병예방법

○ 내용

통일 후 신연방주 지역에서는 연방 전염병 예방법이 명시하고 있는 전염 가능한 질병의 신고 체계가 지방 정부별 독립 규정을 통해 보완되었다.

○ 목표/기대효과

전염병 역학 조사에 필수적인 과거 동독 시절의 세부 조사 지속 추진

○ 발효일자 : 2001년 1월 1일 발효

수도 문화 지원에 관한 신 규정

○ 내용

- 연방 정부는 약 3,600만 마르크의 연방 예산을 투입해 유테인 박물관과 베를린 축제 극장, 세계문화의집, 마틴-그로피우스-바우 미술관을 단독으로 지원하고 있다.
- 베를린 주정부의 보조금 비중을 감안해 연방 정부는 프로이센 문화유산재단에 매년 (일차적으로 2004년 상반기까지) 4,400만 마르크를 지원해 전쟁 중에 심하게 훼손된 베를린의 심장부에 위치한 박물관 섬을 보수하기로 했다.
- 2,000만 마르크는 수도문화기금에 지원한다. 이를 통해 수도 베를린에 의미 있는, 국내외적인 명성을 드높일 혁신적인 프로그램들과 행사들이 지원될 예정이다. 기금 사용에 관한 결정권은 연방 정부 측의 대표진과 베를린 시의원, 큐레이터로 구성된 공동 위원회가 갖는다.
-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는 2001년부터 향후 10년 간 (수도 문화 계약을 통해 프로이센 문화유산 재단에 박물관 섬의 보수 공사에 배정한 예산을 제외하고) 매년 2,500만 마르크를 지원해, 2000년에 실시된 세제 개혁으로 부족해진 베를린의 세수를 충당할 계획이다.

○ 목표/기대효과

책임 영역을 명확히 구분

노후 자산 보충법

○ 내용

연금 평준화에 관한 신규정, 유가족 연금법 개혁, 여성들의 독립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정책

○ 목표/기대효과

- 연금 보험료 요율의 장기적인 (최소 향후 3년 간) 안정화
- 때문에 연금 보험료 상승률은 2020년까지 20%를, 2030년까지는 22%를 상회해서는 안 된다.
- 연금 보험 요율을 낮추고 안정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은 더 많은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노후 보장을 위한 부차적인 축을 건설하기 위한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더불어 이는 기업들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더 큰 재정적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노후 보장을 위해 추가적으로 적립된 자금 축의 건설로 인해 노후 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둥인 법정 연금 보험은 자율적인 추가 노후 보장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법정 연금의 부분적인 대체가 아닌, 법정 연금의 보완이다. 향후 연금 생활자가 될 세대의 생활수준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으며, 상승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후 보장은 앞으로 연대성의 특징을 지닌 국가 연금과 자발적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한 추가적인 노후 대비라는 두 가지 기둥을 통해 뒷받침 될 수 있다.

○ 발효일자 : 2002년 1월 1일 발효

주택 건설 개혁법

○ 내용

지원 정책을 주택 건물의 현대화와 개보수 작업 - 신연방주에 대한 집중 지원 - 및 2008년까지 기존 주택의 수리로 확대

○ 목표/기대효과

이를 통해 신연방주 지역의 주택 경제 구조 전환이 기대된다.

○ 발효일자 : 2002년 1월 1일 발효

연방경제·기술부(BMWi)

지역 경제 구조 개선(GRW)

○ 내용

- 공동 과제 “지역 경제 구조 개선”의 예산을 통해 제조업 투자와 지자체 경제 인프라 투자가 지원될 예정이다.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서비스 혹은 직원 교육 조치와 같은 비-투자 조치들은 좁고 명확히 정의된 틀 속에서 지원될 수 있다.
-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는 투자 조치들은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 목표/기대효과

- 지역 경제 구조 개선(GA) 지원 시스템의 우선적인 목표는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며, 180만 개의 일자리가 보호될 예정이다.

- 발효일자 :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지역 경제 구조 개선(GRW) 예산으로 408억 유로가 배정되었다.

○ 주별(州別) 실행

- 지역 경제 구조 개선(GRW) 예산(EFRE 포함)의 90%는 신연방주 지역에 할당되었다. 이렇게 할당된 90%의 예산 중 27%가 작센 주에, 20%가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주에, 19%가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주에, 15%가 튀링엔 주에, 12%가 메클렌부르크-포르폼머른 주에, 7%가 베를린 시에 할당되었다.
- 작센 안할트 주는 새로운 장기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존 장기 일자리를 보호하게 될 제조업 경제의 투자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 가능한 투자는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작업장 설립, 혹은 기존 작업장 확장

- 작업장의 제품을 신제품 및 추가 제품으로 다양화, 기존 작업장의 총 생산 과정의 근본적인 변화
- 폐업한 혹은 폐업의 위기에 처한 작업장을 시장 조건 하에 인수
- 신청 자격이 있는 기업들은 작센-안할트 주에 위치한 제조업 기업이다.
- 특정 업계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1차 효과의 충족이다. 1차 효과의 충족이란 추가적인 수입 출처를 확보할 경우, 각 경제 지역의 총 수입이 직접적이며 장기적으로 상승되는 것을 뜻한다.
- 뿐만 아니라 공동 과제 “지역 경제 구조 개선”에 관한 유효한 계획의 전제조건이 적용된다.
- 지원은 물적 비용 혹은 인적 비용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이루어진다.
- 물적 비용과 관련된 지원:
 - 소기업의 작업장은 지급 가능한 예산의 최대 50%, 중소기업의 작업장은 지급 가능 예산액의 최대 40%, 기타 작업장들은 지급 가능한 예산의 최대 30%를 지원받게 된다.
 - 특정 전제조건(직업 교육 일자리 창출, 여성들을 위한 장기 일자리 제공, 본사 직원들이 수행하는 연구 개발 성과, 환경 보호 조치)이 결합될 경우, 종업원 10명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원율은 5% 삭감될 수 있다.
 - 지원 사례당 최대 지원 보조금은 4천만 유로이다.
- 인건비 관련 지원: 임금 계약서상 최소 2만 5천 유로의 봉급 총액을 보장받은 일자리만이 지원된다. 최대 5만 유로까지의 봉급 총액이 지원될 수 있다.
- 지원율은 최대 25%이다.

○ 출처

<http://www.bmwi.de/BMWi/Navigation/Wirtschaft/Wirtschaftspolitik/Regionalpolitik/gemeinschaftsaufgabe.html>

http://www.bafa.de/bafa/de/wirtschaftsfoerderung/ga_statistik/statistik/ga_tab_bundesland.pdf

http://www.foerderdatenbank.de/Foerder-DB/Navigation/Foerder_recherche/suche.html?doc=8070&get=6f30e7ddc4905846ffb429291a9bd4e7;views;document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창업(EXIST)

○ 내용

독일 대학과 연구기관의 창업 문화 발전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 창업 동기와 능력 개발, 창업 아이디어 및 코칭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연구자 중심의 창업자들을 집중 지원한다. EXIST-창업 장학금을 통해 구체적인 창업 계획을 지원하고,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창업 분야의 경우에는 EXIST 연구 노하우 전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 목표/기대효과

대학 구조와 방식은 경영자적인 독립성을 위한 동기와 능력 개발, 전도유망한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창업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체계적인 경제적 활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발효일자 : 1998 EXIST아이디어 콘테스트

2000 EXIST-SEED

2002 EXIST-Transfer (EXIST III)

2002 EXIST Partner

2006 EXIST III

○ 주별(州別) 실행

작센 주: Dresden exists - 드레스덴 공대와 드레스덴 지역 파트너들의 목표는 “창업 대학”으로의 장기적인 발전과 두터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Dresden exists는 잠재적인 기업 창업자들과 기업 후계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 개발을 돕고, 관리하고 있다.

○ 출처

<http://www.exist.de/>

<http://www.exist.de/exist/netzwerke/netzwerke1998/00026/>

전 독일 지원 프로그램 “PRO INNO”, “INNO Net”

○ 내용

- PRO INNO는 “중소기업 혁신 (INNO) 역량 프로그램 (PRO)”의 약어이다.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중소기업(KMU)의 혁신력을 개선시켜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과 고용 능력이 증진되어야 한다. 해당 사업에 할당된 예산은 2억 5천만 마르크이며, 이 중 40%가 신연방주 지역에 할당되었다.
- InnoNet 프로그램은 아이디어 콘테스트로 계획되었다. 마감일 전까지 관련 계획에 관한 아이디어 초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 목표/기대효과

- 기술 분야의 제약 없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시장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동시에 기업과 국내외 연구기관 간의 연구 개발(R&D) 협력을 통해 지원 기업들의 협력 경험이 확대되어야 한다.

○ 발효일자 :

- PRO INNO 프로그램은 2003년 만료되었으며, 2004년 PRO INNO II로 명칭이 변경되어 새로운 지원 원칙을 통해 지속 추진되었다.
- InnoNet 프로그램은 1999년 제 1차 콘테스트를 통해 출범하였으며, 2008년까지 운영되었다.

○ 주별(州別) 실행

- 1999년부터 Pro Inno의 일환으로 4,800 개 이상의 기업과 500 여 개의 연구 개발 기관이 참여하는 7천 여 개의 연구 프로젝트들이 승인되었다. 이 중 60%가 신연방주 지역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이다. 협력의 12%는 해외 파트너들과 진행되었다.
- 사례:
 - 표면 조정 당알코올(oberflaechenmodifizierter Zuckeralkohole) 및 생산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 스프레이 건조 프로세스 개발

- 지원금: 세부 프로젝트 - 87,780 유로 (총 177,780 유로)

○ 출처

<http://idw-online.de/pages/de/news84145>

<http://www1.bwp.hs-anhalt.de/wwwkleinsch/html/abgeschlossen.html>

[http://www.forschungskoop.de/60_pdf/pi-](http://www.forschungskoop.de/60_pdf/pi-sonstiges/Expertise0108_PROINNO_2003_120908.pdf)

[sonstiges/Expertise0108_PROINNO_2003_120908.pdf](http://www.forschungskoop.de/60_pdf/pi-sonstiges/Expertise0108_PROINNO_2003_120908.pdf)

참여 유형에 관한 ERP-혁신 프로그램(재건은행) 보완책

○ 내용

본 보완책을 통해 은행 대출 대신,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이 도입되었다.

○ 목표/기대효과

창업 지원

○ 발효일자 : 1999년 1월 1일 발효

FUTURE 2000(신연방주 지역의 기술 집약 기업 창업 지원 사업)

○ 내용

FUTURE 2000은 FUTURE (실행 기간 1997~1999)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경제부는 신연방주 지역의 창업 역동성에 기여하고 있다.

○ 목표/기대효과

기술 집약적 기업 창업 지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연방경제부는 3,500 개의 수준 높고, 미래를 보장하는 일자리가 6년 내에 창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발효일자 : 실행 기간: 2000~2003. 2002년에는 약 2천만 유로가 지원되었다.

○ 주별(州別) 실행

- 작센 주: 드레스덴 Coreta GmbH – 전자 key-lock system 개발.
- 베를린 시: Move & Traffics Constrols – Secu Scan: 유동 교통 시의 자동차 하부 자동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차량 하부 – 관리 시스템

○ 출처

http://www.innovations-report.de/html/berichte/preise_foerderungen/bericht62662.html
<http://www.bmbf.de/pub/Bufo2000.pdf>

EXIST SEED

○ 내용

대학의 창업자들을 1년 간 지원해, 창업자들의 아이디어가 사업 계획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 목표/기대효과

EXIST 모델 지역의 학생, 졸업생, 학자들은 EXIST-SEED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년간 생활비를 지원 받으며, 대학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 계획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코칭 및 창업 준비를 위한 일괄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발효일자 :

- 2000년부터 실행 중. 2006년 5월까지 총 363개의 창업 계획이 지원되고 있으며, 총 1,800만 유로의 지원금이 투입되었다. 연구 계획 중 1/3이 신연방주 지역에 할당되었다. 2006년에는 계획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 독일 전역 대학으로의 프로그램 확대는 2005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 출처

http://www.exist.de/exist/1998_2006/index.php

시장화 지원 프로그램

○ 내용

- 본 프로그램은 신 시장 개척을 위해 힘쓰는 신연방주와 베를린 지역의 중소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2001년에는 24개 주의 40 여 개 프로젝트들이 실행되었다.

○ 목표/기대효과

-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신연방주와 베를린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을 강화하고, 이들의 상품 판매와 해외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 본 지원 정책은 주별 맞춤형 시장 개척 컨설팅 제공과 더불어 잠재적인 해외 사업 및 협력 파트너를 알선하고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발효일자 : 2001~현재

○ 주별(州別) 실행

- 각각의 목표 국가에 대한 경제 및 법적 제반조건 및 수출 재정 조달, 목표 시장의 일반적인 공급 및 지급 조건에 관한 국내 정보 행사 개최
 - 기업을 위한 목표 국가 별 시장 분석(업계의 현 상황, 발전 경향, 경쟁 상황)
 - 목표 국가에 초점을 맞춘 기업 대상 수출 상담(판매 경로 정의, 목표 시장 내 적합한 사업 파트너 선정, 마케팅 및 수출 전략에 대한 제안, 제품 브로셔 및 기업 프로필을 목표 국가 언어로 제작하는 데 필요한 지원)
- 목표 국가 내 잠재 사업 파트너 최소 세 개 이상 발굴 및 확보
- 통역 서비스를 포함한 목표 국가 내 기업인 회동 조직
- 특수한 지급, 공급, 서비스 조건 및 지급 능력 정보에 대한 설명과 같은 사후 관리
- 시장 진출 지원 프로젝트의 실행 기간은 구속력 있는 참가 선언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이다.
- 시장 진출 지원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참가비는 현재 750 유로이다.
- 중국: 본 프로젝트의 목표 지역으로는 산둥(Shandong) 지역이 선정되었다. 산둥은 중국에서 가장 경제가 발전한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독일과 우호관계를 맺었던 산둥

반도에 위치해 있다.

- 산둥 지역에는 이미 양국 간 정재계의 밀접한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환경 기술과 수자원, 건축 부문의 사업 파트너 수요가 높다.
- 본 프로그램에 포함된 대표적인 내용은 기업 맞춤형 컨설팅(시장 분석), 개별 사전·사후 준비 및 중국으로의 출장 등이다.
- 칠레와 페루: 양국의 가장 중요한 투자처는 광산업과 에너지, 노동 안전 부문이다. 특히 안전 기술 부문은 민간과 공공 분야 모두에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준 높은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 출처

<http://www.bmwi.de/BMWi/Navigation/Aussenwirtschaft/Aussenwirtschaftsfoerderung/Instrumente-der-Aussenwirtschaftsfoerderung/vermarktungshilfeprogramm-uebersicht,did=319030.html>

<http://www.neubrandenburg.ihk.de/ihk/index.php?id=578>

네트워크 관리 - Ost(NEMO)

○ 내용

전문적인 기술 영업 경영 서비스 지원을 통한 구동독 지역의 중소기업과 경제 부문의 연구 기관 간 지역적 네트워크 구축

○ 목표/기대효과

- 역량 및 자본 부족에 시달리는 신생 중소기업들은 외부 네트워크 관리자의 업무를 통해 다른 기업 및 연구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고, 좀 더 확대된 기술 역량과 넓은 기술 기반을 통해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제 역량을 시장 네트워크에서의 공동 활동을 통해 확대; 일자리 보호 및 창출, 매출 및 수출 확대

○ 발효일자

- 정책 실행 기간: 2002년 2월 27일 ~ 2008년 6월 30일, 독일 전역으로의 정책 확대, 기타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함께 중앙 중소기업 혁신 프로그램 (ZIM)으로 통합 - 2008년 7월 1일부

○ 주별(州別) 실행

- 작센 주: - 사단법인 Dünne Schichten 유럽 연구 협회, 드레스덴 - 마이크로 기술 공정 및 그 부품을 위한 시설 공사 . - 네트워크 INNOGAS: 바이오 가스 처리 - 핵심 기술 개발사는 비텐베르크 (Wittenberg)에 위치한 DEG DR. Günter Engineering GmbH로 라이프치히 튀링엔 대학의 사단법인 비전통 화학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로 개발되었다: 사단법인 VTI 튀링엔 환경 에너지 프로세스 기술 연구소, 자알펠트 (Saalfeld) - 튀링엔 지역의 고성능 세라믹

○ 출처

http://www.forschungskoop.de/20_nemo/20_start.htm

http://www.forschungskoop.de/20_nemo/20_sieger-01.htm

http://www.forschungskoop.de/60_pdf/nemo/002N_innogas.pdf

http://www.forschungskoop.de/60_pdf/nemo/Expertise0109_NEMO_2004_2007_300309.pdf

<p>낙후 지역 성장 동력에 대한 연구 개발 지원 - INNO WAT T</p>

○ 내용

신연방주 지역의 제조업 중소기업과 외부 산업연구기관의 위험 부담이 높지만 시장 중심적인 우수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

○ 목표/기대효과

성장 동력에 대한 집중 강화. 신연방주 경쟁력 강화. 혁신력 강화를 통한 신연방주 지역의 경제적 만회 과정을 장기적으로 고무, 중소기업과 외부 산업 연구 기관의 경쟁력 강화. 연구 개발 결과를 지속적으로 마케팅하는 과정을 거쳐 해당 지역의 성장 동력으

로 만드는 것이 목표

- 발효일자 : 정책 실행 기간: 2004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 주별(州別) 실행
 - 튀링엔 주: 사단법인 INNOVENT 예나 지원 프로젝트: 기능하는 마그네슘 표면 생산; Marea - 자기 표면 위치 시스템
 - 작센-안할트 주: ifu - 환경 감시 민간 연구소 GmbH - 프로젝트: 문제 평면 유리를 위한 활용 프로세스 개발
- 출처
 - <http://www.inno-watt.de/>
 - <http://2005.innovationskatalog.net/unternehmen,141.html>
 - <http://2005.innovationskatalog.net/unternehmen,97.html>

ERP/EIF 모태 자금

- 내용

연방 정부와 유럽 투자 기금(EIF)의 공동 이니셔티브인 ERP/EIF 모태 기금은 독일의 벤처 기금 조달을 위해 마련되었다.
- 목표/기대효과
 - 기술 집약적 신생 기업을 위한 자본 공급 확대
 - 기술 이전에 초점을 맞춘 조기-기금: 주요 공공/민간 연구소에 대한 접근 및 협력을 확보한 기금.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초기 투자이다. 초기 및 성장기 (기업 확대, 개발 단계)의 기술 기업을 위한 연결 자금 제공. 이러한 경우 초점이 맞춰지는 요소는 전형적인 추가 자금 조달이다.
- 발효일자
 - 2004년 2월 16일 발효. ERP/EIG 관련 총 투자금은 5년간 5억 유로에 달했다. 이중 2

억 5천만 유로는 ERP 특별 자산이, 나머지 2억 5천만 유로는 EIF를 통해 충당되었다.

○ 출처

1. <http://www.bmwi.de/BMWi/Navigation/Technologie-und-Innovation/technologiepolitik,did=255800.html>
2. <http://www.foerderdatenbank.de/Foerder-DB/Navigation/Foerderrecherche/suche.html?get=views;document&doc=8933>

PRO-INNO II

○ 내용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업과 연구 기관 간의 연구 개발 협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연구 결과를 중소기업을 통해 신속히 상품화

○ 목표/기대효과

- 새로운 기술 지식을 중소기업에서의 제품 개발을 위해 이전하고, 미래 기술을 적용
- 특정 기술에 구애받지 않고 혁신적인 제품과 프로세스, 기술 서비스를 개발. 기술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고, 중소기업을 위해 연구 개발 및 기술 이전 비용을 낮춤.
- 높은 수준의 시장 중심적 연구 개발 협력; 협력 경험 강화. 일자리 창출 및 확보를 위한 기여. 혁신 경영 및 협력 경영 개선

○ 발효일자

정책 실행 기간: 2004년 8월 1일 ~ 2008년 6월 30일, 기타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함께 중앙 중소기업 혁신 프로그램 (ZIM)으로 통합 - 2008년 7월 1일 부

○ 주별(州別) 실행

-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주: 화학제품 및 마이크로 구조화 ALLRESIST GmbH, 슈트라우스베르크 / 사단법인 박막기술 및 미아크로 센서 (IDM), Teltow - 실리콘 및 실리콘 산화물의 습식식각 공정을 위한 신 프로토 저항 시스템. 실행 기간: 2006년 7월 ~ 2008년 8월)

- 튀링엔 주: Steps IBS 엔지니어링 사무소, 예나 - 초경량 항공기를 위한 파일럿 어시스턴트-센서-시스템 (실행 기간: 2006년 8월 ~2008년 6월)

○ 출처

http://www.forschungskoop.de/10_proinno/10_start.htm

[http://www.thueringen-innovativ.de/Stift/resources.nsf/\(\\$UNID\)/4A11364B88BDE8EBC125718C002B2400/\\$file/AIF_20060607.pdf](http://www.thueringen-innovativ.de/Stift/resources.nsf/($UNID)/4A11364B88BDE8EBC125718C002B2400/$file/AIF_20060607.pdf)

http://www.forschungskoop.de/60_pdf/pibeispiele/pro_inno_243.pdf

http://www.forschungskoop.de/60_pdf/pibeispiele/pro_inno_244.pdf

기업인 자본: 성장을 위한 ERP-자본

○ 내용

- 창업 기간이 2~5년 사이인 신생 기업의 존속 강화
- 장기적인 생산력을 지닌 제조 분야 혹은 프리랜서와 같은 독립적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창업 및 투자 계획을 지원
- 후순위 대출의 자기 자본과 유사한 성격을 통해 신생 기업의 자기 자본 기반이 강화되고, 외부 자본 유입을 용이케 함.

○ 목표/기대효과

후순위 대출을 통한 중소 산업 분야의 창업 및 고착화 계획 지원

○ 발효일자 : 2004년 3월 1일

○ 출처

http://www.kfwmittelstandsbank.de/DE_Home/Dokumente/Merkblaetter/Unternehmerkaptal.jsp

기업인 자본: 창업을 위한 ERP-자본

○ 내용

기업 혹은 프리랜서 사업을 창업하고자 하거나, 사업 착수 후 2년 내에 고착화 조치를 수행한 자연인(naturliche personen) 지원

○ 목표/기대효과

본 프로그램은 후순위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의 창업 및 고착화 계획 지원에 이바지하고 있다. 대출 담보 조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본 기능이 충족된다.

○ 발효일자 : 2004년 3월 1일

○ 출처

1. <http://www.foerderdatenbank.de/jump/?8863>
2. http://www.kfw-mittelstandsbank.de/DE_Home/Dokumente/Merkblaetter/Unternehmerkapital.jsp

ERP-창업 기금

○ 내용

민간 투자와 동일한 경제 조건으로 신생 기술 기업에 자본 투자 참여. 지분 참여 자본 투자자(일명 Leadinvestor)를 통한 이니셔티브 발족. 재건은행이 프로그램을 관리. 기업 당 최대 300만 유로를 초기 자본으로 지원

○ 목표/기대효과

신생 기술 기업을 위한 지분 투자 자금 마련. 신연방주 지역의 수요가 특히 높은 상황

○ 발효일자

ERP-창업 기금은 2004년 11월 1일자로 시작된 “중소 기술기업을 위한 지분 투자(BTU)” 프로그램의 후속 정책이다.

○ 출처

http://www.kfw-mittelstandsbank.de/DE_Home/Beteiligungsfinanzierung/ERP-Startfonds/index.jsp

독일의 직업교육과 차세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 협약(2004~2010)

○ 내용

- 재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평균 6만 개의 직업교육 일자리와 4만 개의 새로운 직업교육 영업장을 마련하고, 매년 사업장이 운영하는 4만 개의 입사훈련과정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구속력 있는 목표를 수립
- 연방정부는 사업장이 운영하는 4만 개의 입사훈련과정 일자리 지원을 약속
- 연방노동청은 계속해서 직업교육 지원 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졸업생들에 대한 직업 선택 안내 제도와 직업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목표/기대효과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잠재력을 발굴해 직업교육 일자리 확대

○ 발효일자

- 2004년부터 실행 중. 협약조정위원회는 2007년 3월 5일 2010년까지 직업교육조약을 연장하고 지속 개발할 것을 결정했다.
- 연방자유직협회(BFB)가 협약 파트너로 새로이 가입했다.
- 승인 내용은 2007년까지 유지되며 이후에도 연장 운영될 예정이다. (새로이 창출된 직업교육 일자리와 직업교육 영업장 각 88,900, 53,600개, 사업장이 운영하는 입사훈련과정 일자리 43,250 개)

○ 출처

<http://www.bmwi.de/BMWi/Redaktion/PDF/M-O/nationaler-pakt-fuer-ausbildung-und-fachkraeftenachwuchs-in-deutschland-2007->

2010_property=pdf,bereich=bmwi,sprache=de,rwb=true.pdf

신연방주와 베를린 지역의 중소기업 혁신 경영 지원

- 내용
외주 관리 및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신연방주 및 베를린 지역의 제조업-수공업 중소기업의 생산 및 공정 부문의 경영 혁신을 지원
- 목표/기대효과
신연방주 지역의 중소기업 혁신 잠재성을 발굴하고 혁신력 강화를 도모
- 발효일자 : 2005년 5월 1일 시작, 2010년 4월 30일 만료
- 출처
http://www.inno-beratung.de/foepro/im/dokumente/im_richtlinie.pdf

하이테크 창업자 기금

- 내용
하이테크 창업자 기금은 기술 중심 기업에 필요한 창업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에 더해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이테크 창업자 기금은 혁신을 위한 파트너로 등록된 연방 정부와 산업 기업 BASF, 도이체 텔레콤, 지멘스, 재건은행, 중소기업 은행의 공동 이니셔티브로, 본 프로그램은 창업 기업과 연구 기관을 위한 제정 조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목표/기대효과
독일 창업 재정 조달 시장의 장기적인 부활. 자금 조달 사정이 특히 악화된 곳은 신연방주 지역이다.

○ 발효일자

하이테크 창업자 기금은 2005년 8월부터 실행 중이다. 본 혁신 기금은 5~7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 출처

<http://www.high-tech-gruenderfonds.de/>
<http://www.existenzgruender.de/selbstaendigkeit/finanzierung/foerderprogramme/02783/index.php>

낙후 지역의 산업 사전 연구 지원

○ 내용

신연방주 지역의 공공 외부 산업연구기관의 우수한 사전연구 계획 지원

○ 목표/기대효과

공공 외부 산업연구기관의 핵심 역량을 강화해 신연방주 지역의 산업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지원

○ 발효일자 : 2006년 8월 15일 ~ 2008년 12월 31일

○ 출처

<http://www.inno-watt.de/foepro/vf/index.php?navanchor=1710032>
<http://www.viunet.de/news/texte/flyer.pdf>

창업자를 위한 컨설팅 지원

○ 내용

-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의 방향을 새로이 설정하고 통합함. 창업 준비 기간 동안의 컨설팅 지원은 주정부의 책임 사안이며, 연방정부는 개업 후의 컨설팅만

을 지원. 연방 프로그램에는 다음의 주요 내용이 포함: 지역 컨설팅 센터를 통한 서비스 제공. 창업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정의. 지방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과 조건의 조정이 가능

- 효과가 입증된 창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 지원과 교육 행사 지원, 기존 기업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

○ 목표/기대효과

창업 부문의 투명성, 통일성, 효율성 확보

○ 발효일자 : 연방 프로그램 “독일 창업자 코칭”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실행 중

○ 출처

<http://www.existenzgruender.de/selbstaendigkeit/entscheidung/beratung/coaching/index.php>

연방법무부(BMJ)

통일의 형법적 측면

- 내용
형법 입법의 통일화
- 목표/기대효과
구연방주 혹은 신연방주 지역에서만 적용 가능했던 형법 규정들을 철폐
- 발효일자 : 1998년 4월 1일 발효

사회 법전 제2절

- 내용
후속 법안으로서의 여성 지원을 위한 독립 규정의 법적 정립
- 발효일자 : 1992년 1월 1일 발효

친권 보좌권

- 내용
구연방주에서 통용된 법정 후견인 법을 철폐하고, 이를 대신해 친권 관계의 의무 영역에 관한 자율적인 친권 보좌와 부양 청구권의 시행을 도입하였다.
- 목표/기대효과
구연방주와 신연방주 지역의 통일되지 못한 법률적 상황을 해결
- 발효일자 : 1998년 7월 1일 발효

SED-불법행위 피해자 복권법

- 내용
과거 동독의 정치 탄압 희생자들을 위한 복권규정의 개선을 위한 제 2차 법
- 목표/기대효과
정치 탄압 희생자들을 위해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4억 마르크의 예산을 마련
- 발효일자 : 2000년 1월 1일 발효

지급 기한이 만료된 지불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법

- 내용
유동성 부족을 막기 위해 추심자의 지급 행태를 규정
- 목표/기대효과
해당 기업의 법률적 상황을 개선
- 발효일자 : 2000년 4월 발효

임대 해약에 관한 고지

- 내용
신연방주 지역의 임대 해약 금지 철폐
- 목표/기대효과
구연방주와 신연방주 지역의 임대법 통일화
- 발효일자 : 2004년 5월 1일 발효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BMVBS)

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트(VDE)

- 내용
신연방주와 구연방주의 교통 연결을 복구하고 신연방주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
- 목표/기대효과
394억 유로 규모의 본 투자 프로그램은 9개 철로와 7개 고속도로, 1개의 수로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 발효일자
연방정부는 1991년 4월 9일 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트(VDE)와 그에 관한 긴급 시행을 결정했다.
- 주별(州別) 실행
계획된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이미 완료되었다.
- 출처
<http://www.bmvbs.de/cae/servlet/contentblob/29456/publicationFile/28206/sachstandsbericht-verkehrsprojekte-deutsche-einheit-stand-august-2010.pdf>

연방 교통 인프라 프로그램

- 내용
61억 마르크 규모의 투자금이 투입된 선별된 프로젝트들의 확대. 61억 마르크의 투자금 중 30억 마르크가 EU 구조 기금(지역 개발을 위한 유럽 연합 기금, 이하 EFRE)을

통해 공동 지원되었다.

○ 목표/기대효과

- 연방 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연방주의 경제 구조 개선에 근본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연방주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대는 향후 몇 년 간 전체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 경제력과 생활 조건 개선을 위한 지역 경제 공간 개발

○ 발효일자 : 1999- 지속 운영 중

○ 주별(州別) 실행

- 승인된 대규모 프로젝트:
 - 베를린-프랑크푸르트/독일-폴란드 오더 국경 간 철도 노선 확장 → 프로젝트 제 2기 및 3기에 1억 6,800만 유로 투입, 이 중 1억 3백만 유로가 EFRE를 통해 조달됨
 - A 113, B 96, B 96a 신설 및 확장 → 1억 4,900만 유로 투입, 이 중 8,700만 유로가 EFRE를 통해 조달됨.
 - 드레스덴 (B 173)에서부터 독일 연방 /체코 공화국 국경에 이르는 연방 고속도로 A 17 → 5억 1,200만 유로 투입, 이 중 2억 7,800만 유로가 EFRE를 통해 조달됨.
 - 베르니게로데 (Wernigerode) - 베른부르크 (Bernburg) 연방 도로 신설 → 3억 2,800만 유로 투입, 이 중 2억 유로가 EFRE를 통해 조달됨.

○ 출처

<http://www.bmvbs.de/SharedDocs/DE/Artikel/UI/operationelles-programm-op-verkehrsi-nfr-astruktur-efre-deutschland-ziel-1-2000-2006.html?nn=36000>

지원 프로그램: “복지 도시”

○ 내용

위험에 처한 도시 구역에 대해 청년 실업 증가와 외국인 비율 증가, 낙후된 공공시설, 부분적인 건축물 공동화로 인해 발생된 지역의 사회, 경제, 도시 건축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목표/기대효과

도시 건축적 개보수 작업은 신연방주 지역의 도시와 읍, 면을 경제 입지로 급상시킬 수 있다.

○ 발효일자 : 1999- 지속 운영 중

○ 주별(州別) 실행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 슈베린 (Schwerin), 노이 치펜도르프 (Neu Zippendorf) / 무에쎄 홀츠 (Mueßer Holz)
- 사단법인 만남의 집(Haus der Begegnung e.V.) 외부 시설 조성
 - 만남의 집은 도시 구역의 중요한 만남의 장소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만남의 집의 외부 시설은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해 조성되어야 하며, 공원 벤치와 쓰레기통, 나무, 경사면 보호시설 및 식물 등을 갖춰 주변 지역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조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러한 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일자리 창출 조치 인력 (ABM-Kräfte)가 투입되었다.
- 실행된 건축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만남의 집 용지 내 방문객 주차장 -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안뜰 조성, 장애인 경사로 설치 (8각형 자가 주차장 포함)
 - 보육시설 및 생활 지원 여가 지역 뒤편의 외부시설 녹지화
- 외부 시설 조성을 위한 재정은 “복지 도시” 프로그램과 연방 노동청(일자리 창출 조치 (ABM)), 복지 협회, “캠페인 사람”의 예산 그리고 기부금 등을 통해 충당되었다.

○ 출처

http://www.rgs-rostock.de/index.php?flash=0&PHPSESSID=cd2086bdea70e85d144bccfbf742452f&strg=9_48_273&baseID=689&view=&screen=1366x768&session=active&referer=

<http://www.sozialestadt.de/programm/>

<http://www.sozialestadt.de/praxisdatenbank/suche/ausgabe.php?id=44&Beispielübersicht:>

<http://www.sozialestadt.de/links/?catid=377>

주택 산업 구조 전환(위원회)

○ 내용

연방 교통·건설·주택 장관과 신연방주 특임관은 2000년 2월 주택 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하나로 모으고자 “주택 산업 구조 전환”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 목표/기대효과

피할 수 없는 주택 철거의 장기적인 공급 과잉에 관한 규모와 구조 정리; 주택 산업 및 도시 건축 문제에 대응하고, 도시에 긍정적 발전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계획과 수단 개발

○ 발효일자 : 2000년 2월 설립

○ 출처

<http://www.bmvbs.de/cae/servlet/contentblob/45130/publicationFile/11524/kommis-sionsbericht-wohnungswirtschaft-licher-strukturwandel-in-den-neuen-bundeslaendern.pdf>

EFRE 연방 프로그램

○ 내용

빈곤 지역의 경제적 따라 잡기 과정을 지원하는 구조 기금

○ 목표/기대효과

개별 지역 간 불평등 해소를 통해 유럽 연합 내 경제 사회적 응집력 강화. 본 기금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상호 접근” (제 1 목표)이다. 그 밖에 “지역적 경쟁력과 고용” (제

2 목표)과 “유럽의 영토적 협력” (제 3 목표)이 그 뒤를 잇는다.

○ 발효일자

목표 “상호 접근” (지원 기간 2007~2013) 및 “제 1 목표” (지원 기간 2000~2006)는 주민 1인당 명목 GDP가 유럽 평균의 75% 이하인 지역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역은 특히 유럽 연합에 신규 가입한 국가들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주민 1인당 명목 GDP가 유럽 15 개 국가 (2004년 유럽 연합의 동유럽 확장 이전까지의 유럽 연합 가입국 수) 평균의 75% 이하인 지역 역시 2013년까지의 과도기 기간 동안 상호 접근 목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출처

http://www.bmvbs.de/DE/VerkehrUndMobilitaet/Verkehrspolitik/Programme/EFREP/programmVerkehrsinfrastruktur/efre-programmverkehrsinfrastruktur_node.html

공동 이니셔티브 Interreg

○ 내용

공동 이니셔티브 Interreg의 일환으로 6억 유로(국가 공동 재정 지원 포함)가 교통 환경 사업 및 독-폴, 독-체 지역의 경제 협력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 목표/기대효과 : 국경 지역의 구조 지원

○ 발효일자 : 2002년 2억 4,100 유로

○ 출처 : <http://www.interreg.de>

미래 프로그램 “이동성”

○ 내용

2003년 연방 교통 계획의 일부. 교통 인프라의 현대화

○ 목표/기대효과

- 구동독 지역 재건, 구서독 지역 재건
- 철로와 도로의 동등화
- 확장되는 유럽의 교통 구조 확충
- 신연방주 지역의 우수한 교통로
- 지역 외곽 순환도로 건설 확충
- 네트워크화를 통한 통합 교통 시스템 구축(연결 교통, 내항 확충, 독일 내 항구 확충)
- 고속 도로, 철로, 수로 정체 해결(안티-정체-프로그램)

○ 발효일자 : 2002년 3월 6일 결정 사안

○ 출처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chiv16/Artikel/2005/11/2005-11-21-bundesverkehrswegplan-sichert-mobilitaet.html>
<http://dipbt.bundestag.de/doc/btd/15/020/1502050.pdf>

구동독 지역의 도시 재개발

○ 내용

본 프로그램은 도심 확충 및 주거 공간의 공급 과잉 상태 축소,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도시의 평가 절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목표/기대효과

주거 공간의 공급 과잉 상태 축소, 도시의 매력 강화. 지자체와 주택 산업은 도시의 평가 절상과 빈 주택 및 장기간 불필요한 주택 건물의 철거 시 지원을 받게 된다.

○ 발효일자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25억 유로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 주별(州別) 실행

빈 주택 철거의 경우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각각 50% 씩 비용을 지원하는 데 반해, 평가 절상 조치의 경우 연방 정부가 1/3, 지방 정부가 1/3, 지자체가 예산의 1/3을 부담하게 된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342개 지자체가 (베를린 포함) 구동독 지역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 출처

<http://www.stadtumbau-ost.info/>

**구동독 지역 도시 재개발을 위한 연방 이전 센터
(Bundestransferstelle) 설립**

○ 내용

구동독 지역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을 위한 지원

○ 목표/기대효과

도시 재개발에 관한 경험 교환,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 저장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발효일자 : 2004년 1월

○ 출처 : <http://www.stadtumbau-ost.info/>

도시 건축 지원

○ 내용

- 신연방주 지역의 도시 개발 통합 모델

- 프로그램 구성 요소:
 - 복지 도시
 - 구동독 지역 도시 재개발
 - 구서독 지역 도시 재개발
 - 적극적인 도시 및 지역 구역 센터
 - 도시 건축물과 관련된 문화재 보호
 - 소규모 도시 및 읍, 면
 - 도시 건축물의 개보수 및 개발 조치
 - 투자 조약

혁신 경쟁 “기업, 대학을 만나다”

○ 내용

제품과 제조 공정, 서비스의 개발과 사용을 위한 기업과 대학의 잠재 파트너들 간의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길을 열고 그 길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이전 개선에 관한 효과적인 노력들을 지원. 개별 협력 계획이나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통해 새로운 조직 및 소통 형태의 정착을 지원. 지원 대상으로는 대학과 대학 연구소 및 공공 연구 기관과 전문대학 등이 있음(협력 계획의 일환).

○ 목표/기대효과

혁신 경쟁의 목표는 신연방주 지역 대학을 혁신 프로세스의 지역 허브로 만드는 것이다. 기대 효과로는 경제적 활용과 제품화를 위한 기술이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들 수 있다.

○ 발효일자

혁신 경쟁 프로그램 시작: 2007년 1월, 제 1차 경쟁 결과 발표 예정, 제 2차 경쟁 프로그램 시작은 2007년 여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실행기간은 최장 2010년까지

○ 주별(州別) 실행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 “Move2Health” 프로젝트. “Move2Health” 프로젝트의 목표는 학문과 우수한 의료의 부가가치 창출 잠재성을 건강 산업 및 의료 기술 분야를 위해 그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협력 및 기술 이전 모델과 장비를 개발하고, 공공 기관인 대학과 대학 병원에서의 이러한 활동을 경제적으로 더욱 강화해 이용하는 것이다.

○ 출처

<http://www.fz-juelich.de/ptj/wirtschaft-trifft-wissenschaft/>

<http://www.foerderinfo.bund.de/de/1867.php>

http://www.sciencenet-mv.de/index.php/kb_1962/io_1673/lo.html

마스터플랜 화물 운송과 물류

○ 내용

국가와 산업, 구동독 지역을 생산 및 물류 입지로 삼고 있는 운송 업체 간의 공동 계획

○ 목표/기대효과

본 마스터플랜에는 35개의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문제점과 형태, 책임소관, 비용, 효과에 따라 상세히 기술되었으며, 시기별로 구분되어 있다. 그 중 6개 목표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교통로의 최적 이용 - 교통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
- 교통량 축소 - 이동성 확보
- 철도와 내수로 교통량 확대
- 교통 축 및 교차로 확대 강화
- 환경 친화적이며, 소음이 적은 안전한 교통
- 교통업 업무 및 직업 교육 개선

○ 발효일자 : 2008년 7월 통과

○ 출처

http://www.bmu.de/verkehr/gueterverkehr/masterplan_gueterverkehr/39421

http://www.izu.bayern.de/aktuelles/detail_aktuelles.php?pid=0113030100987

투자 요약

○ 내용

투자 조약은 2008년 초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지자체 간에 합의되었다. 세 기관은 올 해 2억 유로 씩 총 6억 유로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투자 조약은 CO2 건물 개보수 프로그램 혹은 재건은행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한 건물 개보수에 관한 기존 연방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있다.

○ 목표/기대효과

투자 조약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는 지방 정부와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투자 보조금을 통해 학교와 유치원, 스포츠 시설 및 기타 사회 인프라의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한 현대화 공사를 지원하고 있다. 투자 조약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예산이 특별히 부족한 읍과 면의 투자 정체 해결
- 이산화탄소 방출 감소를 통한 기후 보호 지원
- 에너지 분야의 비용 절약을 통한 지자체 예산의 장기적인 부담 완화

○ 발효일자 :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2008 투자 조약 행정 합의

○ 주별(州別) 실행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튀링엔 주의 투자 조약 프로그램 목표 실행. 작센 주와 작센-안할트 주에서는 투자 조약을 위한 독립적인 지원 원칙이 발표되지 않았다.

○ 출처

http://www.bbsr.bund.de/nn_21972/BBSR/DE/Stadtentwicklung/Staedtebaufoerderung/Investitionspakt/investitionspakt__node.html?__nnn=true

http://www.bbsr.bund.de/cln_016/nn_314722/BBSR/DE/Stadtentwicklung/Staedteba

ufoerderung/Investitionspakt/ReFoProjekte/Programmevaluierung/Zwischenbericht1,templateId=raw ,property=publicationFile.pdf/Zwischenbericht1.pdf

대학의 가정

- 내용
독일 대학에서의 가족 친화적 학업을 돕기 위한 노력을 지원. 독일 전역의 대학 간 경쟁을 통해 신연방주 지역의 대학 4 곳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됨.
- 목표/기대효과
“대학의 가정” 프로그램의 목표는 독일 대학의 가족 친화성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 학업 및 학문적 커리어의 가정과의 양립
 - 고학력 젊은 여성과 남성들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
 - 가족 친화성을 독일대학의 특성 중 하나로 개발
 - 매력적이며 도움이 되는 제반 조건을 통해 전문 인력의 수요를 확보
- 발효일자 : 시작 연도 2008년
- 출처 : <http://www.familie-in-der-hochschule.de>

연방재무부(BMF)

세금 부담 완화법 1999/2000/2002

○ 내용

- 본 법은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을 세 등급과 여러 단계를 거쳐 상당 부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세제 완화를 통해 최저보장소득의 뚜렷한 증가를 유도하고자 한다.
- 세금을 통한 기업의 이익 조사는 경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과세 원칙 하에 지금까지보다 더욱 강력히 이루어질 예정이다.

○ 목표/기대효과

- 본 법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와 가정의 세금 부담 완화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내수 시장의 수요 확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 최저 세율과 최고 세율의 인하를 통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이를 통한 세금 부담의 평준화는 중소기업의 혁신력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발효일자 : 1999년 1월 1일 발효

○ 출처 : <http://www.hick-steuerberater.de/stentlg.html>

투자 보조금법

○ 내용

주택 건설 분야의 투자에 대한 관대한 세제 혜택을 허용한 지원지역법이 199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투자 보조금법은 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중요한 새로운 축을 이

루게 되었다. 특히 투자 보조금법은 신연방주 지역의 기존 임대 주택의 추가적인 현대화와 보수 공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법안을 통해 제 3자에게 임대한 주택의 소유주는 소유 부동산의 현대화와 보수 공사를 위한 특정 투자에 공공 보조금으로서의 투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01년 세계개혁(StÄndG 2001)으로 인해 1999년에 발효된 투자 보조금법은 그 주요 내용들이 개정되었다.

○ 목표/기대효과

주거 공간 보수 및 현대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발

○ 발효일자 : 1999~2004년 12월 31일

○ 출처

http://www.gesetze-im-internet.de/invzula_1999/index.html

http://www.wgs-sachsen.de/pdfdateien/foerderung_aktuell.pdf

구동독 노동협동조합 후속 기업의 구채무 규정법

○ 내용

독일 연방의회는 통일에 기인한 농업 분야의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동독 노동협동조합 후속 기업 구채무 규정법을 의결하였다. 본 법의 목표는 해당 기업의 구채무를 기업의 경제 능력에 맞춰 신속히 청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채무 조건에 관한 기존 규정들이 구동독 지역의 개선된 농업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통일화된 청산 프로세스가 규정되었다.

○ 목표/기대효과

상환 조건에 대해 관대했던 세제 혜택을 낮추고, 종속 규정 합의와 더불어 약 1,500개 기업에 대한 자발적인 상환 규정. 종합적으로 본 법은 구채무자의 경제적인 이익과 공공 예산의 효율적인 투입 간의 올바른 균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 발효일자 : 2004년 7월 1이일 발효

2010 투자 보조금법

- 내용
제조업 공장, 생산 관련 서비스업 및 숙박업에 대한 초기 투자 계획 지원 (2010~2013)
- 목표/기대효과
신연방주 지역의 제조업 및 관광업 기반 강화
- 발효일자 : 2008년 7월 16일 내각 결의 / 2008년 말 법안 통과 예정 / 유효 기간
2010~2013
- 출처
<http://www.foerderdatenbank.de/Foerder-DB/Navigation/Foerderrecherche/suche.html?get=views;document&doc=4006>

연방보건부(BMG)

법정의료보험 (GKV) – 연대성강화법

- 내용
 - 의료보험의 서-동-재정 이전의 기한은 2001년까지로 정해져 있다.
 - 때문에 신연방주의 의료보험은 경제 및 노동 시장에 기인한 불리한 납입 상황으로 인해 2001년 이후에도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보장받았다. 이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치료 수준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 목표/기대효과
 - 노동과 생활의 관계를 조정
- 발효일자 : 1999년 1월 1일 발효

Anti-D-지원법

- 내용
 - 본 법안은 1978년과 1979년 구동독에서 일명 “Anti-D” – 면역 예방의 일환으로 오염된 면역 글로불린 항체를 접종 받아 C 형 간염에 걸린 여성들을 위한 금전적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 목표/기대효과
 - 이러한 만성 질환을 겪고 있는 여성들은 191 마르크 정도의 월별 최소 연금을 받지도, 혹은 그 어떤 연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Anti-D-지원법의 서비스의 내용은 매달 연금을 지급하거나 일시불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발효일자 : 2000년 1월 1일자 소급 적용 발효
- 출처 : <http://www.sachsen-anhalt.de/LPSA/index.php?id=18490>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자녀 양육비 인상

○ 내용

자녀 양육비는 한 자녀/두 자녀/세 자녀/네 자녀 혹은 그 이상별로 매달 250마르크 /300마르크/350마르크로 지급 기준이 인상된다.

○ 발효일자 : 1999년 1월 1일

사회 문제 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의 발전과 기회 (E&C)

○ 내용

연방 모델 프로그램인 E&C는 사회 문제 계층과 농촌 지역의 차별받는 아동들과 청소년들의 발전과 기회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들은 빈곤과 무시, 사회적 배척이 산재해 있는 곳으로서, 대부분 낙후된 인프라와 사회적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과 농촌 지역들은 사회적 외면의 위협에 처해 있다.

○ 목표/기대효과

- 아동과 청소년들의 생활 조건과 기회를 개선
 - 도시 문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몰락을 방지
 - 장기적인 개발을 유도
- 하기 위해 자금과 활동을 결집시키는 것이다.

○ 발효일자 : 2000~2006

○ 주별(州別) 실행

392개 사회적 문제 지역과 13개 구조 취약 농촌 지역

○ 출처

<http://www.eundc.de/>

<http://www.2000-2006.eundc.de/seiten/info/programm.html>

ENTIMON – 폭력과 극우주의에 공동 대응

○ 내용

Entimon은 민주주의와 관용의 확대, 극우주의와 폭력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의 실행에는 이미 2001년에 실시된 정치 교육과 같은 정책들이 근본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 목표/기대효과

- 외국인에 대한 열린 마음, 문화, 인종, 종교적 확신 및 삶의 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능력을 헌법 및 인권 수호와 결합해 개발하고 강화(관용 훈련)
- 폭력과 극우주의, 외국인 혐오증, 반유대주의에 대항하고, 소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개발하고 강화(폭력 방지)
- 이민자를 사회에 통합(통합)
- 공동체의 과제에 참여하는 자세 지원(책임 인수)
- 이익 대립과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강화(민주적 행위를 통한 민주주의 경험)
- 자신의 확신을 대중에게 나타낼 줄 아는 용기 기르기(시민 용기)
-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 기본 교육 전수(지식)

○ 발효일자

- 2002년부터 실행 중. 2002년부터 해당 프로그램 예산을 통해 총 831개의 프로젝트가 지원되었다.

- 임시 예산 집행을 통해 2006년 일차적으로 Entimon 프로그램을 위해 480만 유로가 배정되었다.

○ 출처

<http://www.entimon.de>

**농촌 여성을 위한 새로운 매체 (IT-농촌 여성)
- 농촌 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모범적인 교육 서비스**

○ 내용

본 프로젝트는 농촌 지역의 여성들로 하여금 정보 사회의 발전 가능성과 기회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에 경제와 노동 시장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대안적인 계획들을 실험하고 있다.

○ 목표/기대효과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IT-농촌 여성”들의 직업 교육이다. 이러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은 확대 재생산자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 여성들로 하여금 인터넷과 새로운 매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홍보하고 있다.

○ 발효일자 : 2004년 12월 31일 3년간의 실행 후 종료

○ 출처

http://www.bmfsfj.de/RedaktionBMFSFJ/Abteilung4/Pdf-Anlagen/langfassung-it-landfrauen_property=pdf.pdf

여성 창업자 에이전트

- 내용
전국적으로 여성들의 경영적 독립을 위해 전 업종별로, 회사 설립과 정착, 회사 계승의 전 단계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기관
- 목표/기대효과 : 여성들의 독립 지원
- 발효일자 : 무기한
- 출처 : <http://www.gruenderinnenagentur.de>

가족을 위한 지역 연합

- 내용
지역의 가족 친화성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해법. 정치, 경제, 사회 부분의 파트너들의 연합으로, 이러한 파트너들은 가족을 위한 활동을 결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동 개발하고 실행하며,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 목표/기대효과
가족 생활 조건의 안정 확보. 본 연합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유연한) 아동 보육 서비스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내 참여 가능성을 마련하고, 지역 내 잠재성을 지원하고 있다.
- 발효일자
2004년 1월 8일 레나테 슈미트(Renate Schmidt) 연방가족장관과 루드비히 게오르크 브라운(Ludwig Georg Braun) 독일산업상공회의소(DIHK) 대표에 의해 소개. 총 560개 지역 연합이 구성(2009년 기준). 지속 운영 중
- 주별(州別) 실행
- 베를린: 10개 연합, 10개 실무 지원

- 브란덴부르크 주: 45개 연합, 52개 실무 지원
- 메클렌부르크-포르폼머른 주 : 20개 연합, 22개 실무 지원
- 작센 주: 15개 연합, 16개 실무 지원
- 작센-안할트 주: 12개 연합 (예: 할레 (Halle)/자알레 (Saale) - 가족을 위한 지역 연합), 18개 실무 지원
- 튀링엔 주: 15개 연합, 30개 실무 지원 (예: 알텐부르거 란트 (군 명) - “가족은 미래를 만든다” 워크샵)

○ 출처

http://www.lokale-buendnisse-fuer-familie.de/http://www.lokales-buendnis-fuer-familie.de/kp_gesamt_pdf.php?id=altenburgerlandlk
http://www.lokales-buendnis-fuer-familie.de/kp_gesam_pdf.php?id=halle

행동 프로그램 다세대의 집

○ 내용

전 세대 간의 만남의 장소, 세대를 초월하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위한 정보와 서비스 허브

○ 목표/기대효과

세대 별 사회적 경제적 역량 강화

○ 발효일자

2006년 출범, 2008년 1월 1일부터 총 498개 다세대의 집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다.

○ 주별(州別) 실행

498개 다세대의 집 중 151개 다세대의 집이 신연방주 지역에 위치(2010년 6월 기준)

○ 출처

<http://www.mehrgenerationenhaeuser.de>

http://www.mehrgenerationenhaeuser.de/coremedia/mgh/de/02_Das_20Aktionsprogramm/03_Zahlen_20und_20Fakten/01_Informationen_Mehrgenerationenh_C3_A4user.html

전국 이니셔티브 “다양성의 지역”

○ 내용

극우주의 타파와 다양성, 관용, 민주주의 장려를 위해 다양한 조치와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미래에도 그러한 노력을 그치지 않을 지자체를 “다양성의 지역”으로 수상, 수상 지역에는 “다양성의 지역”을 뜻하는 간판을 게시하게 됨

○ 목표/기대효과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극우주의 타파와 관용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공동체 활성화 지원

○ 발효일자 : 2007년 11월 26일 출범. 현재 계획된 실행기간은 2010년까지임.

○ 주별(州別) 실행

지금까지 211개 지자체가 “다양성의 지역”을 수상. 이는 2626개 읍, 면과 2,200만 명의 주민 수에 해당한다(독일 전 지역).

○ 출처 : <http://www.orte-der-vielfalt.de/>

연방 프로그램 “다양성은 도움이 된다. 다양성과 관용,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청소년”

○ 내용

극우주의와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에 대항한 다양성과 관용,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지자체 책임 하의 지역 행동 계획 및 초지역적 모델 프로젝트를 지원

○ 목표/기대효과

공동의 기본 가치에 대한 이해, 문화적 다양성의 개발, 인간 존엄성 지원, 극우주의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 퇴치. 모든 사회적 세력과 국가적 분야가 본 프로그램을 위해 요구되는 바임.

○ 발효일자 : 제 1차 프로그램 기간(2007~2010)

○ 주별(州別) 실행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신연방주에서 실행 됨 (지도 참조: http://www.vielfalt-tut-gut.de/content/e4555/e4556/index_ger.html)

○ 출처

http://www.vielfalt-tut-gut.de/content/index_ger.html

자녀 수당

○ 내용

- 자녀수당은 가정의 수입이 부모의 지출은 충당하지만, 자녀들의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가정들을 지원
- 실행기간: 2008년 1월 1일부터 무기한 최소 수입 하한선 인하
- 수입 용융점(Abschmelzrate)을 50%로 인하

○ 목표/기대효과

- 자녀수당의 도입으로 각 가정의 현저한 수입 개선이 기대
- 자녀수당 지원으로 25만 명의 아동들이 빈곤층에서 구제

○ 발효일자 : 내각 결의일(2008년 4월 9일)

○ 출처

<http://www.bmfsfj.de/Kinderzuschlagrechner/>

연방 프로그램 “민주주의 역량 - 극우주의 타파를 위한 상담 네트워크”

- 내용
 - “민주주의 역량 - 극우주의 타파를 위한 상담 네트워크”는 극우주의,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현장 상담을 제공하는 연방 프로그램이다.
 - 극우주의로 인한 문제 상황에서 담당자와 당사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주정부 차원의 상담 네트워크 및 이동 감시팀 지원
- 목표/기대효과

“자력구제를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위기상황에서의 현장 담당자와 당사자들의 대처 능력 강화;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주 정부 차원의 지원 센터와 상담 네트워크 간의 교류 확대
- 발효일자 : 현재 계획된 프로그램 실행 기한은 2010년까지이다.
- 출처 : <http://www.kompetent-fuer-demokratie.de/>

“등교 거부 - 제 2의 기회”

- 내용

유럽사회기금(ESF)을 통해 재정 지원되는 연방 프로그램. 전국적으로 73개의 거점을 통해 운영되는 지역 프로젝트들은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학교로 인도하고 있다.
- 목표/기대효과
 -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등교 거부로 인해 학교를 졸업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학교 제도권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 학교 중퇴자 수를 낮추고, 졸업의 기회를 높임
- 발효일자 : 현재 계획된 지원 기간은 2011년 8월 31일까지이다.
- 출처 : <http://www.zweitechance.eu>

“역량 에이전트”

○ 내용

유럽사회기금(ESF)을 통해 재정 지원되는 연방 프로그램. 역량 에이전트들은 전문 능력을 인정받은 서비스 제공자로, 차별받는 청소년들의 사회/직업적 통합을 위해 직업을 알선하고,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 목표/기대효과

역량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청소년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학교를 떠난 후 교육 및 직업 교육, 고용 기회를 얻지 못하였거나 회피한 청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내고 있다.

- 역량 에이전트들은 맞춤형, 즉, 청소년 개인의 상황에 맞춰 지원 프로그램의 순서를 조직한다.
- 역량 에이전트들은 차별받는 이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 지역적 제공 구조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며, 직업적 통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직업적 통합의 과정을 최적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이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통해 기관과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 간의 협력과 조율을 지원하고 개선한다.

○ 발효일자 : 현재 계획된 지원 기간은 2011년 8월 31일까지이다.

○ 출처 : <http://www.kompetenzagenturen.de>

연방노동·사회부(BMAS)

통합 보조금

○ 내용

- 실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장년층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앞으로 실업 기간이 6개월이 넘는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에도 지급될 예정이다.
- 장년층 실업자의 최소 연령은 55세에서 50세로 낮아졌다.

○ 목표/기대효과

- 본 지원책의 목표는 신규 고용 인력의 특정 결함(예: 훈련 기간이 오래 걸림)을 상쇄하는 것이다.

○ 발효일자 : 1999년 8월 1일 ~ 2001년 12월 31일

○ 주별(州別) 실행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
- 노동청을 통해 통합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것은 실업자가 과거에 고용주의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없거나, 구직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 적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 중증 장애인의 경우 통합 보조금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 - 입증 가능한 건강상의 악화로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이 발생할 경우 기존 고용 관계에서도 통합 보조금은 지급될 수 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사회법전 3권의 222a 조에 따라서만 지급될 수 있다.
- 통합 보조금은 고용주가 채용의무비율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액수가 결정된다. 고용주가 채용의무비율을 잘 이행했을수록, 지원 액수는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마이너스 성과와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역시 지원 액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출처

<http://www.buergerbeauftragter-mv.de/index.phtml?Aktion=showdata&ID=191&Instanz=384&Datensatz=3&SpecialTop=8>

사회법전 제 3권의 개정에 관한 제 2차 법령

○ 내용

- 노동 지원법의 개혁은 노동 지원법적 도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편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 해당 기금은 지금보다 더 노동 시장의 목표 그룹에 더욱 초점을 맞춰 사용되어야 한다.

○ 목표/기대효과

- 노동 지원법의 개혁은 장년층 실업자들을 신속히 재통합하고, 장기실업 발생을 막는 데 기여해야 한다.
- 이를 통해 유럽 연합의 고용 정책적 노선이 고려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내수 노동 시장의 정책은 장기 실업을 막는 방향으로 펼쳐져야 한다.

○ 발효일자 : 1999년 8월 1일 발효

청년 실업 퇴치를 위한 긴급 프로그램

○ 내용

-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 10만 명에게 단기적으로 직업교육과 교육, 고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예산의 40%가 신연방주 지역에 배정되었다. 이로 인해 신연방주에 투입된 예산 비중은 25세 이하 실업자로 등록된 청소년에 대한 신연방주 지역의 예산 비중을 초과하게 되었다(1998:30.5%).
- 1999년 본 긴급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 노동청에 배정된 예산은 20억 마르크에 달했

으며, 이 중 6억 마르크는 유럽 사회 기금을 통해 충당되었다.

- 추가로 1999년도의 노동창출조치를 위한 연방 프로그램인 물적 비용 보조금의 예산이 교육 노동 창출 조치에 투입될 수 있다.

○ 목표/기대효과

본 긴급 프로그램은 등록된 청소년 실업자 감축이라는 목표와 더불어, 담당 노동청에 (더 이상) 등록되지 않은 직업 교육 일자리나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본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하고, 교육과 고용 기회를 알선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 발효일자 : 1999년 1월 1일 ~ 1999년 12월 31일

○ 출처

http://doku.iab.de/chronik/31/2001_02_01_31_sofa.pdf

<http://www.bmbf.de/de/8829.php>

1999 신연방주 직업교육 일자리 프로그램

○ 내용

- 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방 노동청의 정책 시작 직전까지 아직 알선되지 못한 직업교육 일자리 지원자로 등록된 청소년들을 위해 1만 7,500 개의 추가적인 직업교육 일자리가 지원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2002년까지 필요한 예산은 약 2억 3,200만 마르크이다. 신연방주 지역은 동일한 예산 비율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 목표/기대효과

본 프로그램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사업장의 직업교육 일자리 공급의 확대로, 특히 경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업계와 기업의 직업 교육 일자리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제 분야에 현대적이거나 현대화된 직업의 잠재적인 전문 인력을 중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발효일자 : 1999년

○ 주별(州別) 실행

1999 신연방주 직업교육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15,575 명의 (89.0%) 참가자들이 지원을 받았다. 사업장을 통한 직업교육 일자리를 지원받은 참가자 비율은 65.0%, 학교를 통한 직업교육 일자리를 지원받은 참가자 비율은 21.0%, 비사업장을 통한 직업교육 일자리를 지원받은 참가자의 비율은 14.0%를 기록했다.

○ 출처

<http://www.bmbf.de/de/9062.php>

http://www.bmbf.de/pub/vereinbarung_ausbildungsplatzprogramm_ost_2008.pdf

이니셔티브 – 새로운 품질의 노동 (INQA)

○ 내용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사회보험기관, 고용주와 노조, 재단을 비롯해 여러 기업들은 INQA 이니셔티브를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경쟁력 있는 노동계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힘쓰고 있다. 모든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책임 분야 내에서,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해 질적으로 높은 노동 조건을 실현하기 위해 기여하고 있다.

○ 목표/기대효과

인구통계학적 변화 해결: 훌륭한 노동 조건을 마련하고, 그에 있어 근로자와 기업의 이익을 상호적으로 결합

○ 발효일자 : 2002년 출범

○ 출처 : <http://www.inqa.de/>

58세 이상 장년층을 위한 추가 일자리 3만 개

- 내용
직업적 전망이 없는 장년층 장기 실업자를 위한 최장 3년간의 지원 기간을 통한 최대 3만 개의 아르바이트 일자리 창출
- 목표/기대효과
58세 이상의 장기 실업자들을 위해 추가 비용 보조금이 지원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창출
- 발효일자 : 이 중 약 24%가 베를린 포함 신연방주 지역에 할당

연방 프로그램 Perspektive 50plus

- 내용
 - 본 연방 프로그램은 장년층의 고용 능력과 고용 기회 개선을 위한 “이니셔티브 50plus”의 세부 프로젝트이다.
 - 62 개 지역 고용 조약은 장년층 장기 실업자들의 일반 노동시장 편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 조약에는 지역적 수요를 고려한 통합 전략이 개발되어 있다. 제 1차 프로그램 실행기간에는 약 8만 명의 장년층 장기 실업자들이 활성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22,500명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이 달성되었다.
- 목표/기대효과
제 2차 프로그램 기간을 통해 20만 명의 장년층 장기 실업자들의 취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5만 명의 장년층 장기 실업자들이 일반 노동 시장에 통합되어야 한다. 고용 조약과 고용 조약의 계획 및 네트워크는 추가적으로 안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제 2차 프로그램 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목표 집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발효일자 :
 - 제 1차 프로그램 기간: 2005년 10월 ~ 2007년 12월 말
 - 제 2차 프로그램 기간: 2008년 초 ~ 2010년 말
- 주별(州別) 실행
본 프로그램의 약 40%가 신연방주 지역에서 실행되었다.
- 출처
<http://www.perspektive50plus.de/>

이니셔티브 50 plus

- 내용
교육 확대, 건강 예방, 연령에 맞는 노동 시간 재편을 통해 미래의 위험 요소인 전문 인력 부족에 대응
- 목표/기대효과
장년층 근로자의 근로 활동 참여 확대, 장년층 실업자들의 직업적 계속 교육 참여 확대 및 재통합 개선
- 발효일자 : 2006년 9월 13일 제 1차 프로그램 기간 결의

독일의 직업교육과 차세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 조약(2004~2010)

- 내용
 - 재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평균 6만 개의 직업교육 일자리와 3만 개의 새로운 직업교육 영업장을 마련하고, 매년 사업장이 운영하는 4만 개의 입사훈련과정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구속력 있는 목표를 수립
 - 연방 정부는 사업장이 운영하는 4만 개의 입사훈련과정 일자리 지원을 약속

- 연방노동청은 계속해서 직업교육 지원 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졸업생들에 대한 직업 선택 안내 제도와 직업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

○ 목표/기대효과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잠재력을 발굴해 직업교육 일자리 확대

○ 발효일자 :

- 조약조정위원회는 2007년 3월 5일 2010년까지 직업교육조약을 연장하고 지속 개발할 것을 결정
- 승인 내용은 2007년까지 유지되며 이후에도 연장 운영될 예정(새로이 창출된 직업교육 일자리와 직업교육 영업장 각 88,900, 53,600개, 사업장이 운영하는 입사훈련과정 일자리 43,250 개)

○ 출처

<http://www.bmwi.de/BMWi/Redaktion/PDF/M-O/nationaler-pakt-fuer-ausbildung-und-fachkraeftenachwuchs-in-deutschland-2007-2010,property=pdf,bereich=bmwi,sprache=de,rwb=true.pdf>

직업교육 보너스

○ 내용

- 직업교육 보너스 제도를 통해 학교를 졸업한지 오래되어 지원이 필요한 직업교육 구직자(직업교육 자리를 찾는 사람)를 위한 추가 일자리의 신속한 창출을 유도. 본 지원정책의 목표는 높은 장기구직자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
- 향후 직업교육 기간 3년 간 듀얼 시스템 상의 직업교육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하고 해당 일자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 구직자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는 추가 직업교육생 한 명 당 4,000, 5,000, 혹은 6,000 유로를 직업교육 보너스로 1회 지원 받음. 직업교육 보너스를 지원할 때는 횡재효과와 오용 사례를 막기

위해 직업교육 일자리의 추가 창출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

○ 목표/기대효과

추가 직업교육 일자리 창출 및 제공

○ 발효일자 : • 2008년 7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 사회법전 제 3권 개정에 관한 제 5차 법령 -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기회 개선을 위한 법
- BGB1 I, 2008

○ 출처

<http://www.ausbildungsbonus.bmas.de>

연방 프로그램: 지자체-콤비 (지자체로 하여금 특별히 장기실업자가 많은 지역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

○ 내용

2년 이상 실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최소 1년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장기 실업자들을 위한 추가 일자리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주(시, 군 등을 비롯한 지자체 협력 고용주)를 지원; 보조금: 피고용인이 수령하는 총임금의 50%(최대 500 유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복지보험금에 대한 보조금 중 최대 200유로 지원(유럽사회기금 (ESF)의 재정 지원), 50세 이상 인력 고용 시 100 유로 씩 임금 보조금 인상(유럽사회기금 (ESF)의 재정 지원)

○ 목표/기대효과

신연방주를 중심으로 한 노동 시장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추가 일자리 창출; 지역 노동 시장의 부담 완화; 지자체 인프라 개선

○ 발효일자 : 승인 기간: 2008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일자리는 최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원

○ 출처

http://www.bva.bund.de/DE/Aufgaben/Abt_II/esf-projekte/KommunalKombiKommunalKombi-node.html

직업편입지도

○ 내용

직업편입지도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성적이 부진한 일반 학교 학생들이 장기간에 걸쳐 직업교육으로의 교육 전환에 필요한 맞춤형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직업편입지도는 학생들이 직업교육에 성공적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임. 직업편입지도는 졸업을 앞둔 학년에서부터 시작해 학생들이 직업교육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때까지 이어짐. 최대 지도 기간은 일반 교육 학교 졸업 후 24 개월까지임

○ 목표/기대효과

직업교육으로의 성공적인 전환 기회를 학생들에게 확대 제공

○ 발효일자 :

- 2008년 ~ 2014년
- 사회법전 제 3권 개정에 관한 제 5차 법령 -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기회 개선을 위한 법
- BGB1 I, 2008

○ 출처

http://www.good-practice.de/infoangebote_beitrag3544.php

“XENOS” - 통합과 다양성 - “임시거주권자와 망명자들의 노동시장 편입 지원을 위한 유럽사회기금 (ESF) - 연방 프로그램” (ESF 지원 기간: 2007년 ~ 2013년)

○ 내용

구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실업학교, 직업교육기관, 기업 간의 성공적이며 예방 차원의 해결 방법 개발 및 중동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조치 확대. “임시거주권자와 망명자들의 노동시장 편입 지원을 위한 유럽사회기금 (ESF) - 연방 프로그램”은 XENOS 프로젝트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임시거주권자와 망명자들이 직업교육과 노동 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

○ 목표/기대효과

장년층과 죄수를 포함한 독일과 외국인 청소년, 젊은이들이 노동 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럽 사회의 관용과 민주주의, 다양성 도모를 지원

○ 발효일자 : 프로젝트 시작: 2008년 9월

○ 출처 : <http://www.esf.de/portal/generator/6592/xenos.html>

**XENOS-특별 프로그램 “고용, 교육, 지역 참여”
(ESF 지원 기간: 2000년~2006년)**

○ 내용

이민 가정을 중심으로 장기 실업자와 청소년들이 직업교육과 노동 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 구동독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 편입과 시민 사회, 도시 및 지자체 공동체 참여 지원

○ 목표/기대효과

복지도시 프로그램 지역과 구동독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 협력 구조 및 사회 네트워크 지원, 시민사회 및 사회적 결속 강화

- 발효일자 : 2008년 9월 말까지 170 여 개의 프로젝트들이 지원될 예정
- 출처
<http://www.esf.de/portal/generator/6592/xenos.html>

연방교육·연구부(BMBF)

“여성과 직업” 프로그램

○ 내용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 미래 지향적인 직업군을 비롯한 젊은 여성들의 직업 교육 기회를 개선
- 창업 자금과 외부 자본 조성 시 창업 여성들에 대한 불이익 타파
- 파트타임 일자리를 위한 업무 시간의 유연화와 근무 조건 개선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여성의 수입 및 임금 차별 방지
-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여성 비율 확대

○ 목표/기대효과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직업과 사회 참여 기회를 동등화

○ 발효일자 : 1999년 6월 ~ 종료

○ 주별(州別) 실행

- 작센 주
- 2004년 작센 지방 정부가 의결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젠더 메인스트리밍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양성 평등 정책은 전 분야를 아우르는 과제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젠더 메인스트리밍 특임관이 전 분야에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출범되었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젠더 메인스트리밍 실무팀이 구성되었다.

○ 출처

<http://www.bmbf.de/de/9563.php>

<http://www.gwi-boell.de/web/eu-laendervergleich-eu-laendervergleich-deutschland-317.html>

“InnoRegio” 프로그램

○ 내용

- 지역 기업 (Unternehmen Region)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업계, 기관의 사람들이 만나는 곳에서 생겨난다. 새롭고 독특하며 뛰어난 것이 생성될 수 있는 지역의 역량과 경험, 핵심 기술이 한 데 모일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될 때 해당 지역의 성공이 보장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지역적 전통을 이어가고, 지역을 위한 공동의 혁신 전략을 개발하고, 해당 지역에 뚜렷한 특성을 부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 2005년까지 본 프로그램을 위해 50억 마르크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 기업과 학계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성을 목표 지향적으로 지원
- 높은 학문 기술적 잠재성을 지닌 지역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 지역 경제 핵심” 프로그램이 추가로 구성되었다.

○ 목표/기대효과

- 지역 개발 프로파일 개발. 공동의 혁신 컨셉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연구 기관 및 기업과 행정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적 경제 개발이 강화되어야 한다.
- 지원을 받는 이니셔티브들은 해당 지역이 지속적으로 경제 프로파일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 발효일자 : 1999~2006

○ 주별(州別) 실행

- 신연방주 지역의 네트워크 총 23개가 지원되고 있다. 2001년부터 해당 이니셔티브들은 1,100 개의 개별 프로젝트와 8 개 하이라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들의 혁신 계획을 실행에 옮겨 왔다.
-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연구 기간 동안 지원 기업의 종업원 수는 11% 증가하였다. 약 1/3의 기업 중 직원의 절반이 연구 개발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년간 지원 기업의 44%가 특허 제품을 등록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지원 기업의 29%가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지원 기업의 3/4가 제품을 수출하였으며,

2000년 대비 수출 양은 73% 증가되었다.

- 작센 주: ChemnitzINNtex – 중부 작센 주의 섬유 지역 (Textilregion Mittelsachsen)
- 중부 작센 주의 중소 섬유 의류 기업들은 혁신과 집중적인 협력, 정부 기술적 네트워크화를 통해 내수 경쟁력 강화 연맹으로 발전하였다.
- 연맹과 지역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통해 특징 지어져야 한다:
-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신상품 개발과 지속적인 공급 확대
 - 엄격한 품질 안전과 전 세계적으로 선두 수준의 친환경 기준 준수
 - 뛰어난 창의성, 전문 역량, 참가자들의 학습력
-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섬유 모델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InnoRegio 프로그램의 실행에 참여하고 있다.
- 브란덴부르크 주: 포츠담
- BioHyTec 바이오 하이브리드 기술
- 해당 계획의 목표는 특수한 틈새시장을 위한 바이오 칩 포맷 생산을 개발하고, 연구 부문과 기술 기반 개발, 생산에서부터 바이오 하이브리드 기술 분야의 직업 교육과 계속 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역 가치 창출 시슬을 확대하는 것이다.
- 이러한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 플랫폼은 바이오칩 역량 센터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바이오칩 생산은 루켄발데 바이오기술단지(Biotechnologie-park Luckenwalde)에 계획된 바이오칩 생산 센터가 담당할 예정이다.

○ 출처

<http://www.bmbf.de/de/1277.php>

<http://www.unternehmen-regio n.de//de/288.php>

<http://www.unternehmen-regio n.de/de/82.php>

<http://www.unternehmen-regio n.de/de/306.php>

<http://www.unternehmen-regio n.de/de/159.php>

“혁신 지역 성장 핵심”

○ 내용

- InnoRegion 프로그램의 보완 프로그램. “혁신 지역 성장 핵심” 지원 프로그램은 해당 분야의 플랫폼 기술 혹은 잠재력을 지닌, 해당 역량 분야에 있어 유일무이한 특징을 지닌 지역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 지원 대상은 지식기술 분야의 높은 잠재성을 지닌 지역 이니셔티브들이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해당 프로그램에는 총 1억 5천만 마르크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미래투자프로그램(ZIP)의 기금으로 지원된다.

○ 목표/기대효과

- 지원을 받는 이니셔티브들은 해당 지역이 지속적으로 경제 프로필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여
- 본 프로그램은 지역 기업들로 구성된 뛰어난 연맹들을 지원할 계획
- 해당 지역에서 경제, 학문, 직업 교육, 연구 부문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을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내는 연맹들을 지원할 계획

○ 발효일자 : 2001년 3월 1일 (2007년부터는 WK 잠재력 모듈과 함께 진행 중)

○ 주별(州別) 실행

- 이니셔티브들은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개별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500~1,300만 마르크를 지원 받는다.
- 작센-안할트 주: 치료용 재조합 단백질 산업 생산
- 작센 주: 미래 시장 신소재, ASGLAWO GmbH
- INNOVIS: 혁신 이니셔티브 - 저렴하고 유연한 CIS 태양광
- 2001년부터 신연방주 지역에서는 25개 혁신 지역 성장 핵심이 지원을 받고 있다.

○ 출처

http://www.bmbf.bund.de/pub/011009_regionale_innovationsinitiativen.pdf

http://www.bmbf.de/pub/innovative_regionale_wachstumskerne.pdf

<http://www.foerderdatenbank.de/Foerder-DB/Navigation/Foerderrecherche/suche.html?get=views;document&doc=8389>
[http://www.unternehmen-region.de/_media/20080216_Broschuere_Innovative_regionale_Wachstumskerne_Barrierefrei_V07\(2\).pdf](http://www.unternehmen-region.de/_media/20080216_Broschuere_Innovative_regionale_Wachstumskerne_Barrierefrei_V07(2).pdf)
<http://www.unternehmen-region.de/de/79.php>

신연방주와 베를린 지역의 혁신 연구 구조 지원 프로그램

- 내용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 및 연구 구조 확립 및 확대 지원
- 목표/기대효과
대학과 학문의 추가적인 발전 및 연구 및 교육 분야의 여성에 대한 기회 균등 실현 지원
- 발효일자 : 2001~2006
- 주별(州別) 실행
 - 베를린: Regine-von Ramin 실험실 / 베를린 독일 류마티즘 연구 센터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 그라이프스발트 (Greifswald) 대학 프로젝트 “아시아와 유럽. 문화 접촉과 중세와 현대의 문화적 변화 과정” 프로젝트
- 출처
<http://www.drfz.de/index.php?id=486&L=0>
http://www.phil.uni-greifswald.de/fileadmin/mediapool/histin/Neuzeit/Asien_und_Europa_North.pdf

행동 프로그램 “지식이 시장을 만든다”

○ 내용

-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문과 기업 간 협력의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학문적 연구 결과를 신속히 시장화 하는 것이다(제품 개발, 창업, 특허 출원, 역량 강화).
- 연방정부의 예산 1억 마르크 배정

○ 목표/기대효과

- 제품 개발 지원 정책은 대학의 특허 출원과 제품 개발 역량, 해당 인프라 강화를 촉진하게 될 것임.
- 개별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들은 연구하고 있는 발명품을 스스로 특허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특허 출원 및 제품 개발 에이전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창업 지원 정책은 창업을 원하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연구 결과물을 제품화하여 창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 발효일자 : 2001~2003

○ 주별(州別) 실행

-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8개 대학이 “브란덴부르크 제품 개발 역량 강화” 팀을 구성하였으며,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제품화하고 시장화하기 위해 브란덴부르크 미래 에이전트 (Zukunfts-Agentur Brandenburg GmbH (ZAB))의 특허 제품화 에이전트 “Brainshell”을 위임했다.
- 공동 프로젝트는 2003년 말까지 백만 유로를 지원받게 된다.
- 그에 더해 뛰어난 아이디어와 연구 결과들을 통해 “브란덴부르크 주에서 발명된” 성공적인 제품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대학 특허 출원에 드는 비용을 100% 지원하기 위한 “Brain-shell” 기금이 마련되었다.

○ 출처

<http://www.biomedtec-franken.de/ger/kurz.htm>

<http://www.uni-potsdam.de/portal/juni02/bohlen.htm>

“여성을 위한 연구 교육 부문의 기회 균등”

○ 내용

학문 분야의 여성 입지 강화

○ 목표/기대효과

- 대학 학문 프로그램(HWP)의 세부 프로그램인 “여성을 위한 연구 교육 부문의 기회 균등” 전문 프로그램의 목표는 기존의 구조적 장애 극복과 모든 학문적 교육 등급에 있어서의 여성 비율 강화, 학문 분야의 간부직 여성 비율 확대이다.
- 대표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직 승급 과정 혹은 박사 과정을 위한 조치 (과정 별 조치);
 - 여성학 및 젠더 연구 조치
 -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여성 비율 확대 조치
- 혁신적인 잠재력은 연구와 교육 분야의 광범위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발전에 있다.
- 여성 교수 비율을 현재 10%에서 2005년까지 20%로 높임.

○ 발효일자 : 2001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 출처

<http://www.gesis.org/cews/das-cews/cews-projekte/projekt/?browseproject=&selcat=HWP%3E%3E&qt1=HWP>

신연방주 직업교육 일자리 프로그램

○ 내용

신연방주 공동체 이니셔티브의 일환 프로그램들에 따르면 연방 정부와 신연방주의 지방 정부들은 1996년부터 신연방주를 위한 특별 직업교육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 중

이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매년 직업교육 일자리 수의 변화에 따라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간에 합의되어야 하며, 예산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한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노동 및 직업교육 시장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방 정부에 의해 실행된다.

○ 목표/기대효과

직업교육 일자리 창출. 본 프로그램을 통해 비영업장을 통한 직업교육 관계가 정규 영업장을 통한 직업교육 관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 발효일자 :

- 2002년 신연방주와 베를린 지역에는 14,000 개의 직업교육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연방교육연구부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프로그램 실행기간 동안 약 4,750만 유로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 주별(州別) 실행

- 신연방주와 베를린 지역에 직업교육 일자리 창출 지원. 직업교육 일자리가 한 자리 창출될 때마다 연방 정부는 지방 정부에 6,774.62 유로의 예산(반환 불가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 지방 정부는 할당 받은 예산을 통해 본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직업교육 일자리의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 작센-안할트 주: GAJL - 젊은 농촌 자녀들의 이주 방어; 만스펠트 (Mansfeld) 지역의 프로젝트 - 제 1차 노동 시장에서의 직업 교육을 마친 젊은 실업자들의 총합을 위한 만스펠트-쾨트하르츠 (Südharz) 지역의 프로젝트

○ 출처

<http://www.bmbf.de/de/2323.php>

http://www.bmbf.de/pub/vereinbarung_ausbildungsplatzprogramm_ost_2008.pdf

<http://www.bbi-bildung.de/de/filialen/eisleben/angebote/gajl-gegen-abwanderung-junger-landeskinder/gajl-01082009-31012011.html>

혁신 역량 센터

○ 내용

- 지역 기업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 “혁신 역량 센터” 프로그램은 신연방주 지역의 대학과 연구 기관들의 뛰어난 연구 시도들을 국제적으로 유명한 센터들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센터들에 결정적인 요소에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뛰어난 연구를 비롯해, 연구 결과를 제품화 할 수 있는 능력인 “혁신 역량”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센터들은 학문적 후진들을 흡입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 목표/기대효과

신연방주 대학과 연구 기관들의 최고급 연구를 위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센터 구축

○ 발효일자 : 2002년부터 실행 중

○ 주별(州別) 실행

- 제 1차 기간을 통해 (2002년 11월부터) 연방 주들의 제안을 통해 선별된 12개 센터들이 전략 개발을 위해 최대 25만 유로씩을 지원 받고 있으며, 기업 컨설팅을 통한 관리를 받고 있다.
- 제 2차 기간을 통해 (2004~2010) 연방교육연구부는 독립 전문 심사위원단을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된 6개 센터의 전략적 계획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핵심 지원 사항은 국제적인 후진 학자들로 구성된 두 개 그룹을 재정 지원하는 것이다. 정책 지원금은 2012년까지 7,700만 유로로 책정되어 있다.

○ 출처

<http://www.unternehmen-region.de/de/350.php>

혁신 포럼

- 내용
지역 기업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혁신 포럼” 프로그램의 과제는 지역 네트워크의 초기 기간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이니셔티브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제와 관련된 프로필을 강화하고, 상호 관계와 협력을 구축·증진하는 것을 돕고 있다.
- 목표/기대효과
 - 기업, 학문 기관, 기타 참여자들로 구성된 혁신 네트워크 구성 지원
 - 본 프로그램의 목표 그룹은 개발 초기의 혁신적 동맹과 혁신 포럼을 통해 해당 혁신 분야에 있어 질적으로 한 단계 발전하고자 하는 기존의 혁신 연맹들이다.
- 발효일자 : 2003년부터 실행 중
- 주별(州別) 실행
 - 지금까지 113개 혁신 포럼이 지원을 받았다. 매년 8만 5천유로 (신생 이니셔티브), 4만 유로(기존, 이미 지원을 받은 혁신 연맹)의 지원 금액을 최대 6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는 포럼들이 추가되고 있다.
- 출처
<http://www.unternehmen-region.de/de/162.php>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대학의 실용 중심 연구 (FH3)

- 내용
1992년부터 실행 중인 프로그램 “전문대학의 실용 중심 연구 개발” (aFuE) 재편성. 중점 지원 분야를 전문대학을 위한 지원 활동에서 전문대학의 기업 친화적 지역 연구 연맹 지원으로 옮김.

○ 목표/기대효과

전문대학의 네트워크 결합 능력을 개선하고, 기업으로의 지식 기술 이전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대학과 외부 파트너 간의 실용 중심의 연구 프로젝트 지원

○ 발효일자 : 2004년 지원 기간 공고 후 실행 중

○ 주별(州別) 실행

- 작센 주: 츠비카우 서작센 주 대학(Westsächsische Hochschule Zwickau) (기계 공학 및 자동차 공학 분야) - 최고급 사양의 연삭기를 통한 세라믹 부품의 경제적, 고품질 시리즈 생산
- 라이프치히 도이치 텔레콤 전문 대학(Fachhochschule der Deutschen Telekom Leipzig)과 기센-프리드베르크 전문대학(Fachhochschule Gießen-Friedberg) 간의 공공 교통 부문의 초고속 무선 인터넷
- 브란덴부르크 주: 노이브란덴부르크 전문대학(Fachhochschule Neubrandenburg) - 식료품 내 파툴린 증명을 위한 면역 화학적 초고속 실험 과정 개발 (PATUTEST)

○ 출처

http://www.bmbf.de/de/864.phpM_Kulicke/Azimmermann/H_Kroll/S_Bührer,
Evaluation des BMBF-Förderprogramms 2004?2006, (Bonn/Berlin 2008)

http://www.bmbf.de/pub/evaluation_fachhochschulen.pdf

<http://www.aif.de/fh/files/verbuende2004.pdf>

InnoProfile

○ 내용

지역 기업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혁신은 신연방주 재건을 위한 핵심 열쇠로 평가되고 있다. 혁신을 기반으로 한 성장과 이를 통해 생성된 신제품과 시장을 통해서 지역의 미래는 밝아진다. 지역의 잠재력과 강점들이 파악되고, 체계적으로 확대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InnoProfile는 이러한 내용들을 뛰어난 학문적 후진을 필요로 하는 측면

과 결합하고 있다. 때문에 본 프로그램은 “기업 중심의 후진 연구”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 목표/기대효과

- “지식 기반의 프로필이 명확한 지역 기업을 위한 명확한 혁신, 연구, 교육 환경” 조성
- 미래 제품 세대를 위한 “기술적” 근본 문제 연구
- 지역의 경제와 학문을 위한 능력 있는 후진 양성 및 확보
- 지역의 경제 프로필에 맞는 연구, 교육 학문 기관의 프로필 확립
- 최적화된 기술 이전의 의미 하의 학문화 기업 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법 추진
- 이를 통해 특징적인 “역량 지역”을 장기적으로 지속 개발

○ 발효일자

2005년에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2013년까지 총 1억 4천만 유로를 지원 받게 될 예정이다.

○ 주별(州別) 실행

- 브란덴부르크: 포츠담 대학/바이오 화학 및 생물학 연구소 - 항체 기술 후진 그룹
- 작센 주: 켐니츠 공대/시설 및 기계 공학 - 전형적이며 까다로운 건축 부문을 위한 생산 최적화된 기능성 레이어 생산
- 메클렌부르크-포르폼머른 주: 그라이프스발트 에른스트-모리츠-아른트 대학 / Center of Drug Absorption and Transport (C_DAT) - 성분 전달 기반 컨셉 및 의약품의 임상적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Drug-Delivery 기술

○ 출처

http://www.unternehmen-region.de/_media/innoprofile.pdf

<http://www.bio.uni-potsdam.de/nachwuchsgruppen/innoprofile-dr-heilmann/ak-technologie-dr-heilmann>

<http://www.tu-chemnitz.de/mb/SchweiTech/auftragschichten/>

<http://www.cdatsgreifswald.de/Content/1>

독일의 직업교육과 차세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 협약(2004~2010)

○ 내용

- 재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평균 6만 개의 직업교육 일자리와 4만 개의 새로운 직업교육 영업장을 마련하고, 매년 사업장이 운영하는 4만 개의 입사훈련과정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구속력 있는 목표를 수립
- 연방정부는 사업장이 운영하는 4만 개의 입사훈련과정 일자리 지원을 약속
- 연방노동청은 계속해서 직업교육 지원 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졸업생들에 대한 직업 선택 안내 제도와 직업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

○ 목표/기대효과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잠재력을 발굴해 직업교육 일자리 확대

○ 발효일자 :

- 2004년부터 실행 중. 협약조정위원회는 2007년 3월 5일 2010년까지 직업교육조약을 연장하고 지속 개발할 것을 결정했다.
- 연방자유직협회(BFB)가 협약 파트너로 새로이 가입했다.
- 승인 내용은 2007년까지 유지되며 이후에도 연장 운영될 예정이다(새로이 창출된 직업교육 일자리와 직업교육 영업장 각 88,900, 53,600개, 사업장이 운영하는 입사훈련과정 일자리 43,250 개).

○ 출처

<http://www.bmwi.de/Dateien/BMWi/PDF/nationales-reformprogramm-2008-2010,property=pdf,bereich=bmwi,sprache=de,rwb=true.pdf>

대학 협약 2020

○ 내용

- 대학 협약 2020은 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려 수준 높은 학업을 가능케 하는 추가 신입생 입학 허가 프로그램과 독일연구협회(DFG)의 대회를 통해 지원되는 성공적인 대학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금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목표/기대효과

- 추가 신입생 입학 허가 프로그램은 추가 신입생 입학 허가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장기적 기본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대학 연구 프로그램 지원금 정책은 대학이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비용을 완전 조달할 수 있도록 독일연구협회가 초기 연구비용(일명 “Overhead”)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 발효일자 :

- 연방정부는 추가 신입생 입학 허가 프로그램을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5억 6천 5백만 유로의 예산을 편성했음. 연방 예산을 분배할 때는 신연방주를 비롯한 지역의 특성이 고려될 계획이다.
- 대학 연구 프로그램 지원금 정책의 20%는 2007년부터 점진적으로 독일연구협회가 지원하는 연구 계획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 주별(州別) 실행

작센-안할트 주: 신입생 규모를 2005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의무, 마케팅 캠페인 - 구연방주의 대학 지원자들을 해당 지역의 대학에 확보하기 위해 작센-안할트 주의 대학들과 교육부 측이 실행

○ 출처

<http://www.hochschulkampagne.de/hochschulpakt.htm>

<http://www.bmbf.de/de/6142.php>

<http://www.sachsen-anhalt.de/LPSA/index.php?id=27053>

기업 연합 직업교육원 지원

- 내용
시설 현대화 및 공급을 통한 기업 연합 직업교육원 지원
- 목표/기대효과
광범위한 기업 연합 직업교육 일자리 공급
- 발효일자 :
현재 연방 정부는 100 개에 달하는 현대적인 기업 연합 직업교육 양성소를 설립해 15,000 개에 달하는 직업교육 일자리를 장기적인 수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 주별(州別) 실행
튀링엔 주: 튀링엔 주의 Komzet 지속 가능한 수공업;
브란덴부르크 주: Komzet 문화재 관리, 전통 방식의 주택 건설 기술
- 출처
<http://www.bmbf.de/de/586.php>
<http://www.umweltzentrum.de>
<http://www.komzet-rdh.de>

Jobstarter

- 내용
직업교육 구조 프로그램인 Jobstarter는 직업교육 부문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나 산업 부문에 초점을 맞춰 수요 중심의 규격화된 통합 직업교육 지원을 전국적으로 가능케 하고 있다.
- 목표/기대효과
핵심 산업 분야를 비롯한 추가 직업교육 일자리의 창출, 직업교육 상황과 구직 가능성의 개선

○ 발효일자

본 프로그램은 다수의 공고 차수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제 4차 지원 공고: 2008년

제 5차 지원 공고: 2009년

○ 주별(州別) 실행

브란덴부르크 주: AniA - 고용주 연합의 농업 직업교육 네트워크: 슈프레발트 (Spreewald) 직업교육 네트워크 내 35개 직업교육 일자리 창출

○ 출처

<http://www.jobstarter.de/>

<http://www.jobstarter.de/de/489.php?D=63&F=0&M=76&V=list&ZR=287>

혁신 이니셔티브 “지역 기업”

○ 내용

- 특별 전문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과 더불어 연방교육연구부는 주제를 초월하는 지역 중심의 혁신 지원을 진행 중
- 본 혁신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다:
 - 혁신적인 지역 성장 핵심
 - 역량 센터
 - 혁신 포럼
 - InnoProfile
 - ForMaT
 - InnoRegio

○ 목표/기대효과

경제, 학술, 교육 부문의 파트너들이 혁신연합을 구축해 지역 역량 프로필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혁신연합의 내용적 중심 요소로 정의 (지역의

경제-, 연구 프로파일과 전통, 기존 전문가 인력을 중심으로)

○ 발효일자

신연방주 지역에서는 혁신 이니셔티브 “지역 기업”의 일환으로 아래의 주요 지원책이 목표 지향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혁신 역량 센터”의 제 2차 프로그램 실행기간을 통해 엘리트 연구 센터 확대 계획과 새로운 활용 프로그램인 “For-MaT”의 선정과정이 진행 중이다.

○ 주별(州別) 실행

개별 프로그램 참조

○ 출처

<http://www.unternehmen-region.de/>

“신연방주의 엘리트 연구와 혁신” 프로그램

○ 내용

연방정부와 신연방주정부가 합의한 “신연방주 혁신 대화”는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신연방주의 엘리트 연구와 혁신” 프로그램이 집중 지원되고 있다.

○ 목표/기대효과

- 지역과 조직을 초월한 주제 중심의 역량 결합
- 신연방주 지역의 혁신력 강화

○ 발효일자 : 2008년 5월 제 1차 파일럿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 도입

○ 주별(州別) 실행

신연방주와 베를린 지역의 17개 이니셔티브, 대표 이니셔티브: 그라이프스발트 - Plasmamed 캠퍼스; 포츠담-GeoEn; 라이프치히 - IWAS

○ 출처 : <http://www.unternehmen-region.de/de/3899.php>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BMELV)

적극적인 지역(Regionen aktiv)

○ 내용

“소비자 중심”, “자연, 환경 친화적 토지 이용”, “농촌 지역 강화, 추가적인 수입처 조성”, “도시-농촌 관계 강화”와 같은 목표들을 해당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지역을 지원

○ 목표/기대효과본

정책의 목표는 품질과 지속성을 지향하는, 다기능적인 농업 컨셉과 농촌 지역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 발효일자 : 2001~2007

○ 주별(州別) 실행

알트마르크 (Altmark) 지역의 벚짚더미 제조 (“벚짚더미 제조 기술과 알트마르크 지역에서의 생산”이라는 타이틀 하에 2003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독일에서의 벚짚더미 제조 지원과 알트마르크 지역의 새로운 제조 방식 고착화를 위한 광범위한 정책이 실시되었다)

○ 출처

<http://www.regionenaktiv.de/>

<http://regionen-aktiv.fasba.de/>

공동 과제 “농업 구조 및 해안보호 개선 (GAK)”

○ 내용

농업 구조 및 농촌 통합 개발(연방/주 60:40)과 해안보호(연방/주 70:30) 개선을 위한 투자, 소비적 정책 지원

○ 목표/기대효과

- 본 지원 정책의 목적은 농업과 산림업을 미래 지향적으로 개발하고, 유럽연합의 시장 경쟁력을 공동 강화하며, 해안 보호 능력을 개선하는 것임. 관련 사업은 연방정부의 국토개발계획과 주정부의 지역개발계획, 환경보호 및 동물보호의 목적과 요구 사항에 맞춰 진행될 계획임(§2 (1) 해안보호 법)
- 지원형식: 낙후된 신연방주 지역의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과 보증금 등을 지급하여 신연방주 지역의 지원 조건을 부분적으로 개선

○ 발효일자 :

무기한; 2002년 신연방주 지원 비율 33% (지원액은 2억 9,600만 유로에 달함); 2006년 신연방주에 할당된 예산은 2억 유로에 달한다.

○ 출처

http://www.bmelv.de/DE/Landwirtschaft/Direktzahlungen-Foerderung/GAK/gak_node.html

토지 취득 프로그램

○ 내용

오래된 신탁 농지 및 산림업 지역을 권리자(토지를 재조성 혹은 새로이 조성한 자, 임차인, 구소유주)에게 저렴하게 판매

○ 목표/기대효과

해당 토지의 구소유자와 현 이용자 간의 정당한 이익 조정, 신연방주 지역의 농장 및

목장 확대, 소유권 분산

○ 발효일자 : 토지 판매는 2009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 출처

http://www.bvvg.de/internet/internet.nsf/vSysDok/dInfo_Gesetze

연방내무부(BMI)

스포츠 지원

- 내용
 - 신연방주와 동베를린 지역에 대중 스포츠 시설 건설을 위해 1,500만 마르크를 지원
 - 올해 7월 연방 정부는 신연방주 6개 주에 68개 건설 조치를 위한 연방 예산을 승인하였다.
- 목표/기대효과

본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의 분단으로 인한 후유증 극복과 전국적으로 동등한 생활 조건 조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
- 발효일자 : 1999년 ~ 현재 지속 운영 중

연방경찰을 통한 엘리트 스포츠 지원

- 내용

코트부스 / 프랑크푸르트(오더) 올림픽 선수촌에서의 훈련 및 경찰 교도관 직업교육을 통한 젊은 엘리트 스포츠 선수 지원
- 목표/기대효과
 - 국제 스포츠 대회 우승
 - 스포츠 선수들에게 선수 생활 종료 이후의 직업 전망을 밝혀 줌.
- 발효일자 : 계속 사업 프로젝트

○ 출처

http://www.bmi.bund.de/DE/Themen/Sicherheit/Bundespolizei/Spitzensportfoerderung/spitzensportfoerderung_node.html

특별지원 프로그램 “동부황금계획”

○ 내용

- 연방정부는 스포츠 시설 프로그램을 통해 신연방주와 베를린 동부 지역의 기초 스포츠 시설(운동장, 체육관, 수영장)의 신설, 확장, 재건축 사업을 지원
- 본 프로그램의 예산은 1,400만 유로 증액 되었다(총 4,900만 유로).

○ 목표/기대효과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일반적인 생활 조건 평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동독 지역과 구서독 지역의 스포츠 시설 제공 수준을 평준화하는 것이다.

○ 발효일자 : 1999~2010

○ 주별(州別) 실행

-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정부는 지난 몇 년 간 튀링엔 지역의 스포츠 시설 여러 곳에 32만 2천 유로를 지원하였다.
- 자알펠트 지역의 3종 실내 경기장 신축 (2007), 에르푸르트 지역의 노르트바트 개보수 (2008), 고타 지역의 수영장 신축(2009)
- 1999년부터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동부황금계획을 통해 213개의 정책들이 총 5,710만 유로의 투자 기금을 통해 지원되었다. 스포츠클럽 소유 및 임차 스포츠 시설, 초지역적으로 의미 있는 스포츠 시설에 총 2,449 만 유로가 연방 정부(1,217 만 유로)와 브란덴부르크 지방 정부의 교육청소년스포츠부(1,232 만 유로)를 통해 지원되었다. 스포츠클럽들은 3,032만 유로에 달하는 자기 자본을 투자해 건설 계획 재정 조달에 엄청난 기여를 한 바 있다. 동부황금계획은 2010년 3월 4일 독일 연방 의회의 예산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2010년에는 지속 실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 출처

[http://www.carsten-schneider.de/cms/index.php?id=143&tx_ttnews\[backPid\]=142&tx_ttnews\[pointer\]=8&tx_ttnews\[tt_news\]=329&cHash=cffc3c5615&ftu=32a62225bb1cc1ade098d90cf86e533a](http://www.carsten-schneider.de/cms/index.php?id=143&tx_ttnews[backPid]=142&tx_ttnews[pointer]=8&tx_ttnews[tt_news]=329&cHash=cffc3c5615&ftu=32a62225bb1cc1ade098d90cf86e533a)

<http://www.mbjs.brandenburg.de/sixcms/detail.php/bb1.c.224776.de>

http://www.bva.bund.de/nn_385604/DE/Aufgaben/Abt__II/Zuwendungen__Sportstaettenbau/Goldener__Plan__Ost/Goldener__Plan__Ost-node.html?__nnn=true

<http://www.mbjs.brandenburg.de/sixcms/detail.php/5lbm1.c.161575.de>

동 책자에 실린 내용은 통일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독일 통일 20년 계기 -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제3권 참고 자료

3.2 면담록

통 일 부

CONTENTS

면담록

1. 서문 · 100

2. 면담자 약력 · 104

3. 자료 목록(인터뷰 목록) · 111

- 자료 1 03권 군사 - 국방부* / 베르너 폰 쉘벤(Werner von Scheven) 중장 · 111
- 자료 2 04권 경찰 - 경찰청 / 하르무트 몰덴하우어(Harmut Moldenhauer) · 148
- 자료 3 04권 경찰 - 경찰청 / 쿠노 뵘제(Dr. Kuno Böse) 박사 · 149
- 자료 4 07권 미디어 - 언론통합 / 디터 바이리히(Dieter Weirich) · 154
- 자료 5 07권 미디어 - 언론통합 / 아나 라이히(Anja Reich), 카린슈테믈러(Karin Stemmler), 페터 리스백(Peter Riesbeck) · 158
- 자료 6 07권 미디어 - 언론통합 / 우베 칼베(Uwe Kalbe), 라인하르트 프리케(Reinhard Fricke) · 161
- 자료 7 13권 농업 - 농림식품부 / 게르트 콘라트(Gerd Conrad) · 163
- 자료 8 13권 농업 - 농림식품부 / 볼프강 크뤼거(Dr. Wolfgang Krüger) 박사 · 165
- 자료 9 14권 신탁관리청과 구동독지역 재건 / 가브리엘레 뢰베르트(Gabriele Löbert) · 167
- 자료 10 14권 신탁관리청과 구동독지역 재건 / 헬가 마넵(Helga Manneck) · 169
- 자료 11 15권 사법 및 행정 - 법무부 · 내무부 / 한스 오토 브로이티감(Dr. Hans - Otto Bräutigam) 박사 · 173
- 자료 12 16권 재무부 / 브리기타 카우어스(Dr. Brigitta Kauers) 박사, 노르베르트 라데마허(Norbert Rademacher) · 180
- 자료 13 17권 보건 및 연금체계 - 보건복지부 / 하르무트 라이너스(Harmut Reiners) · 184
- 자료 14 17권 보건 및 연금체계 - 보건복지부 / 에크하르트 블로흐(Eckhard Bloch) · 189
- 자료 15 17권 보건 및 연금체계 - 보건복지부 / 질케 글라처(Sylke Glatzer) · 192
- 자료 16 17권 보건 및 연금체계 - 보건복지부 / 루돌프 뮐러(Rudolf Müller) · 197

- 자료 17 17권 보건 및 연금체계 - 보건복지부 / 헤르베르트 므로체크(Herbert Mrotzeck) · 199
- 자료 18 18권 교육 - 교육부 / 엘렌 - 루트 슈나이더(Ellen-Ruth Schneider) · 203
- 자료 19 18권 교육 - 교육부 / 가브리엘레 슈튀르체베허(Gabriele Stürzebecher),
라인홀트 라이트슈스터(Reinhold Reitschuster) · 207
- 자료 20 18권 교육 - 교육부 / 페터 메싱 교수(Prof. Dr. Peter Messing) · 210
- 자료 21 18권 교육 - 교육부 / 빌프리트 자이링(Wilfried Seiring) · 213
- 자료 22 18권 교육 - 교육부 / 쥐빌레 폴크홀츠(Sybille Volkholz) · 215
- 자료 23 18권 교육 - 교육부 / 로타 차일레(Dr. Lothar Zscheile) 박사, 로스마리 벡(Rosmarie Beck),
보리스 앙거러(Boris Angerer) · 221
- 자료 24 19권 환경 - 환경부 / 구동동지역 및 구서독지역 출신 엔지니어 · 234
- 자료 25 19권 환경 - 환경부 / 아르눌프 뮐러 헬름브레히트(Arnulf Müller-Helmbrecht) · 235
- 자료 26 19권 환경 - 환경부 / 프리드리히 폰 비스마르크(Dr. Friedrich von Bismarck) 박사 · 237
- 자료 27 지방자치단체 / 빌헬름 폴테(Dr. Wilhelm Polte) 박사 · 240
- 자료 28 베를린 주 소방대 / 볼프강 솔츠(Wolfgang Scholz) · 248

* 앞 부분의 “권”과 “제목”은 베를린 자유대 프로젝트팀에서 명명한 것이고 뒷 부분의 “제목”은 책자 발간을 위해 통일부에서 새로이 조정한 것이다.

면담록

1. 서문	100
2. 면담자 약력	104
3. 자료 목록(인터뷰 목록)	111

1. 서문

“1972년 12월 21일 체결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의 기본 관계 조약”(기본조약)은 양 독일 사이에 실질적 정상화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독일 통일과정은 1989-90년에 시작되었고,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독일 통일과정은 기타 문제와 더불어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간에 여전히 존재하는 격차로 인해 실제로는 여전히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역사적 특히, 시대사적 흐름에 있어 다음에 언급하는 두 가지는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인물
- 문서

인물과 문서, 양자는 일정한 환경 하에서 등장하게 되고 작성된다. 문서의 경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주로 누구를 위해 기술하였는지를 유의해야 한다. 의심의 여지없이 인물과 문서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이 프로젝트는 2010년에 수행되었으며 공식적 독일 통일 이후 20년을 되짚어 보는 작업이었다. 프로젝트 팀은 위대한 역사가 레오폴드 폰 랑케(Leopold von Ranke, 1795-1886)의 역사관에 따라 “실제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문서들을 수집하여 평가하고 시대적 증인들을 인터뷰하였다. 그렇다고 우리가 단순히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여야 하며 현재의 시각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랑케의 견해만을 따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과거가 주는 교훈과 그 귀결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평가는 개인적 평가를 통해서 더욱 생생하게 제시될 수 있다.

시간적 간격

1990년 10월 3일 이후 20년이 흘렀다는 사실은 단점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과도기의 문서를 찾아내기란 매우 어려울뿐더러, 많은 사실들은 문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일

부 시대적 증인은 더 이상 생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사건에 대해 존재하는 이러한 시간적 간격과 관련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했다.

- 시대적 증인들이 갖고 있는 기억력은 매우 상이하다.
- 그 당시 특히 활발하게 활동하였거나 또는 비판을 받았던 사람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다.
-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간적 간격으로 인해 더 이상 현실정치적 열망이나 시간적 압박에 얽매이지 않고 당시의 행동을 더 포괄적인 시각으로 돌아 볼 수 있게 해준다.
- 20년이란 시간적 간격은 스스로의 행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다.
- 통일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은 당시의 상황논리와 행위자의 동기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가 가능해졌다.
- 또한, 누가 인터뷰를 진행하는지 역시 중요하다. 이 프로젝트 팀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당시 행위자들과 별다른 관계가 없으며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는 소위 “통일 이후 세대들”이다.

이 책에 실린 인터뷰는 모두 2010년에 실시되었다. 그 밖에도 베르너 폰 쉘벤 전 중장의 글이 실려 있다. 이 글은 1995년에 행했던 연설문이다. 쉘벤 중장은 이 글에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변화해 온 연방군에 대한 조망을 제시하고 있다.

가능한 한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다수의 시대적 증인과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 대상자의 개인적 견해를 일반화시키는 작업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인터뷰 진술 내용이 거의 일치하거나 대부분 매우 유사하므로, 이를 충분히 일반적인 인식/진술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좋은 예로 보건분야와 관련된 4명의 인터뷰 내용을 들 수 있다(자료 13 하르트무트 라이너스, 자료 14 에크하르트 블로흐, 자료 16 루돌프 뮐러, 자료 17 헤르베르트 므로체크). 이들은 모두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구체제의 구조 중 일부분에 대해 수용 가능한지가 더 검토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전체 통일과정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명의 인터뷰 대상자 모두는 낙후된 기술 장비와 기타 현실적 문제점으로 인해 표면적

으로는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던 동독의 보건서비스의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문제점 그리고 계속되는 어려움

이 프로젝트의 다른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알 수 있듯이, 문제 영역과 개인적 평가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통해 향후 한반도에서의 상황전개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 상당한 정도로 시간이 부족했으며, 이러한 시간이라는 요인은 두 가지 주요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전개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간이 매우 부족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 과정은 그동안의 존재해 온 양독 간의 격차를 따라잡고 동질화하는 데 예측 및 계획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다시 말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핵심적인 정보가 상당 부분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해 현실적인 가치의 추정과 통독 초기 상황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매우 어려웠다.
- 기타 상호 간에 다른 체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구동독 지역의 경우, “거의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체제에 대한 이해부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계획경제 체제 내에서 마케팅과 경쟁은 거의 아무런 의미도 없었으며, 서비스 부문은 저발전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 동독은 사실상 즉각적인 체제 전환을 강요받았던 것이다.
- 심리적 문제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존경심, 자존감, 비현실적 기대, 보호).
- 통일 과정의 비용 및 기간 역시 매우 과소평가되었다.
- 많은 결정이 매우 즉흥적으로 내려져야 했다(자료 12 브리기타 카우어스 박사, 노르베르트 라데마허).
- 1989년~1990년 과도기 동안 심각한 시간부족으로 인해 대안적 해결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모색 및 실험이 곤란했거나 방해 받았다.
- 따라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서독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었으며, 다른 대안은

관철될 수 없었다. 서독 체제의 지배적 지위로 인해 서독은 동독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배려를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수산업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어획량 할당 적용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자료 7 게르트 콘라트). “동독”은 “서독”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사고의 전환을 강요받았다.

- 1989년~1990년 과도기 동안에는 시민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반면, 1990년 초(1990년 3월 18일 동독 인민의회 선거가 있었음) 이후에는 행정부, 무엇보다 특히 서독 행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 급진적인 변화와 상당한 적응상의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체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개인적 측면에서도 나타났다. 구조적 변화(경제적 문제, 구조 전환)와 정치적 검토(국가안전부와의 관계 및 협력여부)를 거치면서 급격한 단절현상이 발생했다. (그 사이 실업자로 전락하지 않고 남아 있던) 전체 동독 근로자의 약 90%가 통일 전 후 대부분 다른 분야/부문으로 이직하였다(자료 12 브리기타 카우어스 박사, 노르베르트 라데마허).
- 다양한 이유로 인해 극히 일부의 사업만이 실제로 독일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흥미로운 예외적 사례로 기존 국경 지대를 정비하고 활용하여 유럽차원의 프로젝트로 발전시킨 “하르츠 자연공원”과 “그린벨트” 사업을 들 수 있다(자료 25 아르놀 프 뮐러 헬름브레히트). 이 사업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린벨트” 사업이 이후 한국의 “비무장지대(DMZ)” 활용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¹

1 이를 위해 오래 전부터 중요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 왔다. 특히 김재한(Kim, Chae-Han), ed.: The Korean DMZ - Reverting beyond Division, Seoul: Sowha Publishing Co., 2001. 참조.

2. 면담자 약력

- **베르너 폰 쉘벤(Werner von Scheven)**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연방군 사령관 소장으로 독일연방군 간부사관학교(Führungsakademie der Bundeswehr)의 사령관을 지냈다. 베르너 폰 쉘벤은 1990년 10월부터 동독 인민군의 일부를 병합시키기 위해 창설된 연방군 동부사령부의 부사령관을 역임하였다. 1991년 4월부터 1994년 9월까지 폰 쉘벤 중장은 동부지역 방위사령부 및 군단 사령관을 맡은 바 있다. (자료 1, 제 3권 군사)
- **하르트무트 몰덴하우어(Hartmut Moldenhauer)**는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서베를린 경찰서장이었다. (자료 2, 제 4권 경찰)
- **쿠노 뵈제(Kuno Böse)** 박사는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로, 1990년대 초 베를린시 내무부 차관, 브레멘주 내무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이다. (자료 3, 제 4권 경찰)
- **디터 바이리히(Dieter Weirich)** 교수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²) 방송국장을 역임하였다. (자료 4, 제 7권 미디어)
- **안야 라이히(Anja Reich)**(*1967년 베를린 출생)는 라이프치히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일간지 벨트(Welt)에서 편집자로 재직하였으며, 1996년부터 베를리너 차이퉁에서 일하고 있다. 이곳에서 수습기자로 일을 시작하여 동독과 서독의 언론인 비교를 주제로 석사논문을 완성하였다. 1999년에서 2006년까지 뉴욕 특파원이었으며, 현재 월간지 다스 마가진(das Magazin)을 이끌고 있다. (자료 5, 제 7권 미디어)
- **카린 슈템플러(Karin Stemmler)**(*1957년 라이프치히 출생)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하였다. 1980년부터 베를리너 차이퉁에서 지역편집장으로 일하였다. 현

2 역주: 독일 국제방송으로, 라디오, TV, 인터넷을 매체로 방송하고 있다.

재 옴부즈우먼으로 독자면을 맡고 있다. (자료 5, 제 7권 미디어)

- **페터 리스벡(Peter Riesbeck)**(*1968년 팔츠 지역 안바일러에서 출생)은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마인츠대학에서 화학과 정치학을 전공하였다. 1997년부터 베를리너 차이퉁에서 과학 분야와 가십 코너를 거쳐, 오늘의 쟁점란을 맡아 왔다. 2009년부터는 오늘의 쟁점 중 정치부문 국장을 맡고 있다. (자료 5, 제 7권 미디어)
- **우베 칼베(Uwe Kalbe)**와 **라인하르트 프리케(Reinhard Fricke)**는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eues Deutschland) 편집국 정치부에서 다년 간 함께 일하여 왔다. (자료 6, 제 7권 미디어)
- **게르트 콘라트(Gerd Conrad)**는 연방 식품, 농업, 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BMELV) 연방-주정부 포털 “독일 수산업(Fischerei in Deutschland)”의 총괄책임자(Ref. 613)이다. 그는 통일 협상 시 수산업 분야 담당자였다. (자료 7, 제 13권 농업)
- **볼프강 크뤼거(Wolfgang Krüger)** 박사는 변호사이며, 독일농민조합(Deutscher Bauernverband, DBV)의 농업법 전문위원회에 재직 중이다. 그는 구동독지역 농업 재건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자료 8, 제 13권 농업)
- **가브리엘레 뢰베르트(Gabriele Löbert)**는 동독 국가위원회 교육부서에 있었다. 통일 후 베를린으로 수도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교육 및 직업교육정책 II부 B4과에서 일하였으며, 현재 연방경제기술부 외국투자, 채무조정, 개발은행과의 이등서기관으로 일하고 있다. (자료 9, 제 14권 신탁관리청 - 동독 재건)
- **헬가 만엑크(Helga Manneck)**는 연방경제기술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사무관이다. (자료 10, 제 14권 신탁관리청 - 동독 재건)

- **한스 오토 브로이티감(Hans-Otto Bräutigam)** 법학박사(*1931년 출생)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브란덴부르크주에서 만프레트 슈톨페(Manfred Stolpe)가 총리직을 역임하는 동안 법, 연방 및 유럽부 장관으로 재직하였다. 그는 약 10년 전, 한국 통일부가 주최한 독일 통일을 주제로 한 강연에 초청된 바 있다. (자료 11, 제 15권 법과 행정)
- **브리기타 카우어스(Brigitta Kauers)** 박사는 과거 동독의 국가계획위원회(Staatliche Plankommission) 산하 연구소에 재직하였으며, 이후 연방토지관리공사(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 GmbH, BVVG - 농업의 민영화)에서 일하였다. (자료 12, 제 16권 연방재무부)
- **노르베르트 라데마허(Norbert Rademacher)**는 통일 전후 시기에 티로 자라친(Thilo Sarrazin)이 이끄는 연방재무부 내독관계 실무진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 실무진은 경제 및 화폐통합 계획을 담당하였다. 라데마허는 소련군의 철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런던에 있는 유럽개발부흥은행(Europäischen Bank für Wiederaufbau und Entwicklung)에서 임원으로 재직하였다. 그는 현재 재무부 유럽부 내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연구정책 및 통상정책). (자료 12, 제 16권 연방재무부)
- **하르무트 라이너스(Harmut Reiners)**는 과거 브란덴부르크주 노동, 건강, 사회복지 및 여성부 “보건정책 기본방향” 과장을 역임하였다. (자료 13, 제 17권 보건 및 연금 제도)
- **에크하르트 블로흐(Eckhard Bloch)**는 1988년부터 DAK의 경영관련 법률상담사로 일하고 있으며, 1989년 12월부터 1990년 3월까지 DAK에서 동독 프로젝트 팀장을 역임하였다. 확대된 프로젝트 그룹이 해체될 때까지 그는 자문관으로 남아 있었고 1990년 이후 구동독지역에서 법률상담사로서 DAK에서 토지관련 상담을 도맡았다. (자료 14, 제 17권 보건 및 연금 제도)
- **쉴케 글라처(Sylke Glatzer)**는 1981년부터 동독 사회보험기관에 근무하였고, 1991년에는 사회보험의 과도기 기관에서 일하였으며 그 후 연방직원연금공단(BfA)에 승계되었

다. 연방직원연금공단은 2005년 독일연금보험회사와 합병되어 독일연방연금보험공단(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으로 재탄생하였다. (자료 15, 제 17권 보건 및 연금 제도)

- **루돌프 뮐러(Rudof Müller)**는 약 1976년부터 1987년까지 포츠담 지역에서 지역보건의료로 건강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종사하였다. 뮐러는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지역보건의 부의장을 지냈으며 1990년 초 지역보건의료로 약 3개월 동안 다시금 일한 바 있다. 그는 1990년 동독의 행정구조가 변경되면서 관할 행정청에서 관할국장 대리로 재직하였다. 신연방주가 창설되면서 뮐러는 레기네 힐데브란트(Regine Hildebrandt)에 의해 브란덴부르크주 보건부 관할 병원의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자 브란덴부르크주 의사들은 뮐러의 전 지역보건의 경력을 이유로 보건부에 압력을 가하였다. 뮐러는 그 후 대중의 관심을 덜 받는 분야인 재난방재 및 구조과로 활동영역을 옮겼다. (자료 16, 제 17권 보건 및 연금 제도)
- **히버트 므로트체크(Herbert Mrotzeck)**는 1990년에 동독 사회보험 국장 및 사회 보장 제도를 위한 국제 조합(Internationale Vereinigung für Soziale Sicherheit, IVSS) 회원을 역임했으며, 동독의 의료·연금·산재보험을 서독의 제도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므로트체크는 1991년부터 DAK에서 신연방주 감독관으로 재직하였다. 1991년 10월부터 작센주와 튀링겐주 관할 책임자로 재직하였으며, 1995년 1월부터 베를린주, 브란덴부르크주 그리고 작센안할트주의 관할 책임자를 역임하였고, 사무직 및 생산직 노동자 건강보험조합의 주(州)위원회 의장역도 맡은 바 있다. 1994년부터는 연방직원연금공단의 임원직을 역임하였다. 2007년부터 베를린주, 브란덴부르크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및 튀링겐주의 관할 책임자를 지냈다. 또한 경제성장과 대외무역 연방협회 위원 및 경제위원회 회원이자 의료보험 의료심사원(Medizinischer Dienst der Krankenversicherung, MDK) 임원 및 그 외 다양한 단체의 회원직을 거쳤다. (자료 17, 제 17권 보건 및 연금 제도)
- **엘렌 루트 슈나이더(Ellen-Ruth Schneider)**는 연방 노동연구회(BAG e.v.) 대표이며

지식 이전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진술하였다. (자료 18, 제 18권 교육)

- 라인홀트 라이트슈스터(**Reinhold Reitschuster**) 장학관은 사회과학 및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이다. 라이트슈스터와 가브리엘레 슈튀르체베허(**Gabriele Stürzebecher**)는 베를린주 교육, 과학, 연구부에 재직 중이다. (자료 19, 제 18권 교육)
- 페터 마싱(**Peter Massing**) 교수(*1946년 데사우(Dessau) 출생)는 2002년부터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 및 사회과학대학에서 사회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민주시민교육 업무과 과장이었다. (자료 20, 제 18권 교육)
- 빌프리트 자이링(**Wilfried Seiring**)은 과거 베를린주 교육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 (자료 21, 제 18권 교육)
- 쥐빌레 폴크스홀츠(**Sybille Volksholz**)는 1989년 3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베를린주 학교, 직업교육, 스포츠부 장관이었다. (자료 22, 제 18권 교육)
- 로타 차일레(**Lothar Zscheile**) 박사는 동독 출신이며 동독에서 사범교육, 특히 러시아어 및 영어 교육 분야에서 일하였다. 통일 후 그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새로 설립된 연방 교육, 청소년, 스포츠부(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에서 모든 교칙과 교과목, 직업교육 및 일반교육을 위한 체계 수립을 조율하였으며, 이후 6년 간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주립 학교 및 미디어 연구기관(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erlin Brandenburg, LISUM)에서 일하였다. (자료 23, 제 18권 교육)
- 로스마리 벡(**Rosmarie Beck**)은 1991년부터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주립 학교 및 미디어 연구기관(LISUM)에서 일하고 있으며 체계 수립 초기에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제외한 러시아어, 폴란드어, 기타 제 2외국어 업무를 병행하였다. 그는 현재 제 III국에 재직 중이며 베를린주와 브란덴부르크주 초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료 23, 제 18권 교육)

- **보리스 앙거리(Boris Angerer)**는 중등교육 I 단계³와 II 단계/인문계 상급과정⁴ 사회과학과 부장이다. 그는 주로 중등학교의 교과목, 특히 민주시민교육 및 역사와 같은 사회과학과의 교과목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2002년부터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주립 학교 및 미디어 연구기관(LISUM)에서 일하고 있다. (자료 23, 제 18권 교육)
- “구동독지역 내 열에너지 활용 향상을 위한 제안 및 조치” 심포지엄: 연방 냉난방위생공학 산업협회(**Bundesindustrieverband Heizungs-, Klima-, Sanitärtechnik e.V., BHKS**)와 VDI-건축설비기술단(**Gesellschaft Technische Gebäudeausrüstung**)이 개최한 이 심포지엄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은 이미 통일 전부터 기획되었다. 이 심포지엄은 당시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전문적 협력을 이끌어 내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그 사이에 발생한 정치적 변화로 인해 다행히도 심포지엄의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었다. 심포지엄은 1990년 9월 21일 뉘른베르크에서 동독과 서독의 참가자들이 모두 모여 함께 진행했다. (자료 24, 제 19권 환경)
- **아르놀프 뮐러-헬름브레히트(Arnulf Müller-Helmbrecht)**는 연방환경부(Bundesministerium für Umwelt)에서 일하였으며 1990년 동독 환경부로 발령받아 동베를린으로 파견되었다. 특히 그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대규모 보호구역 15년(15 Jahre Großschutzgebiete in Mecklenburg-Vorpommern)” 실태보고서의 저자이다. (자료 25, 제 19권 환경)
- **프리드리히 폰 비스마르크(Friedrich von Bismarck)** 박사는 광업 및 환경 문제 전문가로서 1995년부터 베를린에서 갈탄 채굴지역 재개발 사업의 운영 및 예산위원회 사무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곳에서 연방 및 주가 재정 지원을 하는 재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85억 유로가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3 역주: 독일의 중등교육과정은 중등교육 1단계와 중등교육 2단계로 나뉘어 있다. 중등교육 1단계 과정은 베를린 주와 브란덴부르크 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에서 5학년에서 10학년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4 역주: 한국의 인문계 과정에 해당하는 김나지움 및 종합학교(Gesamtschule) 11학년에서 13학년까지에 해당하는 과정.

수천 명에 이르는 인원이 브란덴부르크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겐주 소재 광산 지대 재개발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전에 그는 1992년부터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 갈탄채굴계획과 과장이었다.

비스마르크 박사(59세)는 두 개의 학위를 갖고 있다(국민경제 및 지질학 전공 석사학위, 자연과학 박사 학위). 그는 캐나다, 말레이시아, 태국, 독일 등 여러 국가의 광업 분야에서 일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그는 1983년부터 1991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장관 자문관을 역임하였다.

비스마르크 박사는 1985년부터 UN의 단기 과제 자문관으로 일하였다. 그는 경제전문위원회 회원이자 UN 환경 프로그램(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광업에 대한 환경지침 초안을 마련한 ‘국제원탁회의(International Round Table)’ 참가자이다. 그는 독일 광산지대 재개발 사업에서 실시한 환경 혁신을 널리 알려 국제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자료 26, 제 19권 환경)

- 빌헬름 폴테(Wilhelm Polte) 박사(*1938년 작센안할트주 니그리프(Niegripp)에서 출생)는 1989년 동독 사민당(SDP⁵)의 창당 발기인이었으며, 1990년 막데부르크 지역 사민당(SPD) 대표였다. 폴테는 동독 최초의 인민회의 자유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그는 같은 해 막데부르크 시장이 되었으며 2001년까지 이 직책을 계속 유지하였다. (자료 27, 지방자치단체 영역)
- 볼프강 솔츠(Wolfgang Soholz, 공학석사)는 과거 베를린주 소방서장을 지냈다.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그는 베를린주 소방대장이었다. (자료 28, 베를린주 소방대)

5 역주: Sozialdemokratische Partei의 줄임말. 1989년 창당되어 1990년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에 통합됨.

3. 자료목록(인터뷰 목록)

자료 1

03권 군사 - 국방부 베르너 폰 쉘벤(Werner von Scheven) 중장 독일 연방군과 구동독 지역 재건

2010년 12월 15일, 포츠담

베르너 폰 쉘벤(Werner von Scheven)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연방군 사령관 준장으로 독일연방군 간부사관학교(Führungsakademie der Bundeswehr)의 사령관을 지냈다. 베르너 폰 쉘벤은 1990년 10월부터 동독 인민군의 일부를 통합시키기 위해 창설된 동부 연방군 사령부의 부사령관을 역임하였다. 1991년 4월부터 1994년 9월까지 폰 쉘벤 중장은 동부지역 방위사령부 및 군단 사령관을 맡은 바 있다.

일러두기

“독일 통일과정과 한국에의 교훈(Deutscher Einigungsprozess und eventuelle Lehren für Korea)” 프로젝트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베르너 폰 쉘벤은 이 자문위원회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밀접한 협력관계는 그와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아온 친분을 토대로 하고 있다.

폰 쉘벤은 서독 연방군과 연방국방부(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에서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였다. 그는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연방군 사령관 소장으로 독일연방군 간부사관학교를 통솔했다. 베르너 폰 쉘벤은 1990년 10월부터 동독 국가 인민군 일부를 병합하기 위해 창설된 동부 연방군 사령부의 부사령관이었다. 1991년 4월부터 1994년 9월

까지 폰 쉘벤은 육군 중장(Generalleutnant)이자, 동부지역 방위사령부 및 군단(Korps/Territorialkommando) 사령관(Kommandierender General)을 지냈다. 그는 아래에 수록된 글을 프로젝트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다. 이 글은 함축적이고 상세한 내부적 시각에서 양 군대의 통합과 일부 동독 인민군의 연방군 편입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폰 쉘벤 육군 준장은 이 글에서 독일 통일 과정 중 매우 중요한 영역에 대하여 깊고 포괄적인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 연방군과 구동독 지역 재건

베르너 폰 쉘벤(Werner von Scheven)

준비과정

함부르크-블랑케네제(Hamburg-Blankenese)에 소재한 독일연방군 간부사관학교(Führungsakademie der Bundeswehr)는 1990년 독일과 유럽 내의 변화, 특히 역사적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독일연방군 간부사관학교는 1989년 12월에 러시아 모스크바 장성들이 처음으로 간부사관학교를 방문했을 당시에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거의 모든 NATO 군대의 장교들은 독일 간부사관학교의 육해공군 장성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동독의 국가인민군(NVA) 장교와 친분을 쌓고, 경우에 따라 이들과 함께 통일 과정에 협력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나는 간부사관학교의 책임자로서 1990년 8월 이러한 논쟁에 개입해야만 했다.

독일 통일은 서독 연방군 역시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만약 통일 이전에 단순히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Bonn)에 있는 국방부 또는 간부사관학교와 같이 미래의 장성을 길러내는 학문적 간부양성소에서 워크숍 같은 행사를 기획했다면, 국방부 장관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주제는 다른 많은 주제와 마찬가지로 금기시 되었다.

1990년 10월 동독이 서독으로 편입되었을 당시, 동독의 군대 역시 서독 연방군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보기관들 역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서독 연방군과 동독 국가인민군 내의 그 어느 누구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1990년 6월 1일 동독 국가인민군과 서독 연방군에게 내용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였던 명령에 따라, 처음으로 일부 군부대 및 군사학교가 상호 간에 통제된 만남이 이루어졌다. 다만 이와 같은 명령은 접촉을 뜻하는 것이었을 뿐, 협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간부사관학교는 드레스덴(Dresden) 소재 육군사관학교와 만남을 가졌다. 대표단은 서로 다르게 구성되었다. 간부사관학교는 항상 그래왔듯이 3명의 장성급으로 구성되었으나, 드레스덴의 경우 11명의 장성급으로 구성되었다.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다른 모든 “사회주의국가의 군대”에서처럼 동독 국가인민군의 군 수뇌부가 너무 비대하다는 첫 인상을 받았다. 서독 국방부 장관은 370,000명의 병력으로 규모를 축소할 연방군이 통일 독일의 확장된 영토에 주둔할 것이며, 최대 25,000명에 이르는 동독의 국가인민군이 승계될 것이라는 생각을 1990년 8월에 가서야 공식화했다. 일반 병역의무는 계속해서 전체 독일을 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했다. 기본 병역의무는 12개월로 확정되었다. 동독 국가인민군의 경우 9월 1일까지 다시 한 번 신병 소집이 이루어졌으며, 서독 연방군의 경우 신병 소집이 기존과 다름없이 10월 1일에 이루어졌다. 동독의 군사적 잔재는 완전히 청산되어야 했다.

1990년 10월 1일 동독의 탈퇴와 더불어 바르샤바 조약(Warschauer Vertrag)⁶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같은 날, 슈트라우스베르크(Strausberg)의 동독 군축·국방부 장관(Minister für Abrüstung und Verteidigung, MfAV)은 국가인민군의 모든 육해공군 장성, 모든 55세 이상의 군인, 의무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여성 사관후보생들을 해임하였다. 기타 여성 군인은 군무원으로 전환되었다. 군사법 및 군정책 핵심 간부진 대부분은 이미 이전에 해임되었다.

같은 시각, 약 1,200명에 이르는 서독 육·해·공군의 장교 및 부사관들이 구서독의 각 중심지에 다시 한 번 집결했다. 이들은 이틀 후 “편입될” 구동독 국가인민군의 지휘권을 이양 받아야 했던 모든 지휘참모진이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 몰락해 가는 동독의 국경선을 넘어 진군하게 되었다.

나는 슈톨텐베르크(Stoltenberg) 장관의 참모 책임자인 외르크 쇤봄(Jörg Schönbohm)

6 역주: 1955년 5월 동유럽 8개국이 서유럽 진영의 공동 방위 기구인 나토(NATO)에 대항하기 위하여 체결한 상호 우호와 협력에 관한 조약.

육군 중장과 함께 오후에 헬기를 타고 본(Bonn)에서 하노버(Hannover)로 향했다. 하노버 소재 사관학교에는 육군 지휘참모진 중 850명의 장교 및 부사관들이 집결해 있었다.

원본의 임무는 이를 후인 10월 3일 슈트라우스베르크에서 동독 국방부의 잔재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창설되는 동부 연방군 사령부 그리고 각기 다른 부대에서 차출된 서독 연방군 관계자들을 지휘하고, 약 1,500명의 동독 국가인민군 병력과 군부대를 통제하는 것이었다. 우선 독일 연방군 역사상 최초로, 비록 9개월 동안의 기간이었으나 대장에게 전체지휘권이 이양되었다. 나는 첫 6개월 간 부사령관을 역임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동독 국가인민군 일부를 해체하는 매우 흥미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다.

하노버 서독 육군 사령부에서 수백 개의 질의에 대해 가장 필수적인 것들부터 정신없이 처리해야만 했던 긴 하루가 저물 무렵, 육군 총감이자 준장인 헨닝 폰 온다르차(Henning von Ondarza)가 일괄적으로 업무를 종결시켰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850명의 육군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점은 계속해서 답변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될 겁니다. 내일 아침 일찍 여러분의 목적지로 이동하십시오. 그곳에 누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동독 국가인민군의 지휘부 책임자들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독선적 행동을 지양하고 그들의 충성심을 끌어내십시오. 그곳 병사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나와 연방국방부 장관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동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상황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서 행동해야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했다: “현재의 상황은 불확실성으로 가득차고 마찰을 피할 수 없는 전투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실행에 옮겨졌다. 위와 같은 내용을 우리의 동료들에게 두 번 되풀이할 필요는 없었다! 그들은 자유의 반향을 경험하였다. 육군 총감의 말은 많은 이들이

결코 더 이상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추진력과 결단력을 분출시켰다. 연방군은 통일과 더불어 훌륭한 “임무형전술”의 부활을 경험하였다. 35년여의 평화와 미디어 민주주의를 경험하면서 행정관료적 규정의 압박 속에서 쇠퇴해갈 위협에 처했 있던 독일군의 전통이자 교육의 목표였던 “임무형전술”이 되살아난 것이다.

1990년 10월 2일 동독의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군축·국방부 장관은 국가인민군을 해체하였다. 그는 “동독의 전통과 결부되어 있는 모든 상징성과 결별하기 위해” 그와 같은 명령을 전달하였다. 여기에는 연방군의 전통적 규정에 맞도록 변경되어야 하는 그 밖의 모든 병영 명칭도 해당된다. 그는 군사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영공권 수호를 위해 필요한 기능 및 병력의 유지를 명령하였다.

끝으로 그는 오늘의 명령(Tagesbefehl)을 통해 아직 남아 있던 (당시 170,000명 중) 89,000명의 “군 관계자”와 47,000명의 군무원을 10월 3일 0시를 기하여 해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자리를 지키던 동독 국기가 내려졌다.

같은 날, 나는 간부사관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과 작별을 고했다. 당시 나는 우리 모두가 과거의 연방군 및 연방공화국과 작별해야한다는 점을 그들에게 주시시켰다. 이제 곧 과거의 흔적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모두가 그것을 이해했을까? 서독 연방군과 국방부의 관찰결과에 따르면 오랫동안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었다.

통일의 날

10월 3일, 구동독 국가인민군의 모든 주둔지와 병영에 독일연방공화국 국기가 게양되었다. 나는 함부르크에서 슈트라우스베르크로 이동하였다. 하벨강(Havel)을 경유하며 나는 하벨란트(Havelland)에서 보낸 유년기와 초등학교 6년 간의 학창시절을 떠올렸다. 슈톨텐베르크(Stoltenberg) 장관은 이날 오후 “국가인민군의 수도”에서 “구동독지역 내 병력”에 대한 명령권 및 지휘권을 넘겨받았으며, 직속으로 동부 연방군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동독의 화려한 컨퍼런스 센터에서 바르샤바 조약에 대한 의식이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군악대의 병사와 군악대장은 양측 군대에서 선발되었다. 행사장에서 모든 계급의 병사는 거의 동일하게 NATO⁷의 올리브색 군복을 착용하였다. 왜냐하면

7 역주: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줄임말. 북대서양조약기구.

모든 것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었으므로 다양한 색상으로 이루어진 제복의 견본을 충분히 제작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단지 해군의 경우에 한하여 푸른색의 제복이 그대로 유지되어, 서독 해군 대령의 경우 세 개의 금색 단추, 동독 해군 대령의 경우 네 개의 금색 단추, 전(前) 국가인민군 해군의 경우에는 단지 새로운 모자만이 제공되었으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베토벤(Beethoven)의 환희의 송가는 현악기 연주자 없이 약간 전투적으로 연주되었으나,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Georg Friedrich Händel)의 왕궁의 불꽃놀이 서곡은 감동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참가자들 가슴 속에는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어제까지도 존재했던 군축·국방부 소속의 약 600명의 잔류 인원이 그들의 상관인 장군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아쉬워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 모두 단지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을 뿐인데, 과연 누가 전체적 관계를 조정해줄 수 있을까? 어제의 적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전(前) 동독 국가인민군 관계자 모두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었다. 약 200명의 연방군 파견병은 중장년층 군인 중 몇몇을 알고 있었으나,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했던 경험은 아직 없었다. 서독 정부의 뒤늦은 결정 이후, 준비 사령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더 이상 충분치 않았다. 단지 에케하르트 리히터(Eckehardt Richter) 준장을 포함한 소규모 연락참모부가 8월 말부터 슈트라우스베르크에서 “서독 정부”의 결정을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참모부의 방식대로 준비되고 있었다. 이는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혼란이 2+4 협상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서독 양국 군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게 했던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에펠만 전 장관은 연설을 통해 그가 자신의 “병사와 장교에게 유대감”을 가졌던 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독일 통일 과정에 있어 “군율을 준수하며, 질서 있고, 능력 있게” 행동하여 존경받으며 “진정으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군대를 이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슈톨텐베르크 장관 역시 동독 국가인민군에서 연방군으로 승계되는 어려운 결정을 감행했던 약 50,000명의 직업군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약속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통일은 화해를 전제로 합니다. 통일은 동독과 서독 군의 서로 다른, 그리고 부분적으로 상충하는 전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단순히 덮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함께 확실히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통일 독일의 연방군이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으며,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에 직면하게 되는 큰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녁에는 베를린과 독일 전국에서 통일을 자축하는 축제가 열렸다. 단지 슈트라우스베르크의 거리에서만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연방군 동부사령부

다음날 아침인 1990년 10월 4일, 나는 독일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칼라슈니코프(Kalashnikow)⁸로 무장, 사열한 “1,000인대” 연방군 동부사령부를 선봉 중장에게 신고하였다. 사령관은 고무적이며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연설(“나는 어느 누구의 후임자도 아니다”)과 함께 지휘권을 넘겨 받았다. 이어서 우리는 철십자 표식이 부착된 소련제 Mi 8 기종의 국가인민군 헬기를 타고, 업무상 구분되어 있는 라이프치히(Leipzig)와 노이브란덴부르크(Neubrandenburg, 육군/군사구역 5 및 7), 로스톡(Rostock, 해군), 에거스도르프(Eggersdorf, 공군), 포츠담(Potsdam)/겔토브(Geltow)(육군/비군사구역)에 있는 다섯 명의 상급 사령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우리의 의도는 사령관 및 상급 지휘관이 그들 직속 부대로 파견되기 전에 직접 부대로 안내하고 그들의 동료들을 소개시켜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돌아온 후 구동독의 국방위원회(Nationaler Verteidigungsrat) 자리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나는 그곳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나의 부관과 동독 국가인민군으로부터 채용된 러시아어 통역장교를 알게 되었다. 다음날 나는 방공호에 자리잡은 구 군축·국방부(MfAV)의 작전센터(Operatives Lagerzentrum, OLZ)에서 열리는 오전 작전회의에 처음 참석하였다. 우리는 이후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아침마다 (동독의 국가 인민군 출신)

8 역주: 총기 브랜드를 이름. 러시아의 미하일 칼라슈니코프가 개발했으며 볼가강 상류의 이제프스크(Izhevsk)에 있는 이즈마시(Izhmash) 공장에서 제작되고 있다.

대령이 칠판에 쓴 “현 운영체제 상황은...”이라고 시작하는 발표를 들어야 했다. 그 후 나는 구 군축·국방부 출신 인사 중에서 비서와 운전사를 선발하였다. 마침내 나는 내게 주어질 업무 영역을 적어도 서류를 통해서 익히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업무 대상은 군축·국방부 소속 장성이 총책임자로 있는 모든 국가인민군 관할 부대 및 시설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임무가 일부 병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인민군과 연관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베를린 및 슈트라우스베르크 소재 양측 연대(Wachregimenter)⁹, 동독의 군 거부자로 구성된 건설병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라져버린 공병대대, 영불해협에 까지 이르는 바르샤바 조약 군대의 공격을 위해 도로, 철도, 다리 복구 인력을 포함한 이른바 군 수송장비대, 국방부의 통신부대, 화생방 방위(ABC-Abwehr)¹⁰부대 및 정찰대, 공병부대, 베네룩스(Benelux)와 프랑스 북부 지역에 이르는 비밀 특수지도 및 항공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프렌츨라우(Prenzlau) 제 2 측량부대, 대형 탄약고 및 군수품 보관소와 고독성(高毒性) 액상 미사일 연료, 군 정찰대, 24대 철도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방부(Ministerium für Nationale Verteidigung) 산하 수송대, 슈베트(Schwedt) 소재 군 형무소, 동독의 군 역사 연구소와 군 박물관, 정책간부 양성소인 그뤼나우(Grünau) 소재 군정책 대학교와 이미 위에서 언급했던바 있는 드레스덴 소재 육군사관학교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올림픽 또는 분데스리가(Bundesliga)¹¹ 시즌에 맞추어 여전히 정치적으로 그 향방을 결정해야 했던 네 곳의 올림픽 선수단 훈련소와 청소년 및 어린이 체육학교 등을 포함한 국가인민군의 군 종합운동장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안 데어 오더(Frankfurt an der Oder) 지역 축구팀 “진진(Vorwärts)” 역시 나에게 배정된 업무 분야였다.

전시를 대비하여 방공호 내에 자리 잡은 지휘부 내에는, 특히 반트리츠(Wandlitz)에서 멀지 않은 프렌덴(Prenden) 소재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의 지휘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오케스트라, 칼 마리아 폰 베버(Carl Maria von Weber) 합창단, 카바레(Kabarett)¹², 발레 그리고 자체 병참업무가 내 업무 영역인 국가 인민군의 연회 상상

9 역주: 사단이나 여단보다는 작고, 대대보다는 큰 행정 및 전술단위 부대이며, 대령급 장교에 의해서 지휘된다.

10 역주: ABC-Abwehr는 화생방 무기(atomare, biologische und chemische Waffen)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뜻한다.

11 역주: 2부로 구성된 독일 프로축구 리그로, 독일어의 'Bundes(연방)'와 'Liga(리그)'의 합성어이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되는 모든 스포츠 종목의 리그를 뜻하나, 일반적으로는 독일의 축구 리그를 지칭한다.

블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다. 그러나 연회 앙상블은 명실공히 동독 내에서 대단히 대중적이었지만, 서독 국방예산에는 이와 관련하여 평화의 시대에 그와 같은 전방위문공연(Fronttheater)이 전혀 편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를 “청산”하는 것은 전혀 재미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 당시 연방국방부 장관에게 그의 의지와는 다르게 구동독 국경부대와 서독 및 서베를린 주변 국경 시설물 철거에 대한 책임이 이양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매우 놀랄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쾨니히스부스터하우젠(Königswusterhausen) 근교 패츠(Paetz)에 소재한 지휘부를 포함한 약 6,000명의 과거 “국경” 근무 직업군인은 퇴직 마지막 몇 분을 남겨놓고, 임시 고용관계로 전환되어 국경 차단 시설물 철거 업무를 민간인 신분으로 계속 수행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나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로프 옥켄(Rolf Ocken) 대령은 이와 같은 “관할권 밖에 놓이게 된 일터미”에 대한 지휘권을 넘겨받아 포괄적이지 부분적으로는 민감하기까지 한 사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재직 중인 인사들에 대한 해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명과 관련하여 알려진 사례는 전혀 없었다.

동독 민방위 해체 중앙지휘부 또한 나의 관할이 되었다. 이곳에서 나는 사회주의통일당(SED) 국가의 전쟁 준비과정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규모 및 치밀성은 일반적인 인식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다른 많은 곳에서의와 마찬가지로 이곳을 통해 동독이 철저히 군부화된 국가 및 사회 체제를 지니고 있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군 시설물자의 인수

연방군 동부사령부는 처음에 2,285곳의 토지를 포함하여 약 900곳의 기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800곳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서독 군사훈련장 규모에 이르는 9곳의 대형 군사훈련장과 19곳의 연병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가인민군은 군사 시설물 보호를 위해 많은 곳에 고전압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1990년 10월 3일 서독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전기 울타리에 전원공급을 차단해야 했다. 이로 인하여 첫 달에 11,000명 이상의 군

12 역주: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문화권(북유럽 및 동유럽 일부)을 중심으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등 인간의 삶 전반을 철학적, 문학적, 예술적 관점에서 접근 발전한 소극장 공연예술 장르이다.

인들이 전기 옴타리 대신 경계 및 안전근무를 해야 했다. 처음에는 병역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훈련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신속한 작전투입 준비를 갖추는데 필요했던 국가인민군 군 건축물에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기술 및 임무지원 분야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이 특히 분명하게 드러났다. 구서독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군 사격장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그 대신 모든 병영 옆에 위치한 대지가 국가인민군 야외 사격 훈련 부지로 제공되고 있었다. 군인 숙소, 복지 및 관리 시설은 매우 형편없는 상태였다. 상당수의 주방 및 위생시설은 연방군의 기준으로 볼 때 즉시 폐쇄시켰어야 할 상태였다. 갈탄을 사용하여 정화필터 없이 가동되는 대형 난방시설은 비경제적인 주요 오염원이었으며, 몇몇 병영에서는 내무반 난방온도가 12℃에 그쳤다.

신체 및 생명의 위협, 법적 의무 이행과 청결한 숙소와 같은 분야에 있어 최우선적 처리를 위해 1991년 한 해 동안 긴급조치로 2억 마르크(DM)가 책정되었다. 현 실태를 정비하기 위한 총비용으로 처음에는 160억, 이후 200억 마르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매년 10억 마르크가 책정되었으며, 1992년부터는 건축용역을 위해서도 별도로 집행되었다.

연방군은 처음에 필요에 따라 587곳의 토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다. 1,500곳 이상의 토지는 한편으로는 국방예산에 부담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긴급하게 다른 곳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연방의 일반재산으로 인도되어야 했다. 본에 위치한 서독 정부는 불필요한 토지를 즉시 처분하고 양도하도록 압력을 가해왔다.

그러나 말은 쉬워도 이를 행동에 옮기기는 어려운 법이다. 동독에 존재했던 모든 무장조직, 예를 들어 400,000명의 노동자 계급 남성들로 구성된 강력한 전투군과 40,000명의 남성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국경 수비대는 1990년 내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군용 차량, 군 장비, 무기와 탄약을 국가인민군에 반납하였다. 모든 군사 기지 및 병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각종 병기와 군수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국가 인민군의 “물품” 중에서도 특히 엄청난 규모의 막대한 무기 및 군수품 보유 현황은 단순히 동독 국가인민군의 병기 수집이라는 말로는 설명될 수 없었다. 궁핍한 사회주의 경제상황 속에서도 곳곳에서 (무기 및 군수품에 대한) 극심한 사재기 욕구가 촉발되었던 것이다.

그 외에도, 극비사항에 속했던 종합군사기지가 발견되었다. 이 기지는 신속하게 배치

될 수 있는 국가인민군의 다섯 개 육군 사단을 위한 것이었다. 이곳에는 모든 기술 및 장비가 곧바로 “실전에 돌입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일사분란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 부대의 지휘단 및 전문가 간부집단은 인근 군사훈련장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예비군은 몇 개월 간 훈련에 소집되었으며, 이는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어떠한 국가도 실행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

군비 축소 및 군수품 반납

1990년 12월 파리 조약으로 인해 매우 엄격한 국제적 감시가 이루어지는 군축과정 이전 유럽에 걸쳐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170만 건의 무기와 300,000톤의 탄약에 대한 특별한 처리가 요구되었다. 이제 이 조약과 관련되어 있는 무기 체제를 수치화하여 특별하게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인민군 소속 세 곳의 공군 기지 내에 약 440대의 전투기와 헬리콥터, 페네뮌더(Peenemünder) 항구에 70척 이상의 인민해군함정, 뢰바우(Löbau) 내 전차 2,300대가 군축목록에 포함되었다(이 중 뢰바우 내 전차는 1995년 5월 독일 외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참관 하에 폐기됨). 기타 무기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분류되었다. 확실하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무기 [A]와 이후 연방군의 심사를 거쳐 재사용될 수도 있는 무기 [B]가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철갑차량 7,850대(전차 아님), 대포 3,400대, 지대지 미사일 250개(SS-21 포함), 지대공 미사일 10,600개, 대전차 미사일 46,000개, 차량 70,000대와 약 100,000톤의 개인 군장, 부속품 및 부품이 포함되었다. 모든 미사일은 1975년까지 핀노브/우커마르크(Pinnow/Uckermark) 소재 부크(Buck)사 공장에서 해체되어 재활용되었다.

백여 곳 이상의 군사 기지의 재고 정리 및 군수품 보유량에 대한 구체적 정리, 그리고 사용가능한 군수물자의 다른 나라, 특히 쿠웨이트와 전쟁 중이었던 연합군으로의 재배치로 인해 베를린 공수작전(Berliner Luftbrücke) 이후 독일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일사분란하게 조정되어 진행되는 수송작전이 수행된 것이다. 연방군의 필요에 따라 잠정적으로 BMP 1 기갑전차, Mi 8 헬기, 해안경비정, 차량, 군인용 무선기기와 개별군장품목, 권총 등은 계속해서 활용되었다. 공군은 한동안 MiG 29 전투기 24대를 사용하였다.

국가인민군은 국가와 사회 내에서 독자적이고 포괄적인 임무와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서독의 방위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항이 없다. 국가인민군은 전화망, 게스트하우스, 요

양소, 스포츠 및 문화시설을 갖춘 지역 공간(예를 들어 슈트라우스베르크(Strausberg), 에게신(Eggesin)), 동독 유일의 항공구조대와 기타 많은 시설물을 갖추고 있었다. 국가인민군은 그 반대급부로 제 3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및 난방공급을 책임졌고,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직업군인을 위한 군무원 직업교육 계약을 체결하였다. 국가인민군은 기숙학교가 갖추어진 일급 스포츠센터, 자체적인 요양 및 휴양 시설 제공,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했다. 국가인민군은 자체 산림관리소와 사냥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다.

동독에서는 (군복을 입은) 군인과 군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독립적인 (민간신분의) 군무원 사이의 업무분장이란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신연방주와 베를린의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서독 기본법 97b조에는 각각의 임무와 해당 임무를 관할하는 담당기관 사이의 관계가 즉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서독의 극소수 공무원들만이 동독에서 장기적으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분은 지극히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몇 년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소극적 태도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존재했다. 처음 구동독지역으로 장기 파견된 공무원들이 다시 구서독지역으로 돌아오기 위해 지원하였을 때, “당신들이 구동독지역으로 갔을 때 당신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줄” 대체직원들이 이제야 비로소 충원되고 있다는 동료의 말을 들었으니 말이다.

구동독지역 내 연방군의 새로운 조직구조

독일 해군은 로스톡(Rostock)에 동부 지구 사령부를 설치하였고, 바르네뮐데(Warnemünde)에 고속함대를, 슈트랄준트(Stralsund)에 기술학교를 마련하였다. 독일 공군은 슈트라우스베르크-에거스도르프(Strausberg-Eggersdorf)에 공군 5사단 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쾰른(Köln)과 뮌스터(Münster)를 신연방주 영토에 대한 종합사령부를 설치할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베를린 가토브(Berlin-Gatow)에 위치한 공군 3사단 내에 동일한 사령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부대는 독일 북부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국방행정부는 특히 26개 지방병무청과 19개 군사기지 행정사무소에 대한 총괄지휘부로서 새로운 방위지구 행정기구 VII를 슈트라우스베르크에 설치하였다. 포츠담(Potsdam)

에는 군사법원 재판부가 마련되었다.

독일 육군의 경우, 15개 구 단위 방위사령부와 45개 군 단위 방위사령부와 함께 동시에 두 개의 새로운 방위지구 사령부 VII(라이프치히)와 VIII(노이브란덴부르크 (Neubrandenburg))가 설치되었다. 베를린에서는 하소 프라이헤르 폰 우슬라 글라이헨 (Hasso Freiherr von Uslar-Gleichen) 육군 준장이 국방지역방위사령부[VBK¹³ 100]와 “가장 오래된 군사기지가 있는 베를린”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나는 1991년 4월 포츠담/겔토브에 위치한 새로운 동부방위군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부임하였으며, 위에서 이미 언급한 두 방위지구 사령부를 휘하에 두었다. 연방을 상징하는 색상과 독수리 문양과 함께 동부(OST)라고 쓰여진 소매 문장(紋章)을 사용했는데, 이 문장이 “오씨(Ossis)¹⁴”를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종종 받곤 했다. 구서독지역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쉘레스비히 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북부(NORD)와 남부(SÜD) 방위지구 사령부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았다.

방위지구 사령부 사령관인 리히터(Richter) 소장과 하슬러(Hassler) 소장은 사단 사령관을 겸임하게 되었다.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지역 사령부와 더불어 국가인민군 군사 행정 구역에서 6개 향토방위여단(37 드레스덴, 38 바이센펠스(Weißfels), 39 에어푸르트(Erfurt), 40 슈베린(Schwerin), 41 에게신(Eggesin), 42 포츠담 아이헤(Potsdam-Eiche)) 그리고 다수의 연대와 대대를 배치받았다. 조직구조와 무장상태에 따라 구분된 일반 기갑 여단과 기갑보병여단에 향토방위여단 명칭을 부여한 것은 1994년 말까지 NATO 관할구역으로 할당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로 인한 것이었다.

부사령관으로 각각 두 명의 준장을 휘하에 두었던 이들 사단장은 1991년 4월부터 포츠담 근교 겔토브 소재 제 [IV.] 군단 지휘대장인 내 휘하로 들어왔다.

따라서 나는 “동부 방위사령부 및 군단[KTK Ost] 사령관 및 지휘대장”이라는 일회적이며 그다지 기억하기 쉽지 않은 직위명칭을 갖게 되었다. “육군 조직구조 5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라 불리운 이와 같은 새로운 조직구조가 우리의 임무를 간소화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일 육군의 모범이라고 보아선 안된다. 결국 나에게도 이러한 이중 직책으로

13 역주: Verteidigungsbezirksskommando(구 단위 방위사령부)의 줄임말.

14 역주: 구동독지역 사람들을 낮추어 부르는 말.

인하여 마르크비탄(Marquitan) 소장(공군)과 브로마이스(Bromeis) 소장(육군) 이렇게 두 명의 부사령관이 배정되었다.

1991년 6월 30일 슈트라우스베르크에 소재했던 동부 방위사령부가 해체되었다. 신연방주 동부 지역에서도 이제 다시 서독 정부의 임명을 받고 병력의 일부가 이동하였다. 쇤봄 중장은 1991년 10월 1일 독일 육군 총감으로 임명되었다.

동부 방위사령부 및 군단 그리고 슈트라우스베르크에 위치해 있으며 요하니(Johanny) 위원장의 지휘 하에 운영된 방위지역 행정기구 VII 간의 협력은 처음부터 깊은 신뢰와 양측의 호의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협력관계에는 베르너 압라스(Werner Ablas) 전(前) 국무차관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슈트라우스베르크 소재 연방국방부 지부도 함께 포함된다. 부분적으로는 구동독과 구서독 간에 발생하는 현저한 이해 차이를 공동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해야만 했다. 의회민주주의 속에서 군이 항상 압박감을 느끼게 만드는 국가의 재정적 압력은 연방정부의 변화된 우선순위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군인과 군무원을 포함하여 약 750,000명에 이르게 된 연방군 관계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경제적 부담요인을 떨쳐내라는 단 하나의 명령만이 존재하는 듯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예나(Jena) 지역 광학 사업의 부흥에 일조한 로타르 슈패트(Lothar Späth)가 언급 하였던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일한다는 것이 흥미로운 일이지만, 더욱 흥미로운 것은 구동독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구서독지역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토론을 들어주는 일이다.”

복잡한 임무

재고 자산 조사를 하면서, 매우 힘든 임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단순히 구동독 군사시설이 남겨 놓은 불필요한 물적 자산을 처리해야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인민군의 해체와 일부 군대의 새로운 신설, 신연방주 내 연방군 부대 설치 등도 해결되어야될 난제로 남아 있었다. 1994년 말까지 신연방주에 총 58,000명의 연방군 군대가 배치되었다.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체코 공화국의 군대와 국경 인접 지

역 이웃국가 간 군부대 연락체제 역시 새롭게 구축되어야 했다.

또 다른 주요 과제로는 곧 설립될 주정부 및 주행정관청과 민군 협력의 구축, 독일 내 소련 주둔군 지원, 1990년 크리스마스까지 베를린 장벽 철거, 1991년 말까지 지뢰를 포함한 기타 국경 시설물 철거, 소련군 및 민간 업체와 공동으로 지속적 영공감시체제 유지, 국가인민군이 수행해왔던 올림픽 준비를 연방군을 통해 계속 시행하기 등이었다. 그러나 모든 관계자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듯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병역의무병 활용기회를 이용하여, 독일 통일에 기여한다는 사실이었다.

지속적으로 3개월마다 병역의무자들이 군대에 징집되었으며, 이제 곧 서베를린에서도 징집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가인민군 병영은 부분적으로 활용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병역의무자를 원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군인급여에 있어서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정치적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졌다.

그 결과, 신병은 입대 첫 해 3개월 간 구서독지역 부대에서 일반적인 기본훈련을 이수하였다. 이처럼 대규모로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의 젊은 남성들이 부대에서 함께 섞여 통일 독일을 위해 복무하였다는 사실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통일 후 5년 간 200,000명 이상의 신연방주 출신 젊은 남성들이 기본병역복무를 연방군에서 이행하였다.

이른바 군부대의 통합

지금도 여전히 동독과 서독 두 양국 군대가 하나의 군대로 통합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여론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동독이 서독에 가입한 날에 대한 법률적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국가인민군의 기존 조직을 완벽하게 해체하기 위해 연방군에 편입시킨 것이었다. 국가인민군 해체는 개별 부대에 따라서는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되었다. 서독 국방법(Wehrrecht)에 따른 지휘 및 훈련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독의 156개 사령단과 175개 훈련단이 일반적인 기본훈련을 위해 해당 연대 및 대대로 파견되었다. 이들 연대 및 대대는 선정된 군사기지의 기존 핵심인력을 재구성해 새로운 연방군 부대의 근간을 형성해야 했다. 기타 모든 군부대와 군기관은 해체과정이 진행되고 추가적인 후속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국가 인민군 출신 지휘관을 둔 지원군을 배정받았다. 그보다 직급이 높은 상급 지휘관, 사령관, 기관장

들은 예외 없이 모두 구서독의 연방군 출신이었다. 서독 인사를 포함한 연방군 동부사령부의 최초 구성인원은 구서독 지역 연방군 출신 2,000여명의 군인과 250명의 군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구동독지역의 각 육군부대는 특성에 따라 구서독지역 부대에 배정되었다. 이와 같은 비관료적인 지원규정을 통해 국방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원 및 기기에 대한 수많은 전력증강이 즉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통일 과정 중에 있어서 전체 독일 육군의 전우애와 단결심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였다. 그 결과, 동독의 재건은 실질적으로 전체 연방군의 사업이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성공비결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대안이 있었을까? 연방군과 국가인민군은 역시 통합되어야 할까? 동독의 라이너 에펠만 장관은 1990년 초 군사개혁과 더불어 국가인민군을 위한 새로운 군복을 고안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에 사용되었던 견본은 베를린에 있는 재단사 양성소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드레스덴에 있는 군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그 후 1990년 5월 3일, 에펠만은 사령관들에게 조국 내 존재하는 두 개의 군대에 대한 과도기와 관련된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이는 동시에 커다란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1990년 7월 20일 마침내 에펠만은 장교위원회에게 국가인민군 전체가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시간이 흐른 이후에 뿐만 아니라, 얼마 못 가 동독과 서독 양국 병력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생각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 말까지 독일 전체 병력이 600,000여 명에서 370,000명으로 급격하게 감소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조직 개편은 1990년 7월 16일부터 (콜 총리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코카서스¹⁵에서 가진 회담)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사이에 맺어진 비엔나 협약과 관련하여 독일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군축 규모가 명확해졌다. 무엇보다도 독일 영토 내 동독과 서독의 양국 군사는 근본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너무나 달랐다. 전후 시기 독일에서는, 전혀 다르고 분명하게 구분되는 두 개의 군사 문화가 자라났다. 두 문화가 이전 독일 군대의 전통을 계승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까?

15 역주: 영문명은 Caucasus로 러시아 지명.

국가인민군 - 완전히 다른 독일의 군대

“현존 사회주의”는 서구 사회제도의 극복을 목표로 삼아왔다. 현존 사회주의는 서구 사회제도에 적대적인 대항모델이었다. 독일 민주주의공화국(동독)은 다른 독일 국가를 단호하게 부정하며 공격적 자세로 일관했다. SED는 동독이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가 서구 사회의 가치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유도하였다. 개인의 인권보다 집단에 가치를 두는 선전선동, 공동체 생활에 있어 거의 성공했던 탈기독교화 그리고 아동교육의 국영화는 계속 영향력을 미친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독에서 권력은 권리보다 위에 놓여져 있었다. 권력의 문제였던 계급적 관점은 군대 내에서 권리, 내부 질서, 교육 및 훈련 등의 다른 모든 사항들 보다 우선시 되었다.

국가인민군의 정치 업무에 관한 모든 문서를 살펴보면, 연방군은 주적으로 설정되어 선전된 증오심을 갖기 위한 핵심대상이었다. 1990년 10월 3일 이후에는 이와 같은 지나친 주입식 교육 때문에 또는 주입식 교육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의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금방 알게 되었다. 아마도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이라는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 강요된 증오심 주입교육의 결과가 치명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인민군의 직업군인 간부들은 실제로 서독의 공격위험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믿었으며, 바르샤바 조약과 소련 군사 이론과 관련하여, 그리고 1941년 소련의 경험을 고려하여, 예측가능한 기습공격을 진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국가인민군은 SED의 지도를 받았고, SED는 소련 공산당의 지도를 받았다. 바르샤바 조약기구 사령부가 모두 소련의 장성들로 구성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국가인민군은 40년이라는 존립 기간 동안 놀라울만한 열의를 갖고 소련을 모범삼아 행동하고자 노력하였다. “소련으로부터의 학습은 승리의 학습”이라는 구호는 80년대 중반 소련으로부터 SED 정권을 위협하는 개혁정치가 확산되기 전까지 국가 인민군의 모든 병영에 걸려 있었다.

국가인민군의 군사용어는 대부분 소련 군사용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국가인민군 고위 장성들은 일반적으로 소련 군사학교 출신이었다. 따라서 소련 군사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동독 군사제도를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열쇠였다.

이는 친구와 적이라는 생각, 파시즘이라는 단어의 사용, 보안체계 및 극단적인 비밀주

의 정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결국에는 군 관계자가 자신의 동지를 감시하도록 슈타지를 끌어들이는 것에도 해당된다. 그리고 또한 종속관계의 구조뿐만 아니라 직급, 급여에도 해당되며, 마찬가지로 각 직급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격차와 수와 능력에 따라 하사관을 경시하는 것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군인정신이나 동지애를 위한 목표나 훈련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군사적 역량과 “사회주의적 경쟁”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도 규율이나 정치사업의 일환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대부분의 사항은 독일의 군사 전통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며, 또한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러시아 제도를 모범으로 삼은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베를린에 있는 경비초소(Neue Wache)¹⁶ 역시 독일의 군사전통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다.

국가인민군 관계자들은 군대와 당의 이중 규율을 따랐다. 모든 직업군인은 기독교를 버리고 공산당에 입당하도록 강요받았다. 직업군인은 특정한 전문영역에 대한 군사전문가였다. 전권을 보유하지 않고 상태에서도 업무에 대한 개인의 역량을 독자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집단적 의식교육을 받았다. 전문화 그리고 상호교류의 차단은 대장급에까지 해당되는 것이었다. 소련군의 경우에서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정에 대한 권한은 점점 더 높은 상급자에게로 옮겨갔다. 연방군과 비교하여 보면, 국가인민군의 구조에서는 장교는 세 배 더 많고, 육군 대장과 해군 대장은 네 배 더 많으며, 하사관 및 사관생도 수는 지나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독인민군과 공산당이 개개인에게 요구하는 직무수행의 수준은 매우 높았다. 통일 전까지 군부대의 85%가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했다. 한 시간 이내에 병영에서 전투 준비를 갖추고 출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점검이 종종 예고도 없이 실시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실수 및 정비 불량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져야했다. 이 모든 것은 민간인의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었다. 국가인민군 내에서는 직무와 전문 분야에 따라 정해진 직무만을 수행해야 했으며, 단지 제한적으로만 취미생활을 하거나 자유롭게 향상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과거 국가인민군에 소속되어 있던 군인들이 연방

16 역주: 운터 덴 린덴가(Unter den Linden) 북쪽에 있으며 본래 프로이센 왕궁의 경비초소로 쓰였으나, 1931년부터 전쟁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군으로 전환되는 변혁의 시기에 남다른 의욕과 “인내심”을 보였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동일한 이유에서 통일조약의 연금규정에 있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느끼기도 하였다.

그들은 동독의 그 어떤 집단도 자신들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국가에 의해 제한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까지도 비생산적인 경제체제로 인해, 군인들이 국민경제에 투입되어 왔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동독군인이 과거에 특권을 누렸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경우에 따라 대장급에도 해당된다고 한다.

민사당(PDS)¹⁷을 제외한 구동독지역의 국민들은 이와 같은 관점을 옹호하는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샤른호르스트(Scharnhorst)¹⁸의 개념에서 유래한 인민군대의 자아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 이데올로기적이며, 실제로는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독의 노동권이 생산지향적이며, 전혀 시장지향적이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서독과는 다른 인간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국가 인민군의 수많은 장교들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 또한 대부분 그다지 완벽하지 못한 주변 상황 속에서 모든 규정을 최대한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휘에 대한 책임은 분산되어 있었으며, 지휘에 있어 인간적 측면은 주로 정무장교가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새로운 동지들은 처음에는 군인들의 정신상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드 메시에 정부는 국가인민군의 정치조직을 곧바로 제거해버렸다.

국가인민군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분야는 조기경보 및 동원 역량과 관련된 영역이었다. 이 분야에서 국가 인민군은 그들의 강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연방군과 달리 광범위하며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대한 정보는 극소수의 고위 장교들에게만 제공되었다. 이와 같이 고도로 발달한 출동대기태세와 관련된 전문적 사고는 다른 사회주의 인민군과 비교해 볼 때, 무기와 직업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 동맹군 내에

17 역주: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민주사회주의당)의 줄임말. SED의 후신으로 1989년부터 2007년까지 존속하였던 정당이다.

18 역주: 게르하르트 요한 다비드 폰 샤른호르스트(Gerhard Johann David von Scharnhorst, 1755.11.12~1813.06.28)는 프로이센 왕국의 장군으로, 프로이센 군체계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국민군대의 창설에 힘썼다. 그의 사후에 1814년 일반병역의무제가 실시됨으로써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서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접촉을 갖는 것은 보안시스템상 어려운 일이었다. 소련 측 역시 이러한 접촉을 전혀 원치 않았다. 그러나 오랜 기간 소련에서 유학생생활을 한 참모 장교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접촉을 가졌으며, 계속 유지하였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이러한 접촉을 통해 아내를 맞이하였다.

연방군의 경우에는 당연히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인민군의 직업군인 교육의 내용에는 상황에 따라 군무직으로 전환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동독 직업군인의 업무 관계는 일방적이었다. 국가인민군의 경우 동독의 다른 군사조직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연금제도가 있었으며, 이는 많은 부러움을 샀다. 연금은 복무기간이 25년 이상 되는 경우에 주어졌으나, 충분한 액수는 아니었다. 장교와 하사관들은 특정 연령 또는 특정 직급에 도달하게 되면, 기준이 되는 연금수령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국가인민군의 군무직 또는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환배치되었다.

1988년부터 직업 군인들 사이에 주목할 만한 내부불만의 징후가 포착되었다. 국가, 당, 군대 내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들이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민군의 직업군인들은 동독의 붕괴를 그들 자신과 가족에 대한 생존의 위협 그리고 그들의 자아상과 충성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여겼다. 인간은 지금까지의 삶의 의미가 무너지는 상태로 내몰리게 되고, 더 나아가 정당성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이전과 달리 불합리한 요구에 저항하게 된다.

국가인민군은 통일 이후, 희망과 실망, 고무와 침울함 사이의 감정을 번갈아 경험했다. 순수한 책임의식과 의무감에서 많은 장교들은 동독의 몰락과 함께 붕괴해가고 있는 군대를 지켜내기 위해 강하게 버텼다. 통일 독일의 연대의식도 어느 정도 여기에 작용하였다. 왜냐하면 동독 국민과 그들의 “군사조직”이 나중에 흘리게 될 눈물을 생각하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규모로 이루어졌을 조직해체와 일반 국민이 입게 될 피해를 국가인민군이 상당한 정도로 막아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의 공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희망이 경험을 이긴 것이었다. 사람들은 연방군이 이 뛰어난 지도역량을 인계받기를 기대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다음 진술과 분명한 것이었다:

우리 역시 어린 시절 냉전시대를 경험하였고, 이제 이러한 시기는 이미 극복된 지 오래다. 우리는 또한 독일과 유럽에 평화와 안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

며, 파시즘에 사로잡혔던 독일의 과오로 인해 빚어졌던 상황은 그저 일회적인 것이었을 뿐이다. 우리는 또한 독일에 의해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반(反)파시즘 국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전문가처럼 훌륭하게 대응해왔다. 우리는 동독 붕괴 당시 재난과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음에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 지도부에 실망하였던 과거가 있으나, 이제 통일 독일의 책임을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국가인민군 소속 직업군인의 인적 통합

연방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져만 갔다. 이러한 기대감은 현실적 가능성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연방군 동부사령부는 아직 연방군 재조직화 계획이 완결되지 않은 가운데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부대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실현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전우들에게 계속 정보를 공개했다. 이와 더불어 곧바로 군부대 차원의 실무실습교육과 서독 지역의 연방군 훈련학교와 사관학교를 통한 기초교육과정이 시작되었다.

과거 국가인민군의 군인들의 “NATO군”에 대한 통합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그들에게 제공된 공정한 기회는 정책적으로 최대 25,000명의 구동독 국가인민군 직업군인으로 제한되었다. 연방군은 국가인민군과 달리 인적 구조에 있어 장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하사관을 필요로 하며, 그들 중 다수는 부사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국가인민군은 연방군의 규모와 자질에 적합한 하사관 집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국가인민군의 하사관들은 소련 모델에 따라 교육을 받은 보조인력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의 경력에서 지도 능력은 거의 기대되지 않았으며, 이는 연방군과 비교할 때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단지 사관후보생 과정을 거친 사람들만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었다.

구동독 국가인민군의 하사관들은 동부 지역에 주둔하는 연방군이 자신들의 현인원(약 18,00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약 21,000명/모든 육·해·공군)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연방군 내에는 해당 수요와 관계없이 지나치게 많은 전문가와 넘치는 자격을 갖춘 이들은 많았지만, 하사관의 수는 너무 적었다. 통신병의 수는 너무 많았고 “전투병”의 수는 너무 적었다. 다른 기지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 대기부대는 서독과 마찬가지로 부족하였다. 국가인민군의 하사관 및 사관후보생 경력을 지닌 11,500명의 하사관

들은 연방군에 일단 2년 정도 더 남아있기 위해 지원했다. 육·해·공군 본부는 서독 연방군의 전환배치에 소극적이었으나, 공정한 기회에 대한 약속은 의심의 여지없이 이행되어야 했다. 통신 상병이 장갑차 운전병이 되는 것과 같은 경우가 현실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했다. 동시에 이루어진 대규모 교육차출로 인해 군 부대 일상 근무에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각 부대는 서독 출신 하사관의 임시변통적 지휘로 근근히 버텨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나마 조건에 맞는 지원자들을 과감하게 대부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수요가 너무 많아, 신연방주 재건 지역 주둔지에서 능력있는 하사관 인력의 보충이 시급하게 필요로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불행한 상황은 대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구동독지역 내 군대의 교육운영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동부 방위사령부 및 군단의 자체 후임병 출신의 젊은 하사관이 육성되었을 때인 4년째가 되어 서야 전반적인 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었다.

장교의 경우에는 전혀 상황이 달랐다. 평화체제 하에서 새로운 통일 독일의 전체 병력 규모는 370,000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연방군규모(495,000명)를 감축해야했으며, 이로 인해 직업군인의 수를 줄여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원감축은 현행법상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했다. 1935년에서 1944년 사이에 출생하여 1960년대 징집되었던 장교들의 인원 초과로 인해 부대 내 직업 장교들의 상대적인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 군 인력 활용에 있어서, 특정 연령대를 넘어 오래 근무하게 되는 중장년층 장교가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20대 병역의무자가 다수인 군부대 인적 구성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70년대와 80년대에 육군은 불편한 경험을 겪은 바 있다. 1985년 제정된 인력구조법은 일반 여론에 상당한 논쟁을 불러왔지만(“황금악수(Goldener Handschlag)”) ¹⁹, 어느 정도 왜곡된 인력구조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동독과의 통일을 이유로 군대 내에서 다시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황이 이를 허락치 않았다. 이로 인해 1990년대에는 이른바 인력조정법이 등장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92년에서 1994년 사이 만 48세에서 만 50세가 되는 직업장교는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군측은 1939년에서 1944년 사이 출생자가 매년 4,000명 규모로 자발적인 퇴직을 신청해주길 희망했다. 최소한 2,000명 정도 규모에 해당되는 기준보다

19 역주: 고위 경영진 또는 간부의 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지급되는 고액의 퇴직금을 이른다.

젊은 층과 중장년층 잉여인원은 고연령자로서 직책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또한 비교적 젊은 약 2,000여 명의 직업장교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최대 15년) 그들의 복무 신분을 병사로 전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러한 연령대 집단에 속하며, 직업장교 지위를 얻고자 했던 구동독 국가인민군 출신 지원자는 처음부터 거의 기회가 없었다.

통일 시점에 23,354명이었던 국가 인민군 장교의 수는 1991년 3월에 이르면 약 12,700명만이 남게 된다. 다른 군인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동독 정부가 1990년 말까지 재직했던 군관계자에게 연금 규정을 적용해주고, 퇴직보상금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대다수가 1990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

11,500명은 연방군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해, 필수적 검증기간으로 설정된 2년 계약직에 지원했다. 다른 장교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혹은 임무 부족으로 물러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며 남아 있었다. 연방국방부 인사과는 최대 4,000명에 이르는 군인직 및 군전문직 장교 인력이 통합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1944년 이전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장교는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구동독지역 국방행정기관은 국가인민군 출신 장교를 필요로 하였으며, 특히 이른바 재정경제 분야, 그리고 건축 및 병영 관련 분야 직책 출신 장교를 필요로 하였다.

1991년 1/4분기에 연방군은 구동독 국가인민군 출신 장교 6,056명을 2년 계약직에 채용하였다. 이 비율은 실제 필요로 하는 인원보다 많은 것이었으며, 특히 육군의 경우 그러하였다. 연방군 동부사령부 사령관은 국방부 인사과와 대립되는 이러한 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전달해야 했다. 신연방주에 주둔하는 육군은 철저한 평가에 따라 능력을 선별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했다. 그뿐 아니라 익숙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많은 업무로 인해, 그리고 초기에 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 육군은 국방부보다 훨씬 더 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채용된 6,056명의 장교들은 지원서뿐만 아니라, 특히 슈타지와 공모하여 직무상의 본분을 벗어나 협력했던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입장을 진술한 직무진술서를 제출해야 했다. 적성 검사는 국방부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또한 상급자의 추천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제 검토 서류는 모드로(Modrow) 정부가 정해 놓은 “간부 인사기록 검증”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채용 시 급여는 다른 공직과 마찬가지로 서독지역 지급급여액의 80%로 확정되었다. 연

방군은 국가인민군처럼 공직에 있어 특별한 급여규정 및 공급규정을 요구할 수 없었다.

이들에게는 견습근무관계로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서독 군인법(Soldatengesetz)에 따른 서약이 요구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에펠만 서약”에 따른 것으로, 일 년이 채 안되어 요구된 두 번째 서약이었다.

계급은 견습근무관계 상태에서 구연방군 기준에 따라 조정되었다. 공정한 기회를 줌으로써, 서독 연방군 동료들이 구동독 국가인민군 출신 군인들은 완전히 다른 직무체계와 승진체계에서 비롯된 직급상의 혜택을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게 되었다는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였다. 계급 조정은 보통 한 개 또는 일부는 두 개, 그리고 예외적 경우에 심지어 세 개 계급까지 낮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계급조정은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이 그 사이에 연방군 중대의 지휘가 국가인민군의 대대보다 더욱 어렵고 많은 책임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쉽게 수용되었다. 적지 않은 수의 장교들이 연방군 하사 계급으로 지금까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2년 간의 의무복무 기간을 약속받은 장교들은 임시 조직의 직책에 투입되거나 또는 제한된 시기까지 처리되어야 하는 기존 동독군의 잔재를 청산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국가인민군에서 운동과 군 신체단련을 담당했던 장교는 구동독지역 내 새로운 부대로 투입됨으로써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들을 계속해서 군 운동강사 내지는 최소한 민간인 신분의 운동교사로 부대에 존속시키는 것은 내가 지휘 대장으로서 직접 추진했던 사안으로, 과거 감독관 경험을 통해 연방군 내에서 운동이 1994년 무렵까지 소홀히 다루어졌던 교육 분야였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교의 경우 초과인원이 많아, 종종 하나의 직책을 여러 명이 수행하는 중복 임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중대장과 포병 중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직무전환 교육과 지도는 구서독지역 출신 전문가의 참관여부와는 무관하게 거의 전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1991년 초까지 육군에는 약 45,000명의 과거 국가인민군 출신 군인과 의무복무 군인 그리고 신연방주 군사기지에서 복무 중이었던 구연방군 군인 1,200명이 있었다. 구연방주 출신 군인 수는 특히 구동독 국가인민군 군인에 대한 2년 계약 종료 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1994년 가을에는 장교와 하사관 약 5,500명, 그리고 의무복무 군인 3,000명인 수준에 도달하였다. 동부 방위사령부 및 군단 인력은 당시 장교 2,942명, 하사 11,619명, 사병 26,642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로써 동부 방위사령부 및 군단에게 허용된 인

력 규모에 거의 근접하게 되었다.

후임인력의 충원상황은 눈부시게 향상되었다. 인사상황에 대한 평가 역시 전반적으로 좋았다.

구동독 국가인민군 장교들에게 여러 주에 걸친 보충교육과정이 육군훈련학교, 코블렌츠(Koblenz) 내부지도자양성센터, 함부르크 연방군 간부사관학교에서 제공되었다. 그밖에도 전문가 및 무기교육관을 위한 전문적인 직무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했다. 약 2,000명에 이르는 장교와 수많은 하사관들이 서독 군사기지에서 4주에서 6주에 걸친 군부대 실습을 이수하였다. 그뿐 아니라 동부 방위사령부 및 군단의 경우에, 국가인민군 출신 직업 군인들은 독일의 헌법 및 군법, NATO 조약 등과 관련하여 사령부 법률자문단이 진행하는 단기과정 세미나에 참석해야 했다.

1993년 초, 2년 계약을 맺었던 육·해·공군의 모든 장교 및 하사관들은 2인 이상의 상사로부터 서면으로 상세하게 성격상 특징, 능력, 적성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육·해·공군의 인사 담당 기관에서 시행된 8,282건의 평가서와, 이에 버금가는 분량에 해당되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적성범주별 직무자격평가서가 연방군에 한꺼번에 발송되었고, 이로 인해 연방군은 기존에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까다로운 평가 작업을 진행해야만 했다. 이 직무자격평가서(경력평가)는 지원자를 다섯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심사 대상자 중 적합한 또는 더욱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세 개의 집단이 약 80%정도, 제한적인 또는 부적합한 두 개의 집단이 약 20%로 차지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군 방첩기관(Militärische Abschirmdienst, MAD)은 기밀사항에 대한 접근을 다루기 때문에 정규 보안심사를 실시하였다. 적성검사를 위한 연방정부의 독립적 위원회가 연방군의 직업장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지원자에 대해 청문권과 추천권을 행사한다. 이 위원회는 약 500여 명에 대해서는 지원자 면접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로만 심사하였다. 그 결과, 약 40명의 후보자는 추천을 받지 못하였고, 당연히 채용되지 않았다.

2년 계약을 맺었던 모든 장교와 하사관들은 베를린에 소재한 “가우크 청(Gauck-Behörde)²⁰” 으로부터 구동독의 슈타지와 공모한 책임과 관련된 전력이 있는지 질문을 받

20 역주: 공식 명칭은 슈타지 문서관리청으로 초대 청장 요하임 가우크(Johaim Gauck)의 이름을 따 가우크 기관청으로 불리우며, 슈타지가 보유하고 있던 방대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주업무이다.

았다.

긍정적인 검토 결과 결과 책임자로 판정된 지원자 5명 중 1명에게 이른바 적색 사례가 나타났다. 각 적색 사례는 당사자에 대한 청문회 이후 연방군으로부터 무기한 해임되거나 2년간의 계약 관계 종료 후 직위해제 되었다. 이와 같은 “적색 사례”의 발생 빈도는 병과 및 이력에 따라 상이하였다. 통신부대와 위생대 간부, 그리고 제트기 조종사들에서 이러한 적색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육·해·공군에 2년 간 계약직으로 채용된 구동독 국가인민군 장교 출신 5,662명 모두가 연방군 정규직에 지원하였다. 이들 중 3,575명은 1993년에 직업군인 또는 최대 15년간 복무하는 기간제 계약 군인으로서 채용되었다. 또한 약 600명의 국가인민군 전 장교들은 연방군의 하사관으로 전환배치되었으며, 이에 대해 만족하였다. 약 1,600명은 국가인민군 전 장교에서 방위지구 행정기구 VII의 공무원 또는 사무직 직원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직업군인으로 채용된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과거 국가인민군의 참모장교로, 이들이 함부르크 소재 연방군 간부사관학교의 참모장교 기본교육과정에 별다른 허가 없이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통합의 형식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서독의 동료들과 한데 섞여 강당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동시에 참모장교급(소령, 공무원 급여등급 A 13) 활동에 대한 적성심사를 받았다. 과거에 다른 교육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발생한 핸디캡은 존재했지만, 중도탈락자가 발생하진 않았다. 1993년에 이르면, 과거 국가 인민군 이력을 지닌 장교들이 최초로 참모진 교육에 대한 적합성을 인정받게 된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 당사자들이 이와 같이 매우 까다롭고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개발과정을 사전에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전히 지금도 독일통일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으며, 이들은 이제 통일의 패배자 집단, 다시 말해 어쩌면 복수를 열망하는 잠재적 반동세력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게 해주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우리는 홀에 들어와 있는 여성들과만 함께 춤을 출 수 있다”고 나 할까. 그리고 새로운 동료들이 통합되었던 반면, 동시에 연방군의 축소로 인해 이전의 전우들이 조기에 퇴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연방군의 기존 장교 집단이 아무런 불만도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년의 시험 기간은 모든 지원자로 하여금 그들이 장교이든 하사관이든 한편으로는 공정한 기회로, 다른 한편으로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각자 두 가지 시각에서 구분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3개월 동안 간부사관학교에서 참모장교를 대상으로 한 기본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중대장을 살펴보자. 그는 육군전술 통합 향상 교육(Heerestaktische einheitliche Weiterbildung, [HTW])이 포함되어 있는 계속교육을 혼자서 차분히 생각할 틈도 없이 빠듯한 교육과정 일정을 쫓아가야만 했다. 그러는 사이에도 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부대를 이끌어야만 했는데, 부대는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를 대신하여 다른 동료에 의해 지휘되었다. 그는 직업장교로 연방군에 채용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준비해야 했으나,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따라서 그는 가족을 부양할 책임감으로 인해, 2년 후 군인직을 퇴임할 준비도 동시에 해나가야 했다. 승계확인증과 함께 지원결과가 성공적이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과거 국가인민군의 직업 군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커다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통일 독일을 위해 군을 동시에 해체, 전환, 구축하는 일회적 작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적응을 위한 상당한 어려움 속에서도 충성하면서 그리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력하였다. 이들은 재고조사, 군자재 선별, 군자재 반납 및 사용, 이후 소련군 그리고 이후 러시아군의 서부군대 지원에 동참하였다. 이들의 노력은 통일 조국의 역사에 있어 한 장을 장식하는 것이었으며, 이들 스스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하다.

바이체커(Weisäcker) 연방대통령은 1991년 4월 29일 내가 지휘하고 있는 포츠담 소재 동부 연방군을 방문하였다. 당시 그는 이미 알려진 연방군의 재건 능력을 “부대의 통일이 독일인의 통일을 촉진한다”라는 말로 치하하였다. 이는 모든 책임자들에게 자극이자 모토가 되었다.

국가 인민군과 연방군의 인적 통합은 다른 모든 국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급여에서 복지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으로 처리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문제없이 이루어졌다. 절차의 투명성, 특히 평가과정은 새로운 감독기관 내의 신뢰를 강화시켰다. 3년 후 군부대 내에서는 구서독지역 출신 군인과 구동독지역 출신 군인을 구분지어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들은 하나의 팀으로 성장하였고, 수많은 구동독 국가인민군 출신 군인들이 정상적

인 임기에 따라 이미 독일 서부 및 남부 지역 군부대로 전임되었다. 이들은 이미 1994년에 다수의 정기 진급조치에 따라 국가인민군 소속 당시 계급까지 승진하게 된다. 1994년부터 더욱 많은 수의 구동독 국가인민군 장교들이 영어 및 프랑스어 외국어 교육과정에 파견되었다.

완벽한 통합은 한 세대 전체의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포함한다. 따라서 어떠한 세계에서 새로운 동료들이 오는 것인지를 알고, 각자 서로 다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것은 피하면서도, 일반적 특징을 찾아낼 수는 있다. 물론 모든 인간은 상호 대체될 수 없는 개인이다. 그렇지만 구동독 장교와 구서독 장교 집단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국가인민군에서 승계된 장교들의 자질 및 정신상태

통계상으로 나타난 국가인민군의 연방군 배치 후 평균 직위는 대위이다. 이들은 국가인민군에 입대하기 전, 이론 및 실무 교육,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비투어²¹를 이수하였다. 이제 우리들은 직업교육과 직업 실무를 포함한 아비투어가 “비(非)프롤레타리아” 가정 출신 어린이를 위한 제 2의 사회주의적 교육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독의 생활환경은 직업 군인에게도 부대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다양한 즉흥적 창작활동을 강요하였다. 따라서 그들 중에는 퍼즐이나 수수께끼를 즐기는 사람, 모형 제작자, 취미로 수공예를 즐기는 사람 등이 있다. 또한 대학 교육을 이수한 장교들의 경우, 직업에 대한 실무적 관심이 높았다. 단지 이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에 있어 구동독과 구서독 간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했음이 곧바로 드러났다.

국가인민군의 장교 지원자들은 국가와 당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직업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지원은 서독의 군 지원자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안전, 진급, 기술, 군 생활이 주는 기쁨, 젊은이들과의 교류와 같은 유사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원자는 마르크스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²²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나, 주된 관심사항은 전문 군사학적 영역에 해

21 역주: 독일의 대학교 입학 자격 시험.

22 역주: 마르크스주의에서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의미하는 하부구조 위에 성립하는 정치적·법률적·예술적·철학적인 관념 또는 그에 상응하여 형성된 여러 제도를 말한다.

당하는 것이었다. 지원자는 학생 자격으로 사전에 군사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장교라는 직업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는 것을 요구받았다. 군 장교지원을 통해 자질이 떨어지는 학생은 아비투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도움을 받게 된다. 교사집단에게는 군 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의무할당비율이 주어진다.

국가인민군의 장교는 요구와 현실 사이, 진실과 거짓 사이의 모순을 알고는 있지만, 결코 자신에 대한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모순에 대해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생활해왔다. 항상 이러한 심리적 압박을 안고 살아야했을 것이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장교들은 재임 중에 전문가로서의 직무동기 및 의무동기를 갖게 된다. 이러한 동기부여는 동독과 서독 통일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공통 과제였다.

서독 68운동 이후 제기되었던 2차 덕목²³에 대한 비판은 1990년 10월 3일 이후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즉흥적 협력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장교의 인사집행은 분권화되어 있었다. 특정 직책의 계급 및 후보는 다양한 당서열(Nomenklatur)에 따라 구분되어 있었다. 정무장교는 슈트라우스베르크 소재 최고 정책행정기구 서열명부에 올라 있었다. 대대장은 사단장의 서열명부에 속해 있었으나, 연대장은 국방부 서열명부에 속해 있었다. 연대장은 보통 두드러지게 강한 성격을 지닌 젊은 참모 장교였다. 군사 지역과 육·해·공군의 부대장들은 각각 고유한 서열명부를 지니고 있었다. 매년 갱신되는 국가발전 장기계획에 따라 당간부 서열이 정해졌다.

장교들은 특히 국가 장려책으로 인해 결혼을 일찍 하였다. 장교의 부인은 종종 군대 내에 또는 그들 주변에 직장을 갖고 있었다. 이들이 통일 이후 계속 직업을 갖지 못했다면, 이는 그들의 의지와 반대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통일 후 이들은 기껏해야 고용창출조치(ABM)²⁴ 또는 직업전환교육 조치에 따라 임시직업을 갖게 될 뿐이었다. 남편의 경우 아내의 직업에 관심을 갖지만, 아내들은 남편의 직업에 별다른 흥미를 갖고 있

23 역주: 2차 덕목은 1970년대 가치관단 논쟁으로부터 비롯된 개념이다. “사회의 성공”에 기여하는 특징적 덕목을 2차 덕목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는 직접적인 1차 덕목보다 한 등급 아래로 평가되어 왔다. 왜냐하면 이러한 덕목은 윤리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2차 덕목으로는 근면, 신뢰, 복종, 정확성, 청결성 등이 있다.

24 역주: ABM은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의 줄임말로, ABM 참가 인력을 고용할 경우, 사용자가 아닌 고용청이 임금을 지급한다.

지 않았다. 서독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근무 외 시간에 상관 또는 장교클럽의 주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교 가족들의 공동생활은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 통계상 장교 가족들은 서독과 비교할 때 한 명 이상의 아이를 두고 있다. 주택은 표준화된 조립식 주택으로 다층형 건물이며, 다른 군인 가정의 주택과 나란히 늘어서 있다. 이러한 주거상황으로 인해 동독의 근무 외 시간 공동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계단식 주택의 집단공동체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공동생활이 이루어진다. 이제 극소수만이 연방군에서 계속 군인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웃 간 관계가 매우 불편해졌다. 러시아식 목조별장 “다차(Datsche)”가 있는 정원에서는 사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다. 국가 인민군 시절에는 이곳에 머물기 위해서는 간부진에게 신고를 해야 했다. 근무 시간 외에 장교들은 보통 가족과 함께 하거나 또는 취미로 이것저것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장교는 이미 사관학교에서 전문병과에 할당된다. “병과 사령관”(중대에도 사령관이 있었음)과 관련된 이력은 연방군의 군 직무와도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장급에 이르는 군 전문직의 경력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장교는 일반적으로 서독의 동료들보다도 더 많이 실무에 신경을 쓴다. 장교는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으나, 학습 중에는 그다지 조직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 장교는 학습에 있어서도 힘들게 공부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 학습은 흥미위주라기 보다는 지식의 재생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필기 내용을 외우며 학습한다. 동독에서 지식에 대한 테스트는 문답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초기에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구동독 국가인민군의 장교는 동일한 사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장교는 자유 세계에서 다원주의와 개방적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공개적으로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는 개방적인 과정은 오랜 기간 동안 이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이로 인해 장교는 아마도 일정한 시간 동안 자기 확신감의 결여를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오히려 관찰과 경청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자신감의 측면에서, 점점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열등감으로 인해 구동독 국가인민군은 독자적 주도권, 독립적 분석이나 결정을 수행하고자 할 때, 구서독 출신 동료들보다 더욱 많은 용기와 힘을 필요로 한다. SED체제 국가는 서로 다른 비판적 사고와 말을 장려하지 않았다. 연관성에 대한 생각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정보는 하달되었다. 항상 명확한 계급적 관점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SED체제 국가는 언어교육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였다. 상투적이며 모호한 언어는 공산주의 지도자들만의 것은 아니었다. 군사적 표현방식 및 행동방식은 일종의 엄격한 의식에서처럼 정해져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집단 내 군의 단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동독 국가인민군의 직업군인에게서 처음부터 자발적인 개방성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비해 두 사람만의 대화에서는 적극적인 개방성을 보여주어 놀라웠다. 사회주의는 사회집단 내 자유로운 소통을 무너뜨렸다. 사회주의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미래가 임명장이나 사령장을 통해 안정적이 되어야 비로서 여유있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인민군의 명령방식은 연합군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사전에 계산된 구조를 갖고 있다. 클라우제비츠(Clausewitz)²⁵의 이론이 장교 학습과정에는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쟁 중에는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군 지휘부는 항상 앞서 생각을 해야 하지만, 미리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이론적 원칙은 실제 장교 교육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상세한 명령이나 계획의 실행에 대한 독자적 주도권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실무에서는 요구되지 않았다. 권한의 재위임이나 안정 중심적 사고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계상 평균적인 일반 장교들은 상당 수준의 러시아어를 구사하지만, 영어 실력은 기껏해야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수준이었다. 이들은 운동에 있어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으며 체력수준 또한 좋은 편이 아니었다.

구동독에서 장교는 교회와 접촉이 전혀 없었으며 세례도 받지 않았다. 장교는 종교 문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 처음에 장교들은 민주시민교육과 서독 군목의 신앙상담, 그리고 정부업무와 국가인민군을 구분짓는 것을 어려워했다. 가끔 장교들은 드물지만 주위에 군목이 있는 경우에는, 친절과 절제된 관심을 보여주는 목사와 마주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목사는 교구(敎區)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장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드물다. 구동독지역 내 주(州)교회는 1957년 체결한 군목 신앙상담 조약의

25 역주: 카를 필리프 고트리프 폰 클라우제비츠(Carl Phillip Gottlieb von Clausewitz)(1780~1831)는 프로이센 제국의 군인이자 군사학자로, 전쟁론의 저자이다.

수용을 거부하였다. 이 때문에 극심한 논쟁이 계속 되었다. 군인은 설득력 있는 주장의 명확성 그리고 진실된 동기의 공개를 원한다. 부차적인 문제가 주된 문제로 과대평가 되어 버렸고, 평화윤리적 기본원칙의 전면적 개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교회 분열에 우려로 인해 유보되었다. 몇몇 교회 목사와 주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노력하였으나, 대부분은 “군”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장교들은 국가 인민군 직업장교이자 전문가에서 연방군의 직업장교로 전환되기 위한 공식적인 자격전환과정을 이수하게 되었다. 이 훈련과정을 통해 자신이 속한 병과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하며, 동시에 다방면에 실력을 갖춘 참모 장교가 되어야 한다. 연방군 제복을 입은 채로 이러한 전환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전환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인 분야에서 목표의식을 상실하는 것은 정체성의 상실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존감에 대한 상실은 삶의 위기로 다가오며, 이로 인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정상적 반응으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통으로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상실감을 겪게 되면, 장교들은 삶의 일상적 상황에서 불확실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된다. 상실감으로 인해 장교들은 동독에 대한 서독의 단호한 평가로부터 더 큰 상처를 받는다. 비법치국가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 단어를 언급한 자가 의미하는 것과는 훨씬 다르게 그에게 받아들여진다. 진정이 담긴 행위는 신중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그들이 내보이는 예민함 뒤에 동독에 대한 은밀한 그리움이 감춰져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남아있게 된 구동독 국가인민군 장교들은 자격재취득과정에 대한 동기 부여가 잘 되어 있었다. 별도의 향상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그들의 능력은 두드러지게 한 방향으로만 발달하였다. 비공식적이며 자율적인 향상교육과정은 제대로 수용되지 못했다. 자유는 또한 동시에 여가시간이 아닌가,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경력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게 각인되지 않은 듯 보였다. 국가인민군의 경우, 진급은 위로부터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배치전환을 위한 자격취득과정이 5년 후 포괄적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연방군의 지휘부 조치와 구동독지역 군사 기지에 대한 서독 동료들의 태도가 완화되어 자격취득이 용이해졌기 때문이었다. 이들 “선구자들” 대부분은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새로운 동료와 공감하고 도움을 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차별적인 주관적 감정이 서독 동료 대부분이 갖고 있던 기본적 태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곧 구연방군 내에서 축소 및 구조조정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다. 바르샤바 조약이 폐지되고 과거 가입국 군대와와의 평화 유지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 후, 국방과 관련된 정책적 환경은 상당한 정도로 변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방군 내 동부군과 서부군은 공동의 재학습과정을 모색하였다. 이는 동시에 구동독 국가인민군 군인의 자신감을 고취시켰다. 이들은 몇몇 서독 동료들과 달리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독일의 국제적 의무와 관련하여 군병력의 외국 투입에 별다른 문제점을 느끼지 않았다.

구동독 국가인민군의 직업 장교들은 통일 후 처음 3년 간 구동독지역 내에서 전환학습, 적응 및 선발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전례가 없는 것이다. 이들은 독일 대통령으로부터 모범적 사례로 치하 받았던 연방군의 구동독지역 재건 사업에 동참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동독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베씨(Wessi)²⁶”에게 어느 정도 보여준 것이었다. 다시 말해 많은 장애물과 제한적 기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나감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정복해갔다.

국가인민군 출신 장교는 연방군 내에서 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의무병에 대한 생각을 빠르게 전환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여러 사례를 통한 많은 교육과 지도를 필요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 장교층의 경우에는 특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5년 후 대부분 극복되었다.

군의 이미지와 “연방군 브랜드” 활용 방식에 대해 통계상 국가인민군 출신 장교들은 오히려 실망감을 갖고 있으며, 별로 엄격하거나 강력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구동독 국가인민군 출신 장교들은 초기 재건 기간 동안 자신들과 매일 협력했던 서독 동료들에게 연대감을 느꼈다. 서독 동료들 역시 점차 그들에게 연대감과 공감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통일 후 구동독지역 내 특수 상황에 대한 서독의 무지와 무시를 비판하였다. 연방국방부와 서독 연방군이 보여준 몇 가지 사례에 대한 오만함과 독선에

26 역주: 서독인을 낮추어 부르는 말.

대해 공동으로 민감하게 대처하였다. 따라서 동독 투입 시 나타났던 베씨라는 표현이 “보씨(Wossi)”라는 표현으로 곧 바뀌었다. 이들은 완전히 구동독지역에 속해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족들은 함께 이사하지 않았고, 주말에만 가족 곁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었다. 구서독지역에서 보면 이들은 완전히 구서독지역에 속해 있다고도 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통일과정의 전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오씨에 대해 갖는 단호한 평가에 보씨가 대신 나서서 싸워주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구동독지역에 대한 보상비용은 신연방주 내에서 제한된 생활조건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는 것보다 구서독지역에서 계속 경력을 쌓고 싶어 했던 구서독지역 출신 동료들에게 가끔 질투심을 불러 일으켰다.

구동독 국가인민군 장교와 보씨 양측은 각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방식에 따라 각자 개인적 생활환경 속에서 연방군에 대한 편견에 맞서 싸워야 했으며, 항상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1993년부터 연방군 전체가 변화함에 따라, 구서독지역 동료들 역시 그들의 문제에 대해 구동독지역 동료들에게 더 많은 이해를 구해야 했다.

최종 결과

구동독지역 내 연방군은 신뢰 구축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이를 안전한 미래에 투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가인민군 내 과거 군 상사가 구동독지역 신입병으로 그리고 구서독지역 동료들로 수용된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니었다. 연방군과 소련군(이후 러시아군) 서부부대의 협력이 결과적으로 잘 이루어졌던 것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연합군은 도대체 어떤 국가가 1995년 예정된 NATO 관할구역에 가입국으로 수용될지 회의적 시각으로 의심을 품었다. 이제 이들은 독일식 모델을 바탕으로 과거 바르샤바 조약국의 NATO 회원국 가입을 좀 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신연방주 내 연방군은 그들의 방식에 따라 임무를 완수하였으며, 구동독 국가인민군의 직업군인을 성공적으로 통합하여 독일인의 공동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1993년 7월 콜 연방총리는 동부 방위사령부 및 군단을 방문하였다. 라테노브(Rathenow) 북쪽에 위치하며 하벨(Havel)강과 엘베(Elbe)강 사이에 놓여 있는 클리츠(Klietz) 소재 연병장에서 전투 훈련의 일환으로 무장상태에 있던 모든 계급의 군인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이때 독일연방공화국의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출신으로서 위대

한 과업에 동참했던 많은 병사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평했다.

“이러한 과정은 현대사에 있어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적이 동료가 되었으며, 이들의 임무는 독일 민족의 권리와 자유를 용감하게 수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방군은 우리 조국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위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건대, 과거를 회고할 때 독일 군대의 업적이 독일 통일과정에 있어 아마도 가장 성공적인 한 장을 장식할 것입니다.”

1994년 9월 연방군 감찰관인 클라우스 나우만(Kluas Naumann) 대장이 NATO 군사위원회와 통합된 연합국 군대 참모총장들을 동부 방위사령부 및 군단으로 초대하였다. 나는 연병장에서 1990년대 독일 육군의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전투 훈련 중인 부대를 진두 지휘할 수 있었다. 나는 베를린에서 상세한 상황 발표를 통해 최종 결과를 보고하였다. 의도했던 효과가 연방군 감찰관의 말 속에 그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얼마 후 NATO 군사위원회가 나우만 대장을 차기 의장으로 임명한다는 소식이 전달되었다.

1995년 2월 연방국방부 장관은 연합국 외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NATO 위원회를 그 사이 명칭 변경된 구동독지역 소재 제 IV 군단으로 초대하였다. 총지휘관이자 지금은 중장인 요아힘 스피어링(Joachim Spiering)이 다시금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여 클리츠 연병장에서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전투 훈련을 진두 지휘할 수 있었다. 이들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구연방주 내에서 오랜 기간 성장해 온 육군 병력과 견주어 전혀 뒤쳐짐 없이 높은 동기부여 의식을 갖고 연방군의 주요 국방병력 기준에 따라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독일 육군 제 IV 군단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로부터 관할 구역을 배정받았다. 그 이후 총지휘관은 두 명의 간접적인 상사를 배정받았다. 한 명은 코블렌츠(Koblenz)에 새로 창설된 육군 지휘사령부의 사령관으로 과거 방위사령부의 임무를 또한 이어받게 되었다. 다른 한 명은 현재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소재 NATO 중앙지상군(Landforces Central Europe, LANDCENT)의 네덜란드 총사령관으로서 병력투입의 결정 및 이와 관련된 군사훈련을 책임지고 있다.

국토 방위는 연합방위이다. 구체적인 적을 상정하지 않고, 방위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유럽 내 평화를 위한 독일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유럽은 오직 모든 국가의 공

동의 책임 하에 안전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은 자국의 자유와 독립을 좀 더 큰 전체적 틀 안에서 수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더 큰 틀 안에서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유럽 내에서, 그리고 유럽을 위한 공동 책임은 독일인의 국가적 관심사이다. 이를 통해 자체적인 군사 수단 없이는 성취할 수 없는 과제들이 도출되는 것이다. 독일은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UN, 북대서양 조약기구, 서유럽연합, 유럽안전보장협력기구의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지 하지 못한다. 독일이 통합되는 사이에 독일의 크기, 지리적 상황과 경제력으로 인해 늘 역사적 연관 관계를 맺고 있던 유럽 내 인접국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 군대는 독일에서, 서독 연합군은 베를린에서 철군하였다. 독일인들은 각기 다른 이유에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베를린과 구동독지역 영토에서 4년에 걸쳐 중부 유럽 군비축소 및 군비 통제라는 주요 업무가 진행되었다. 사실상 이것이 만족할만한 이 유일 것이다.

그러나 군 외에도 통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종종 부당하고 감정적이었다며 실망감을 표출한다. 동부 지역 인접국가 군대와와의 만남에서 우리는 항상 다시금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당신들의 문제를 기꺼이 함께 하고자 한다. 우리와 문제를 공유하겠는가? 이러한 경험은 매우 숙고할 만하다. 독일인들은 서로를 제대로 참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권력의 탄압이 느슨해지자마자 관습을 거부하고 부서버렸던 것인가? 동독인들은 단순히 서독 마르크와 서독의 번영만을 원했고, 덧붙여 조용히 내버려 두기를 원했던 것인가? 서독인들은 국가의 통일이 그들의 기득권과 관습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는가? 서독인들은 국가의 전후 부채에 대한 연대감에 있어 각자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것인가? 그칠 줄 모르는 성장이 그들의 국가 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독일인들은 유혈사태 없는 자유 통일이라는 선물에 감사해 하지 않는 것인가? 독일인들은 정말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전제 하에 모든 소식을 믿는 것인가?

몇 가지 간접증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가 자신의 활동 영역 안에서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지고 있다. 만일 독일이 이미 통일 되지 않았다면, 유럽이 어떻게 통합되었는가?

독일인들은 40년 간 서로 떨어져 살았다. 동독과 서독의 군대는 서로 적이었다. 연방군

과 국가인민군은 서로 매우 달랐다. “동독”의 경험과 “서독”의 경험은 공통된 독일 역사의 일부이다. 그리고 물론 국민들 사이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정체성이 자라났다. 서로 다른 두 군사문화가 30년 이상 독일 영토에 존재하였다.

구서독에서는 서유럽과 북대서양 정체성이 자라난 반면, 구동독지역에서는 또 다른 정체성이 성장하였다. 신연방주 내에서 앞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목표가 중요한 토대가 되어야하고 확고해져야 한다. 물론 이때 제 IV 군단이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독일 전체에서 서유럽과 북대서양 국가 간 정체성 확대가 추구되어야 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공동의 교훈을 지니며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지닌 경제·문화권의 중심, 중유럽에서의 국가적 정체성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시종일관 유럽적 사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럽의 지리적 윤곽은 알타 협정의 부당한 규정을 통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기초로 한 염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유럽의 생각은 유럽의 안전을 오직 공동으로 그리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구동독지역에서 연방군이 수행했던 재건사업과 더불어 통일 조국에서는 “평화를 위한 협력관계”라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향후 더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축적되어 왔다.

자료 2

04권 경찰 - 경찰청
하르트무트 몰덴하우어(Harmut Moldenhauer)
베를린주 경찰의 통합

2001년 5월 8일, 몽스(Mons) (벨기에)

하르트무트 몰덴하우어는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서베를린 경찰서장이었다.

* 자료 본문 미번역

자료 3

04권 경찰 - 경찰청 쿠노 뵈제(Kuno Böse) 박사

2010년 6월 10일, 베를린

쿠노 뵈제 박사는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로, 1990년대 초 베를린주 내무부 차관, 브레멘주 내무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이다.

뵈제 박사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1. 통일 이후 베를린주 소방대 및 구조대 통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근무시간 기록표, 전직 주소방서장이자 공학석사 볼프강 솔츠(Wolfgang Scholz)가 기록하였으며 베를린주 소방대가 1995년 자체 출판사를 통하여 발행, 51쪽
2. “경찰청 지도 - 경찰의 통합 과정”이라는 워크숍 최종보고서(의사록), 감독: 게오르그 셰르츠(Georg Scherz) 경찰청장, 베를린, 1991년 9월 30일~10월 2일, 67쪽 [“공무용 문서”]

현재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 나타나는 주된 문제는 통일을 겪으며 변화해 온 지난 몇 년 간 문서보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그 당시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퇴직하였거나 또는 그들 중 몇몇은 또한 이미 사망하였다는 사실도 문제가 된다.

다음 두 곳에서 해당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1. 경찰청 내 경찰역사박물관, 책임자: 페스트(Fest) 박사, 전화: (030)4664994762
2. 베를린 주립 문서보관소, www.landesarchiv-berlin.de, 월-금 10-17시, Eichborndamm 115-121, 13403 Berlin, benutzerservice@larch.verwalt-berlin.de, 전화: (030)90264-153

베를린은 특별한 사례를 제공해주고 있다. 서베를린 지역에서는 30,000 명의 경찰공무원이, 동베를린 지역에는 12,000 명의 경찰공무원이 근무하였다. 동독의 모든 경찰공무원은 가우크청²⁷의 조사를 받았으나, 이는 단지 동베를린에 한한 것일 뿐, 기타 연방주에서는 그러하지 않았다. 당시 질문지는 경찰역사박물관에서 열람이 가능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독일의 경우, 연방국가라는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경찰법, 보안법과 같은 거의 모든 법률은 개별 연방주가 알아서 개별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연방규정을 준수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연방주 또한 각기 다른 규정을 갖고 있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었다.

조직, 구조 및 향상교육과 자격취득은 동독과 서독을 비교해 볼 때 기본적으로 상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 여름 동베를린 경찰관을 대상으로 훈련연수가 이루어졌다. 인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약 9,000~12,000 명에 이르는 인원이 직책을 부여받았고, 나머지 인원은 해임, 사직 또는 퇴직하였다[이들 중 다수는 당시 번성하였던 민간 경호업체에 고용되었다]. 동독 출신 준고령 경찰공무원은 수습기간을 거쳐 서독의 신규 공무원으로 발령받았다. 훈련연수과정은 다양한 측면에서 힘든 노력을 요구했다. 우선 공무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동독 경찰관 재직 중 국가안전보위부(MfS)²⁸ 활동이 차후에 밝혀졌을 경우, 이후의 공식 생활은 매우 어려웠다. 질문지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슈타지 활동 여부는 처음부터 상당히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매우 큰 단점으로 작용했다. 과거 인민경찰(Volkspolizei) 시절, 높은 직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어 승계되지 않았다. 승계된 한 명은 작센(Sachsen)주로 발령받았다. 동독의 기술 및 장비는 낙후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인수인계되지 않았다.

반정부 및 반통일사범 중앙조사단(Zentrale Ermittlungsgruppe für Regierungs- und Vereinigungskriminalität, ZERV)²⁹은 통일 이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만프레트 키트라우스(Manfred Kittlaus)의 지휘 하에 (“당시 콜 총리는 디프겐

27 역주: 공식 명칭은 슈타지 문서관리청으로 초대 청장 요하임 가우크(Johaim Gauck)의 이름을 따 가우크청으로 불리움. 슈타지가 보유하고 있던 방대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주업무임.

28 역주: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의 줄임말. 일명 슈타지로도 불림.

29 역주: 1991년~2000년에 존재하였던 단체이며 SED 및 구동독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베를린 경찰청에 마련됨

(Diepgen) 베를린 시장만큼이나 키트라우스와 자주 대화를 나누었다”) 중앙조사단은 동독이 해외비용으로 유치해놓고 있었던 자금과 관련된 경제범죄를 조사하였다. 자금 액수는 수십 억에 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샬크-고로트코브스키(Schalk-Golodkowski) 사건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의회는 여러 번 통일 과정을 진행하면서 달성된 동질화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보고서를 아직도 찾아볼 수 있을지 또는 보관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국회의사당 문서보관소가 당시 보관문서를 베를린 주립 문서보관소에 인계하였는지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극복되어야 했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았다.

1. 동독 경찰공무원의 슈타지 활동 여부에 대한 검사
2. (특히 임금에 있어) 행정조직 통합 및 현대화
3. (특히 데이터 처리 분야에 있어) 행정방식 통합 및 현대화

퇴재 박사의 책임분야는 특히 다음과 같다.

- 경찰
- 소방대 (IGNIS³⁰ 데이터 도입)
- 민방위 (과거 연합군/NVA³¹ 소속), 예를 들어 병커, 생필품 비축 등
- 재해예방 [이를 위해 해당 민방위법, 재해예방법, 헌법보호법 비교], 예를 들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신연방주 내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극우주의 문제, SED³²/PDS³³ 모니터링 등
- 베를린 주민사무소
- 주민신고사무소(거주, 이주), 신분증, 여권

30 역주: 라틴어로 불을 의미함. 베를린 소방대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명칭.

31 역주: Nationale Volksarmee의 약어로 구동독의 국가인민군을 뜻함.

32 역주: 독일사회주의통일당

33 역주: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의 약어. 민주사회주의당으로 SED의 후신.

- 운전면허증, 차량 신고/명의변경, 번호판(알파벳 및 숫자 조합으로 인해 주민의 신연방주 또는 구연방주 출신 여부가 명확치 않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했음)과 같은 교통
- 묘지 감시, 장례 제도, 화장터
- 외국인청과 관련하여 망명 논의, 다수의 발칸반도 출신 망명인, 유고슬라비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문제, 관청에 줄지어 대기하는 한국인 사업가들, “마지막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가?”
- 동독 석사학위증 인증과 같은 직업 관련 자격증 감독
- 식료품 검사와 같은 영업활동 감독
- 행정구역 관리, 동일한 행정체계 및 직업교육과 향상교육 기준 마련

간소화, 현대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최종적으로 장기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통일 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번 있었으며, 이러한 기회는 항상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시민이 아닌 문서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서비스 간소화가 중요했다. 일부에서는 갑자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공무원이 임용됐는데, 이들의 사무실을 도대체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IT 분야와 관련해서 보자면, 기존의 경찰 및 소방대에는 자체 연락망 및 연락시설을 거의 갖추고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경찰, 소방대, 베를린주 교통공단(BVG)³⁴, 지상전철(S-Bahn)의 아날로그 전파를 디지털 전파로 교체하는 것은 매우 많은 비용이 드는 작업이었으며, 단지 아날로그 전파 또는 디지털 전파 중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만이 가능했다. (“동독 경찰은 알바니아를 제외하면 유럽 내에서 아직 디지털 전파를 사용하지 않는 유일한 경찰이다.”)

급여체계 통일: 1996년까지 경찰과 소방대의 경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상이한 급여 지급받았으며, (동일한 순찰차/소방차를 사용하면서) 동독 공무원은 30% 더 적은 급여를 받았다.

공공건물의 관리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현재 이와 같은 과제는 “아웃소싱”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음). 더 나은 통합을 목적으로 행정기구 소재지를 구동독지역으로 이전하였다. 베를린주 통계청, 행정 및 법학 전문대학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해당 전문대학

34 역주: Berliner Verkehrsbetriebe의 약어.

에서 강의를 하고 그루네발트(Grunewald)/빌메르스도르프(Wilmersdorf)에 거주하는 교수들은 쿠담(Ku' Damm)³⁵거리에서 프리드리히스펠데(Friedrichsfelde)로 사무실을 옮기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나, 결국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다. 그뿐 아니라 한때 베를린의 소유였으나 이후 동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건물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건물을 되돌려 받았던 경우, 건물이 대부분 황폐화되어 있어 전면적인 재개발이 필요한 상태였다.

35 역주: Kurfüstendamm의 약어.

자료 4

07권 미디어 – 언론통합 디터 바이리히(Dieter Weirich)

2010년 6월 14일, 베를린

디터 바이리히 교수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 방송국장을 역임하였다.

주제 관련 자료들

동독 방송국의 폐쇄는 “청산”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졌다. 이 주제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코블렌츠(Koblenz) 소재 연방문서보관소에 소장된 자료들, 그리고 ARD³⁶ 문서보관소(방송문서보관소)의 보관 자료들이 도움이 된다. ARD 문서보관소에서 동독 자료 역시 열람이 가능하다. 그뿐 아니라 본(Bonn)에 소재한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 역시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당시 신연방주의 방송분야 책임자였던 루돌프 헤리베르트 뮐펜츨(Rudolf Heribert Mühlfenzl)은 이미 2000년에 사망하였다. [1990년 10월 15일 뮐펜츨은 통일조약 제 36조에 따라 이 직책에 선출되었다. 당시 그의 임무는 동독의 (Deutsche Fernsehfunk 또는 Fernsehen der DDR로 알려진) DFF³⁷와 동독 라디오 방송국을 청산하는 것이었다. 그의 활동은 동독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다. 그는 인기 있는 방송사 및 방송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임기 중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아마도 중부독일방송 MDR(Mitteldeutsche Rundfunk)의 설립이었을 것이다.]

36 역주: Arbeitsgemeinschaft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의 줄임말이며, 독일 국영방송국이다.

37 역주: 1972년부터 1990년까지 존재하였던 동독의 국영방송국이다.

구조개편

최초의 독일 총선거에서처럼 다수결원칙에 따라 구조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개별 연방주 사이에 “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는 브란덴부르크주를 지원하였고, 헤센(Hessen)주는 튀링겐주를,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와 바이에른(Bayern)주는 작센주를 지원하였다. 이때 대부분 행정기술적 요소와 관련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구서독측이 갖고 있던 단점 역시 그대로 수용되었다. 다시 말해 구서독지역의 경우, 예를 들어 자를란트(Saarland)주와 같이 규모가 작은 연방주 모두가 주립 방송사를 소유하고 있다. MDR 방송사가 새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성의 문제를 피할 수도 있었다. 초기에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주 역시 MDR 방송사 관할에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는 북독일방송 NDR(Norddeutsche Rundfunk) 소속이다.] 브란덴부르크주 공영방송사 ORB(Ostdeutsche Rundfunk)와 베를린 공영방송사 SFB(Sender Freies Berlin) 방송사는 베를린주 및 브란덴부르크주 공영 방송사 rbb(Rundfunk Berlin-Brandenburg)로 합병되었다. 전체적으로 구동독지역 내 구조개편은 “연착륙”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독일 라디오 방송 Deutschnadfunk는 제 임무를 완수한 후 해체되었으며, 일부는 도이체벨레에 인수되었다. [서베를린] RIAS(Rundfunk im Amerikanischen Sektor) 방송사는 일부는 도이체벨레가 인수하였으며, 일부는 해체되었고, 일부는 민영화되었다. 이때 “특별수당”을 지급받는 구서독지역 출신 전문가들이 활용되었다. [그들은 구동독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그들의 업무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았다.]³⁸ 구서독지역 내에서는 지금까지 재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합병과 관련한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방송법(주방송법)은 서독의 방송법을 그대로 넘겨받았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영국의 방송법을 바탕으로 둔 것이었다.

38 구동독지역에는 주회계감사원(Landesrechnungshof)이 존재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새로 설립된 주회계감사원의 구성원은 구서독지역 출신 전문가들로 이루어졌다. 당시 구동독지역 내에서 구서독지역 출신 인력은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유일한 인력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욱 존경받았다.

예: 동독방송(DDR-Rundfunk)

동독방송국에는 6,000명의 직원이 근무하였으며, 이중 300명은 운전사였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직원들은 예를 들어 르포(reportage) 보도를 위해 필요한 개인 차량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독방송국의 사업본부장은 통일 후 보험을 팔러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다른 직원들은 퇴직하였다. 한 젊은 여비서는 슈타지의 비공식요원(IM)³⁹이었으며, 이로 인해 해임되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이에게 당시 노동시장 상황은 현재의 독일 구직자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유리하였다. 당시 디터 바이리히는 적절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비교적 많은 비판을 받았다. 서독 방송노조는 동서독 간 즉각적인 임금 동질화를 원하였다. 바이리히는 5년 간의 과도기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재원이 충분치 못하고, 구동독지역 생계유지비가 구서독지역보다 적게 들기 때문이었다. 구동독지역 방송직원들은 언론노조(IG Medien) 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또한 이 분쟁은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 바이리히는 구동독지역 직원이 그들의 과거로 인해 더 나은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구동독지역 직원 스스로 또한 그러한 것을 원치 않았다.

예: 베를린 국제 방송(Radio Berlin International, RBI)

베를린 국제 방송국 RBI는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았으며, 이는 소련의 대외방송국에 비견될 수 있다. 이미 통일조약 협상 초기에 RBI는 그 전보다 직원이 급감한 상태였다. RBI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동안 RBI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1990년 10월 2일 이후 RBI는 동독 방송국 최초로 활동을 중단하였다.] RBI 직원 해임은 법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였다. 동독은 아프리카어에 능통한 전문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언어전문가 양성에 있어서 당원자격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기 때문이다. 통일 후, 젊은 언어전문가들(총 24명)은 그대로 고용이 승계되었다. 왜냐하면 다수의 중장년층 언어전문가들이 통일 전부터 이미 도이체벨레에서 근무하고 있었

39 역주: inoffizieller Mitarbeiter의 줄임말.

기 때문이다. RBI 산하 일부 방송국은 통일 후 방송송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대로 존속시켰다. RBI는 단지 독일을 대상으로만 방송을 송출하였으며, 외국에서는 이 방송을 접할 수 없었다.

자료 5

07권 미디어 – 언론통합
 아냐 라이히(Anja Reich), 카린 슈테믈러(Karin Stemmler),
 페터 리스벡(Peter Riesbeck)

2010년 8월 5일, 베를린

아냐 라이히(*1967년 베를린 출생)는 라이프치히(Leipzig)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일간지 벨트(Welt)에서 편집자로 재직하였으며, 1996년부터 베를리너 차이퉁에서 일하고 있다. 이곳에서 수습기자로 일을 시작하여 동독과 서독의 언론인 비교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완성하였다. 1999년에서 2006년까지 뉴욕 특파원이었으며, 현재 월간지 다스 마가진(das Magazin)을 이끌고 있다.

카린 슈테믈러(*1957년 라이프치히 출생)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하였다. 1980년부터 베를리너 차이퉁에서 지역편집장으로 일하였다. 현재 옴부즈우먼으로 독자면을 맡고 있다.

페터 리스벡(*1968년 팔츠(Pfalz) 지역 안바일러(Anweiler)에서 출생)는 하이델베르크(Heidleberg)대학과 마인츠(Meinz)대학에서 화학과 정치학을 전공하였다. 1997년부터 베를리너 차이퉁에서 과학 분야와 가십 코너를 거쳐, 오늘의 쟁점란을 맡아 왔다. 2009년부터는 오늘의 쟁점 중 정치부문 국장을 맡고 있다.

인터뷰 핵심 진술:

1. 통일 이후 대부분의 동독 출신 언론인들이 베를리너 차이퉁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슈타지 색출이 있었으며, 과거 슈타지 활동 전력을 보유한 몇몇 언론인은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났다.
2. 동독의 언론인은 마침내 언론의 자유가 주어지고 더 이상 어떠한 당 지침에도 복종하지 않게 된 까닭에 통일을 해방으로 여겼다.
3. 베를리너 차이퉁의 대다수 독자는 구동독 지역 주민들이다. 폭넓은 지역에 걸쳐 독

자들을 끌어 모으고자 하는 집중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인터뷰 내용

베를리너 차이퉁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특수사례에 속한다.

- 통일 이후 대다수의 동독 출신 언론인이 베를리너 차이퉁에서 계속 일하고 있음
- 어느 누구도 해고되지 않았으며, 몇몇 중장년층 언론인이 보상금을 받고 일을 그만 두거나 퇴임하였음
- 슈타지 색출이 있었음
- 슈타지 전력을 보유한 몇몇 언론인은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났음
- 그리고 이들 중 몇몇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음. 이러한 경우를 다루고 권고하는 윤리위원회가 있음
- 1990년 통일 직후 동독 출신 언론인에 대한 어떠한 특별 연수과정도 존재하지 않았음
- 변혁기 또는 1989년 가을 무렵부터 SED⁴⁰ 중앙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지침 및 검열도 없었음
- 동독의 언론인은 마침내 언론의 자유가 주어지고 더 이상 어떠한 당 지침에도 복종하지 않게 된 까닭에 통일을 해방으로 여겼음
- 구조 개편 과정에서 서독의 언론인 채용을 선호하였음
- 동독과 서독출신 언론인 사이의 의견 차이는 매우 컸으나, 해결할 수 없는 대립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음
- 베를리너 차이퉁의 대다수 독자는 구동독 지역 주민들임. 폭넓은 지역에 걸쳐 독자들을 끌어 모으고자 하는 집중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인터뷰 중 베를린 장벽 붕괴 기념일과 관련하여 베를리너 차이퉁 기념판이 배포되었으

40 역주: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며, 특히 발행부수 증가에 대한 수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의 진술에 따르면, 공식 문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 리스벡 씨는 베를리너 차이퉁에서 통일을 경험한 당대의 목격자가 아니었다.
- 리스벡 씨는 한국이 통일에 있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다음과 같이 충고해 주었다.
 - 북한의 경영진은 남한의 인사로 교체되어야 한다.
 - 그러나 경영진을 제외한 조직의 지역 핵심 엘리트들 모두 교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읽고 싶어 하는지 더 잘 알고 있다.
 - 북한의 언론인 동료들을 위한 계속교육 및 향상교육 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 이러한 교육과정은 무엇보다 정치, 역사, 경제 분야를 다루어야 한다.
 - 권장 강의를: 권력분립을 다룬 글,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리바이어던(Leviathan)), 존 로크(John Locke), 존 롤스(John Rawls)의 저서

자료 6

07권 미디어 - 언론통합 우베 칼베(Uwe Kalbe), 라인하르트 프리케(Reinhard Fricke)

2010년 8월 5일, 베를린

기관/장소 :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편집국, 베를린

우베 칼베와 라인하르트 프리케는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편집국 정치부에서 다년 간 함께 일하여 왔다.

인터뷰 핵심 진술:

1. 통일 전 노이에스 도이칠란트에는 약 500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현재는 겨우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 대부분은 1991/1991년에 신문사를 떠났거나 해임되었다.
2. 15명의 편집인 중 약 절반이 서독 출신이다.
3. 독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노이에스 도이칠란트는 “고정” 독자층으로 인해 동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인터뷰 내용: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D)는 유례없는 성장을 이루었으며, 수십 년 간 동독 국가정당 (Staatspartei)의 기관지로 우위를 선점해왔지만, 정기구독자의 90% 이상을 잃은 뒤로 “좌파당(Die Linke)”의 당기관지가 되었다. 다시 말해 독일 내 유일한 당기관지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인터뷰 중 특히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었다.

체제 전환 이전에는 엄격한 검열이 이루어졌던 반면, 이미 1989년부터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곧 이어 SED의 중앙위원회(ZK)⁴¹를 통한 어떠한 지침도 더 이상 전달되지 않았다.

체제 전환은 강제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정치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부 상황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유발하였다. 편집국의 간부진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가 열렸고, 경제 분야와 같은 부서에서 많은 직원들이 해임되었다. 이에 반해 “학문” 및 “대외정책”과 같은 부서는 문제없이 계속 운영될 수 있었다.

체제 전환 이전 노이에스 도이칠란트에는 약 500명의 직원이 일하였으나 현재는 단지 약 100여 명만이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의 직원이 1991/1992년에 신문사를 그만 두었거나 해고되었다.

2010년 현재 상황은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 마케팅은 서독 출신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 노이에스 도이칠란트는 광고 게재만으로 수입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 15명의 편집장 중 약 1/2이 서독 출신이다.
- 의견 차이는 있으나 심각한 대립은 없다.
- 편집국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서독 출신 젊은이들을 많이 채용하였다.
- 독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고정” 독자층으로 인해 동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 현재 약 3,000~4,000명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를란트(Saarland)주에는 단지 24명의 정기구독 독자가 있다.
- 독자의 평균 연령은 68세이다.
- 채용지원자의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좌파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다.

41 역주: Zentralkomitee의 약어.

자료 7

13권 농업 - 농림식품부 게르트 콘라트(Gerd Conrad)

2010년 11월 5일, 베를린

게르트 콘라트는 연방 식품, 농업, 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BMELV) 613과 연방포털 “독일 수산업(Fischerei in Deutschland)” 총괄책임자이다. 그는 수산업 분야 통일 협상 시 담당자였다.

인터뷰 주제: 통일 과정에 있어 동독의 수산업

콘라트는 수산업 분야 통일협상의 시대적 증인으로 자신의 경험을 밝히고 있다. 그는 1990년 연방 식품, 농업, 소비자보호부 담당관으로 원양어업 및 어획 할당 관련 실무진에서 일하였다.

동독과 서독의 실무진(Arbeitsgruppen, AG)이 협상을 위하여 조직되었다. 서독은 겔더(Gelder)가, 동독은 크라우제(Krause) 차관이 이를 담당하였다. 이 실무진은 본(Bonn)과 로스톡(Rostock)에서 3~4회 회의를 가졌다.

실무진의 담당 분야는 연구 및 비율규정, 원양어업 등이었다. 동독 및 서독 공무원 각 1명, 그밖에 학자 및 수산업 관련 참가자가 함께 하였다(“원탁회의(Runder Tisch)” 처럼).

콘라트는 동독 당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참모진 규모가 적었고, 부분적으로 로스톡 어업콤비나트(Fischkombinat)가 독립적으로 활동하였다고 지적했다. 원양어업은 동독의 외화획득에 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분야 종사자 다수가 SED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단지 소수의 인원만이 연방정부에 고용이 승계되었다. 일반적으로 동독의 수산업은 “매우” 번성해있던 상태였다.

통일조약에서 수산업 주제는 단지 발트해 운항 선박의 크기 제한과 관련한 부분만을 언급하였을 뿐,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규정이 유럽연합법의 효력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유럽의회규정모음집이 있었다. 모든 협정은 유럽연합이 심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양어업에 대한 다수의 국제협정이 효력을 상실하였다.

어획 할당 협상은 부분적으로 쉽지 않았다. 유럽연합법에 따라 전체 독일에 걸쳐 해당 되었으며, 구연방주가 그들에게 할당된 어획량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또는 이전 해당 기관)는 연방농업식품청(Bundesamt für Landwirtschaft und Ernährung)을 통해 어획량 할당을 규정하였다. 합의 결과, “누구나 자신이 가져온 할당분을 받는다”는 규정이 받아들여졌다. 원양어업 어획 할당이 대폭 감소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주의 경우, 그러한 규정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따라서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양한 어종의 어획 할당률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불리한 조건을 조정해갔다.

동독 원양어선의 대규모 퇴출 조치는 신탁관리청이 주관하였으며, 유럽연합의 협력, 특히 수산업 지도를 위한 금융기구(Finanzierungsinstrument für die Ausrichtung der Fischerei, FIAF)의 공동자금조달로 지원을 받았다.

그밖에 동독의 담수어 생산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담수어 생산은 예를 들어 작센(Sachsen)주 및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대형 기업을 통해 대량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뱀장어는 “제 2의 화폐”로 통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질보다 양에 더 높은 가치를 두었다.

자료 8

13권 농업 - 농림식품부 볼프강 크뤼거(Wolfgang Krüger) 박사

2010년 9월 30일, 베를린

볼프강 크뤼거 변호사는 독일농민연맹(Deutscher Bauernverband, DBV)에서 농업법 전문위원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구동독지역 내 농업 재건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인터뷰 주제: 구동독지역 농업의 구조적 변화

크뤼거는 1990년 이후 신연방주 내에서 이루어진 구조적 변화를 지켜보아 왔다. 그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동독에서 농민은 거의 농민상조회(Vereinigung der gegenseitigen Bauernhilfe, VdgB)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농민상조회는 1990년 3월 동독 농민조합으로 전환되었으며, 1991년 농민상조회 지부는 독일농민연맹에 통합되었다. 연방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 농민의 60~70%가 독일농민연맹 소속이다.

크뤼거는 통일 과정에 있어 독일농민연맹의 세 가지 주요 과제로 로비 > 구조개편 지원 > 농업구조조정 지도를 언급했다.

독일농민연맹은 “구동독지역 구제기금(Hilfsfond Ost)”에서 약 7백만 유로를 수령하였으며, 이를 특히 법률 자문 및 시범사례를 위해 사용하였다. 그밖에는 주로 유럽연합의 가격보상보조금(1992년-1995년) 및 구조조정보조금(1992년부터) 그리고 특히 조기퇴직 규정을 통하여 지원을 받았다.

구동독지역에서는 주로 농업협동조합, 구서독지역에서는 주로 가족기업으로 구분되었던 농민연맹들의 분류가 약간의 문제였다. 현재 신연방주에는 약 30,000개의 농업기업이 있으며 그 중 6,000개는 신생 또는 재설립 기업, 3,000개는 법인기업, 20,000개는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농업생산조합(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sgenossenschaft, LPG)

과 인민농장(Volkseigene Güter, VEG)이 지고 있는 약 70억 유로에 달하는 구부채였다. 정부의 채무변제를 통해 부채를 14억 유로까지 낮추는데 성공했다. 은행에 대한 채권자간 담보물의 우선 변제 순위 동의서(Rangrücktrittsvereinbarung)를 통하여, 또는 2000년부터 비교를 통하여 후속사업들은 비교적 유리하게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었다.

자료 9

14권 신탁관리청과 구동독 지역 재건 가브리엘레 뢰베르트(Gabriele Löbert)

2010년 9월 10일, 베를린

가브리엘레 뢰베르트는 동독에서 국가위원회 교육제도부에서 재직하였다. 통일 후 베를린으로 수도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교육 및 직업교육정책 II부 B4과에서 일하였으며, 현재 연방경제기술부 외국투자, 재교육, 개발은행과 이등서기관을 맡고 있다.

인터뷰 내용:

- 동독 경제부(Wirtschaftsministerium) 공무원 약 4,000명 중 약 40명만이 독일연방공화국 경제부에 채용되었다. 몇몇은 외무부와 같은 타부처로 이직하였으나 그 수는 미미하다.
- 동독출신 인력에 대한 향상교육 및 계속교육은 연방공무원연수원(Bundesakademie für Öffentliche Verwaltung)에서 관할한다.
- 인사위원회 심사 후 이들은 본에 위치한 연방 경제기술부에서 계속 근무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
- 개인적 경험
 - 동독에서 이수한 직업교육을 인정받기 위하여 공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서독출신 직장동료와의 관계: 상호 간의 편견
 - 수도 이전 후 본과 베를린 사이를 통근
- 교육 및 직업교육정책부 활동
 - 신연방주에 직업훈련법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
 - 구동독지역 젊은이를 위한 지원: 직업훈련 선택 시 진로지도 그리고 신청 지원
 -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다.

- 1) “적극적 훈련(Bildungsoffensive)”: 청소년에게 적합한 정보자료
- 2) “기회거래소(Chancenbörse)”: 기업과 청소년 연계하기
- 3) 전화포럼: 24시간 전화상담 가능

청소년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 뢰베르트 여사는 인력승계를 위한 규정 또는 일반적인 지침이 있었는지, 그리고 인력승계와 관련된 정리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고 했다. 또한 뢰베르트 여사는 과학기술부 내부에 1990년 조직도 및 당시 연방공공행정연수원의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지 문의해보겠다고 하였다.

자료 10

14권 신탁관리청과 구동독 지역 재건 헬가 마넵(Helga Manneck)

2010년 10월 1일, 베를린

헬가 마넵은 연방경제기술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사무관이다.

통일조약 제29조를 바탕으로 구동독의 대외무역 또는 최소한 그 일부를 살려보고자 하였다. 그 이상의 실용적 연관성을 존재하지 않지만, 이 주제는 북한과 연관지어 볼 때 흥미로울 듯하다.

독일상공회의소(Deutscher Industrie- und Handelslag - DIHT, 현재 명칭은 Deutscher Industrie- und Handelskammertag - DIHK)와 독일산업연합회(Beundesverband der Deutschen Industrie)는 베를린 장벽 붕괴 후 합동사무소를 설립하였다. 1990년 10월 4일 연방정부의 모든 부처는 베를린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했다. 연방경제기술부는 400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최대 규모의 지역사무소를 두었으며, 이 중 30명은 서독 출신이었다. 동독 및 서독 출신 직원의 비율 배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와 달랐을 것이다. 동독에는 관광, 경공업과 같은 경제부문과 관련하여 약 40개 부처가 있었다.

1950년 이후 연방대외무역정보국(Bundesstelle für Außenhandelsinformationen, BfAI)은 독일 중소기업을 위하여 외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 구서독 기업들은 연방경제부로부터 동독의 거시경제학적 상황과 법적 기본조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원했다. 연방경제부는 대외무역정보국에게 이와 관련된 보고서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독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헬가 마넵은 당시 경제부에서 대외무역 상공회의소(Auslandshandelskammer, AHK) 및 대외무역정보국(BfAI)을 담당하고 있었다.)

통일이 되기 반 년 전, 동독 직원들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다. 능력 있고, 적합한, 그리고 정치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인사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동독사람(Ossi)⁴²”의 신상서류는 잘 다듬어져, 다시 말해 잘 꾸

며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최선의 해결책이 없었다. 독일상공회의소(DIHT) 또는 대외무역 상공회의소(AHK)를 위해 몇 명의 동독인에 대해 고용승계를 해야 했을까? 단지 소수의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 외무부(Auswärtiges Amt)는 단 한 명의 동독인에 대해서도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고, 경제기술부는 중간적 방식을 선택했다. 부총리는 자문관으로서 직위를 유지했을 뿐, 직원은 아니었다. 국가계획위원회(Plankommission)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 현재 신연방주 내 모든 공무원 중 약 80퍼센트가 좌파당(Die Linke)을 지지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체제 전환 내지 전환 이후 시기에 이러한 점이 비교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3월 경제부 내에 신연방주 대외무역지원과(Referat, Außenwirtschaftsförderung Neue Länder)가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구동독지역의 기업들은 대외무역 지원을 위한 조치 및 가능성을 접하게 되었다. 당시 외국시장이 동독기업을 외면하였기 때문에 대량 해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1991년부터 동독기업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다. 신탁관리청 또한 초기 단계였다. 다시 말해 신연방주 정부와 행정기관은 아직 정착단계에 있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누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는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때 연방경제기술부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구동독지역 기업을 위해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지는 않았다. 이러한 유치 업무는 신탁관리청의 관할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신탁관리청은 매우 규모가 큰 기관이었다. 이와 유사한 관계에 놓여 있는 연방경제기술부의 업무 범위는 신탁관리청의 그것에 비하면 오히려 적은 것이었다. 연방경제기술부에서는 구동독지역을 담당하는 직원이 많지 않았고, 연방경제기술부에서 일하는 구동독지역 출신 신입 직원의 외국어 실력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연방경제기술부는 서로 매우 상이한 업무를 다루고 있었던 관계로, 신탁관리청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적었다. 또한 1991년에 구동독지역 투자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의 기반이 되었던 연방경제기술부의 내부 지침이 마련되었다. (헬가 마넵은 1998년까지 이 센터를 이끌었다.)

주요 과제는 외국투자 유치였다. 이를 위해 정보센터가 설치되었다. 이후 유명인사들 역시 “홍보출장”을 목적으로 파견되었으며, 1998년부터 힐마르 코퍼(Hilmar Kopper)가

42 역주: 동독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

발표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것을 일례로 들 수 있다.

일본은 이른 시기부터 구동독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독일에 일본 은행의 지점이 개설되었다. 구동독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미미했다. 그 후 많은 일본 기업이 다시 구동독지역을 떠났다. 사실 구서독지역 출신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은 구동독지역 회사의 매입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시장 선점을 노렸던 것이었다. 최소고용기간제도를 활용하여 이를 막고자 했던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베를린주의 지원이 중단되자 많은 기업이 베를린을 떠났다.

1994/1995년부터 구동독지역이 더 이상 고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이후 특히 독일 전체에 대한 홍보와 관련하여 구동독지역은 항상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구동독지역 내 사회간접자본시설조치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연방경제기술부는 동독이 동유럽의 관문이라고 주장하며 구동독지역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자 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 동유럽으로 향하는 문은 구동독지역을 거쳐가는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활짝 열려버렸다. 동유럽 시장이 붕괴되어 있을 때, 동시에 구동독지역 생산품의 품질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길이 쏟아졌다. 게다가 구서독지역 및 서유럽 시장은 상품생산업체가 이미 넘칠 정도로 많이 존재했다. 그렇다면 구동독지역 기업은 어떻게 시장에서 새롭게 성공할 수 있을까? 헬가 마빅은 외국투자자들은 북한을 우선 투자대상으로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 어려운 것은 그뿐 아니라 사실상 북한이 중국으로 가는 관문으로도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의 자산 1천 5백만 마르크를 초기자금으로 한 국제투자위원회(International Investment Council, IIC)가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후속사업과 관련하여 연방기술경제부 기본원칙과(Grundsatzreferat) I b 1의 크라일(Kreil)씨가 구동독지역 기업의 대외관계 지원에 대하여 보고해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유한책임회사는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두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전체 신연방주와의 상담 대신, 국제투자위원회의 사전분석을 원했다. 이후 국제투자위원회는 독일투자진흥회(Invest in Germany)로 변경되었다.

다음과 같은 수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 부족한 정보

- 불충분한 초기 사업전망
- 사회간접시설 및 대인서비스 부족
- 투자자의 회사 매입이 적었으며, 그들은 그 회사와 관련된 시장에만 관심이 있었다.

경제상호원조회의(RGW)⁴³는 동독이 집중하였던 차량제조(철도의 화물차량, 열차) 및 화학과 같은 분야에서 국가 간 분업을 정착시켜왔다. 상호경제협력회의 해체 후 해당 시장은 붕괴되었다. (화폐통합으로 동독 제품은 하룻밤 사이에도 값이 치솟았다.) 동시에 독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로 인해 동유럽 역시 변화하였기 때문에 구동독지역은 더 이상 동유럽으로 향하는 절대적 관문이 될 수 없었다.

“파견공무원(Leihbeamte)⁴⁴”은 각 연방정부 부처에서 채용 공모된 직책이었으며, “통상적인” 공모방식이 존재했다. 경제부에서 파견공무원직 채용을 공고하면 지원이 가능했다. “파견공무원” 선발기준이 되는 질문내용은 각 연방주가 개별적으로 책임지고 작성해 사용했다. 구동독지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종종 개인적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파견된 간부의 자녀를 위해 다언어 사용 학교를 찾는 것이 중요했다. 종종 구서독지역에서 훌륭한 역량을 보유한 간부들은 구동독지역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해당 지역을 잘 모르는 외지인들이 구동독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했다. 인적 구성에 있어서, 외지인과의 적절한 혼합이 요구되었으며, 이 주제에 대해 계속해서 원칙 논쟁이 일었다. 구서독지역 출신 직원은 구동독지역 출신 동료들 위하여 자신의 승진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동독지역 출신의 경우, 연방경제기술부에 배치될 때 이전 경력이 고려되었다.

43 역주: Rat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의 줄임말. 1949년 설립되었으며, 서구 사회에서는 종종 코메콘(Comec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으로 불리웠다. 당시 소비에트 연합의 지휘 하에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였던 단체이다.

44 역주: 독일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이외의 외부 인력을 뜻한다. 이들은 소속 관청이 아닌 민간경제, 협회, 또는 이익단체 출신으로 그가 속한 기업에서 계속 직원 자격을 유지하며 소속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연방정부 부에서 시간제로 활동한다.

자료 11

15권 사법 및 행정 - 법무부 · 내무부 한스 오토 브로이티감(Hans-Otto Bräutigam) 박사

2010년 9월 13일, 베를린

한스 오토 브로이티감 법학박사(*1931년 출생)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브란덴부르크주에서 만프레트 슈톨페(Manfred Stolpe)가 총리직을 역임하는 동안 법, 연방 및 유럽 문제부 장관으로 재직하였다.

그는 약 10년 전, 한국 통일부가 주최한 독일 통일을 주제로 한 강연에 초청된 바 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통일 과정을 거치면서 개별 문제점을 다룬 수많은 문서가 존재하지만, 개별 문제 간의 연관관계나 전체적인 틀을 다룬 글은 그다지 많지 않다.

각 신연방주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예를 들어 신탁관리 최종 보고서와 같은 보고서들이 존재한다.

- 1993년/94년 주요 민영화 작업이 종결되었다.
- 일자리의 약 30%가 줄어들게 되었다.

기업의 20%는 회생불가능한 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나머지 80% 기업은 대부분 구서독지역 소재 기업에게, 몇몇 기업은 외국 기업에 인수되었으며, 구동독지역 소재 기업의 소유로 남게 된 기업은 거의 없었다.

당시 이루어진 산업구조 개편은 현재 매우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산업의 직업훈련은 구서독지역으로 집중되었으며, 재능 있는 동독 청년들 역시 구서독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권장도서 : 파크, 카를 하인츠(Paqué, Karl-Heinz). 2009. *성과분석. 독일 통일에 대한 경제적 분석. (Die Bilanz. Eine wirtschaftliche Analyse der Deutschen Einheit.)* München: Hanser. [파크는 1956년 자르브뤼켄(Saarbrücken) 출생으로 2001년부터 2007

년까지 자민당(FDP) 작센안할트주 부대표를 역임하였고, 1996년부터 막테부르크대학에서 국제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그는 저서를 통해 독일 통일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독일의 주요 50개 기업 중에 단지 8개 기업만이 구동독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미해결 자산 문제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소련군 철수로 남게 된 대규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상환되지 않았다. 연방헌법은 이를 또한 판결에 따라 결정하였다.

유효한 동독법에 따라 1989년 10월 18일 이전에 취득한 소유권은 반환될 필요가 없었다.

결과

- 50%가 토지를 (원가치대로) 돌려받았음
- 50%는 2004년부터 총액의 10~20%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더 이상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명백하게 부당했다.”]

강제이주자 또한 “보상금”을 받았다. 이는 완벽한 보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정확히 부담조정이라 불리웠다. 이 부담조정은 보상자산금액의 10~20%에 해당된다.

법률통합은 놀라울 정도로 별다른 논란이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1990년 10월 3일자로 독일연방공화국의 법률체계는 단지 몇 가지 예외조항을 빼면 신연방주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법률체계를 점차적으로 통합해갔더라면 다수의 긍정성이 존재했겠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다. 동독은 서독과 달리 재판권이 일원화되어 있었다. 어떠한 경우든지 동독 국민은 항상 우선적으로 지방법원(Kreisgericht)에서 송사를 해결했다.⁴⁵ 이러한 법률체계가 계속 유지되어 왔고 국민들이 친숙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1993년 말까지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45 역주: 동독은 재판권의 일원화로 인해 일심 법원에 해당하는 구법원, 항소심 법원에 해당하는 군법원(Bezirksgericht)만이 존재하였다.

동독 모델의 수용을 고려했어도 괜찮았을 분야

1. 가족법 및 노동법: 이 분야는 사상적 영향을 그다지 많이 받지 않았으며, 다양한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더 많은 부분이 수용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2. 보건제도: 보건제도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진료소가 유지될 수도 있었겠으나, 이 제도의 수용에 대해 서독 측이 강력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았다.
3. 직업훈련이 병행되는 고등학교 졸업(대학입학자격시험(Arbitur)): 동독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였다. 학업 기간이 일 년 정도 연장되더라도, 향후 직업 경력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지금 독일 내에서만 논의되고 있다.
4. 법원법(Gerichtsverfassungsgesetz):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 조세법원(Finanzgericht)와 사회법원(Sozialgericht)의 통합은 지금 독일 내에서만 논의되고 있다. 이는 이미 동독에 존재하던 제도였다.
5. 법률전문가 양성: 법률전문가 양성에 있어서도 동독 모델에 따라 간소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상적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던 분야의 경우에는 동독의 다양한 제도를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a) 서독의 사상적 의심 그리고 b) 통일과정에 있어 시간은 촉박하고 세부적인 연구는 지나치게 긴 시간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이중 어떠한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 11월 9일 국경 개방 이후 통일에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서독으로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을 것이며, 불균등한 인구분포(1. 젊은 층의 이주 그리고 2. 신연방주 내 출산율 감소)는 이미 지금 현재 벌어진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졌을 것이다.

동독은 산업지대를 동독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인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통일 후, 기업들은 파산하고 노동자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관광업은 인구 조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다수의 신연방주에서는 의사가 부족했고, 자격을 갖춘 후속세대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신연방주 내 많은 지역은 개업과 관련하여 의사들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 특별히 대단한 해결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독일 동북부 지역에서는 폴란드 이주민들의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폴란드 슈체친(Szczecin)⁴⁶ 주변 지역은 매우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다.

브란덴부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자매결연

통일 이전에도 개별 연방주 사이에 자매결연이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이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다.

- 브란덴부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 튀링겐주와 헤센주
- 작센주와 바이에른주

구동독지역 내 현직 판사는 서독 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브란덴부르크주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판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들 중 약 70명은 비교적 신속하게 파견되었고, 이후 좀 더 많은 인원이 파견되었다. 당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총리이자 후에 연방대통령이 된 요하네스 라우(Johannes Rau)는 이를 적극 지원하였다. 그들 중 다수는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돌아왔으며, 몇몇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자기 경력의 도약대로 삼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좀 더 수월하게 경력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그들이 3류 판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판사들이 이상주의에 젖어 브란덴부르크주로 갔다. 그들은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았는데, 이른바 “별거보상수당 (Trennungentschädigung)”이라 불리웠다.

250명의 동독 출신 판사가 존재하였다. 동독법보다 서독법에 따라 더 많은 판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략 800여 명의 판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다수의 판사들은 예를 들어 국가안전부(MfS) 활동 심사로 인해 해임되기 전에 판사직을 그만 두었다.

법원서기관 인력 부족도 심각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많은 소유권 관계가 토지대장에

⁴⁶ 역주: 독일어 명칭은 Stettin.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약 150,000건의 신청서가 처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다. 토지대장은 과거 병영으로 쓰이던 곳에 모아두었고, 30명의 서독 출신 법원서기관들이 작업을 처리하였다. 이 작업에 2년이 소요되었으며, 그 사이 또 다시 그동안의 처리했던 수만큼 새로운 신청서가 쌓이고 있었다.

전자토지대장 제도 역시 도입되었다. 이와 동시에 브란덴부르크주는 이를 도입한 최초의 주 중 한 곳이 되었으며, 이 분야에서 현대화 기회를 활용하였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구동독지역 출신 법률가를 위해 계속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의 성공적 협력을 이끌었다.

슈타지 활동 심사

형무소: 수많은 서독 출신 교도관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적인 이유로 제외되었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에는 교도관이 충분치 않았다. 이 분야에 있어 공개적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으나,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만은 없었다. 과거 슈타지 활동이 적발되면, 즉시 해임되었기 때문에, 임시 해결책으로 활동 심사에 시간을 끄는 방법이 동원되었다. 구서독지역에서는 구동독지역으로 교도관 인력 이동을 원하지 않았으며, 자체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매우 집중적인 계속교육이 이루어졌다. 판사, 검사, 신학자, 교도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슈타지 활동 여부뿐만 아니라 인성 및 적성에 이르기까지 적합성 심사를 받았다. 또한 판사의 과거 판결이 평가를 받았다. 다시 말해 단지 슈타지 활동이 유일한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던 것이다.

행정공무원은 내부적으로 심사를 받았으며, 판사와 검사는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위원회가 추천한 경우에도 각 부처 장관은 반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이미 퇴직한 다수의 서독 출신 판사들이 몇 년 간 구동독지역에서 근무하였던 점 또한 도움이 되었다. 주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판사들만이 고용승계가 되었다. 외무부에서는 단 한명의 고용승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방군의 경우 일부 인원만이 (계급 강등 후) 승계되었다.

거의 대부분이 심사 절차를 통해 검증되었다.

43개 구법원이 브란덴부르크주에 있었으며, 첫 단계로 이 법원의 수를 25개로 감축했

다. 이러한 처리 과정에서 지역 사정에 밝은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그러나 법무부 내 구동독 출신 법무부 차관을 연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슈타지 과거 심사 중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데 매우 주의를 기울였다. 베를린주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대처하였다. 과거 분리되었던 도시 일부를 하나의 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든 동독 출신 판사들은 일단 무조건 해임되었으며, 이후 15%가 다시 채용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판사 인원의 45%를 그대로 승계했다.

열악한 환경과 더불어 건물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웠던 동독 형무소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동독은 잔혹한 조치와 경비견, 발포명령을 사용했으나, 통일 후 폐지되었다. 당장 시급한 형무소의 개조는 규모도 크고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그러나, 반대 세력의 대규모 항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6억 마르크 예산을 들여 사업이 시행되었다.

인민회의는 편파적 심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독 출신 법률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동독 수감자들을 심사하도록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동독 시절에 내리진 형량을 줄이거나, 무효화 또는 승인해야 한다고 권장하였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감형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감형은 총리의 권한이었다.

발포명령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정치국원이 기소되었고, 입증된 책임여부에 따라 판결을 받았다.

법적 왜곡: 판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오용하였을 경우, 당시 유효한 법에 따라 구성요건이 이미 처벌 가능한지 입증되어야 했다. 이러한 사례는 소수에 한하였다. 서신 비밀보장권 침해와 선거위반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에서 파견된 판사들은 소속을 그대로 유지하고 브란덴부르크주 판사로 소속을 바꾸지 않았다. 이들을 위해 “별거보상수당”(흔히 “특별수당”이라고도 불리움)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구동독지역 판사들이 임용되었다.

뒤이어 90년대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기회/전망상실과 굴욕감을 경험하게 했던 일자리 소멸로 인해, 구서독지역보다 구동독지역은 더욱 높은 실업율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강한 적대감이 촉발되었다.

기회의 불평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로 경제기업의 연구부서를 들 수 있다. 이들 독일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제기업들은 대부분 (직원들을 데려가지 않고) 구

서독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해버렸다.

통일의 대외적 측면

고르바초프(Gorbatschow)와 마찬가지로 구동독지역 사람들 다수는 독일이 NATO⁴⁷ 회원국이 되지 않기를 원했으나, 콜 총리와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를 관철시켰다. 통일 독일의 NATO 회원국 지위 유지를 찬성하는 이들은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중립국가로서의 독일은 고립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서독은 이미 유럽공동체(EG)의 회원국이었다. 신연방주는 1990년 10월 3일부로 자동적으로 회원국이 되었다. 통일 독일이 어떠한 패권주의적 요구도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설득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통일 독일이 유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은 큰 행운이었다.

47 역주: 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자료 12

16권 재무부

브리기타 카우어스(Brigitta Kauers) 박사,
노르베르트 라데마허(Norbert Rademacher)

2010년 10월 26일, 베를린

브리기타 카우어스 박사는 과거 동독의 국가계획위원회(Staatliche Plankommission) 연구소에 재직하였으며, 이후 연방토지관리공사(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GmbH, BVVG - 농업의 민영화)에서 일하였다.

노르베르트 라데마허는 통일 전후 시기에 티로 자라친(Thilo Sarrazin)이 이끄는 연방재무부 내독관계 실무진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 실무진은 경제 및 화폐통합 계획을 담당하였다. 라데마허는 소련군의 철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런던에 있는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äischen Bank für Wiederaufbau und Entwicklung)에서 임원으로 재직하였다. 그는 현재 재무부 유럽부 내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연구정책 및 통상정책).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우리는 정보법에 따라 문서열람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많은 경우, 제대로 된 문서 내지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탁관리청과 관계되는 모든 것은 통일특수과제청(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관할이다. 해당 서류들은 아직 연방문서보관소(Bundesarchiv)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 1994년에 작성된 신탁관리청의 최종통계는 중요하다. 우리는 자라친(Sarrazin)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경제화폐통합(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을 고안한 인물이다. 우리는 또한 연방토지관리공사에서 1992년부터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도 만났다.

동독과 서독에서는 독일통일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나 청사진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반응한 것이었다. 구동독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통일 초기에 구서독지역의 학교/체육관에서 거주하였다. 서독은 경제통화연합이 시장경제를 단계적으로가 아니라 일시에 도입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1990년 2월 8일 경제화폐통합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서독 측에서는 당시 재무부 차관이었던 호르스트 쾰러(Horst Köhler), 동독 측에서는 롬베르크(Romberg) 재무부 장

관이 참석하여 전문가 회의를 이끌었다. 우선 동독의 선거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선거 후 토요일 오전, 모든 연방부처 관계자들 50여 명이 참여한 회의가 연방재무부에서 열렸다. 일요일 저녁 또는 늦어도 월요일 오전까지 동독의 어떤 법령을 보존하고, 어떤 법령에 대한 효력을 상실시키며, 서독의 어떤 법을 도입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회의는 슈미트-블라이프트로이(Schmidt-Bleibtreu)가 주재하였다. 당시 회의를 주재했던 슈미트-블라이프트로이는 이미 사망(?)했다. 넓은 의미에서 유리했던 점은, 예를 들어, 독일은 그 어떠한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도 새로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러시아의 경우 이와 달랐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와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

우선 독일 통일은 오 년에서 십 년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예를 들어 통일된 독일 내에서 상이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통제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티로 자라친은 시행일을 정해 한번에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독에 “신탁관리청(Ur-Treuhandanstalt)의 원조격 기관”이 설립된 적이 있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초기에 신탁관리청은 민영화될 수 없었으며, 제 3의 길을 찾아야 했다. 기업이 더 나은 실적을 올림으로써, 인민의 자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했다.

연방에서 주도하는 신탁관리법(Treuhandgesetz)은 신탁관리청과의 협력 및 연방경제부의 자문을 바탕으로 연방재무부가 직접 준비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서류가 보존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진 바 없다. 신탁관리법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신탁관리청이 해체되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유지되어야 할지, 또는 이 기관이 앞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갖게 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동독의 재무부는 마지막까지 700명의 직원이 근무하였고, 그 중 117명(?)은 고용이 승계되었다. 동독 재무부는 1990년 10월 4일 본으로부터 파견나온 연방 재무부 직원 40명에게 단번에 접수되었다. 이에 관해, 연방재무부 차관과 직장평의회 대표(Betriebsratvorsitzende)가 대화를 가졌다. 이후 이에 대해 논의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독과 중유럽, 그리고 동유럽 내에서 개혁운동이 나타났고, 동독은 경제상호원조회의(Rat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 가입국인 상태였으며, 서구사회를 향한 접근이 있었

다. 이와 유사한 방식이 북한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경제상호원조회의의 협상은 북한의 경우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독일 내 존재하였던 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가 사실상 한국에는 유사한 형태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또한 동독 내에서 발단은 아래에서부터, 다시 말해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드 메지에(de Maizière) 정부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선출되었으며, (대내외적으로)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동독 경제는 경제상호원조회의의 요구에 따라, 특히 소비에트 연방의 요구에 따라 좌우되었다. 서독은 반 년 간 여전히 경제상호원조회의의 무역을 지원하였다(?). 1991년 루블화의 태환성이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이러한 체제가 붕괴되었다. 연방하원의회 구동독지역 의원들은 예를 들어 불가리아 및 다른 국가 구매자가 더 이상 구동독지역의 제품 구매를 원치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구동독지역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더 이상 구동독지역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서독화폐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서독물건을 사겠어.”라고 말하였다.

동독에서는 무엇보다 특히 섬유산업에서 여성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그러나 서유럽에서 섬유산업은 이미 오래 전부터 더 이상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섬유산업은 아시아로 터전을 옮긴 상황이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구동독지역 산업은 체제 전환/독일통일 후 1년 이내에 자취를 감추었다. 물자공급부족으로 인해, 동독 내 모든 콤비나트는 소비재생산품 및 소비재저장고를 갖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대형 콤비나트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구내식당, 외래환자 진료소를 갖추고 있었다.

구동독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것을 갖고자 했다. 이는 제품이 구서독 지역에서 생산된 것인지 또는 구동독지역 내에서 생산된 것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는 상관이 없었다. 카우어스 박사는 밤새 상품진열이 바뀌었을지라도 기본 식료품은 구서독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처럼 품질도 좋았고 사람들은 겉포장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승용차의 경우는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리청은 트라반트(Trabant)⁴⁸ 생산입지를 유지해야한다고 압박했다. 통일 전 몇 달 동안 동독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독이 이행해야 할 지원 규모를 결정하였다. 신탁관리청이 연방재정을 바닥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일정 액수부터

48 역주: 동독에서 생산되던 차량 명칭. 통일 전까지 동독 내에서 국민차로 사랑받음.

는 신탁관리청이 연방재무부에게 계약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이에 대한 서류가 존재한다(어디에?). 비르기트 브로이엘(Birgit Breuel)은 연방재무부가 신탁관리청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탁관리청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념하였다.

구동독지역 기업들은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변형되어야 했다. 신탁관리청은 구동독지역 기업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고, 따라서 기업을 매입하고자 하는 이들은 모두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장을 확보해야 했다. 매입자의 계획을 바탕으로 매매가가 산정되었다. 특히 매입자가 기업을 매입하여 최초 이익을 언제 얻고자 하는지가 중요한 사안이었다.

최근 몇 년 간 조사에 따르면, 현재 모든 구동독지역 노동자의 90%가 통일 전후 시기와는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다. 당시 구동독지역 주민은 독일 통일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열광하였다. 북한과 연관지어볼 때 북한주민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북한 내에 충분한 식량이 필요하다. 구동독지역에서는 이러한 식량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신탁관리청 노조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미 구서독지역에 존재하나 구동독지역에서 흔하지 않은 인력공급회사(Beschäftigungsgesellschaft)를 어떻게 구동독지역에 도입할지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동독 서비스부문은 낙후되어 있었다. 체제 전환 및 독일 통일과 더불어 서비스부문이 성장하였으며 많은 인력을 수용하였다. 동독 내에도 처음부터 자영농민이 존재하였다. 이들 중 다수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이다. 자영농민은 각각 10헥타르에 이르는 토지를 지급받았다(그전에 동독에서는 100헥타르를 초과한 토지부터 국유화됨). 자영농민은 농업생산조합(LPG⁴⁹)에 가입할 것을 강요받았다. 1945년~1949년에 이루어진 국유화는 체제 전환/독일 통일 후 무효화되지 않았다. 그 대신 보상이 이루어졌다(통일조약 참조). 연방토지관리공사는 독일 통일 후 토지를 우선 임대해 주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물량의 토지 매매로 인하여 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토지 상황은 어려운 문제이다. 한국에서도 역시 그러한가/그러할까? 감정적 연대감은 또 다른 관점이다. 그러나 상속이 금전적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면, 중요한 것은 특히 재정적 관점이다.

49 역주: 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sgenossenschaft의 줄임말.

자료 13

17권 보건 및 연금체계-보건복지부 하르트무트 라이너스(Hartmut Reiners)

2010년 11월 12일, 베를린

하르트무트 라이너스는 과거 브란덴부르크주 노동, 건강, 사회복지 및 여성부 “보건정책 기본원칙 문외과” 과장을 역임하였다.

인터뷰 핵심 진술:

1. 동독과 서독의 통일에 있어 보건 분야에 구조적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동독 보건체제가 서독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이 비교적 마찰 없이 진행되었다.
2. 상당한 의미가 있었던 동독의 주요 의료공급구조(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진료소, 외래 진료시설, 약국 등)는 자율 개업한 개인병원 중심의 독단적 서독체제를 지지하는 의사대표들의 압력에 의해 청산되었다.
3. 동독의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4. 부분적으로 현재의 보건의료체계는 위와 같은 구조의 의료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의료공급센터, 질병관리프로그램).

인터뷰 내용: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간 보건 분야에 유사성이 존재하였고, 이로 인한 조직적 접점은 보건체제가 비교적 마찰 없이 진행되도록 이끌어 주었다.

일상적 습관으로 인해 초기에 마찰이 빚어질 우려도 있었다. 예를 들어 동독 각 부처는 업무를 오전 7시에 시작하였으나, 서독은 탄력근무제가 있어 주된 업무 시간은 약 9:00에서 9:30 사이에 시작되었다. 초기에 부분적으로 상이한 용어 사용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또 다른 마찰은 인력 채용에 있었다. 소수의 숙련된 서독 전문인력이 다수의 동독 인력을 재교육해야만 했다. 간부진은 대부분 서독출신이었다(예를 들어 의료보험(KKn⁵⁰)의

경우). 주무부처에 있어 동독과 서독출신 국장급 공무원 비율은 50:50이었다. 서독 공무원은 우선 자문관 역할을 수행하였다(예를 들어 기본원칙과 또는 병원담당과에서). 특히 구동독출신 직원은 담당관 직급으로 종사하였다. 의료보험 감독은 연방직원연금공단(BfA⁵¹)의 서독출신 직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초기에 드러났던 공간부족(예를 들어 베를린 내 한 호텔의 대형 사무실 공간에서 세 연방부처가 임시로 함께 근무함)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건설프로젝트를 통해 1995년까지 대부분 해소되었다.

레기네 힐데브란트(Regine Hildebrandt)는 자신의 개인적 역량을 통해 그리고 강력한 장관⁵²으로서 다방면에 걸쳐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다. 따라서 체제 전환 중 보건부 업무가 비교적 수월해졌다. 레기네 힐데브란트는 외래환자 진료소 유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당시 독일 내에서 가장 큰 쟁점사항은 한 체제를 폐지하거나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할 체제 내에서 더 우수한 부분적 구조가 또한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병원재정법(Krankenhausfinanzierungsgesetz, 1971)에 따르면 서독에서는 병원 건물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연방주 책임). 1991년 동독 체제전환 중 이 부분이 개정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병원건물 재개발에 구연방주보다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법령을 허용하는 조건을 내세웠다(10년 프로그램). “이로써 구동독지역 병원은 결국 구서독지역보다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병원은 비교적 수월하게 서독 체제에 적응할 수 있었다(특히 비슷한 구조 및 서열로 인해). 마찰은 의료보험조합 의사의 체제 전환 및 의료보험에 대한 국민의 반응에 있었다. 공적 보험과 민간보험의 구분은 구동독지역에서는 생소한 것이었다.

개인병원에 바탕을 둔 개업 체제는 체제 전환 시 쟁점이 되었다. 이는 서독에서 1970년대 이미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었다. 더 나은 의료급여를 위한 해결책은 동독에 존재했던 것과 같은 외래환자 진료소와 거의 유사한 의료공급센터(Medizinische Versorgungszentren)의 설립이었다. 1990년대 초 외래환자 진료소가 폐쇄됨에 따라 의료

50 역주: Krankenkassen의 졸업말.

51 역주: Bundesversicherungsanstalt für Angestellte의 졸업말.

52 역주: 레기나 힐데브란트는 브란덴부르크주 노동사회복지보건부 장관이었음.

공급센터 체제구조를 “이제 힘겹게 다시 세워야 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외래환자 진료소에 대한 연방주 차원의 대부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외래환자 진료소 의사 및 행정책임자는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험조합 의사협회와의 관계에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가 시 자문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자문은 외래환자 진료소의 경제적 구조 및 행정(이중지도: 의사관리관 및 행정관리관)을 포괄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브란덴부르크주 내 약 20개 외래환자 진료소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의사들은 외래환자 진료소에서 개업을 하거나 그곳에서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의사를 채용한 의료공급센터는 더욱 성공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율적으로 개업한 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조합 의사협회를 통해 동일한 보상체제가 적용되었다. 의사의 인원수가 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한다. 의료공급센터의 각 전문의에 대한 배분은 내부규정에 따른다(환자 인원수 등).

브란덴부르크주에는 특별프로그램이 있었다. 개업을 원했던 의사들은 재건대부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을 통해 저렴하게 대출을 받았다(대출 후 첫 2년 간은 이자 및 거치기간 없음, 그 뒤 6% 이자). 많은 개인병원이 2년 간 준비금 없이 설립되었지만, 그 후 파산에 이르렀다.

특히 대출에 의한 개인병원 설립이 별다른 이득이 되지 않았던 나이 많은 의사들은 외래환자 진료소나 외래진료시설에 계속 머물렀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외래환자 진료소와 외래진료시설을 구제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했던 유일한 연방주였다.

동독 보건의료체제의 구조는 매우 합리적이었다. 즉, 외래환자 진료소, 외래진료시설, 약국 구조에 있어 행정관료주의 부담이 적었고 입원 및 외래 진료범위 구분이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잘 작동하는 시스템을 청산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외래환자 진료소 체제는 의사 간부진과 의료보험사의 일부가 압력을 넣어 통일조약 전문가 회담에서 폐지로 결정되었다.

직장의료보험조합(Verband der BKK⁵³)의 일부 회원사는 의료보험 자체시설 내 외래환자 진료소 체제전환에 대한 계획을 발전시켰으나, 이와 같은 고려는 조합위원장에 의하여 철회되었다.

53 역주: Betriebskrankenkasse의 줄임말.

통일조약 각 분야에 대한 자체 자문단이 존재하였다. 라이너스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 보건담당 실무진 구성원이었다. 전문가 회담에서 “반발에도 불구하고” 동독 보건체제를 폐지하기로 결정되었다. 통일조약에서는 “모든 의료적 및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는” 개인병원 체제가 모델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정책 지지자들로 인해 외래환자 진료소는 즉시 폐쇄되지 않았고, 의료공급센터(MVZn)는 몇 년 간, 특히 도시에서 성황을 이루었다. 의료공급체제는 이제 다시 구동독이 실시했던 구조에 가까워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의료장비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개인전문병원은 비용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익성을 상실하고 있다. 의료공급센터가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었다.

동독 보건체제는 의료진료 범위에 있어 등급이 다음과 같이 급격하게 격하되었다. (각각 주/군 단위 외래환자 진료소로 분류된) 국립진료소(“연방주 의사”), 소도시 내 외래진료시설(소아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등과 같은 “기본과”), 군/주 단위 외래환자 진료소(고도로 전문화된 과/장비)

공공의료서비스(예를 들어 동독에서의 학교 의사가 해당)는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독일병원협회(Deutsche Krankenhausgesellschaft)는 동독 병원(국영/교회운영/민영)을 보조하였다.

1992년 보건구조법(Gesundheitsstrukturgesetz, GSG)에 명시된 의료보험 예산편성은 특정분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증가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예산편성은 “신연방주”에 대한 지나치게 적은 예산편성으로 인해 브란덴부르크주 내 의료보험조합 의사의 경우 문제를 유발하였다.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간 격차로 인해 계속 발생했던 기저효과(Sockeleffekt)는 2007년 개혁(구동독지역 예산은 구서독지역 예산의 95%에 달해야 함)을 통해 비로소 해소되었다.

전문성에 있어서 동독 의사의 자질은 서독 의사의 자질에 견주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동독 내 가정의는 대부분 서독 가정의보다 더 나은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동독 간호인력/간호사는 특히 의학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자체 교사를 통해 더 훌륭한 또는 대학교육에 준하는 직업교육을 받았다.

2001년 만성질환자(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질병관리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동독 약국에 해당된다.

동독 보건체제는 서독 보건체제보다 더 현대적으로 조직되어 있었으나, 현대적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을 뿐이었다. 서독 재정체계를 통해 지원되었더라면, 운영비용의 충당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암 등록부와 같이, 보건통계도 구동독지역이 훨씬 더 잘 정리되어 있었다. 암 등록부 구조는 동독의 것을 채택하여 계속 발전시켰다.

자료 14

17권 보건 및 연금체계 - 보건복지부 에크하르트 블로흐(Eckhard Bloch) / DAK⁵⁴ 기본원칙 및 법률 상담부

2010년 11월 18일, 함부르크

에크하르트 블로흐는 1988년부터 DAK의 경영관련 법률상담사로 일하고 있으며 1989년 12월부터 1990년 3월까지 DAK에서 동독 프로젝트 팀장을 역임하였다. 확대된 프로젝트 그룹이 해체될 때까지 그는 자문관으로 남아 있었고 1990년 이후 구동독지역에서 법률상담사로서 DAK에서 토지관련 상담을 도맡았다.

인터뷰 핵심 진술:

1. 베를린 장벽 붕괴 후 DAK는 즉시 이에 대처하여, 추후 예상 가입지역 내 DAK 설립 계획에 착수하였다.
2. 주요 문제점은 주로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구조적 측면(예를 들어 동독에서 적합한 상담사 구하기, 불충분한 전화망)이었다.
3. 동독 내 추후 예상 가입지역에 DAK(및 전달구조)를 정착시키는 일은 몇 가지 쟁점 사안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독일사무직의료보험조합(DAK)는 곧바로 통일에 대비하여 동독을 잠재적 고객집단으로 설정한 후 검토에 착수하였다.

블로흐는 1989년 12월 20일 세 명의 DAK 이사의 위탁을 받아, 그들과 함께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경우 DAK에 대한 사업전망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DAK는 통일이 될 경우 동독의 사회보험을 AOK⁵⁵가 인수하여 모든 동독인을 담당하게

⁵⁴ 역주: Deutsche Angestellten-Krankenkasse의 줄임말. 주로 DAK로 불리우며 독일 내 3위를 자랑하는 대규모 공적 보험 회사이다.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다. 통일 과정에 있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DAK와 AOK 직원 간의 마찰이 존재했다. 통일은 건강보험조합 간에 치열한 경쟁전을 불러왔다.

1990년 1월, 동독 사회보험기관과의 최초 접촉이 이루어졌다. 당시 해당 업무담당자를 찾아 전화 연락을 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연락을 위한 조사에만 여러 날 또는 심지어 여러 주가 걸렸다.

1990년 1월부터 DAK는 통일을 확신하였고, 이에 대한 활동계획을 수립하였다. 1990년 2월부터 DAK는 동독에서 홍보업무에 돌입하였다. DAK 주 영업소(현재 구조조정조치에 따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는 그들이 활동할 동독 파트너주를 각각 할당받았다. 이러한 활동은 동독이 아직 주권국가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회색지대(Grauzone)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엄밀히 말해 연방보험청(Bundesversicherungsamt)은 건강보험 감독기관으로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오용을 근거로 홍보활동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회사의 이러한 활동에 관대하였다.

마침내 헤르베르트 므로체크(Herbert Mrotzeck) 동독 사회보험 책임자가 DAK 연락담당관이 되었다. 자문회의와 상담이 마련되었고, 1990년 4월부터 미래의 신연방주에 대한 DAK 계획 수립이 조직적, 인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다(전화시설을 감안한 영업소 설립, 직원 채용 등). 우선 서독의 DAK 직원들이 동독에 영업소 설립을 목적으로 파견되었다(특히 회계사의 잠정적 철수를 통해). 서독 DAK의 지정 주영업소를 통해 협력이 이루어졌다. 광역 건강보험의 영업구역이 신연방주에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두 번째 단계로 DAK는 1991년 1월 1일부로 동독 사회보험기관 직원들을 채용하였다.

동독 주민의 DAK 가입이 아직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통일에 대비하여 동독 주민으로 하여금 의무감을 갖도록 DAK는 가입을 위한 구매의향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재정상으로 동독에 대한 DAK 활동 확장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조직 운영에 있어 계속해서 관리부담으로 인해, 4월부터 4인으로 구성된 동독 프로젝트 그룹에 두 명이 추가되었으며, 결국 동독 DAK 사무소를 설립한 후, 담당직원을 추가

55 역주: 독일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건강보험 회사.

채용하였다. 블로흐는 프로젝트 그룹 팀장 직위를 다른 이에게 인계하였다. 결국 1990년 5월부터 7월까지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동독에서는 보험체계가 부분적으로 완전히 새로 만들어져야 했으며, 이는 의료보험에 있어 조직적으로 많은 비용부담을 의미했음) DAK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구조를 갖춘 독립적인 업무담당 팀을 조직해야 했다.

DAK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구동독지역에 위치하여 국유화되었던 모든 토지를 돌려받았다.

1991년 1월 1일부터 가입구역에 설치된 새로운 영업소에서 업무가 시작되었다. 주영업소는 추후에 설치되었다. 지휘는 우선 구연방주의 지정 주영업소를 통해 이루어졌다.

바머 보험사(Barmer Ersatzkasse)와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었고, DAK는 신연방주 내 신규회원 모집 경쟁에서 단지 2위에 그쳤다. 바머 보험사가 약 1백 30만 명에 이르는 신규회원을 모집했던 반면, DAK는 약 750,000명의 신규회원을 모집했다. 신연방주 구역에서 DAK 건강보험 시스템 구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자료 15

17권 보건 및 연금 체계 – 보건복지부 질케 글라처(Sylke Glatzer)

2010년 11월 23일, 베를린

질케 글라처는 1981년부터 동독 사회보험사에서 근무하였고, 1991년에는 사회보험 이 전기관에서 일하였으며 그 후 연방직원연금공단(BfA)에 편입되었다. 연방직원연금공단은 2005년 독일연금보험회사와 합병되어 독일연방연금보험공단(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으로 재탄생하였다.

인터뷰 핵심 진술:

1. 구동독의 통합 사회보험제도를 서독의 세분화된 제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 통합 체제의 부분적 구조개편 및 재구축이 필요했다.
2. 동독의 사회보험 구조를 서독의 세분화된 사회보험제도에 맞게 조정하는 최초의 작업을 마치자, 1990년 10월 3일 이후 특히 작업 현장에서 많은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연방직원연금공단과 다른 사회보험회사 및 입법기관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3. 서독은 1989년 11월 9일에 신연방주 가입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는 확장된 연금법을 통과시켰다. 1991년부터 여전히 유효했던 동독법과 이미 발효된 서독법이 부분적으로 충돌하였다. 연금 정산 및 조정과 관련하여 신연방주의 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특수규정으로, 연금보험회사들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터뷰 내용:

동독에는 자유노동조합총연맹(FDGB)이 관리하는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자 사회보험과 독일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자영업자 사회보험제도가 있었다.

1단계로 동독의 사회보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1990년 11월에 두 사회보험제도가 통합되었다. 자유노동조합총연맹이 운영하는 사회보험에서 국영보험을 흡수한 것이다. 2단

계로 1991년 1월에 1년 동안 사회보험 이전기관(ÜLA)이 신설되었다.

동독에는 의료보험(KV), 산재보험(UV) 그리고 연금보험(RV)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 사회보험 제도가 존재했다. 1990년 7월부터 화폐·경제 및 사회통합이 발효되면서 의료보험 분야가 분리되었다. 그 이유는 통합제도와 함께 세분화된 서독의 의료보험 제도로 동독에 함께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은 1991년 4월에 분리되었다. 즉, 모든 사고등록서류는 산재보험조합(서독의 법적 산재보험의 책임기관)에 전달되었다. 1991년 전에는 사고가 명칭 순으로 분류되고 산재보험조합에 전달되었다. 1991년 이후 등록된 사고부터는 모든 사고가 직업 그룹에 따라 각 산재보험조합에 배정되었다.

1992년부터 신연방주에서도 사회법전 제6권(SGB VI)이 적용되면서 연금보험이 1992년 1월 1일에 분리되었다. 동독에서는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동독 서류의 분류 작업을 실시해야 했다. 1978년까지는 동독에서 컴퓨터 관독이 가능한 서류에 한하여 최종 직업이 기록되었다. 1978년 이후의 서류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었으므로 약 150만 건의 서류를 컴퓨터의 도움 없이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로 분류해야 했다(30번 정보). 서독에서는 주보험회사(LVA)에서 노동자의 연금보험을, 연방 직원연금공단에서 사무직 근로자의 연금보험을 각각 담당하였다. 1991년 12월에는 사회보험 이전기관(ÜLA/SV)의 모든 서류를 주보험회사 그리고 연방직원연금공단에 전달해야 했다.

동독의 연금 지급 방식을 서독의 후불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동독에서는 연금을 현금으로 또는 현금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지급하였다. 연금의 현금 지불 방식은 서독에서 1990년에 사라졌다. 연금 후불 지급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동독 라이프니츠 슈퍼컴퓨팅센터(8번 및 2번 정보)의 사회보험에서 이를 처리하였다. 주보험회사와 연방직원연금공단에서 자체적인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사회법전 제 6권(특히 연금법)을 제외한 모든 서독의 사회복지법전(예를 들어 행정법 또는 절차법)이 발효되었지만, 이 법은 부분적으로 여전히 존재했던 동독의 법과 결합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보험 이전기관(ÜLA/SV)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12월까지 동독의 연금규정이 적용되며, 연금규정에는 노령연금

(Invalidenrente, 동독 용어) 및 수입감소연금(Erwerbsminderungsrente, 서독 용어)의 경우 사업자가 더 이상 질병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시점(원활한 이행의 원칙, Nahtlosigkeitsprinzip)부터 연금급여의 지급이 시작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연금보험은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부터 사업자에게 질병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다. 동시에 이미 발효한 사회법 전 제 10권(SGB X)에서는 이와 같은 '원활한 이행의 원칙'이 없는 대신 배상권이 적용되었다.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의료보험에서 질병 보조금을 지불하였으며 수입감소연금 또는 노령연금의 경우, 의료보험에서 질병 보조금과 연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시점에 해당 질병 보조금을 연금보험에서 다시 재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동독에서 연금급여는 페니히(독일의 화폐 단위; = 1/100 마르크)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마르크 단위로만 지급되었다. 따라서 더 심각한 문제는 계산 총액의 결산이었다. 법적 부적합성으로 인해 사회보험에서 의료보험협회 단체들과 협의하여 이 문제를 접근할 내부적 관리원칙을 세웠다(초록 자료 XX 참조). 피보험자는 모든 계산이 기입된 결산 서류를 받았으며 그 외에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아도 되었다. 내부적 문제들은 대부분의 경우 배후에서 피보험자가 의식하지 못하도록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전쟁 희생자를 위한 보조금에 대한 법률인 연방부조법(Bundesversorgungsgesetz, BVG)도 1991년에 발효되면서 동독의 전쟁 희생자 연금과 충돌하였다. 이에 따라 전쟁 희생자들은 이제 두 배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연금 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해 사회보험에서 실무그룹을 새로 설치하였다. 그 결과 이중보조금 수령자들에 대한 통보의무가 도입되었다.

동독에서 자영업자들은 동독 국영보험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었고 동독에서는 그 외에 개인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1991년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 보험번호를 발급 받아 서독의 보험제도에 편입되어야 했다.

의사의 진단서에 대한 보수 지급에 있어서는, 화폐통합으로 인해 각 진찰 후 진찰비용(동독 마르크)이 표기되어 있는 의사 진단서 양식이 폐지되어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의사 진찰 규정은 계속 유지되었다. 대안으로 1992년에 형식적으로 발효된 연방직원연금 공단의 보수협정이 적용되었다.

동독의 연금법에는 1991년 이후부터 더 이상 연금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보험이질적 급여가 포함되었다. 가령 당뇨병 환자의 급여 또는 일반인 폐쇄지역 급여가 폐지되었고

국가 자녀 보조금은 이전되었다.

1990년 7월 1일부터 연금조정법(Rentenangleichungsgesetz)이 발효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특히 산재연금이 다시 분석 및 계산되었다. 서독의 연금급여 수준에 상응하기 위해 연금을 도표에 따라 알맞게 상향조정하였다. 연금 상향조정의 출발점은 서독의 “표준연금(보험료 산정 상한선 수준의 고정 임금을 받은 45년의 근무연수)”이었다. 1991년 1월에 제1차 연금조정규정에 따라 모든 동독 연금이 15% 향상되었다. 1991년 7월 1일에는 제2차 연금조정규정이 발효되면서 추가로 15%가 다시 향상되었다. 1989년 11월 9일에 연방 연금법(사회법전 제6권)이 제정되면서 모든 서독 연금이 다시 재조정되었고, 연방 연금법이 1992년부터 개정되면서 동독의 연금도 1991년 말까지 서독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사회법전 제6권의 규정을 신연방주의 연방가입에 따라 확장해야 했다.

사회법전 제6권의 조정과 더불어 연금이전법(Rentenüberleitungsgesetz, RÜG)이 제정되었다. 연금이전법 제2조는 서독의 수준에 맞게 조정된 동독의 연금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199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였다. 이 조항은 1992년과 1996년 사이에 발생한 연금 수령자에게 적용되었다. 연금이전법의 제3조는 소위 요구 및 권리 이전법(Anspruchs- und Anwartschafts-Überführungsgesetz, AAÜG)을 포함하고 있다. 동독에서는 “일반 연금”보다 많은 연금을 받은 수많은 추가 및 특별 급여 수령자가 존재했다(교사, 의사, 군인 회원 등). 구동독 시절에 이와 같은 추가 및 특별 급여 대상자가 1992년과 1996년 사이에 연금 수령 시기에 도달했을 경우, 2개의 연금 계산방식이 적용되었다. 첫째 요구 및 권리 이전법, 그리고 둘째 사회복지법전 제 6권의 기준에 따른 계산방식이 채택되었다. 결국 두 가지 중 더 높게 책정된 연금이 지급되었다.

이와 같은 소유권보호규정(Besitzschutzregelungen)은 연금 보험에서 매우 중요했다. 예를 들어 사회부조(법적 통일성 형성을 위한 법 제40조)를 들 수 있다. 독일의 사회부조금은 1990년 7월에 495 DM이었다. 1991년에는 아직까지 편입지역에 사회복지국이 신설되지 않았다. 독일의 제도상 연금과 사회부조금이 서로 연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급여가 495 DM 이하로 계산될 경우에 연금 외에 부조금이 별도로 지급되었다.

기타 소유권보호규정은 사회법전 제6권 315a조, 319a조 또는 319b조에 명시되었다. 예를 들면, 연금생활자의 의료보험 도입(동독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도)에 따라 동독 연금생활자의 연간 총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연금계산법에 따라 이전보다 낮은 연

금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등이다.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금 보충급여가 지급되었으나, 보충급여는 1996년부터는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계속 진행던 연금조정(동독에서는 1년에 2회, 구서독에서는 1년에 1회 실시)에 따라 결국 사라졌다.

요구 및 권리 이전법에 따라 연방사회법을 통해 네 개의 보호급여가 제공되었다. 1. 1990년 7월에 조정된 연금금액, 2. 1991년 12월에 조정된 연금금액, 3. 순수 사회법전 제 6권(SGB VI)-연금금액 4. 변동적 성격의 동독 연금금액이 그것이다.

연금 권리에 대해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고, 연방법원에서 부분적으로 연금 산출 시 고려해야 될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연방연금보험은 2010년에도 동독법(요구 및 권리 이전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동독 사회보험의 관리네트워크는 연방직원연금공단 그리고 연방의 주보험회사에서 대부분 흡수하였다. 전 지역관리청은 상담소 및 안내소로 바뀌었고 관청은 63개 상담소와 98개 민원센터로 개편되었다.

자료 16

17권 보건 및 연금 체계 – 보건복지부 루돌프 뮐러(Rudolf Müller)

2010년 11월 24일, 베를린

루돌프 뮐러는 약 1976년부터 1987년까지 포츠담 지역에서 주의로 건강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종사하였다. 뮐러는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주의로 대리 임명되었으며 1990년 초에 주의로직을 3개월 연임하였다. 그는 1990년 동독의 행정구조가 변경되면서 관할 행정청에서 관할국장 대리로 재직하였다. 신연방주가 형성되면서 뮐러는 레기네 힐데브란트(Regine Hildebrandt)에 의해 브란덴부르크주 보건부 관할 병원의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자 브란덴부르크주 의사들은 뮐러의 전 주의로 지위를 이용하여 보건부에 압력을 가하였다. 뮐러는 그 후 대중의 관심을 덜 받는 분야인 재난방재 및 구조과로 활동영역을 옮겼다.

인터뷰 핵심 진술:

1. 통일조약에 명시된 외래환자 진료소 승인에 관한 결정은 대부분 의사협회가 동독과 서독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동독과 서독의 이해관계는 서로 확연히 엇갈렸다. 서독 의사협회는 외래환자 진료소와 외래진료 시설의 최첨단 진료방식을 견제하였으며, 동독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개업의 자유를 요구하였다.
2. 동독의 보건체제를 서독의 보건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은 힘겹게 진행되었지만 예상했던 복잡한 문제들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인터뷰 내용:

응급구조서비스를 동독에서는 “응급의료지원”이라고 불렀으며, 응급의료서비스, 긴급 가정방문 서비스 및 환자수송 서비스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응급의료지원을 위한 인력과 설비는 국가 보건시설에서 제공하였다. 구동독의 직집자사는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였다. 동독의 연방 가입 후, 동독의 구조 체제는 서독의 응급구조서비스 시스템에

통합되었다. 긴급 가정방문 서비스는 폐지되었고, 개업 의사들의 소관으로 넘어갔다. 구조서비스는 현재 대부분 지방 관청에 속하지 않은 시 또는 군의 관할로, 대부분의 경우 소방서(화재 및 재난방재, 구조)에 일임된 상태다.

구서독지역에서는 독일 전역의 문제를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했다. 밀리는 그러나 서독의 공무원들이 동독의 보건 분야의 정책 및 구조에 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구동독 시절에는 종사자들을 대변해주는 직업결사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베를린 장벽 붕괴 후(1989.11.21) 비교적 빠른 속도로 구동독 의사들로 구성된 루돌프 비르쾨프 연맹(Rudolf-Virchow-Bund)이 결성되었다.

동독 의사들은 더 이상 외래환자 진료소를 허용하지 않았다. 자유업으로서의 의사의 지위는 경제적 측면에서 더 유리했다. 구동독 시절에 신체상의 장애로 인해 응급진료 의무를 면제받은 외래환자 진료소 의사들은 통일 후 가정방문 진료를 포함한 자유업 의사로서의 의무를 지게되었다. 이것은 외래환자 진료소 체제가 1989년 전에도 모든 의사들의 지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동독 의사들의 외래환자 진료소 제도에 대한 반대여파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외래환자 진료소 제도를 존속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레기네 힐데브란트는 국가정책 그리고 국가 기관(예를 들어 보험의사 조합)에 대항하여 외래환자 진료소를 지지하였다.

동독의 서독 편입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큰 마찰 없이 진행된 것은 모든 관계자들의 노력과 그 당시의 시대정신 덕분이다.

이른바 독일의 재통일은 신연방주의 연방 가입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구서독의 보건제도가 신연방주에서도 적용되었다. 당장 폐지할 수 없었던 구동독의 제도(외래환자 진료소 제도 등)는 통일조약에 따라 과도기 동안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자료 17

17권 보건 및 연금 체계 – 보건복지부 헤르베르트 므로체크(Herbert Mrotzeck)

2010년 11월 29일, 베를린

헤르베르트 므로체크는 1990년에 동독 사회보험 책임자 및 사회 보장 제도를 위한 국제연맹(Internationale Vereinigung für Soziale Sicherheit, IVSS) 회원을 지냈으며, 동독의 의료·연금·산재보험을 서독의 제도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므로체크는 1991년부터 DAK에서 신연방주 감독관으로 재직하였다. 1991년 10월부터 작센주와 튀링겐주 관할 책임자로 재직하였으며, 1995년 1월부터 베를린주, 브란덴부르크주 그리고 작센안할트주의 관할 책임자를 역임하였고, 관리직 근로자 및 노동자 건강 보험 조합의 주(州)위원회 의장역도 맡은 바 있다. 1994년부터는 연방직원연금공단의 임원직을 역임하였다. 2007년부터 베를린주, 브란덴부르크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및 튀링겐주의 관할 책임자를 지냈다. 또한 경제성장과 대외무역 연방협회 위원 및 경제위원회 회원이자 의료보험 의료심사원(Medizinischer Dienst der Krankenversicherung, MDK) 임원 및 그 외 다양한 단체의 회원직을 거쳤다.

인터뷰 핵심 진술:

1. 동독 사회보험의 획일화된 체계는 서독의 세분화된 사회복지 체제로 통합되기 위해 구조적인 준비 작업을 거쳐야 했다.
2. 동독 제도의 많은 문제점들은 물질적, 기술적인 토대를 근거로 발생한 것이며, 이로 인해 계획과 실제 공급 사이에 심각한 부조화가 나타났다.
3. 외래환자 진료소와 같은 현대적이며 흥미로운 요소가 많은 동독의 의료급여구조는 관계자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독일 통일 과정에서 수용되지 못하였다(개인보고서 107페이지 이하 참조).

인터뷰 내용:

동독에는 통합보험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동독의 보험제도를 세분화된 서독의 보험제도로 통합하기 위해 먼저 의료보험·연금보험·산재보험의 세 기둥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다.

동독 국영보험의 사회보험(자영업자 및 조합을 위한 의료보험, 전체 국민의 약 5%)은 일단 동독의 사회보험(사무직 및 생산직 근로자를 위한 의료보험, 전체 국민의 약 95%)으로 바뀌었다.

보험료 징수 업무는 동독 재정부에서 관할하다가 1990년 전반기에 사회보험사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사회보험 급여의 징수를 위한 독립적인 재정체계가 새로 구축되어야 했다. 연방직원연금공단(BfA)의 선례에 따라, EDV(전자 데이터 작업 처리) 시스템과 완전히 새로운 운용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이것은 이후의 통합과정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또한 구서독의 사회법전 제 5권(SGB V)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는 동독 사회보험의 핵심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과도기 중에는 연방정부와 연방사회보험사(BMAS, KKn, BfA 등) 관계자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일부 실무진에서는 매일 결과를 평가하고 목표를 설정하였다. 동독 사회보험 책임자는 하루 만에 필요한 결정을 내렸다.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처리방식은 동독의 시스템을 서독의 시스템에 맞춰 변경하는 데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많은 부분(외래환자 진료소 또는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제도 등)은 시간이 조금 더 주어졌다면 분명 다르게 접근했을 것이다. 시간의 압박으로 인해 장기적인 분석을 거칠 수 없었고 따라서 이로 인해 “희생”되어야 했던 부분이 발생하였다.

경제 및 화폐통합의 과정에서도 실수는 있었다. 의료보험에도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간과되었다. 그 결과 큰 난항을 겪었지만 문제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었다.

사회보험 각 부분의 개혁은 결국 각각 다른 관할국에서 따로 관리하게 되었다. 연금보험은 레기네 힐데브란트의 직속 노동부 사무국의 소관이 되었다. 므로체크는 특히 위르겐 클레디치(Jürgen Kleditzsch)가 이끄는 동독의 보건부 관할영역이었던 의료보험 분야의 개혁에 집중하였다. 1990년 10월 3일부로 동독의 정부부처와 관청이 해체되었다. 연금 분야의 경우, 철저한 준비 작업으로 인해 통일 후에 동독에 설립된 각 주의 보험회사

와 연방직원연금공단(BfA)에 의해 큰 문제없이 통합될 수 있었다. 의료보험 분야에서는 의료보험사들이 1990년 여름 체결된 사회통합 이후 영업범위를 공식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으므로, 의료보험 분야에서도 나중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신설된 이전기관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모든 동독 기관 및 제도의 이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처리하였다.

동독 사회보험사의 직원들은 새로운 구조에 편입되었다. 세분화된 새로운 시스템의 관리체제는 동독의 통합시스템보다 직접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였다.

시장경제 원칙의 도입은 보건 분야에서도 매우 민감한 주제였다. 서독의 대형 공급자들의 독점화를 촉진시키지 않으면서 시장 경제적 구조를 마련해야 했다.

서독 구조가 아직 유효한 옛 동독의 구조의 재정형태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

독일 사회보험의 본래 기초이자 토대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국유화되지 않고 동독의 사회보험 소유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회보험사의 독립적인 자산관리 형성에 있어서 거의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계속 지켜볼 만한 흥미로운 시사점도 있었다. 가령 구서독의 협의회 단체들과 연합하여 외래환자 진료소를 보건유한책임회사구조(Gesundheits-GmbH-Struktur)로 통합시켜 서독 의료보험의 협의회 단체에 귀속시키려는 계획도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각각의 이해관계가 엇갈렸다.

의료품 판매 대리인, 의료보험사 등을 포함하는 서독 보건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는 자유 개업 의사들의 의료서비스에 의지하고 있었다. 외래환자 진료소란 개업 의사들의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로 의사들의 관심분야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공급 구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외래환자 진료소 체제는 매우 현대적인 체제로 오직 개업의로만 구성된 체제보다 훨씬 진보적이었다. 그러나 외래환자 진료소 반대론자들은 동독 보건제도의 취약한 경제상황을 강조하면서 외래환자 진료소 제도를 존속시킬 수 없는 이유로 제시하였다. 외래환자 진료소와 의료급여센터(MVZ)의 허용 및 장려는 대부분 각 정부의 수혜자 정책(Klientelpolitik)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의료급여센터는 한때 지원을 받았다가 현재는 현직 보건부 장관으로부터 다시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구서독 정치 시스템을 움직이는 로비스트들의 세력과 그들의 이해관계는 보건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향상을 방해하고 있다. 서독의 기본적인 구조는 의사와 약사를 경제 활동자이자 행정가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동독의 보건제도의 구조 변경에 있어서 국민을 보살핀다는 의료적 이해관계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행정적 이해관계도 작용하였다.

자료 18

18권 교육 - 교육부

엘렌-루트 슈나이더(Ellen-Ruth Schneider)

2010년 9월 30일, 베를린

엘렌 루트 슈나이더는 연방노동연구회(BAG e.v.) 대표이며 지식 이전을 주제로 진술하였다.

동독에는 사회복지사가 없었다. 인민연대(Volkssolidarität)가 존재하였으나 비용편익의 관점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아니었고 설립과 동시에 처음부터 사상적으로 부정적 측면을 지녔기 때문에, 1990년대 진행된 여타의 과정에 있어 우선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⁵⁶ 동독 국민은 자신이 가치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체제 전환 후 이러한 감정은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1992년 실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구동독지역 내 대기업들은 생존가능성이 없었으며, 새롭게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다. 이는 구서독지역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규모였다. 특히 실업자들이 잠재적 유권자임을 감안해 볼 때 정치가의 관심사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있었다.

1990년 10월 공식적인 통일 후 노동시장 및 고용기구가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미 구서독지역에서 시행되었던 방식이 마찬가지로 구동독지역에서도 알맞은 형태로 시행되어야 했다. 사회복지단체의 후원 아래 “노동부(Arbeitsministerium)”와 공조하여 구동독지역 및 구서독지역 조정기관(Koordinierungsstelle Ost-West)과 더불어 초기에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연방노동연구회(Bundesarbeitsgemeinschaft Arbeit)”가 설립되었다. 주로 “카리타스(Caritas)”, “노동자복지연합(Arbeiterwohlfahrt)”과 기타 유사기관이 후원을 도맡았다. 사무실은 현재 브룬넨가(Brunnenstraße)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 연례 보고서가 보관되어 있으며,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설립된 첫해에 작성된 연례 보고서는 특히 흥미롭다. 연례보고서를 사무소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경우, 보고서는 노

56 인민연대는 이제 독일의 대형 사회복지단체 중 한 곳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여전히 구동독지역 내 최대 사회복지단체이다.

동부에 보관되어 있었다.

사회복지단체 역시 신연방주에 사무실을 열었다. 현장에서 열렸던 세미나의 경우, 초기에는 알맞은 회의 공간, 숙박시설과 기술 그리고 자금 역시 매우 부족하였다. “카리타스”를 포함한 5대 사회복지단체는 그들의 업무 정책의 비중을 사회적 취약계층 및 장애인, 장기 실업자에 두고 있다. 그뿐 아니라 숙련된 그러나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자격을 취득한 동독 주민 역시 새로운 미래지향적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투입된다. 대부분의 경우 교회기관 또는 교회결연단체를 통하여 이러한 과제를 실행하였다. 물론 교회는 처음부터 함께 참여하였다. 초기에는 사회정책적 시도가 엿보였다. 그러나 노동정책 담당자들은 차츰 이에 대하여 그다지 의미를 두지 않았다. 서독의 체제는 구연방주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았고, 이는 다시 신연방주에 도입되었다. 자격취득 조치는 일차 노동시장⁵⁷으로의 편입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핵심직무자격취득이 중시되었다. 그뿐 아니라 구조적 실업의 해결도 또 다른 목표였으며, 예를 들어 여성이 주요 대상집단이 되었다. 심리적 상담지원 역시 필요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와 함께 업무과정 및 사회에 대한 재통합이 이루어져야 했다.

노동시장에서의 동독 주민 고용을 위한 유럽연합 자금(“유럽사회기금(Sozialfonds)”)과 함께 연방사회부조법(Bundessozialhilfegesetz)의 취업지원 조항과 특히 임금보조금 조항을 규정한 고용촉진법(Arbeitsförderungsgesetz)을 통하여 기금이 마련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금이 존재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법을 활용하였으나, 이것이 연방기금 활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보조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⁵⁸)이 적용되는 것으로, 우선 직접적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그 다음이 연방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산정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을 부담했다. 연방은 실업수당을 지원하였다. 일 년 이상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실업부조를 받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이들이 단지 일 년 동안만 직장에서 일하

57 역주: 노동시장 분절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기술능력, 임금수준, 고용안정성을 기준으로 일차 노동시장과 이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며, 일차노동시장은 시장지배력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기업들이 평균수준 이상의 이윤을 추구함에 따라서 노동자들도 높은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 그리고 승진가능성을 보장 받는다.

58 역주: 독일정부는 국가 차원 재정 지원 시 보조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는 국가가 보조 수혜자의 재정적 능력 및 잠재력이 과제 극복에 있어 충분치 않을 경우에 한하여 보조하는, 자립을 위한 보조의 원칙이다.

는 결과를 가져왔다. 구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종종 무엇이 그들의 과제인지 알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경우, 공공·운송·교통노조(Gewerkschaft Öffentliche Dienst, Transport und Verkehr, ötv)와 기타 노조가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담당기관의 경우, 일자리창출조치 참여인력(ABM-Kräfte)⁵⁹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이들은 고성(古城) 재건, 교회연대기 작업, 자연 보호공원 복원 또는 자전거 도로 설치 작업에 투입되었다. 이를 통하여 일자리창출조치 참여인력은 종종 새로운 직무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일자리창출조치 만료 후 후속 활용조치가 없었다. 구서독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구동독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상황이 특히 문제시 되었다.

인력공급회사(Beschäftigungsgesellschaft, ABS)는 규모가 너무 큰 것으로 판단되었고 생존가능성이 없었다. 세분화되고 체계적 방법을 보유한 소형 공공기관이 필요했다. 사회복지요원(운영 매니저) 및 기타 인력에 대한 교육조치에 있어 특히 지식을 전달하고, 지원금 요청 및 법률 활용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였다(유럽연합, 연방주, 기타 기부자). 지원금 전달은 대부분의 경우 노동과 관련된 연방자금이 시, 군, 구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쟁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는 항상 논란의 시초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서로를 알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공동의 논의가 가능하도록, 베를린주가 직접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맡는 것이었다. 이는 베를린주의 새로운 업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었으며, 부분적으로 “기존의” 경제 체계와 경쟁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익성의 기준이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사회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이 어려운 사업, 사회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일반 시장이 아닌, 비교적 경쟁이 덜 한 매주 1회 열리는 주중 장터와 같은 곳에서 제공될 수 있는 사업을 도맡아야 했다.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인력공급회사가 일반적 경쟁을 원할 경우, 지원은 중단되었다.

59 역주: ABM은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의 줄임말로, ABM 참가 인력을 고용할 경우, 사용자가 아닌 고용청이 임금을 지급한다.

종종 뛰어난 직무능력을 갖춘 직원이 시장지향성 및 경제적 사고에 대한 지식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가 또한 발견되었다. 예산지출을 정당화하고 이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은 많은 이들에게 새롭고 어려운 일이었다. 기존의 관행에서보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경우, 거의 자동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따라서 예산지출은 별로 문제될 이유가 없었다.

“사회복지요원(Sozialmanager)” 양성, 다시 말해 특수화된 사회복지사 내지 “직업상담사(Arbeitsanleiter)”를 위한 직업교육이 필요하였다.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 직무자격 취득이었다. 사회복지요원은 다른 직원을 대함에 있어서 기술능력 및 작업계획, 그러나 또한 시간엄수와 같은 걸보기에 단순한 요인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했다. 상공회의소(Industrie- und Handelskammer, IHK)는 이들에게 일부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일자리는 특히 (예를 들어 징계경력, 알코올 문제, 알코올 중독 및 중독증으로 인하여) 학습에 문제가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물론 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경쟁 방지를 돕는 것이었다.

신연방주 내 노동청 설립에 있어서 또한 과거 동독에서 재직하였던 많은 수의 관리사가 활용되었으나, 그들 중 다수는 정치적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임명은 종종 정당비례배분(블록정당(Blockpartei))에 따라 이루어졌다. 구동독지역의 간부가 구서독지역의 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들에게 지도교사를 위탁하는 일은 지양되었다.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업무 결정권은 주어졌으나 인사결정권은 허용되지 않았다.

자료 19

18권 교육 - 교육부
 가브리엘레 슈튀르체베허(Gabriele Stürzebecher),
 라인홀트 라이트슈스터(Reinhold Reitschuster)

2010년 10월 7일, 베를린

라인홀트 라이트슈스터 장학관은 사회과학 및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이다. 라이트슈스터와 가브리엘레 슈튀르체베허는 베를린주 교육, 과학, 연구부에 재직 중이다.

인터뷰 핵심진술:

1. 대부분의 동독 출신 교사는 통일 후 신연방주 내에서 수습기간을 거쳐 능력을 인정 받음으로써 계속 교직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지 소수의 교사만이 교직에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사의 급여는 연방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며, 이때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의 급여체제는 분리되어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급여군은 구동독지역 급여체계에 따라 처음에는 구서독지역 급여의 60%만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해가 지남에 따라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간의 그러한 급여 차이가 조정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베를린주에서는 급여조정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100%까지 이루어졌다.
2. 교사 채용은 각 지역(Bezirk)⁶⁰의 관할이었으나, 1990년 중앙채용을 위하여 주교육청이 설립되었다. 이 관청은 동베를린 및 서베를린에 위치한 학교에 교사를 발령하였다. 이를 통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학교 간 교사의 이동이 이루어졌으며, 두 지역 간 교사가 서로를 알고 지낼 수 있었다.
3. 서베를린의 교과과정이 베를린주 전체에 걸쳐 그대로 채택되었다. 다른 연방주는 해당 자매결연주의 교과과정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어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⁶⁰ 역주: 통일 이전 동독의 15개 행정구역 Bezirk는 서독의 연방주에 상응하며, 통일 이후 다시 1952년 당시의 5개주(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겐주)로 부활되었다.

주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의 교과과정을 채택하였다.

인터뷰 내용:

1. 교사 경력에 대한 규정

대다수의 동독 출신 교사들은 통일 이후 신연방주 내에서 계속 교직을 유지하였다.

수습기간을 거쳐 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통일조약에 언급되어 있었으며, 제 3차 기본법 내지 공무원 경력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계속 교직을 유지하기 위한 교사의 자격은 10명으로 구성된 수업 참관 실무그룹을 통해 평가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가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이었다. 단지 소수의 교사만이 교직에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해임된 것이 아니라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일부는 가우크청⁶¹의 심사를 통해 해임되었다.

동독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였던 반면, 교사의 능력은 네 가지 범주에 따라 분류되었다.

교사의 급여는 연방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며, 이때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의 급여체계는 분리되어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급여군은 구동독지역 급여체계에 따라 처음에는 구서독지역 급여의 60%만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해가 지남에 따라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간의 그러한 급여 차이가 조정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베를린주에서는 급여조정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100% 이루어졌다.

관련 문서:

- a) 1993년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 의결
- b) 1993년 통일 후 공무원 급여법에 따른 과도기 규정에 대한 제 2차 법령
- c) 기본법(공무원 경력법)

61 역주: 공식 명칭은 슈타지 문서관리청으로 초대 청장 요하임 가우크(Johaim Gauck)의 이름에 따라 가우크청으로도 불리운다.

2. 주교육청: 교사의 중앙채용

교사 채용이 각 지역의 관할이었으나, 1990년 중앙채용을 위하여 주교육청이 설립되었다. 이 관청은 동베를린 및 서베를린에 위치한 학교에 교사를 발령하였다. 이를 통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학교 간 교사의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두 지역 교사가 서로를 알고 지낼 수 있었다.

3. 교과과정

서베를린의 교과과정이 베를린주 전체에 걸쳐 그대로 채택되었다. 다른 연방주는 해당 자매결연주의 교과과정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어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의 교과과정을 채택하였다.

베를린은 특별한 경우이다. 한국의 경우, 다른 신연방주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자료 20

18권 교육 - 교육부

페터 마싱(Peter Massing) 교수

2010년 10월 7일, 베를린

페터 마싱 교수(*1946년 데사우(Dessau) 출생)는 2002년부터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 및 사회과학대학에서 사회교육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민주시민교육 업무과 과장이었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교사 연수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마싱 교수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저서를 발표하였다. 특히 연방민주시민교육원, 총서 제 313권, 학습영역 정치학, 조언(*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Schriftenreihe Band 313, Lernfeld Politik, Eine Handreichung*)에 실린 그의 논문 “정치학적 계속교육 및 향상교육 (Politikwissenschaftliche Fort- und Weiterbildung)” 참조.

서독과 달리 동독 학교에는 이데올로기 관련 과목으로 국민윤리(*Staatsbürgerkunde*)가 존재하였다.

1990년 2월 최초로 6주 간 국민윤리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계속교육이 이루어졌다. 이후 그들 중 거의 모두가 해임되었으나, 2명만이 그대로 임용되었다.

사회과(*Gesellschaftskunde*) 교과목이 신설되었다.

많은 이들이 통일을 교육 개혁의 기회로 여겼다. 신연방주 내에서는 김나지움(*Gymnasium*)⁶², 실업학교(*Realschule*)와 직업학교(*Hauptschule*)를 세 주축으로 삼는 서독의 중등교육 제도를 1:1로 수용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이후 구동독지역 내 학업 이수자는 졸업 인정 시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구연방주의 개혁 지지자들은 이를 관철시킬 수 없었다.

결국 대학관계자, 주교육청 관계자 및 학교 및 미디어 주립 연구기관 관계자로 이루어진 실무단이 구성되었다.

62 역주: 독일의 중등교육기관.

교사들에 대한 향상교육은 3학기 이상 자발적으로 제공되었으며 국민윤리, 지리학, 역사, 러시아어 과목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러시아어 교사들은 대부분 제 2전공을 배우고자 하였다. 베를린주는 다른 연방주와 달리 국민윤리 과목을 예외로 두어 동시에 모든 교사들을 해임시킨 것이 아니라, 몇몇 교사에게는 향상교육 이수를 통해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참가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 베를린주에서는 500명에서 600명에 이르는 교사들이 계속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독일 전국에서는 2,000명에서 3,000명에 이르는 교사가 계속교육을 받았다. 초기에 계속교육은 연방민주시민교육원 및 전독일문제연구소(Institut für Gesamtdeutsche Fragen)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그 뒤 교육영역이 각 연방주 관할이 됨에 따라 계속교육은 연방주의 감독을 받게 되었으나, 계속교육은 중단되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계속교육 참가는 자율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규칙은 한편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교사를 계속교육에 참여시키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교사에 따라 한편으로는 여전히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성향을 지녔거나 또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여기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학생이 교실에서 극우적 또는 극좌적 구호를 퍼뜨릴 경우, 이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 또한 구동독지역 교사들은 구서독지역 학생들보다 규율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고, 구서독지역 교사들과는 다른 처벌 수단을 지니고 있음에 따라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실무진의 결과는 단지 권장사항일 뿐이었으며, 결국 많은 사항이 참작되지 않았고 베를린주 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계속교육에 참가하였던 교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단지 역사과의 경우, 가끔 상이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베를린주 교사양성기관(Berliner Institut für Lehrerbildung, BIL)과 루드비히스펠데(Ludwigsfelde)에 소재한 주립 학교 및 미디어 연구기관(LISUM)은 교사의 계속교육이 이루어졌던 거점이었으며, 마찬가지로 유럽아카데미(Europäische Akademie), 클리니케 수렵용 고성(Jagdschloß Glienicke) 또는 크리스천 아카데미(Evangelische Akademie)가 이용되었다. 계속교육을 담당하였던 교사들의 활동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대부분 정치학자, 정치교육학 교수, 전문세미나 매니저가 수업을 진행하였다.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독일정치학회(Deutsche Gesellschaft für Politikwissenschaft) 및 독일정치연구연합회(Deutsche Vereinigung für Politische Wissenschaft) 소속 학자들은 구서독지역 대학 담당자 풀을 구축하였으며, 연방정치교육원은 이들을 연결시켜 주었다.

자료 21

18권 교육 - 교육부 빌프리트 자이링(Wilfried Seiring)

2010년 10월 19일, 베를린

빌프리트 자이링은 과거 베를린주 교육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인터뷰 핵심 진술:

1. 베를린 장벽 붕괴 후 구동독지역의 교사는 전문적 검증을 거쳐 새로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구동독지역 및 구서독지역 출신 교사들은 상호 지원을 위해 각각 다른 학교로 배치전환되었다.
2. 동독 교사들은 슈타지 활동 전력 심사에 필요한 질문지 작성이 필수였다.
3. 신연방주 내에서 활용될 기본계획 및 교과서는 구연방주에서 사용되고 있던 것을 채택하였다.

인터뷰 내용:

독일 통일 직후 구동독지역 내에서는 구서독지역 교과서가 사용되었다. 동독 출신의 모든 교사는 원칙적으로 계속 교사직 수행이 허용되었다. 새로운 교과서로 인해 문제가 있는 교사는 자발적으로 교사직을 그만두었다.

동독에서 8년 간 교사생활을 한 사람은 선택과목 교사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1세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를 담당했던 교사는 통일 후 전문대학으로 진출되었다.

교장 또는 학장과 같은 모든 임원은 그들 중 대부분이 슈타지 비공식 요원(IM⁶³)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모두 해임되었다. 그러나 (학부모 및 교사) 평의회를 통해 선택된 자에 한하여 직책 유지가 계속 허용되었다.

모든 동독 출신 교사들은 신원검증 후 자신의 활동을 기록한 질문지를 제출해야 했다.

63 역주: Inoffizielle Mitarbeiter의 줄임말.

슈타지 문서보관소(Behörde für Stasi-Unterlagen, BStU)는 이를 통해 비공식 요원 활동 여부를 심사하였다.

내용을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았던 자는 감봉, 승진제한과 같은 징계조치 또는 특히 심각한 경우, 해임을 각오해야 했다.

기본구조

기본구조는 서독의 것을 받아들였다.

수학, 자연과학과 같은 과목에 대한 동독의 몇몇 기본구조는 매우 우수하였다. 물론 역사 및 국어와 같은 과목은 매우 정치적이었으며, 부분적으로는 심지어 외국어 수업 역시 그러하였다.

국민윤리(Staatsbürgerkunde)과목은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학교체제 변환 과정에서 역량 있고 성실하게 협력해 주었던 동독 출신의 유능한 교사를 장학사로 채용하고자 했다.

1990년 이후 장학사의 80%가 동독출신 교사였다.

구동독지역 및 구서독지역 출신 교사들은 상호 지원을 위해 각각 다른 학교로 전환배치되었다.

교과서위원회(Kommission für Schulbücher)는 구동독지역 및 구서독지역 출신 교사로 구성되었다.

1990년 이후 통합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동베를린의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서베를린에 있는 김나지움으로 보냈으며, 이로 인해 해당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유발하였다.

동독지역 어린이들이 취학 전 다녀야 했던 유아학교(Vorklasse)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유아학교 재도입에 대한 논쟁이 다시 격렬하게 일고 있다.

동독에서는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했더라도 대학입학자격시험(Arbitur)을 치를 수 있었다. 자이링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이들은 이미 다른 직업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 더 우수한 교사였다고 한다.

자료 22

18권 교육 - 교육부

쾨빌레 폴크홀츠(Sybille Volkholz)

2010년 11월 19일, 베를린

쾨빌레 폴크홀츠는 1989년 3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베를린주 학교, 직업교육, 스포츠부 장관이었다.

인터뷰 핵심 진술:

1.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베를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간 교원 및 학생의 폭넓은 교류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2. 동독의 선거 이후 1990년 5월, 동베를린 시행정당국과 서베를린 시의회 간 협력이 이루어졌다.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관계자는 2주에 한 번씩 만남을 가졌다. 학교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그룹이 조직되었다.
3. 종합기술고등학교와 상급고등학교를 6년제 초등학교 그리고 이와 연계된 종합고등학교(Gesamtschule)⁶⁴ 또는 김나지움으로 진학하는 제도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그 당시 서베를린 이주민들 사이에서 직업학교에 대한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제도전환은 동독의 많은 지역(Bezirk⁶⁵)에서 또한 제기되었으나, 이는 누구로부터 자문을 얻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4. 교사의 계속교육은 매우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교사에게 부족했던 것은 전문지식이 아니었다. 교사의 의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가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므로 계속교육과 더불어 더욱 강력한 교사 순환근무를 실행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

⁶⁴ 역주: 교육개혁의 결과로 성립된 독일의 새로운 중등종합학교

⁶⁵ 역주: 통일 전 동독의 행정단위는 15개의 군(Bezirk)과 217개의 구(Stadtkreis), 그리고 행정구역 최소단위인 7,565개의 면(Gemeinde)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 다. 인간은 자신의 사고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5. 작센주와 달리 베를린주는 모든 교원을 공식적으로 그대로 채용하였다. 베를린주에 서는 자동 해임이 없었다. 단지 슈타지 활동에 대한 질문지에 답하지 않았던 교사만이 해임되었다. 진술에 있어서도 또한 항상 개별 사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베를린주에서는 비교적 소수의 해임만이 이루어졌다.

인터뷰 내용

• 최초 과제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폴크홀츠와 그의 동료들은 통일 과정에 있어 무엇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인지 신속하게 파악하였다. 1989년 12월 또는 1990년 1월 무렵 서베를린 시의회 및 동베를린 시행정당국 간 회동이 있었다. 이때 학교 간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학교 명부를 교환하였다. 폴크홀츠는 담당자가 가급적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통일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상호 방문이 가능하도록 학교 간 자매결연이 이루어졌다. 그뿐 아니라 관계자들은 자매결연이 맺어진 학교에서 적어도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수업을 하도록 계획되었다. 이는 교원 간 상이한 요구 사항 그리고 학부모 및 학생과의 소통을 통하여 많은 것을 체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 5월, 동독 내 선거 이후 서베를린 시의회는 동베를린 시행정당국, 슈비에르치나(Schwierzina) 동베를린 시장과 시행정당국의 디터 파브리크(Dieter Fabrik)에 대한 인력 지원을 실행하였다. 이때 프로젝트 그룹은 베를린주의 학교 발전을 위한 공동의 계획 수립을 목표로 구성되었다. 이것이 근본적인 사안이었다.

당시에는 동독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학교계획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어떤 학교 형태를 제공하고자 할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당시 볼크홀츠와 그의 동료들은 동베를린 내 중등교육과정에 있어 가급적 두 가지 학교 형태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종합기술고등학교와 상급고등학교 제도를 6년제 초등학교 그리고 이어서 종합고등학교 내지는 김나지움 진학으로 연결되는 제도로 변경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그 당시 서베를린에 거주하던 이주민들의 측면에서 직업학교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나지움과 종합고등학교가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었다. 동독의 많은 군에서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항상 누구로부터 자문을

얻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1990년 5월 또는 6월 무렵 동·서 베를린 교육심의회(Gesamt-Berliner Bildungsrat)가 소집되었다. 폴크홀츠와 그의 동료들은 지나치게 서둘러 서베를린의 규정을 동베를린에 강제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다. 따라서 동독과 서독의 학자 및 실무자를 중심으로 교육심의회가 구성되었다. 10명에서 12명으로 이루어진 심의회의 임무는 베를린 학교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의 제안을 내놓는 것이었다. 그들의 결정 역시 6년제 초등학교 그리고 이어서 종합고등학교 내지는 김나지움에 진학하는 제도였다.

• 교원 교환

폴크홀츠는 1990년 후반기에 동독과 서독 간 폭넓은 교원 교환을 제안하였다. 이는 그러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교원 양성을 담당했던 많은 이들이 동베를린 교사는 우선 계속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비로소 서독 지역으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이었다.

폴크홀츠의 퇴임 후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에서 열린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를 통해 동독 출신 교사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교환은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구서독지역의 몇몇 교원이 구동독지역으로 옮겨 갔다. 이러한 교사에 수용태도는 매우 상이하였다. 일부는 대환영을 받았으나, 일부는 그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서베를린 출신 교사는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에서 모두 수업이 가능하였던 반면, 동베를린 출신 교사는 단지 구동독지역 내에서만 수업하도록 허용되었다. 폴크홀츠는 이와 같은 교육환경을 의회에서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분단의 지속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제도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여겼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학생 수가 현저하게 상승하여 과밀학급이 발생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동베를린 출신 교사들이 구서독지역에 투입되었다.

• 교사의 계속교육

동베를린의 학교제도는 교사가 자연스럽게 선택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 주었다. 어떻게 의식의 변화를 유도할 것인가가 어려운 문제였다.

이는 두 시간에 걸친 계속교육 과정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계속교육 과정은 매우 전문적이었으나, 교사에게 부족했던 것은 전문지식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학생이 인권의 주체이며, 학생은 동등한 토론 파트너이고, 학부모는 다른 요구 사항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었다. 그러므로 계속교육과 더불어 더욱 강력한 교사 교환을 실행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사고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 동베를린 시행정당국과의 협력

동베를린 시당국과 서베를린 시의회 간 협력은 동베를린 시의회가 선거를 통해 구성된 1990년 5월 말부터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동베를린 시의회와 서베를린 시의회로 구성된 이른바 “마법의 의회(Magi-Senat)”였다. 마법의 의회는 2주마다 한 번씩 회동하였으며, 학교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그룹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1990년 5월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

• 교사 급여

베를린주의 경우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급여 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신속한 연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정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베를린주의 부채 증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90년대 초 공무원 급여가 100% 동일하게 조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것이었다. 다른 연방주에서 교사의 급여는 80% 또는 더 적었으며, 서서히 차등적으로 조정되었다. 구동독지역 내 하급 교사(Unterstufenlehrer)⁶⁶는 매우 다른 교원양성 교육을 받았다. 구동독지역의 교원양성 교육은 구연방주의 교원양성 교육과 유사하였다. 이들은 9학년 또는 10학년 이수 후 하급교원양성소(Institut für die Unterstufenlehrkräfte, ISL)를 다녔다. 이는 서독의 전문대학과정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대학교육이 아니었으며, 학술적 차원의 직무교육도 아니었다. 따라서 대학교육을 이수한 교원이 우선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급교원은 직급 A12로 분류되기를 원할 경우,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했다. 이들은 처음에 A11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옳았다.

⁶⁶ 역주: 동독 종합기술고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담당하였던 교사를 이른다.

• 동독 출신 교사들의 해임

작센주와 달리 베를린주는 모든 교원을 공식적으로 그대로 임용하였다. 베를린주에서는 자동 해임이 없었다. 단지 슈타지 활동에 대한 질문지에 답하지 않았던 교사만이 해임되었다. 진술에 있어서도 또한 항상 개별 사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베를린주에서는 비교적 소수의 해임만이 이루어졌다. 베를린주 내에서 약 800명의 교사가 해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대부분은 당시 슈타지 활동 관련 질문지에 답하지 않은 경우였다.

신연방주마다 교원에 대한 처우가 상이하였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신연방주 모두 모든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교사 급여는 80%로 낮추었다. 이로 인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 브란덴부르크주와 베를린주에서는 많은 이들이 이를 비판하였다. 왜냐하면 구동독의 교사들은 특히 친국가적이자 친정부적이었기 때문이다. 교사의 태도를 바꾸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새로운 교사를 채용하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독일 제 3제국 붕괴 후 탈나치화를 이유로 많은 신규 교원이 채용된 선례도 존재한다. 폴크홀츠와 그의 동료들은 모든 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교사만을 찾게 된다면 사회적 안정을 매우 심각하게 저해하고 학교를 계속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또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많은 교사들이 현재에도 여전히 과거의 동독을 폄하하거나 미화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 양측의 선택 모두 합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 국민윤리 교사

국민윤리 교사는 사회과 수업 담당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다른 것을 찾아야 했다. 국민윤리 교사는 대부분 다른 과목 수업을 담당하거나 자신의 제 2전공 과목으로 투입되었다. 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과 수업을 담당할 수 없었다.

• 공동 교육과정 준비

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록 연대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초기에 이들은 이와 같은 의도로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결국 베를린주의 학교법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베를린주 의회에서 조직된 공동 교육위원회는 모든 것을 서둘러 행동에 옮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동베를린의 학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서베를린에 있는 학교

또는 김나지움에 대거 등록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이 신속하게 결정되었다. 학교 들은 베를린주가 가장 신속하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따라서 의회의 통일위원회와 동베를린의 통일준비단은 서베를린 법안을 동베를린에 적용하고자 준비하였다.

당시 경제적 통일에 대한 압박은 매우 컸다. 신중한 개혁을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후 지금까지도 종종 당시 서독이 그들의 규정을 그대로 동독에게 적용시켰던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신속한 처리를 원했던 동베를린 정치가들로 인한 것이었다.

• 내적 통일

내적 통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변화는 인간이 자신의 의식과 태도를 바꿈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한 세대 또는 두 세대를 더 거쳐야 할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계속해서 다른 것과 함께 생활해야 할 것이다. 독일 북부는 또한 독일 남부와도 다르다. 왜 모든 것이 동일해야 하는가? 동등한 가치가 중요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삶의 질에 있어 어떠한 종속성이나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과 지역 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자료 23

18권 교육 - 교육부

로타르 차일레(Lothar Zscheile) 박사, 로스마리 벡(Rosmarie Beck),

보리스 앙거러(Boris Angerer)

2010년 11월 22일, 베를린

로타르 차일레 박사는 동독 출신이며 동독에서 사범교육, 특히 러시아어 및 영어 교육 분야에서 일하였다. 통일 후 그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새로 설립된 연방 교육, 청소년, 스포츠부(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에서 모든 교칙과 교과목, 직업교육 및 일반교육을 위한 체계 수립을 조율하였으며, 이후 6년 간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주립 학교 및 미디어 연구기관(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erlin Brandenburg, LISUM)에서 일하였다.

로스마리 벡은 1991년부터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주립 학교 및 미디어 연구기관(LISUM)에서 일하고 있으며 체계 수립 초기에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제외한 러시아어, 폴란드어, 기타 제 2외국어 업무를 병행하였다. 그는 현재 제 III국에 재직 중이며 베를린주와 브란덴부르크주 초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리스 앙거러는 중등교육 I 단계⁶⁷와 II 단계/인문계 상급과정⁶⁸ 사회과학과 부장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주로 중등학교의 교과목, 특히 민주시민 교육 및 역사와 같은 사회과학과의 교과목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2002년부터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주립 학교 및 미디어 연구기관(LISUM)에서 일하고 있다.

인터뷰 핵심 진술:

1. 새로운 출발이 예견되는 환경 속에서, 시간적 압박이 과도하게 작용하였음에도 불

67 역주: 독일의 중등교육과정은 중등교육 1단계와 중등교육 2단계로 나뉘어 있다. 중등교육 1단계 과정은 베를린주와 브란덴부르크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에서 5학년에서 10학년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68 역주: 한국의 인문계 과정에 해당하는 김나지움 및 통합중고등학교(Gesamtschule) 11학년에서 13학년까지에 해당하는 과정.

- 구하고 기쁨, 약간의 벽찬 환희, 새로운 것을 구축하고 이에 참여해야 한다는 감정이 지배적이었다.
2. 짧은 기간 동안 새로운 조치, 방식, 교수법, 교과서 및 학교 형태에 대하여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였다. 통일 과정에 있어 특히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교사 처우에 있어 사려 깊게 대처하고 인내심을 지녀야 한다. 교원 및 학부모 모두 긍정적 인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3. 처음에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모델을 제외하고는 교과과정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존재하지 않았다. 계획은 차후에 수립되었다. 되돌아보면, 추후에 계획을 세웠던 경우 항상 손실을 초래하였다. 왜냐하면 각 과목마다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했고 과목 간 관계가 조화롭게 다루어지거나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이 시기에 의견 교환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5. 교과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은 1:1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모임에서 교과과정을 수립한 구성원들이 교사와 함께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때 매우 다양한 형식의 행사가 열렸으며, 120명의 참석 인원이 교육청에 모인 대규모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는 매우 훌륭하고 중요하였으나 또한 많은 비용이 든 과정이었다.
 6. 브란덴부르크주는 1학년부터 외국어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이는 매우 혁신적인 모델로, 브란덴부르크주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함께 공동으로 이를 개발하였다. 과거 동독의 경우, 외국어 수업은 5학년부터 이루어졌으며 예외적으로 3학년 부터 실행되기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브란덴부르크주는 교육과정을 초월한 현대 외국어 과목을 연방주 최초로 개발하였다.
 7. 각 과정마다 적절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각 학교 형태를 고려한 계획은 아니었다.
 8. 국민윤리는 민주시민교육 과목으로 대체되었다. 교사는 이전의 국민윤리 교사가 아닌, 다른 과목에서 차출되어 이 과목을 위해 새로운 직무교육을 받게 된 교사들이었다.
 9. 1990년대 중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구연방주 교육과정에 적응하고자 하는 대규모 움직임이 있었다. 자체적인 교과과정 개발은 2000년대 초에 들어서야 이루어졌다.
 10. 처음에는 교원양성기관 산하의 이 분야를 위해 대규모로 조직된 팀이 책임을 맡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동독 및 서독 출신 인원으로 이루어진 그룹이었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훌륭히 협력하여 서로 학습하며 친분을 다졌다. 분쟁이 발생하여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해체된 그룹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 사례가 아니다.

11. 소통과 분쟁에 대처하는 경험은 통일 과정의 일부였다. 이는 또한 점차 계속교육의 일부가 되고 있다.

인터뷰 내용

위에서 언급한 세 명의 전문가와의 인터뷰에 두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전문가들의 짧은 발표와 문답으로 구성되었다. 주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 통일 후 교과과정 개혁을, 전문적으로는 외국어 및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주로 다루었다. 인터뷰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타르 차일레는 자신의 발표에서 통일 당시를 회고하며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을 몇 가지 주요 항목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1. 새로운 출발

1991년, 이제 교육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변경, 변형시킬 수 있을지 모두가 기대를 갖고 지켜보았다. 모든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했다. 모두가 이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또한 매우 흥분되었던 시기였다. 다시 말해 매우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2. 신중함

통일 당시 이러한 과정에 있어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의하여야 했다. 모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일은 잘못된 것이며 이제 새로운 것이 다가올 것이다. 지금 잊어라.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었다. 교사 처우에 있어 특히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때 종종 모든 것이 과장되어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지나치게 서둘러 처리되었다. 단기간 내에 새로운 조치, 방식, 교수법, 교과서, 학교 형태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었다.

3. 교과과정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존재한다. 몇 가지 사안은 내용상 완벽하게 처리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일례로 성적 평가 및 통제를 들 수 있다. 이는 또한 처음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다. 당시 교과과정 등록 및 내용 설명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이는 내용적 측면이었다. 그러나 이때 모든 것을 이제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여기에는 단지 새로운 것만을 선택하고자 할 때 수반되는 위험이 존재한다.

4. 의사 교환

이러한 단계에서 의사교환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었다. 계속해서 끝없는 토론이 이어졌다. 모든 교과목에 대한 실무위원회가 급박하게 조직되었다. 이들은 교육과정에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지, 이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 과거와 비교하여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할지에 대하여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와 같은 의사교환을 통해 수많은 다양한 훌륭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 사람들은 행복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이들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과거 동독은 교육과정을 베를린에서 중앙집권적으로 수립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모든 것을 도맡은 위원회가 존재하였다. 이제 이러한 임무는 16개 연방주 자체 관할이 되었다. 교육자치권으로 인해 모든 연방주 내에서 독립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때 개별 그룹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의사교환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5. 계획

처음에는 전혀 계획이 없었다. 다시 말해 기본계획은 이러하며, 이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일한 모델이자 본보기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였다. 브란덴부르크주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때부터 문서, 그리고 공무원, 교사, 학생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밀려왔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기본계획이 사실상 브란덴부르크주의 지침이었다. 다시 말해 이는 기존에 완성되어 있는 계획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집중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

나 되돌아보면, 추후에 계획을 세웠던 경우 항상 손실을 초래하였다. 왜냐하면 각 과목마다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했고 과목과 과목 간 관계가 조화롭게 다루어지거나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있어 중요한 것은 홍보활동이었다. 로타르 차일레와 그의 동료들은 교안은 더 이상 숨겨야 하는 비밀이 아니라 공공 문서라는 입장이었다. 학부모와 학생은 이를 읽고 이해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새로운 관점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위원회 및 학생위원회 다시 말해 모든 전문위원회가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주립 학교 및 미디어 연구기관(LISUM)으로 초청되었다. 기본계획 입안자들은 이들에게 교과과정을 통해 의도하는 바와 교과과정 수록 내용 및 이유를 설명하였다. 홍보활동은 또한 비판으로 인해 불편함을 안겨주었으나, 훌륭한 역할을 해냈다. 이는 또한 동독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차일레는 직접 이러한 행사에 한 번 참가한 바 있다. 그의 경험에 따르면 교과과정에 대한 그와 같은 대규모 토론은 결코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6. 과정별 계획

동독의 종합기술고등학교를 다양한 학교 형태, 다시 말해 초등학교와 김나지움, 종합고등학교, 실업학교로 대체하는 것은 훌륭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각 단계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결정을 내렸으며, 각 학교 형태에 따라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었다. 이로 인해 상이하고 과도한 교육과정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중등교육과정 I에 대한 계획(7~10학년) 그리고 1~6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계획 및 11학년과 12학년에 대한 계획이 존재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훌륭한 결정이었다.

7. 이해에 대한 문제점

관계자와 더불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통일 과정을 통해 학습되어야 했다. 모두 자신만의 습관을 지니고 있으므로, 교사 그리고 학부모 또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들은 그때까지 특정 교수법을 갖고 특정 교재와 교과과정, 특정 내용에 익숙해져 있었다. 급격한 변화는 갑자기 일어났다. 이와 동시에 계속교육을 통해 모든 것을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단지 몇 시간에 그치는 계속교육이라면, 이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전면적인 계속교육은 교과과정 해석을 지원하는 교재를 바탕으로 보완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이제 20년이 흘렀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가끔씩 여전히 구동독 시절 체득하였던 습관을 포기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교사가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심을 가져야 한다.

8. 전문지식

그의 견해에 따르면 교과과정 개발에 있어 학자 또는 학문적 지식이 과소평가된 듯하다. 가끔 학자와 대학교수가 실무위원회에 투입되는 것을 기피하였다. 이는 그들과의 협력이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학자와 행정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어려웠다. 대학 출신 학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신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다. 물론 몇몇 교수와 학자가 교육과정 개발 작업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그의 의견에 따르면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9. 관할영역

통일 과정 중에 모든 것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초중등교육부(Ministerium für Schule) 그리고 이후 주립 학교 연구기관이 새로 창설되었으며 자문제도가 또한 새로 도입되었다. 이전의 전문분야 고문제도는 한때 우선적으로 폐지되었고, 뒤이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우선 상황에 맞추어 제자리를 찾아야 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각 기관들 간에 아이디어에 대한 경쟁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다.

백은 초기 단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설명하였다.

1. “바로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만이 무엇인가를 가져올 수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만이 무엇인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당시 인구에 회자되었던 표현으로, 일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당시 발생하였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서로 커다란 기대감을 갖고 있었으나 뒤이어 누구도 초인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오늘, 앞으로 모

든 것이 예측했던 대로 풀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다.

백이 경험했던 기억에 따르면 이는 이루어져야 했던 것의 “타협”이었다. 물론 차일레 박사가 진술하였던 듯이 한편으로는 종종 불만족스러웠다. 그러나 특히 여전히 남아있는 백의 기억에 따르면, 개방적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었으며 사실상 말 그대로 “가져옴”을 실행에 옮겼다. 또한 모두가 발언할 수 있었던 점에 주의하였다.

2. 교과과정 개발

처음에 백은 초등학교에서 인문계 상급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과정에 있어 러시아어, 소르브어, 벤드어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담당하였다. 그는 뒤이어 인문계 상급과정에서 역할극(Darstellendes Spiel)⁶⁹, 동시에 초등학교에서 미술과 음악,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대학에서 영어와 러시아어를 전공하였다. 다시 말해 자신이 전공하지 않았던 과목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이는 처음에 교원양성기관에서 대규모 고정인력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았던 것과 연관이 있다. 농담 삼아 말하기를, 자원봉사로 이러한 일을 맡은 이들은 그들의 출신지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를린과 헤센주, 니더작센주와 같은 기타 연방주에서 온 선물이었다. 이들은 통일 과정에 흥미를 갖고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는 데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백 또한 안스바흐(Ansbach)와 뮌스터(Münster) 지역행정청으로부터 파견된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하였다. 이들은 그저 단순히 동독에 고대 그리스어 및 라틴어 전공인력이 많지 않고 이들 과목에 대한 교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오게 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갑작스럽게 현장에 왔다. 물론 이러한 제안은 수락되었으며 백과 교원양성소 동료들은 새로운 교사들과 함께 매우 훌륭하게 협력하였다.

여기에는 사전적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시간적으로 짜여진 일정이 존재했다. 백과 그의 동료들에게 약 3개월의 시간이 주어졌다. 이들은 항상 시간적 압박에 쫓겼으나, 동시에 틀을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기쁨을 갖고 일하였다. 새로운 출발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부담감을 느끼지

69 역주: 연극수업의 일종인 교과목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력을 고취시키고 사회적, 감성적, 미학적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않았다.

백은 90년대 중단 중등교육과정 I에서 폴란드어와 영어 과목을 담당하였으며, 외국어 수업은 1학년부터 병행할 수 있었다. 외국어 수업을 1학년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독일 전국에 걸쳐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브란덴부르크주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함께 발전시킨 모델이었다. 동독에서는 5학년부터 (예외적으로는 이미 3학년부터) 외국어 수업이 이루어졌다.

3. 교육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

또 다른 주안점은 처음에 교육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으로, 90년대 말부터는 보완과정(Implementierung)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교육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의 경우, 연구모임이 만들어졌으며, 이 모임에서 교육과정 수립 그룹 구성원과 교사가 함께 교육과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형식의 모임이 만들어졌고, 120명의 참석 인원이 교육청에 모인 대규모 행사도 진행되었다. 코트부스(Cottbus)에서 개최된 한 행사의 경우 장관이 참석하였으며,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교사들은 질문을 제기하고 교육과정 수립 구성원들은 그들에게 조언을 제공하였다. 이는 중요하고 유익한 행사였다. 이때 교육과정 수립 구성원들은 해당 지역, 다시 말해 현장 교사들에게 유쾌한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훌륭하고 매우 중요한 행사였으나, 많은 비용을 치른 과정이었다. 이와 같은 규모의 행사가 이후에 더 이상 개최되지 않았던 이유가 실제로 비용으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가 있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이라는 표현이 보완과정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보완과정은 점차 지원으로 받아들여졌다. 보완과정은 오늘날 주로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대형 포털을 포함한 교육서버 또는 정보보급자 및 전문가문가와외의 교류로 이해되었다. 행사는 매우 드물었다. 주립 학교 및 미디어 연구기관(LISUM)은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이상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4. 단계를 초월한 교육과정

교사들의 요구에 따라 백과 그의 동료들은 독일 최초로 단계를 초월한 현대 외국어 교육과정을 발전시켰다. 이들은 5개 외국어를 하나로 묶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이러한 도

전적 작업으로 독일 전국에 걸쳐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작업의 출발점은 당시 도입되었던 표준 지향적, 성취능력 지향적 교육과정 계획이었다. 이제 이 모델은 독일 전국에 도입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브란덴부르크주는 처음부터 학자들과 훌륭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영문학자인 베를린 자유대학의 한 교수는 초기에 문법 교육에 종속되지 않는 성취능력 지향적인 외국어 교육 계획을 강조하였다.

양거리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 새로운 출발

그는 1990년 교사가 되어 김나지움에서 민주시민교육 수업을 담당하였다. 그는 당시 민주시민교육 과목에 대한 새로운 직무교육을 이수하였던 동료 교사들로부터 새로운 출발에 대한 분위기를 충분히 전해들었다. 이들은 과거 국민윤리 교사로서 이후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고자 했던 교사들이 아니었다.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함에 따라 이전의 국민윤리 교사는 적합하지 않았고, 결국 다른 교과목을 담당하였던 교사들이 또 다시 새로운 직무교육을 받게 되었다.

당시 교사들은 주립 학교 및 미디어 연구기관(LISUM)에서 시행되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양거리는 이러한 행사에 직접 몇 차례 참석한 바 있다. 이러한 자리에서는 교육과정 수립과 관련하여 열띤 토론이 벌어졌고 어떻게 수업을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이로 인해 학생들 간에도 논쟁이 벌어졌다.

주 내에서는 민주적 발전과정과 더불어 교과목 상황이 변화되었다. 민주시민교육 과목에 대한 수업시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고, 더 이상 필수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과목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당시 민주시민교육 과목은 7학년에서 13학년까지 필수과목이었다. 지금은 더 이상 이와 같지 않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러한 주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2. 자체적 교육과정 개발

1990년대 초까지 서독의 교육과정을 대폭 반영함에 따라 자체 개발은 전혀 없었다.

2000년 초 강도 높은 자체 개발이 시작되었다. 2000년에는 중등교육과정 I, 2004년에는 초등학교, 2006년에는 인문계 상급학교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졌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외적 또는 민주적 조건에 따라 교과과정을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물론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의 구상을 의미한다. 이제 더 이상 구연방주의 교육과정안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3. 교육과정의 개방성

개방적 교육과정은 장점 및 단점을 지니고 있다. 교육과정에 있어 발전 가능한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규정에 따라 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교사들, 바로 그들이 규정이 없음을 아쉽게 여긴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의 교과과정 또는 교육과정은 대략 그 중간정도에 해당된다. 비교적 일반적 형태의 윤곽을 제시해주는 핵심내용은 정해져 있으나, 교사들이 제시된 내용을 계속 발전시켜 갈 수 있다. 젊은 교사들은 자신의 활동 영역이 확대된다고 여기는 반면, 일부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학생들에게 동독 독재정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전달되어 왔는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와 같은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예로, 20년이 흐른 지금 현재에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수업 규정 마련을 위해 중등교육과정 I 단계가 다시 조정되었으며, 이전에 존재하였던 자율적 공간을 제한하기 위해 동독과 서독 역사 청산이라는 주제가 각 학년 과정에 의무적으로 정착되어 있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또한 교사들이 수업에서 동독과 서독이 주제로 다루어지도록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양거리의 견해에 따르면, 교사의 개인적 관심, 그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개방성, 인구변화에 따른 직업의 미래 문제 그리고 계속교육 등과 같은 기타 요인들이 더 추가되었다고 한다.

질문과 답

1. 국민윤리 교과목 폐지

국민윤리 교과목은 폐지되었으며, 그 대신 브란덴부르크주 내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도입되었다. 사회학 교과목은 각 연방주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과, 역사/민주시민교육, 사회생활과, 시민사회과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브란덴부르크주 민주시민교육 교과목은 이론적으로 5학년에서 10학년까지 의무적으로 듣게 되며 10학년 후에는 이수하지 않을 수 있다.

윤리 및 종교 사회과목(Lebenskunde Ethik und Religionskunde, LER)은 어린이에게 종교 학습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그뿐 아니라 이 과목에서는 가치 교육 및 독립적 생활설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2. 실무위원회 조직

처음에는 범위에 따라 3명에서 8명 또는 그 이상의 인원으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위원회는 5명에서 6명의 교사와 1명의 주립 학교 및 미디어 연구기관에서 파견된 조정관, 경우에 따라 대학 교수 또는 교육전문가로 이루어졌다. 기본원칙은 충분한 인원의 교사를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3. 교육과정 수용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교육과정을 수용하였다. 학생 수가 적은 과목의 경우에도 교과과정이 그대로 채택되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어 교과과정은 베를린주에서 그대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나 규정은 없었다. 이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받았으며,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4. 동독 출신 교사의 채용

그럴 수밖에 없었다. 갑작스럽게 북한에서 남한 출신 사람들만이 교사가 된다면 또한 좋지 않을 것이다.

통일 과정의 전제가 동독의 민주화였다는 점을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신연방주 내에서는 혁명이 있었다. 다시 말해 동독이 서독에 흡수된다는 결정을 이끌었던 정치적 전향이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다시 말해 서독을 지향하고자 했던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이는 물론 선거를 통해 결정된 것이었다.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은 이미 특정한 역사관을 거부하고자 했던 확신이 있었고, 민주주

의를 수용하여 지향하였다는 점이다. 동독의 역사 수업과 국민윤리 수업은 계속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수학과 같은 기타 과목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분명 그다지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이는 어느 정도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 교과목은 신연방주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새롭게 고안되었다. 이때 구연방주의 교과과정을 강도 높게 수용하였으나, 자체적 역사와 주제영역 설계를 감안하여 이루어졌다.

독재정치는 절대적으로 동독 국민의 의지를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는 동독에 사회제도를 이식하였던 소련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국민에게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마도 이러한 요인이 저항을 방지하였을 것이다.

5. 개선이 요구되는 항목

- 모든 것이 너무 서둘러 결정되었기 때문에 종종 신중함이 결여되었다.
- 교과과정에 임시적이거나 명확한 특성을 부여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교과과정에 대한 검증이 지나치게 부족했으나, 결국에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 투명성에 유의했어야 했다. 전체주의 정권에서 모든 것은 동일했다. 투명성이 다양성으로 인해 소멸되었다. 각 연방주의 다양성은 오늘날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브란덴부르크주에서 바이에른주로 이주할 경우, 아이는 몇몇 교과목을 일 년 더 수강해야 한다.
- 그 당시 모든 정부부처의 국장은 서독 출신이었다. 동독 출신 인사는 전혀 없었다. 사실상 동독 출신 인사로는 주정부 장관 그리고 서열에 따라 낮은 직급인 과장 및 담당관 등이 있었다. 일부는 이를 불편하게 여겼으나, 일부는 서독 출신 인사들과 매우 잘 어울렸다. 업무와 관련해 서독 출신 인사의 지배권 또는 동독 출신 및 서독 출신의 인원 구성 비율로 인한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현상이다. 이를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어떻게 마찰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종종 어떻게 장애에 대처해야 하는지 드러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또한 결정 과정에 있어 한쪽 또는 다른 쪽의 의견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입장을 고려해야 함을 예상해야 한다.
- 동독과 서독 사람들은 서로의 특성을 익혔다. 이들은 순수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알

게 되었다. 몇몇 편견은 점차 사라져 갔다. 물론 실무 그룹 중에는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관계자가 존재하여 업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해체되어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것이었다.

- 소통 및 분쟁에 대처하는 경험은 통일 과정의 일부였다. 이는 또한 점차 계속교육의 일부가 되고 있다.

자료 24

19권 환경 - 환경부
 “구동독지역 내 열에너지 활용 증대를 위한 제안 및 조치” 심포지엄
 / 구동독 지역 및 구서독 지역 출신 엔지니어

1990년 9월 21일, 뉘른베르크

“구동독지역 내 열에너지 활용 증대를 위한 제안 및 조치” 심포지엄: 연방 냉난방위생공학 산업협회(Bundesindustrieverband Heizungs-, Klima-, Sanitärtechnik e.V., BHKS)와 VDI-건축설비기술단(Gesellschaft Technische Gebäudeausrüstung)이 개최했던 이 심포지엄 준비계획 수립은 이미 통일 전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당시 상황 하에서 전문적 협력을 이끌어 내고, 이러한 협력이 가능하다면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사이 발생하였던 정치적 변화로 인하여 다행히도 집회의 규모를 더 확장시킬 수 있었다. 심포지엄은 1990년 9월 21일 뉘른베르크에서 동독과 서독의 참가자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하고 새로운 과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1. 종종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난 단열효과 향상을 포함, 기존 건축물의 보존 및 복구
2.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한 기존 난방 및 온수 공급 시설의 개축 및 복구.
3. 시장경제 관점에 따라 안전하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시설 운영

* 자료 본문 미번역

자료 25

19권 환경 - 환경부 아르눌프 뮐러-헬름브레히트(Arnulf Müller-Helmbrecht)

2010년 10월 8일, 베를린

아르눌프 뮐러-헬름브레히트(Arnulf Müller-Helmbrecht)는 연방 환경부(Bundesministerium für Umwelt)에서 일하였으며 1990년 동독 환경부로 발령받아 동베를린으로 파견되었다. 특히 그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대규모 환경보호구역 15년(15 Jahre Großschutzgebiete in Mecklenburg-Vorpommern)” 실태보고서의 저자이다.

인터뷰 주제: 통일조약에 채택된 자연보호 및 국립공원 조항

1990년 연방환경부에서 동독 환경부로 파견되었던 것과 관련하여 뮐러 헬름브레히트에게 행한 질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대규모 환경보호구역 15년(15 Jahre Großschutzgebiete in Mecklenburg-Vorpommern)” 실태보고서)

뮐러-헬름브레히트는 모든 것이 매우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강조한다. 그에 대한 동베를린 파견 지시도 구두로 이루어졌으며, 대략적 내용은 “통일에 대한 준비차원에서 자연보호법 입안과 관련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둘러보고, 관련 전문가를 모집하시오!”라는 것이었다.

동독 환경부(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Energie und Reaktorsicherheit, MUNER)는 트로쉬케(Troschke)씨의 지휘 하에 7~8명의 직원을 둔 자문단을 조직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뮐러-헬름브레히트씨에 비해 신임을 얻지 못하였으며, 매우 소극적이었다.

동독 자연보호법을 통일조약에 수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독 6인의 담당국장과 더불어 기타 연방부가 참여하였던 협상은 (마감일로 인해) 시간상 매우 촉박하였으며, 거의 예외적으로 비공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협상은 전화, 단독면담, 단체회의로 진행되었으며 기록되지 않았다(이에 대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밖에 뮐러-헬름브레히트씨는 “하르츠 국립공원(Nationalpark Hartz)” (동, 서독을 아우르는 유일한 국립공원 사업) 및 “그린벨트(Grünes Band)” (과거 국경지대였으며, 그 사이 유럽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님)를 제시하였다. 그는 해당 시대를 경험한 다른 증인과 연락하여 우리에게 그들을 추천하여 주고자 시도했다.

자료 26

19권 환경 - 환경부

프리드리히 폰 비스마르크(Friedrich von Bismarck) 박사

2010년 11월 11일, 베를린

프리드리히 폰 비스마르크 박사는 광업 및 환경 문제 전문가로서 1995년부터 베를린에서 갈탄 채굴지역 재개발사업 운영 및 예산위원회 사무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연방 및 주가 재정 지원을 하는 재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85억 유로가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수천 명에 이르는 인원이 브란덴부르크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겐주 소재 광산지대 재개발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전에 그는 1992년부터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 갈탄채굴계획과 과장이었다.

비스마르크 박사(59세)는 두 개의 학위를 갖고 있다(국민경제 및 지질학 전공 석사학위, 자연과학 박사 학위). 그는 캐나다, 말레이시아, 태국, 독일에서 광업 분야에서 일하여 풍부한 실제 경험을 쌓았다. 그는 1983년부터 1991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장관 자문관을 역임하였다.

비스마르크 박사는 1985년부터 UN의 단기 과제 자문관으로 일하였다. 그는 경제전문위원회 회원이자 UN 환경 프로그램(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광업에 대한 환경지침 초안을 마련한 ‘국제 원탁 회의(International Round Table)’ 참가자이다. 그는 주로 독일 광산지대 재개발과 관련된 환경 혁신이 국제적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독일에는 어떻게 통일을 성사시킬지에 대한 지침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자유가 주어졌으나, 또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무엇인가를 실행해야 하는, 무엇인가를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불편한 압박감이 존재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했다.

광산폐기물을 포함하여 산업폐기물 처리가 우리 분야 주요 주제이다. 이는 또한 항상 가정폐기물 하치장 분야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존재한다. 대부분 잘못된 행동은 전염성이 있다. 만일 어딘가에 대형 쓰레기더미 또는 쓰레기를 쏟아 부을 정도의 큰 구덩이가

존재한다면, 그곳에 다른 쓰레기들 쏟아 부어지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장소들은 산업폐기물 오염지대이다. 군사폐기물 오염지대는 사실 특수한 유형으로, 해당 연방주가 모든 책임을 갖고 있다.

동독 1차 에너지의 70%는 갈탄으로 충족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동독은 세계 최대 규모의 갈탄 생산국이었다. 당시에는 심지어 이와 관련한 법규가 존재하였다. 이에 따르면 추후 갈탄 채굴지역을 다시 이전 상태로 복구해야 하며, 주변 지대를 다시 가꾸어야 했으나, 단지 법적으로 언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항상 모든 것을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복구자금이라는 경제적 압박이 존재했다. 많은 사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났으며, 기업들은 이와 같은 오염지대를 재개발하기 위한 예비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 생산이 늘어날수록 오염지대도 점차 더 확대되었다. 산업을 통해 거두어들인 수익은 다른 목적을 위해 소비되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실 동독 시절에 이미 환경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다른 것을 관철시킬 기회가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해 한편으로 자연환경 복구 노력이 심각하게 결여되었으며, 동독 내에서 1차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 역시 대폭 확대되어 경제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이후 견해에 따르면 심지어 매우 비경제적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 뒤로 통일이 되고, 곳곳에 대규모의 노천채굴, 수천 개의 오염 의심지대가 남게 되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우선 현 상황을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당시 기업을 분류해보고자 했던 다수의 평가가 있었다. 또한 서독의 법안을 기준으로 어떠한 기업이 경제적 미래가 밝은지 속고되었다. 1991년부터 1992년 사이에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모든 것이 신탁관리청을 통해 실행되었으며, 이 산업분야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한 평가가 발주되었다. 이 평가를 통해 민영화가 가능한 기업을 선별해내고, 동독 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서독 기업법에 따라 민영화 과정 중 사업전망이 검토되어야 했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과정을 위해 평가서가 활용된 것이다. 이때 다수의 기업이 대거 배제된다면, 이들 기업은 절대로 다시 경제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이 매우 빠르게 도출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업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되었다.

1. A형 기업: 민영화가 가능하고 전망이 있었던 기업
2. B형 기업: 최종적으로 1999년까지 진행된 과도기 동안 계속 운영되었으나 그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했던 기업. 이는 한편으로는 고용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왜냐하면 갈탄 사업에 종사하는 150,000명의 근로자가 하루 아침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도록 해고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상승시키지 않고자 한 것이었다. 갈탄을 채굴할 경우, 대형 기기가 투입되고 갈탄 채굴에 대규모 집단 인력이 동원되므로, 추후에 또한 채굴 작업 후 안정적인 경관 복구를 가능케 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생산과 재개발 간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기업은 과도기적으로 생산을 유지하였다. 예를 들어, 발전소에게 과도기 기간 동안 임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중요했으며, 1996년까지 환경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 후 모든 기업들은 서독 기준에 따라 작업해야 했다.
3. C형 기업: 1992년 이전에 이미 폐쇄되었거나 폐쇄되어야 할 노천 채굴.

자료 27

지방자치단체 빌헬름 폴테(Wilhelm Polte) 박사

2010년 10월 19일, 막테부르크

빌헬름 폴테 박사(*1938년 작센-안할트주 니그리프(Niegripp)에서 출생)는 1989년 동독 사민당(SDP)⁷⁰의 창당 발기인이었으며, 1990년 막테부르크 지역 사민당(SPD) 대표였다. 폴테는 동독 최초의 인민회의 자유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그는 같은 해 막테부르크 시장이 되었으며 2001년까지 이 직책을 계속 유지하였다.

동독은 경제적으로 붕괴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와 동시에 동구권 경제도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함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무엇보다도 합법성을 인정받은 의회가 연방주 가입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시급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는 다음과 같았다.

- 최초의 자유선거를 통해 구성된 인민회의
- 지방자치단체 선거
- 1990년 7월 1일 시행된 경제 및 화폐 통합
- 통일조약

동독 국민들 사이에 조급함이 아니라 기대감이 팽배했다. 시위대에서는 이를 일상의 손실이라 불렀다.

통일 과정에서 겪게 되었던 몇 가지 커다란 어려움과 부족했던 점은 다음과 같았다.

- 낙후된 통신제도 (막테부르크 통신중계소는 1924년 제조된 지멘스(Siemens)사의 것

⁷⁰역주: Sozialdemokratische Partei의 줄임말. 1989년 창당되어 1990년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SPD)에 통합됨.

으로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파괴된 상태였음)

- 지연된 거주지역 재개발
- 주택난
- 환경훼손
- 수질오염
- 학교, 병원, 문화시설이 모두 낙후된 상태였음

시민들은 정당한 방식으로 신속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신속하게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통일 전 막테부르크 도시에는 약 18,000명의 행정직원이 있었다. 통일 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았다.

- 지방자치와 독립적인 재정권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했음
- 인사조직은 새롭게 구성되고 자격을 갖추어야 했음
- 무엇보다도 법률직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었음

폴테 박사는 “새로 배우는 것이 다시 배우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원칙으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다시 말해 다년 간 과거의 사고방식에 얽매어 일해 온 사람을 계속 고용하는 것보다 무경험자를 고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1990년 5월 31일, 폴테 박사는 시장으로 취임하였다.

1990년 10월 3일까지 드 메지에르(de Maizière) 정부 재임 기간 중에는 행정직원 해임이 좀 더 수월해졌다. 몇몇은 슈타지 활동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물러났다. 다수의 새로운 정치가와 행정직원이 자연과학 전공자들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은 새로운 행정과제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행동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이라는 상위 원칙에 따라 일상 업무에 대한 청사진은 전혀 없었다.

폴테 박사도 1990년 8월에서야 언제라도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업무용 전화기를 개통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커다란 문제점은 개인 승용차 분야에서 나타났다. 동독 사람들은 즉시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트라반트(Trabant)⁷¹를 원하지 않았다. 우선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내고 자동차를 임의로 길가에 세워 두었다.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렀다. 왜냐하면 그들은 승용차 폐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동베를린에 있는 동독 정부가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진통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업무 처리는 더욱 어려웠다. 한편 작센-안할트주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었다. 행정관청은 소련군 병영을 활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선 소련군의 철군을 기다려야 했다.

동독 국민은 서독 TV 방송을 시청했기 때문에 서독을 이상적인 모델로 여기고 있었다(우스갯소리로 “동독은 매일 저녁 외도를 한다. 서독 방송을 시청하며 말이다.”라는 말이 돌았다). 끊임없는 비판적 보도로 막테부르크 지방자치 업무를 곤란에 빠뜨렸던 일간지 빌트(Bild)⁷²의 역할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입각 후 100일 간의 평화적 보도유예기간은 단 한 번도 유지되지 못했다.

막테부르크 내 거주민 100명당 48대의 개인 승용차가 보급되어 2년 후 승용차 보유대수가 독일 평균치에 도달하였다.

자산법상 권리

최단 시간 내에 전 세계에서 25,000건의 자산법 관련 청구서류가 접수되었다. 이러한 신청서는 최종적으로 모두 막테부르크로 전달되었다. “미해결 자산문제 담당 관청(Amt für offene Vermögensfragen)”이 거의 모든 구역에 새로 설치되었다. 막테부르크 내에서는 특히 많은 건물들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당시 해당 관청에 35명의 직원이 있었다. 적합한 직원을 구하는 일은 항상 쉽지 않았다. 신청자들은 계속 독촉하였다. 통일조약에 명시된 “보상 전 반환” 원칙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었다. 그 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주택난에서 비롯된 주택공급 과잉이 일어

71 역주: 동독 시절, 국민차로 사랑받았던 4인승 승용차로 애칭은 트라비(Trabi)이다.

72 서독의 대표적인 황색신문이다.

났다. (이와 관련하여 1992년 7월 발효된 "투자우선법 (Investitionsvorangesetz)"과 "주거 공간 용도변경법(Wohnraumzweckentfremdungsgesetz)" 참조)

역 앞 광장에만 약 100개의 재산권 청구 신청서가 몰렸다. 특히 별도로 다루어졌던 뉴욕 유대인보상청구연맹(Jewish Claims Conference in New York)의 법적 청구는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다. 연방정부는 브란덴부르크주에 이에 대한 포기를 선언해야 했다.

지방자치단체

시의회는 150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새로 연수를 받아야 했다. 많은 의원들이 모든 것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모든 위원회로 모든 신청서를 보냄으로써 결정과정이 여러 주에 걸쳐 지체되었다.

세 가지 단계

플테 박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를 제시하였다.

1. 개혁 단계: 1990년 지방선거 시점부터 1991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신연방주는 올바른 업무처리 능력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2. 안정화 단계: 1991년 중반부터 주의회 임기 말까지 인민회의의 통일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졌다.
3. 조정 단계: 1994년부터 현재까지

1989년 격변의 시간 속에서 언제쯤 이 시기가 영광스럽게 느껴질지를 떠올렸던 동독 국민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사실 중요했던 것은 동독 국민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던 1990년 7월 1일 체결된 경제 및 화폐 통합이었다.

종종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변화에 대처해야 할 시간만이 주어졌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기회가 없었다. 물론 또한 자신의 입장에 확신을 갖고 있는 이들과 항상 관련이 있었다.

막데부르크 시민들에게 베를린 정부는 닿을 수 없는 대상이었다. 작센-안할트주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나, 그 사이 시민들은 막데부르크 지방자치단체를 종종 "매맞는 소년"⁷³ 그

리고 “피뢰침”으로 표현함으로써 불만을 표출하였다.

도시 간 자매결연

동독과 서독 도시 간 최초의 자매결연은 통일 이전, 다시 말해 1986년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의 고향 노인키르헨(Neunkirchen)(자르(Saar) 지역)과 브란덴부르크주 뤼벤(Lübben) 간에 이루어졌던 자매결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밖에 이루어졌던 자매결연은 다음과 같다.

- 라이프치히(Leipzig)와 하노버(Hannover) (1987년부터)
- 드레스덴(Dresden)과 함부르크(Hamburg) (1987년부터)
- 막테부르크와 브라운슈바이크(Braunschweig) (1987년부터)
- 데사우(Dessau)와 루드비히스하펜(Ludwigshafen) (1988년부터)

브라운슈바이크는 막테부르크의 재정예산안 수립에 도움을 주었다. 1990년 10월 3일 이전, 막테부르크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이 라다(Lada)⁷⁴ 트렁크에 자료를 싣고 국경을 넘어 왔고 브라운슈바이크는 이 자료를 전산처리하였다. 브라운슈바이크가 제공한 도움은 다음과 같다.

- 업무규정 작성
- 결의안 준비
- 회의 준비

교육

1990년 여름, 아직 연방주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990년 가을 학기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새로운 교장을 필요로 하였

73 역주: 왕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대신 매를 맞았던 평민계층의 소년을 이르는 말.

74 역주: 러시아제 자동차 라다 니바(Lada Niva)의 줄임말.

으며, 마찬가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사도 필요하였다. 그러나 지원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빈번하게 과거의 교장이 직책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당시 베를린 시장이었던 에버하르트 디프겐(Eberhard Diepgen)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교사의 급여 조정을 신속하게 실시함으로써 동독 각지에서 불만이 야기되었다. 왜냐하면 이미 동독 시절부터 동베를린이 기타 다른 도시에 비해 우선적으로 다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막테부르크에는 다음 세 대학이 존재하였다.

1. 기술대학
2. 교육대학
3. 의과대학

이 세 대학시설은 1993년에 막테부르크 오토 폰 구에리케 대학(Otto-von-Guericke-Universität)으로 통합되었다.

도시명

막테부르크는 동독 시절 “중공업의 도시 - 막테부르크”라는 공식 별칭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칭호는 통일 이후 빠르게 사라졌다. 국민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뮌헨(München)의 한 광고대행업체에 새로운 별칭을 고안하도록 위탁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친 위원회 회의 끝에 최종적으로 90년대 초반에 “엘베강가의 대성당 도시 - 막테부르크”라는 호칭으로 결정되었다.

토지,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막테부르크 지역 사회기반시설의 개조, 재개발, 기타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막테부르크에 최초의 공학 연구기관인 막스플랑크연구소(Max-Planck-Institut)를 유치했다(다른 모든 막스플랑크연구소는 자연과학 연구기관이다).
- 소련이 사용하였던 모든 토지 및 부동산은 연방 또는 재무부에 귀속되었으며, 전반

적으로 형편없는 상태였으나 말끔하게 정비되었다. 1993년부터 주정부부처와 전문 대학으로 사용되고 있다.

- 엘베강 대교는 부분적으로 매우 노후되어 시속 30 킬로미터 일방통행으로만 차량 운행이 가능하였다. 통일 후 이들 중 몇몇 다리는 전차선로 그리고 양방향 통행을 위한 다리로 확장되었다.
- 군사훈련장은 독일정원박람회(막테부르크에서는 1999년 최초 개최)와 경기장으로 용도 변경되었다.
- 중앙 쓰레기 매립지는 동독 시절 환경오염을 유발하였고, 통일 후 1천 4백만 유로를 투입하여 친환경적으로 개축하였다.
- 많은 학교가 수천 만 유로를 투입하여 재개발되었다.
- 항구 건축물은 학문의 요지로 거듭났다(헬름홀츠센터, 막스플랑크연구소, 프라운호퍼연구소).
- 약 300개에 이르는 거리 명칭이 변경되거나 신설되었다. 이는 명칭위원회가 규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누구나 제안권이 있었다. 몇몇 경우에 한하여 서로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대로 수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소를 너무 자주 교체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개인 주택의 상태는 재개발 이후 대폭 개선되었다.
- 문화재 보호 문제는 주의 관할이었으며 작센-안할트주 문화재보호청(Landesamt für Denkmalschutz Sachsen-Anhalt)은 할레(Halle)에 위치해 있다.
- 갈탄 및 석탄은 석유와 가스로 빠르게 대체되었다.
- 모든 엘베강 대교는 사실상 재개발을 필요로 하였으나, 모든 다리를 대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도시계획청(Stadtplanungsamt)의 일반적인 재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즉시 재개발을 필요로 하는 사례 지정
- 정책적 합의

- 주/연방/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작성한다. 모든 신연방주를 대상으로 약 400개에 이르는 주/연방/유럽연합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다. 폴테 박사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선별하는 3명의 직원을 두었다(도시, 기업, 기관).
- 자금 지원 계획 및 구체화
- 실행계획 수립 (엔지니어 사무소가 이를 인수함)

문서는 도시계획청 및 도시문서보관소(Stadtarchiv)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자료 28

베를린주 소방대
볼프강 솔츠(Wolfgang Scholz)
통일 후 베를린주 소방대 및 구조대 통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근무시간 기록표

1995년

공학 석사 볼프강 솔츠는 과거 베를린주 소방서장을 지냈다.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그는 베를린주 소방대장이었다.

* 자료 본문 미번역

동 책자에 실린 내용은 통일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독일 통일 20년 계기 -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제3권 참고 자료

3.3 부 록

통 일 부

CONTENTS

독일통일 20년 계기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부 록

- I. 프로젝트팀 구성 · 253
- II. 개별 연구보고서 작성자 · 255
- III. 각 권의 개요 · 257
- IV. 전체 참고문헌 목록 · 267
- V. 전체 약어 목록 · 415
- VI.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 425
- VII. 면담자 목록 · 427

I. 프로젝트팀 구성

I. 프로젝트팀 구성

프로젝트 책임자

이은정교수(Prof. Dr. Lee Eun-Jeung,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베르너 페니히 박사(Dr. Werner Pfennig, 베를린 자유대학교, 오토-주르 정치학 연구소)

프로젝트 참여자

아르네 바르취(Arne Bartzsch)

외르크 베커(Jörg Becker)

최혜원(Choi Hae-Won)

최혜진(Choi Hye-Jin)

알렉산더 피셔 박사(Dr. Alexander Fisher)

박창수 박사(Dr. Park Chang-Soo)

박수진(Park Su-Geen)

알렉산더 페니히(Alexander Pfennig)

리하르트 페니히(Richard Pfennig)

조교

전한민(Chen Han-Min)

다니엘라 클라우스(Daniela Claus)

이지환(Lee Chi-Hwan)

크리스티안 숄텐(Christian Schulten)

전산 데이터

정훈(Jung Hoon)

Ⅱ. 개별 연구보고서 작성자

II. 개별 연구보고서 작성자

울리히 브뤼크너 박사(Dr. Ulrich Brückner) 스탠포드 대학 베를린 프로그램

- 제 21권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Band 21 EU und deutsche Wiedervereinigung)

라르스 포겔(Dr. Lars Vogel)/다니엘 게르스텐하우어 박사(Dr. Daniel Gerstenhauer)

예나 대학교

- 제 10권 엘리트 변동 - 정치 엘리트(Band 10 Elitenwandel)

브루노 힐텐브란트 교수(Prof. Dr. Bruno Hildenbrand) 예나 대학교

- 제 6권 사회적 변화의 영역(Band 6 Bereiche gesellschaftlicher Veränderungen)

에버하르트 홀트만 교수(Prof. Dr. Everhard Holtmann) 할레 대학교

- 제 8권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 발전경로 비교(Band 8 Vergleich Sachsen mit Sachsen-Anhalt)

베른트 마르텐스 박사(Dr. Bernd Martens) 예나 대학교

- 제 10권 엘리트 변동 - 경제 엘리트(Band 10 Elitenwandel)

페터 뢰터스 박사(Dr. Peter Rütters) 베를린 자유대학교

- 제 9권 노동조합(Band 9 Gewerkschaften) - 노동부

베르너 폰 쉐벤 중장(Werner von Scheven) 독일연방군

- 제 3권 군통합(Band 3 Militär) - 국방부

Ⅲ. 각 권의 개요

III. 각 권의 개요

0. 통일 비용 - 견본(Kosten der Einheit - Probeband)
1.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 과도기 단계(Die Übergangsphase 1989-1990) - 총리실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 과도기 단계(부록)
2. 과거 청산(Vergangenheitsaufarbeitung)
3. 군통합(Militär) - 국방부
4. 통일된 도시에서의 경찰(Polizei in einer wiedervereinigten Stadt) - 경찰청
5. 국가 구조의 변화(Strukturveränderungen)
6. 사회적 변화의 영역(Bereiche gesellschaftlicher Veränderungen) - 사회적 변화
7. 미디어(Medien) - 언론통합
8.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 발전경로 비교(Vergleich Sachsen mit Sachsen-Anhalt)
9. 노동조합(Gewerkschaften) - 노동부
10. 엘리트 변동(Elitenwandel)
11.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 일람(Maßnahmen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neuen Länder)
12. 독일 재통일: 재정정책, 비용 및 조달(Deutsche Wiedervereinigung: Steuerpolitik, Kosten und Finanzierung) - 통일비용과 재정정책
13. 농업(Landwirtschaft) - 농림식품부
14. 신탁관리청과 구동독지역 재건(Treuhandanstalt/Aufbau Ost)
15. 사법 및 행정(Justiz und Verwaltung) - 법무부·내무부
16. 재무부(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17. 보건 및 연금시스템(Gesundheits- und Rentensystem) - 보건복지부
18. 교육(Bildung) - 교육부
19. 환경(Umwelt) - 환경부
20. 면담록(Gesprächsprotokolle)
21.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EU und deutsche Wiedervereinigung)
22. 부록
23. 브란덴부르크주(1~18)

세부 개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각 권의 개괄 논문은 베르너 페니히 박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각 권의 순번은 용역팀에 의해 작성된 순서로, 발간된 책자(「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의 순서와는 다르다.

제0권 : 통일 비용 - 견본

- I. 개관
- II. 재정
- III. 사례 연구
- IV. 법적 근거

제1권 :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 과도기 단계 - 총리실

- I. 편입
- II. 선거
- III. 사회·경제·화폐 통합
- IV. 통일조약

제1권(부록) :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 과도기 단계

제2권 : 과거 청산

- I. 국가안전부
- II. 사법적 청산
- III. 복권
- IV.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제3권 : 군통합 - 국방부

베르너 폰 쉘벤의 논문

제4권 : 경찰청 - 특수사례로서 베를린

리하르트 페니히의 논문

- I. 보고와 현황
- II. 공문
- III. 업무 지시
- IV. 양식, 설문지 그리고 견본
- V. 보도 공고와 신문기사
- VI. 회의록
- VII. 발표문

제5권 : 국가 구조의 변화

- I. 정당시스템
- II. 정당자산
- III. 주(州) 도입
- IV. 수도 이전

제6권 : 사회적 변화의 영역 : 동-서독 간의 격차, 인구구조 및 소비행태

- I. 생활·노동 현황과 평가
- II. 대응방안과 행동 권고
- III. 아동과 청소년
- IV. 소비행태와 동독 제품

제7권 : 미디어 - 언론통합

제8권 :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 발전경로 비교 : 통일은 되었으나, 다른 방식으로

에버하르트 홀트만 교수의 연구보고서 (통일은 되었으나, 다른 방식으로. 체제 붕괴 이후 지역 발전경로: 구동독 지역 주정부에 대한 비교 설명 1989년/1990년 이후의 작센 및 작센-안할트) 작성 및 자료의 구성·해제

- I. 1989/1990 시작 상황
- II. 발전상황과 발전역동성
- III. 거시정책적 기본결정들
- IV. 각 지역의 상이한 발전 경로
- V. 정치 영역

제9권 : 노동조합 - 노동부

페터 뤼터스의 연구보고서(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의 노동조합 - 1989/1990년 구 동독 지역이었던 신연방주 정부에서 독립적 노동조합을 구축하기 위한 서독 노동조합의 이니셔티브와 활동) 작성 및 자료 구성

제10권 : 엘리트 변동

베른트 마르텐스(Bernd Martens)의 기고문(동독 및 재통합된 독일에서의 경제계 인사들), 라르스 포겔(Lars Vogel)과 다니엘 게르스텐하우어(Daniel Gerstenhauer)의 기고문(동독 및 재통합된 독일에서의 정치계 인사들)

제11권 :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 일람

- I. 연방정부
- II. 연방 경제·기술부(BMWi)
- III. 연방 법무부(BMJ)
- IV. 연방 건설·교통·도시개발부(BMVBS)

- V. 연방 재무부(BMF)
- VI. 연방 보건부(BMG)
- VII.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JSFJ)
- VIII. 연방 노동·사회부(BMAS)
- IX. 연방 교육·학술연구부(BMBWF)
- X. 연방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BMELV)
- XI. 연방 내무부(BMI)

제12권 : 독일 재통일 : 재정정책, 비용 및 조달 - 통일비용과 재정정책

알렉산더 피셔 박사(Dr. Alexander Fisher)의 논문 및 자료 구성·요약

제13권 : 농업 - 농림식품부

- I. 전환기의 농업 구조전환 과정
- II. 구조전환의 법적 토대
- III. 전체적 개괄
- IV. 부분적 개괄

제14권 : 신탁관리청과 구동독지역 재건

알렉산더 피셔 박사(Dr. Alexander Fisher)의 논문 및 자료 구성·요약

제15권 : 사법 및 행정 - 법무부·내무부

- I. 사법
- II. 행정

제16권 : 재무부

알렉산더 피셔 박사의 논문 및 자료 구성·요약

제17권 : 보건 및 연금시스템 - 보건복지부

- I. 구동독 지역 보건 및 사회복지시스템 변화를 위한 기본요건
- II. 동독 사회보험공단의 변천 및 연금제도의 전환
- III. 보건제도에 있어서의 시스템 과도기 및 의료보험공단의 설치
- IV. 보건제도의 변화

제18권 : 교육 - 교육부

- I. 신연방주에서의 교육 개혁
- II. 교사의 자격인정과 급여동등화
- III. 유치원 교육
- IV. 직업교육 및 지식 이전

제19권 : 환경 - 환경부

- I. 기본 입장 및 법조문
- II. 오염지대 정화(Altlastensanierung) - 일반, 갈탄, 비스무트, 원자력 발전소
- III. 자연보호, 그린벨트
- IV. 전체적 서술

제20권 : 면담록

제21권 :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연구보고서(독일 통일 과정에 있어서 유럽공동체의 역할) 및 울리히 브뤼크너 박사(Dr. Ulrich Brückner)의 자료 요약

제22권 : 부록

- I. 프로젝트팀 구성
- II. 개별 연구보고서 작성자
- III. 각 권의 개요
- IV. 전체 참고문헌 목록

- V. 전체 약어 목록
- VI.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 VII. 면담자 목록

제23권 : 브란덴부르크주(1~18) : 브란덴부르크, 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I. 도입

책임 집필 박창수 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II.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재건

책임 집필 박창수 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III. 재건 프로그램 및 주정부 정책의 목표

경제
구 소련군의 군사시설
책임 집필 박창수 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IV. 농업경제, 자연과 환경, 건설 및 주거

책임 집필 박창수 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V. 교육, 보건, 사회복지, 여성

책임 집필 박창수 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VI. 문화, 행정, 사법, 재정

책임 집필 박창수 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VII. 1990년 12월 6일 정부발표문

헌법,
소르브 소수민족
책임 집필 박창수 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VIII. 제 1차 입법회기(1990-1994)의 평가

1994년 11월 18일 정부발표문
책임 집필 박창수 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IX.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의 협력
책임 집필 박창수 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X.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 독재의 역사와 결과

검증 절차
슈톨페(Stolpe) 주총리에 관한 조사위원회
책임 집필 박창수 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XI. 경제 발전(1990-2010)

신탁회사
노동시장
책임 집필 박창수 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XII. 일자리 전략(1996-97)

관광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와 유럽연합(EU) 확대(2002)

책임 집필 박창수 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XIII. 각 지역 노동시장의 비교 분석(2006)

책임 집필 박창수 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XIV. 노동시장 정책과 지원대책

직업교육 대책,
주정부 개발 신탁회사(LEG)에 대한 조사위원회
책임 집필 박창수
브란덴부르크, 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XV. 인프라 구조, 도시 개발 및 주택 제도

책임 집필 박창수 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XVI. 문화

어린이 및 청소년 보고서, 1994년
책임 집필 박창수 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XVII. 어린이 및 청소년 보고서, 1998년

사회정책
책임 집필 박창수 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XVIII. 내부 평화 및 내부 안보(범죄)

종교수업에 관한 논쟁
소르비언어(지방 언어)
책임 집필 박창수 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IV. 전체 참고문헌 목록

IV. 전체 참고문헌 목록

1. 과도기

라인홀트 안더트/볼프강 헤르츠베르크, 1991년. 붕괴 - 교호신문(交互訊問)에서의 에리히 호네커. 베를린 및 바이마르, 아우프바우 출판사.

Andert, Reinhold/Herzberg, Wolfgang. 1991. Der Sturz, Erich Honecker im Kreuzverhör. Berlin, Weimar: Aufbau-Verlag.

카를-하인츠 아르놀트, 1990년. 한스 모드로우의 초기 100일. 베를린, 디츠 출판사.

Arnold, Karl-Heinz. 1990. Die ersten hundert Tage des Hans Modrow. Berlin: Dietz.

외무부 홍보과(발행인), 1995년. 독일 연방공화국의 외교정책 - 1949년부터 1994년까지의 문서자료. 쾰른, 학술과 정치 출판사.

Auswärtiges Amt,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 (Hrsg.). 1995. Aussen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okumente von 1949 bis 1994. Köln: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한네스 바르만 및 크리스토프 링크스, 1994년. 변혁의 연대기 - 1990년 3월 18일부터 10월 17일 사이의 동독. 베를린, 크리스토프링크스 출판사.

Bahrmann, Hannes/Links, Christoph. 1994. Chronik der Wende. Die DDR zwischen 17. Oktober und 18. März 1990. Berlin: Ch, Links Verlag.

위의 저자와 동일, 1995년. 변환의 연대기 2 - 통일의 각 단계, 동독의 마지막 몇 달. 베를린, 크리스토프링크스 출판사.

Dies. 1995. Chronik der Wende 2. Stationen der Einheit, Die letzten Monate der DDR. Berlin:Ch, Links Verlag.

클라우스 폰 바이메, 1994년. 동유럽에서의 체제 전환.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주르캄프 출판사.

Beyme, Klaus von, 1994. Systemwechsel in Osteuropa. Frankfurt/Main: Suhrkamp.

클라우스 폰 바이메, 1991년. 수도를 찾아서 - 본과 베를린 사이의 이익을 둘러싼 갈등 문제에 있어 수도의 기능.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주르캄프 출판사.

Beyme, Klaus von, 1991. Hauptstadtssuche. Hauptstadtfunktionen im Interessenkonflikt zwischen Bonn und Berlin,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쿠르트 비덴코프, 1990년. 개방된 국경, 개방된 시장 - 동독 국민경제 복구를 위한 전제 조건. 비스바덴, 가블러 출판사.

Biedenkopf, Kurt, 1990. Offene Grenze, offener Markt: Voraussetzungen für die Erneuerung der DDR Volkswirtschaft, Wiesbaden: Gabler.

한스 오토 브로이티감, 2009년. 상주 대표부 - 동베를린에서 보낸 세월. 함부르크, 호프만 운트 캄페 출판사.

Bräutigam, Hans Otto, 2009. Ständige Vertretung. Meine Jahre in Ost-Berlin, Hamburg: Hoffmann und Campe.

연방 내무부 - 독일 연방 문서보관청의 협조를 얻음(발행인), 1998년. 독일 정책에 관한 문서자료. 뮌헨, R. 올덴부르크 출판사.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ter Mitwirkung des Bundesarchivs (Hrsg.). 1998.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독일 연방정부, 2010년. 독일 통일의 20년. 니제탈, 질버 드록 출판사.

Die Bundesregierung, 2010. 20 Jahre Deutsche Einheit, Niesetal: Silber Druck.

발터 드 그뤼터(발행인), 1990년. 독일 공법학회 출판물, 제49호. 독일, 발터 드 그뤼터

& Co 출판사.

de Gruyter, Walter. Hrsg. 1990. Veröffentlichung der Vereinigung der Deutschen Staatsrechtslehrer. Heft 49. Deutschland: Walter de Gruyter & Co.

프랑크 엘베/리하르트 키슬러, 1993년. 첨예한 대립 속의 협상 테이블, 독일 통일을 향해 가는 외교적인 길.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Elbe, Frank/Kiessler, Richard. 1993. Ein runder Tisch mit scharfen Ecken. Der diplomatische Weg zur deutschen Einheit. Baden-Baden: Nomos.

발렌틴 M. 팔린, 1993년. 정치적 회고. 뮌헨, 드뢰머 크나우르 출판사.

Falin, Valentin M. 1993. Politische Erinnerungen. München: Droemer Knaur.

베른트 파울렌바흐/마르쿠스 맥켈/헤르만 베버(발행인), 1994년. 정당의 말이 항상 옳다 -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 독재의 결과와 청산. 에센, 클라텍스트 출판사.

Faulenbach, Bernd/Meckel, Markus/Weber, Hermann (Hrsg.). 1994. Die Partei hatte immer recht - Aufarbeitung und Folgen der SED-Diktatur. Essen: Klartext.

앙겔라 피셔, 1996년. 독일 통일에 관한 결정과정,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운명의 시간 동안 콜과 겐서의 연정정부가 내린 독일 국내 정책 및 외교 정책에 있어서의 결정 과정.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랑 출판사.

Fischer, Angela. 1996. Entscheidungsprozeß zu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Der außenund deutschlandpolitische Entscheidungsprozeß der Koalitionsregierung Kohl/Genscher in den Schicksalsjahren 1989/90. Frankfurt am Main: Lang.

한스-디트리히 겐서, 1995년. 회고. 베를린, 지들러 출판사.

Genscher, Hans-Dietrich. 1995. Erinnerungen. Berlin: Siedler Verlag.

그레고르 기지, 1992년. 이의 있음! 대화, 서신 및 연설. 제 2권, 확장본. 베를린, 알렉산

더 출판사.

Gysi, Gregor. 1992. Einspruch! Gespräche, Briefe, Reden. 2., erw. Auflage. Berlin: Alexander-Verlag.

미하일 고르바초프, 1995년. 회고. 베를린, 지들러 출판사.

Gorbatschow, Michail. 1995. Erinnerungen. Berlin: Siedler.

귄터 그라스, 1990년. 동독이란 이름의 떨어상품, 종이 올리기 전 마지막 연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루흐터한트 출판사.

Grass, Günter. 1990. Ein Schnäppchen namens DDR: Letzte Reden vorm Glockengeläut. Frankfurt am Main: Luchterhand.

토마스 팔크너 및 그레고르 기지, 1990년. 큰 집으로의 돌격,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SED)의 최후. 베를린.

Falkner, Thomas/Gysi, Gregor. 1990. Sturm aufs große Haus. Das Ende der SED. Berlin.

디터 그로써, 1998년.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의 무모한 모험 - 경제적 법칙에 대한 갈등에 있어 정치적 강제.

Grosser, Dieter. 1998. Das Wagnis d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Politische Zwänge im Konflikt mit ökonomischen Regeln.

위르겐 하버마스, 1990년. 통일이 가져 온 규범적 적자. 참고: 동일 서적에 실린 미래로서의 과거. 취리히, 펜도 출판사, p. 45-73.

Habermas, Jürgen. 1990. "Die Normativen Defizite der Vereinigung." In: Ders., Vergangenheit als Zukunft. Zürich: Pendo Verlag, pp. 45-73.

위르겐 하버마스, 1991년. 보충적인 혁명.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주르캄프 출판사.

Habermas, Jürgen, 1991. Die nachholende Revolution, Frankfurt am Main: Suhrkamp.

헬무트 헤를레스 및 에발트 로제(발행인), 1990년. 협상 테이블로부터 의회에 이르기까지. 본, 부비어 출판사.

Herles, Helmut/Rose, Ewald (Hrsg.), 1990. Vom Runden Tisch zum Parlament, Bonn: Bouvier.

한스-헤르만 헤르틀레, 1997년. 장벽 붕괴의 연대기, 1989년 11월 9일에 발생한 극적인 사건. 베를린, 크리스토프링크스 출판사.

Hertle, Hans-Hermann, 1997. Chronik des Mauerfalls. Die dramatischen Ereignisse um den 9. November 1989, Berlin: Ch. Links Verlag.

한스-헤르만 헤르틀레 및 게르트-뤼디거 슈테판(발행인), 1997년.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최후 - 동독 중앙위원회의 마지막 나날들. 제4판. 베를린, 크리스토프링크스 출판사.

Hertle, Hans-Hermann/Stephan, Gerd-Rüdiger (Hrsg.), 1997. Das Ende der SED. Die letzten Tage des Zentralkomitees, 4. Aufl, Berlin: Ch. Links Verlag.

에리히 호네커, 1994년. 극적인 사건에 관하여. 함부르크,
Honecker, Erich, 1994. Zu den dramatischen Ereignissen, Hamburg.

콘라트 야라우쉬/폴커 그란소프(발행인), 1991년. 독일 통일 - 시민운동, 동서독 화해 및 연방 가입에 관한 서류 문서. 쾰른, 학술과 정치 출판사.

Jarausch, Konrad/Gransow, Volker (Hrsg.) 1991. Die deutsche Vereinigung. Dokumente zur Bürgerbewegung, Annäherung und Beitritt, Köln: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콘라트 야라우쉬, 1991년.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 예상치 못했던 통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주르캄프 출판사.

Jarausch, Konrad. 1991. Die unverhoffte Einheit 1989–1990. Frankfurt am Main: Suhrkamp.

콘라트 야라우쉬/마르틴 사브로프(발행인), 1999년. 쇠락으로의 길, 동독의 내부 붕괴. 괴팅엔, 반덴회크 운트 루프레히트 출판사.

Jarausch, Konrad/Sabrow, Martin (Hrsg.) 1999. Weg in den Untergang. Der innere Zerfall der DDR,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안토니우스 존, 1991년. 루돌프 자이티스, 관직, 인물 및 사안에 관한 열람. 본, 부비어 출판사.

John, Antonius. 1991. Rudolf Seiters: Einsichten in Amt, Person und Ereignisse. Bonn: Bouvier Verlag.

크리스티안 요프케, 1995년. 동독 반체제 인사, 및 1989년의 혁명, 레닌주의 독재정권에 서의 새로운 사회운동. 뉴욕, 맥밀런 출판사.

Joppke, Christian. 1995. East German Dissidents and the Revolution of 1989. New Social Movements in a Leninist Regime. New York: Macmillan.

헬무트 콜, 1996년. 나는 독일의 통일을 원했다. 베를린, 울슈타인 출판사.

Kohl, Helmut. 1996. Ich wollte Deutschlands Einheit. Berlin: Ullstein.

데트레프 코취, 2001년. 해체 및 재건립 기로에 놓여 있던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개별적 설명으로 살펴 본 브란덴부르크의 역사, 제 8권). 베를린, 베를린 출판사.

Kotsch, Detlef. 2001. Das Land Brandenburg zwischen Auflösung und Wiederbegründung. (Brandenburgische Geschichte in Einzeldarstellungen, Band 8). Berlin: Berlin-Verlag.

한스 미하엘 클로트, 2000년. 이미 “결정된 투표”로부터 자유 선거로의 전환,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 동안 동독의 민주화 및 “선거 문제”. 베를린, 크리스토프링크스 출판사.

Kloth, Hans Michael, 2000. Vom “Zettelfalten” zum freien Wählen. Die Demokratisierung der DDR 1989/90 und die “Wahlfrage.” Berlin: Ch. Links Verlag.

에곤 크렌츠, 1990년. 만약 장벽이 붕괴된다면 – 평화적인 혁명, 사전 경위, 과정 및 결과. 빈, 네프 출판사.

Krenz, Egon, 1990. Wenn Mauern fallen. Die friedliche Revolution. Vorgeschichte, Ablauf, Auswirkungen. Wien: Neff.

에케하르트 쿤(발행인), 1993년. 고르바초프와 독일의 통일, 러시아 및 독일 핵심 참석인사의 발언 내용. 본, 부비어 출판사.

Kuhn, Ekkehard (Hrsg.) 1993. Gorbatschow und die deutsche Einheit. Aussagen der wichtigsten russischen und deutschen Beteiligten. Bonn: Bouvier Verlag.

위의 저자와 동일, 1992년. 결정의 날, 1989년 10월 9일의 라이프치히.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울슈타인 출판사.

Ders. 1992. Der Tag der Entscheidung. Leipzig, 9. Oktober 1989. Frankfurt/Main: Ullstein.

에버하르트 쿠르트, 한스외르크 F. 북, 귄터 홀츠바이씨히(발행인), 1996년.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지배 및 붕괴, 현실적 사회주의의 종말. 오프라덴, 레스케 운트 부트리히 출판사.

Kuhrt, Eberhard/Buck, Hannsjörg F. /Holzweissig, Günter (Hrsg.). 1996. Die SED-Herrschaft und ihr Zusammenbruch. Am Ende des realen Sozialismus. Opladen: Leske + Budrich.

크리스토프 쿵프, 1995년. 붕괴의 요인, 구 동독 체제의 위기.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랑 출판사.

Kumpf, Christoph. 1995. Faktoren des Zerfalls. Die Regimekrise in der ehemaligen DDR. Frankfurt am Main: Lang.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다니엘 호프만, 1998년. 독일 정책에 관한 문서자료 - 독일 통일.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 연방 총리실 서류를 기반으로 한 특별 편집판. 뮌헨, 올덴부르크 출판사.

Küsters, Hanns Jürgen/Hofmann, Daniel. 1998.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90. München: Oldenbourg Verlag.

다니엘 퀴헨마이스터(발행인), 1993년. 호네커와 고르바초프의 개별 회담. 베를린, 디츠 출판사.

Küchenmeister, Daniel (Hrsg.). 1993. Honecker-Gorbatschow. Vieraugengespräche. Berlin: Dietz.

비르기트 라한, 1994년. 유다의 동지, 이브라힘 뵘메의 두가지 삶. 라인벡 바이 함부르크, 로볼트 출판사.

Lahahn, Birgit. 1994. Genosse Judas. Die zwei Leben des Ibrahim Böhme. Reinbek bei Hamburg: Rowohlt.

라이너 란트, 2010년. 민주주의적인 동독? - 정책 및 현대사를 기반으로. 2010년 11월, p. 13-19.

Land, Rainer. 2010. Eine demokratische DD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11/2010, S. 13-19.

가브리엘레 린트너, 1994년. 내부 파열의 특성 - 동독에서 모드로우 정권 수립 및 협상

- 테이블이 마련되기까지의 기나긴 발전 과정. 베를린, 콜로크 출판사.
- Lindner, Gabriele. 1994. Die Eigenart der Implosion, Lange Genese bis zur Modrow-Regierung und Rundem Tisch in der DDR. Berlin: Kolog-Verlag.
- 크리스타 루프트, 1991년. 전환과 종말 - 모드로우 정부 일원으로서의 인상, 경험 및 체험적 지식. 베를린, 아우프바우 타셴부흐 출판사.
- Luft, Christa. 1991. Zwischen Wende und Ende: Eindrücke, Erlebnisse und Erfahrungen eines Mitglieds der Modrow-Regierung. Berlin: Aufbau-Taschenbuch-Verlag.
- 로타 드 메지에, 2010년. 나는 내 아이들이 더 이상 거짓을 말하지 않아도 되기를 희망한다. 독일 통일에 관한 나의 이야기. 프라이부르크 임 브라이스가우, 헤르더 출판사.
- de Maizière, Lothar. 2010. Ich will, dass meine Kinder nicht mehr lügen müssen, Meine Geschichte der deutschen Einheit. Freiburg im Breisgau: Herder.
- 위의 저자와 동일, 1995년. 동독을 위한 레퀴엠. 파리, 드노엘 출판사.
- Ders. 1995. Requiem pour la R.D.A. Paris: Éditions Denoel.
- 한스 모드로우, 1998년. 나는 새로운 독일을 원했다. 베를린.
- Modrow, Hans. 1998. Ich wollte ein neues Deutschland. Berlin.
- 위의 저자와 동일, 1998년.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나의 견해. 베를린, 에디션 오스트 출판사.
- Ders. 1998. Die Perestroika, Wie ich sie sehe. Berlin: edition ost.
- 위의 저자와 동일, 1991년. 새로운 출발과 끝. 함부르크, 콘크리트 리테라투어 출판사.
- Ders. 1991. Aufbruch und Ende. Hamburg: Konkret Literatur Verlag.

잉고 폰 뮌히 및 귄터 호크(발행인), 1991년. 독일 통일에 관한 문서 자료. 슈투트가르트, 크뢰너 출판사.

Münch, Ingo von/Hoog, Günter (Hrsg.). 1991. Dokumente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Stuttgart: Kröner.

데트레프 나카트 및 게르트-뤼디거 슈테판(발행인), 1990년. 독일 통일까지의 카운트 다운 - 1987년부터 1990년까지의 동서독 관계에 관한 문서화된 역사. 베를린, 디츠 출판사. Nakath, Detlef/Stephan, Gerd-Rüdiger (Hrsg.). 1990. Countdown zur deutschen Einheit. Eine dokumentierte Geschichte der deutsch-deutschen Beziehungen 1987-1990. Berlin: Dietz.

에르하르트 노이버트, 1997년. 1949년부터 1989년까지 동독에서 야당의 역사, 동독 사회에 관한 연구. 베를린, 크리스토프 링크스 출판사.

Neubert, Ehrhart. 1997. Geschichte der Opposition in der DDR 1949-1989. Forschungen zur DDR-Gesellschaft. Berlin: Ch, Links Verlag.

칼-디터 오프, 1991년. 1989년의 동독, 갑작스러웠던 혁명의 원인에 관하여. 사회학 및 사회심리학에 관한 켈른 잡지. 43/2호, p. 302-321.

Opp, Karl-Dieter. 1991. DDR'89. Zu den Ursachen einer spontanen Revolution.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43/2, S. 302-321.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 및 민주 사회주의당(PDS) 정당대회 자료집, 1990년. SED 및 PDS 특별 정당대회 자료집, 8./9. 및 16./17. 1989년 12월. 베를린.

Parteitagmaterialien SED - PDS. 1990. Materialien des außerordentlichen Parteitages der SED - PDS, 8./9. Und 16./17. Dezember 1989. Berlin.

울리케 포페, 라이너 에커트 및 일코-자샤 코발크추크(발행인), 1995년. 자기 주장 및 조울의 중간에서 - 동독에서의 야당 및 저항의 형태. 베를린.

Poppe, Ulrike/Eckert, Rainer/Kowalczyk, Ilko-Sascha (Hrsg.). 1995. Zwischen Selbstbehauptung und Anpassung. Formen des Widerstands und der Opposition in der DDR. Berlin.

한스 라이헬트, 1997년. 농민의 피리가락인가? 독일 민주주의 농민당(DBD)의 역사, 1948년부터 1990년까지. 베를린.

Reichelt, Hans. 1997. Blockflöten – oder was? Zur Geschichte der Demokratischen Bauernpartei Deutschlands (DBD) 1948–1990. Berlin.

미하엘 리히터, 2010년. 독일 통일과 이중적 민주화. 참고: 정책 및 현대사를 기반으로. 2010년 11월, p.20–26.

Richter, Michael. 2010. Doppelte Demokratisierung und deutsche Einheit.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11/2010, S. 20–26.

클라우스 미하엘 로크너, 1993년. 동독 중앙 협상회의의 헌법초안. 베를린, 둔커 운트 훔볼트 출판사.

Rogner, Klaus Michael. 1993. Der Verfassungsentwurf des Zentralen Runden Tisches der DDR. Berlin: Duncker & Humblot.

마르틴 자프로프, 2010년. 잊혀진 “제 3의 길”. 참고: 정책 및 현대사를 기반으로. 2010년 11월, p.6–13.

Sabrow, Martin. 2010. Der vergessene “dritte Weg.”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11/2010, S. 6–13.

야누스즈 자프크추크, 2010년. 동독 내에서의 위기 심화 및 서독 정부에 의한 이주자 문제 현안의 도구화 과정 - ‘독일 문제’에 관한 미국과 소련의 반응을 고려한 관점에서 (1989년 여름/가을). 참고: 마르틴 지크/하이너 팀머만(발행인), 2010년. 국제적 딜레마와 유럽의 비전, 헬무트 바그너의 80회 생일 기념 간행물 참고. 베를린, 리트 출판사,

p.179–200.

Sawczuk, Janusz. 2010. ‘Die Verschärfung der Krise in der DDR und die Instrumentalisierung der Flüchtlingsproblematik durch Bonn mit Blick auf die “Deutsche Frage.” Reaktionen der Sowjetunion und der USA. (Sommer/Herbst 1989) In Sieg, Martin/Timmermann, Heiner (Hrsg.). 2010. Internationale Dilemmata und europäische Visionen, Festschrift zum 80. Geburtstag von Helmut Wagner. Berlin: Lit Verlag, S. 179–200.

귄터 샤보프스키, 2001년.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정치국 - 과정.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Schabowski, Günther. 2001. Der Politbüro-Prozeß. Baden-Baden: Nomos.

위의 저자와 동일, 1991년. 몰락. 베를린, 로볼트 출판사.

Ders. 1991. Der Absturz. Berlin: Rowohlt.

볼프강 쇼이블레, 1993년. 통일조약 - 독일 통일을 협상했던 나의 방식. 뮌헨, 크나우르 출판사.

Schäuble, Wolfgang. 1993. Der Vertrag. Wie ich über die deutsche Einheit verhandelte. München: Knaur.

한스-디터 쉬트, 2009년. 다행스러운 붕괴, 동독 종말에 따른 공화국 도피. 베를린, wjs 출판사.

Schütt, Hans-Dieter. 2009. Glücklich beschädigt. Republikflucht nach dem Ende der DDR. Berlin: Verlag wjs.

볼프강 자이벨, 2010년. 1989년 - 1990년 동독의 좌초된 경제개혁. 정책 및 현대사를 기반으로, 2010년 11월, p. 34-40.

Seibel, Wolfgang. 2010. Die gescheiterte Wirtschaftsreform in der DDR 1989/1990.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11/2010, S. 34-40.

일제 슈피트만(발행인), 1990년. 독일 통일로 향한 길에서의 동독. 쾰른, 노트벡 학술과 정치 출판사.

Spittmann, Ilse (Hrsg.). 1990. Die DDR auf dem Weg zur deutschen Einheit. Köln: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von Nottbeck

게르트-뤼디거 슈테판(발행인), 1994년. “항상 전진만을, 후퇴는 불가!” - 1988년부터 1989년 사이 동독 및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몰락에 관한 내부 문서 자료. 베를린, 디츠 출판사.

Stephan, Gerd-Rüdiger (Hrsg.). 1994. “Vorwärts immer, rückwärts nimmer!” Interne Dokumente zum Zerfall von SED und DDR 1988/89. Berlin: Dietz.

게르트-뤼디거 슈테판/한스-헤르만 헤르틀레(발행인), 1997년.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최후, 동독 중앙위원회의 마지막 나날들. 베를린, 크리스토프 링크스 출판사.

Stephan, Gerd-Rüdiger/Hertle, Hans-Hermann (Hrsg.). 1997. Das Ende der SED. Die letzten Tages des Zentralkomitees. Berlin: Ch, Links Verlag.

만프레트 슈톨페, 1992년. 어려웠던 시작. 베를린, 지들러 출판사.

Stolpe, Manfred. 1992. Schwieriger Aufbruch, Berlin: Siedler.

에드 쉬틀러, 2010년. 동독의 마지막 몇 개월. 베를린, 크리스토프 링크스 출판사.

Stuhler, Ed. 2010. Die letzten Monate der DDR. Berlin: Ch, Links Verlag.

발터 쥐쓰, 1999년. 슈타시의 최후, 권력자들은 왜 1989년 혁명을 막아낼 수 없었는가. 제 2판. 베를린, 크리스토프 링크스 출판사.

Süß, Walter. 1999. Staatssicherheit am Ende. Warum es den Mächtigen nicht gelang, 1989 eine Revolution zu verhindern. 2. Aufl. Berlin: Ch, Links Verlag.

베르너 쥐쓰(발행인), 1994년. 수도 베를린. 총 3권. 베를린, 베를린 출판사.
Süss, Werner, Hrsg. 1994ff. Hauptstadt Berlin. 3 Bände. Berlin: Berlin Verlag.

우베 타이젠, 1990년. 원탁회의 - 또는 국민은 어디 있는가? 오프라덴, 서독 출판사.
Thaysen, Uwe. 1990. Der Runde Tisch. Oder: Wo bleibt das Volk?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우베 타이젠(발행인), 2000년. 동독의 원탁회의 - 회의록 및 문서, 제 V권. 문서자료. 비
스바덴, 서독 출판사.
Thaysen, Uwe (Hrsg.). 2000. Der Zentrale Runde Tisch der DDR. Wortprotokoll und
Dokumente, Band V: Dokumente. Wiesbaden: Westdeutscher Verlag.

호르스트 텔취크, 1991년. 329일 - 통일에 관한 내부 견해. 베를린, 지들러 출판사.
Teltschik, Horst. 1991. 329 Tage. Innenansichten der Einigung. Berlin: Siedler.

1989년 10월 7일과 8일 양일 간의 사건에 관한 조사위원회. “...그리고 이 끔찍한 무기력
에 대하여”. 베를린.
Untersuchungskommission zu den Ereignissen vom 7. und 8. Oktober 1989. 1991.
“.....und diese verdammte Ohnmacht.” Berlin.

독일 하원 행정부서, 학술 서비스/의회 역사 관련 문서화 담당 부서(발행인), 1994년.
1983년부터 1991년까지의 독일 하원 역사에 관한 자료 설명집.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
사.
Verwalt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Abteilung Wissenschaftliche Dienste / Referat
Parlamentsgeschichtliche Dokumentation (Hrsg.). 1994. Datenhandbuch zur Geschichte
des deutschen Bundestages 1983 bis 1991.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베르너 바이텐펠트 및 칼-루돌프 코르테(발행인), 1996년. 독일 통일에 관한 설명집.

본, 연방정치교육센터.

Weidenfeld, Werner/Korte, Karl-Rudolf (Hrsg.). 1996.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크리스티안 벨첼, 1992년.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으로부터 민주 사회주의당(PDS)으로 - 독트린에 기반한 국가 정당이 경쟁 체제 하의 정치 정당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가? (1989년 5월부터 1990년 4월까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랑 출판사.

Welzel, Christian, 1992. Von der SED zur PDS. Eine doktrinegebundene Staatspartei auf dem Wege zu einer politischen Partei im Konkurrenzsystem? (Mai 1989 bis April 1990). Frankfurt am Main: Lang.

만프레트 빌케 및 클라우스 슈뢰더(발행인), 1994년.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이 지배했던 국가의 역사와 변모. 베를린, 베를린 자유대학의 SED 국가에 관한 연구협회 학술 보고서.

Wilke, Manfred/Schröder, Klaus (Hrsg.). 1994. Geschichte und Transformation des SEDStaates. Berlin: Studien des Forschungsverbundes SED-Staat an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프리트리히 빈터(발행인), 1999년. 원탁회의의 주재자 - 1989년부터 1990년까지 기독교회와 정치. 라이프치히, 기독교 출판사.

Winter, Friedrich (Hrsg.). 1999. Die Moderatoren der Runden Tische. Evangelische Kirche und Politik 1989-90.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자비네 침머링 및 제노 침머링(발행인), 1991년. 동독의 새로운 연대기, 7./8. 시리즈물. 베를린, 트랩타워 출판사.

Zimmerling, Sabine/Zimmerling, Zeno (Hrsg.). 1991. Neue Chronik DDR, 7./8. Folge. Berlin: Treptower Verlagshaus.

위의 저자와 동일(발행인), 1990년. 동독의 새로운 연대기, 1. 시리즈물. 베를린, 베를린 트리뷴 출판사.

Dies. (Hrsg.). 1990. Neue Chronik DDR, 1. Folge. Berlin: Verlag Tribüne Berlin.

위의 저자와 동일(발행인), 1990. 동독의 새로운 연대기, 3. 시리즈물. 베를린, 베를린 트리뷴 출판사.

Dies. (Hrsg.). 1990. Neue Chronik DDR, 3. Folge. Berlin: Verlag Tribüne Berlin.

위의 저자와 동일(발행인), 1990. 동독의 새로운 연대기, 4./5. 시리즈물. 베를린, 베를린 트리뷴 출판사.

Dies. (Hrsg.). 1990. Neue Chronik DDR, 4./5. Folge. Berlin: Verlag Tribüne Berlin.

위의 저자와 동일(발행인), 1990. 동독의 새로운 연대기, 6. 시리즈물. 베를린, 베를린 트리뷴 출판사.

Dies. (Hrsg.). 1990. Neue Chronik DDR, 6. Folge. Berlin: Verlag Tribüne Berlin.

2. 과거 청산

로버트 알렉시, 1993년. 장벽수비대 - 법률, 도덕 및 법적 처벌성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함부르크, 반덴회크 운트 루프레히트 출판사.

Alexy, Robert. 1993. Mauerschützen. Zum Verhältnis von Recht, Moral und Strafbarkeit. Hamburg: Vandenhoeck & Ruprecht.

크누트 아멜룽, 1996년. 독일 사법을 통한 동독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법상의 청산 조치 - 중간 보고서. 드레스덴, 대학언론사.

Amelung, Knut. 1996. Die strafrechtliche Bewältigung des DDR-Unrechts durch die deutsche Justiz. Ein Zwischenbericht. Dresden: Universitätspresse.

마르크 아렌회벨, 2000년. 민주주의와 회고 - 독재 및 인권 범죄에 관한 고찰.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캠퍼스 출판사.

Arenhövel, Mark. 2000. Demokratie und Erinnerungen, Der Blick zurück auf Diktatur und Menschenrechtsverbrechen. Frankfurt am Main: Campus Verlag.

안니 벨리스/위르겐 벨리스, 2000년. 동독의 혼란은 계속 된다 - 동독 주민들의 사고방식. 뮌스터, LIT 출판사.

Bellers, Anni/Bellers, Jürgen. 2000. Die DDR tickt weiter. Wie die Ostdeutschen denken. Münster: LIT.

아르투어 벤츠/하인리히 매딩/볼프강 자이벨, 1993년. 독일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의 행정 개혁과 행정 정책.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Benz, Arthur/Mäding, Heinrich/Seibel, Wolfgang. 1993. Verwaltungsreform und Verwaltungspolitik im Prozess der deutschen Einigung. Baden-Baden: Nomos Verlag.

프랑크 비어만, 2000년. 동독에서의 법적 불법행위 및 소급금지 조치 - 동독 국경법 제 27조의 사례를 들어. 괴팅엔, 쿠빌리어 출판사.

Biermann, Frank. 2000. Gesetzliches Unrecht in der DDR und Rückwirkungsverbot ? am Beispiel von §27 des DDR-Grenzgesetzes. Göttingen: Cuvillier Verlag.

루돌프 빌러벡, 1998년. 정의에 대한 요구 - 1990년부터 1994년 사이의 동독 의회에서의 논의. 베를린, 베를린 출판사

Billerbeck, Rudolf. 1998. Gerechtigkeitsverlangen. Ostdeutsche Landtagsdebatten 1990-1994. Berlin: Berlin Verlag.

로타 비스키/우베-장 호이어/미하엘 슈만(발행인), 1993년. 고찰 - 동독 역사에 관한 정치적, 법학적 관점. 클롭펜부르크, VSA 출판사.

Bisky, Lothar/Heuer, Uwe-Jens/Schumann, Michael (Hrsg.). 1993. Rücksichten.

Politische und juristische Aspekte der DDR-Geschichte. Cloppenburg: VSA-Verlag.

페트라 북, 2000년. 체제 전환에 있어서의 과거 정책 - 동독의 마지막 해에 있었던 진상 규명, 형사소추, 자격박탈 및 보상에 관한 정책. 베를린, 로고스 출판사.

Bock, Petra, 2000. Vergangenheitspolitik im Systemwechsel. Die Politik der Aufklärung, Strafverfolgung, Disqualifizierung und Wiedergutmachung im letzten Jahr der DDR. Berlin: Logos Verlag.

빌프리트 보트케, 1993년. 신연방주 편입 이후 동독 정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추적. 참고: 에른스트-요아힘 람페(발행인), 독일 통일, 제 II권: 통일 이후 동독 정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추적. 쾰른, p. 203 이하.

Bottke, Wilfried, 1993. Die Verfolgung von Regierungskriminalität der DDR nach dem Beitritt der neuen Länder. In: Lampe, Ernst-Joachim (Hrsg.), Deutsche Wiedervereinigung, Band II: Die Verfolgung von Regierungskriminalität der DDR nach der Wiedervereinigung. Köln u.a., S. 203ff.

크리스티안 블랑거(발행인), 2002년. 전환기에 있어서의 법률. 베를린, 베를리너 데바테 출판사.

Boulanger, Christian (Hrsg.), 2002. Recht in der Transformation. Berlin: Berliner Debatte.

질케 부흐너, 1996년. “장벽수비대” 행위의 위법성 - 특히 국제법의 관점을 고려하여 기본법 제103 II조를 조망.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Buchner, Silke, 1996. Die Rechtswidrigkeit der Taten von “Mauerschützen” im Lichte von Art. 103 II G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Völkerrechts. Frankfurt am Main.

연방 법무부(발행인), 1994년. 인민의 이름으로?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 지배 하의

사법제도에 관하여. 독일 연방 법무부 전시회 카달로그, 총3권.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Hrsg.) 1994. Im Namen des Volkes? Über die Justiz im Staat der SED. Katalog zur Ausstellung des BMJ, 3. Bände

독일 연방 구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독재청산재단(발행인), 2007년. 2003년부터 2006년 까지 개최된 플래카드 공모전의 플래카드 - 역사적 코드. 베를린, 독일 연방 구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독재청산 재단.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Hrsg.). 2007. Plakat 2003-2006 des offenen Plakat-Wettbewerbs. Geschichts-codes. Berlin: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독일 연방 구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독재청산재단(발행인), 2009년 교육 카달로그 - 사회주의 통일당(SED) 독재 및 독일의 분단. 교내외 교육 작업을 위한 교과 자료. 슈발바흐, 보헨사우 출판사.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Hrsg.). 2009 Bildungskatalog. SED-Diktatur und deutsche Teilung. Materialien für die schulische und außerschulische Bildungsarbeit. Schwalbach: Wochenschau Verlag.

시민위원회(발행인), 1992년. 슈타지 내부분건 - 슈타지 내부 권력과 진부성. 라이프치히, Bürgerkomitee (Hrsg.). 1992. Stasi Intern - Stasi Intern. Macht und Banalität. Leipzig.

독일 연방의회: 홍보과(발행인), 1998년. 전문 연구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 “독일 통일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 독재 결과의 극복”.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주르캄프 출판사.

Deutscher Bundestag.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 (Hrsg.). 1998. Schlussbericht der Enquête-Kommission “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ss der deutschen Einheit”.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랄프 드라이어, 1995년. 법적인 과거 극복.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Dreier, Ralf. 1995. Juristische Vergangenheitsbewältigung. Baden-Baden: Nomos.

드레스덴 법과대학(발행인), 1996년. 중간보고서 - 1996년 5월의 상황. 드레스덴 법학
기고문 제19편. 드레스덴.

Dresdener Juristische Fakultät (Hrsg.). 1996. Ein Zwischenbericht - Stand Mai 1996.

Dresdener juristische Beiträge 19. Dresden.

페터 아이젠만(발행인), 1993년. 독일의 두 번째 독재에 대한 결산. 뮌헨, 하제 & 쾰러 출
판사.

Eisenmann, Peter (Hrsg.). 1993. Bilanz der zweiten deutschen Diktatur. München:

Hase & Koehler Verlag.

유타 엥버스, 2001년. 배척 또는 통합 - 구 동독으로부터 인계된 선천적 결함으로 인해
공공분야에서의 공공관계 종결. 베를린, 베를린출판사.

Engbers, Jutta. 2001. Ausgrenzung oder Integration, Die Beendigung der

Dienstverhältnisse im öffentlichen Dienst aufgrund von Vorbelastung aus der

ehemaligen DDR. Berlin: Berlin Verlag.

빌리 파넨슈미트, 1999년. 동독에서의 관직 남용 및 부정부패. 베를린, 베를린 훔볼트 대
학교 박사학위 논문.

Fahnenschmidt, Willi. 1999. Amtsmißbrauch und Korruption in der DDR. Berlin:

Dissertation an der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베른트 파울렌바흐(발행인), 1994년. 정당의 의견이 항상 옳았다 - 독일 사회주의 통일
당(SED) 독재의 역사 및 결과 청산. 에센, 클라텍스트 출판사.

Faulenbach, Bernd (Hrsg.). 1994. Die Partei hatte immer recht.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Essen: Klartext Verlag.

카를-빌헬름 프리кке, 1991년. 동독 슈타지 내부분건 - 권력 구조, 동독 슈타지의 해체. 쾰른, 학술과 정치 출판사.

Fricke, Karl-Wilhelm. 1991. MfS intern - Macht Strukturen, Auflösung der DDRStaatssicherheit. Köln: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위의 저자와 동일, 1990년. 동독에서의 정치와 사법. 제2판. 쾰른, 학술과 정치 출판사.
Ders. 1990. Politik und Justiz in der DDR. 2. Auflage. Köln: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모니카 프롬멜, 1993년. 장벽수비대에 대한 공판 - 라트부르흐 교수의 형식 이론이 가진 예기치 못한 현재성. 참고: 프리트요프 하프트(발행인), 형사법적 정의 - 아르투르 카우프만의 70회 생일 기념 간행물. p. 81 이하. 하이델베르크, 뮐러 사법 출판사.

Frommel, Monika. 1993. Die Mauerschützenprozesse - eine unerwartete Aktualität der Radbruch'schen Formel. In: Haft, Fritjof (Hrsg.). Strafgerechtigkeit: Festschrift für Arthur Kaufmann zum 70. Geburtstag. S. 81 ff. Heidelberg: Müller Juristischer Verlag.

마르쿠스 게를라인, 1996년. 국제법 및 헌법 상의 판단 기준에서 본 동독 간첩활동의 처벌 가능성. 쾰른, 하이만스 출판사.

Gehrlein, Markus. 1996. Die Strafbarkeit der Ost-Spione auf dem Prüfstand des VerfassungsundVolkerrechts. Köln: Heymanns.

다비드 길 및 울리히 슈뢰터, 1993년. 슈타시 - 에리히 밀케가 세운 제국에 대한 해부. 라인벡 바이 함부르크, 로볼트 출판사.

Gill, David/Schroter, Ulrich. 1993. Das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 Anatomie des Mielke Imperiums. Reinbek bei Hamburg: Rowohlt.

자비네 그리스 및 디터 보이코트, 1993년. 만프레트 슈톨페의 자기 증언 기록 - 1972년부터 1990년도까지를 중심으로 한 연설, 문서 및 간행물에 대한 비판적 조사 연구. 베를

린, 올슈타인 출판사.

Gries, Sabine/Voigt, Dieter. 1993. Manfred Stolpe in Selbstzeugnissen. Eine kritische Untersuchung von Veröffentlichungen, Schriften und Reden aus den Jahren 1972 bis 1990. Berlin: Ullstein Verlag.

볼프강 그리베(발행인), 1996년.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 독재 하의 범법행위에 대한 사면? 레부르크- 로쿰: 로쿰 기독교 아카데미.

Grieve, Wolfgang (Hrsg.). 1996. Amnestie für Straftaten unter der SED-Diktatur? Rehbürg-Loccum: Evangelische Akademie Loccum.

올라프 그뤼러 및 마리오 케슬러, 1995년.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정책, 반파시즘 주의 및 소련군 점령지역과 구동독에서의 청소년. 베를린, 사회학 포럼.

Groehler, Olaf/Keßler, Mario. 1995. Die SED-Politik, der Antifaschismus und die Juden in der SBZ und der frühen DDR. Berlin: Gesellschaftswissenschaftliches Forum.

울리케 구케스, 2008년. 두 가지 기준에 따른 피해자 보상? 나치 독재와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 독재의 범법행위에 대한 보상문제에 있어 법적 기본토대에 관한 비교 조사 연구. 베를린, 베를린 학술 출판사.

Guckes, Ulrike. 2008. Opferentschädigung nach zweierlei Maß? Eine vergleichende Untersuchung der gesetzlichen Grundlagen der Entschädigung für das Unrecht der NSDiktatur und der SED-Diktatur. Berlin: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클라우스-디트마 헨케 및 로저 엔겔만(발행인), 1995년. 서류 문서 - 동시대 역사 연구에 있어서 슈타시 서류 문서가 갖는 의미. 베를린, 크리스토프 링크스 출판사.

Henke, Klaus-Dietmar/Engelman, Roger (Hrsg.). 1995. Aktenlage. Die Bedeutung der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für die Zeitgeschichtsforschung. Berlin: Ch. Links Verlag.

펠릭스 헤르초크, 1993년. 동서독 국경 지역에서의 발포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책임. 하이델베르크, C.F. 뮐러 출판사.

Herzog, Felix, 1993.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von Todesschützen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Heidelberg: C.F. Müller Verlag.

외르크 힐트바인, 디르크 올디그스 및 마티아스 샤휌, 1993년. 동서독 국경 지역에서의 발포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하이델베르크, 뮐러 출판사.

Hiltwein, Jörg/Oldigs, Dirk/Schey, Matthias, 1993.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von Todesschützen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Heidelberg: Müller.

한스 요아힘 히르쉬, 1996년. 법치국가의 형법 및 국가가 주도한 부정행위. 오프라텐, 서독 출판사.

Hirsch, Hans Joachim, 1996. Rechtsstaatliches Strafrecht und staatlich gesteuertes Unrecht.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2006년. 동독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절차 진행에 관한 공개 토론 - 1990년대 독일 연방 전역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의 과거 청산에 관한 견해. 베를린, 베를린 학술 출판사.

Humboldt Universität zu Berlin, 2006. Die öffentliche Debatte über die Strafverfahren wegen DDR-Unrechts. Vergangenheitsaufarbeitung in der bundesdeutschen Öffentlichkeit der 90er Jahre. Berlin: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얀-크리스토프 뢰프너, 1997년. 통일 이후 동독 선거조작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 레겐스부르크,

Hübner, Jan-Kristof, 1997. Die strafrechtliche Beurteilung von DDR-Wahlfälschungen nach der Wiedervereinigung. Regensburg.

요제프 이젠제(발행인), 1992년. 법을 통한 과거의 극복 - 독일 문제에 관한 세 편의 논문. 베를린, 둔커 운트 훔볼트 출판사.

Isensee, Josef (Hrsg.). 1992. Vergangenheitsbewältigung durch Recht. Drei Abhandlungen zu einem deutschen Problem. Berlin: Duncker & Humblot.

데트레프 요제프, 1997년. 법치국가, 그리고 동독에 대한 비호감. 쾰른, GNN 출판사.

Joseph, Detlef. 1997. Der Rechtsstaat und die ungeliebte DDR. Köln: GNN Verlag.

안네 카민스키(발행인), 2007년. 회고의 장소 - 구 소련군 점령지역 및 구동독 지역에서의 독재를 상기시키는 기념표식, 기념장소 및 박물관. 베를린, 포럼 출판사.

Kaminsky, Anne (Hrsg.). 2007. Orte des Erinnerns. Gedenkzeichen, Gedenkstätten und Museen zur Diktatur in SBZ und DDR. Berlin: Forum Verlag.

즈벤 펠릭스 켈러호프, 2010년 슈타지와 서방 세계 - 비밀경찰 콤플렉스. 함부르크, 호프만 운트 캠페 출판사.

Kellerhoff, Sven Felix. 2010: Die Stasi und der Westen. Der Kurras-Komplex. Hamburg: Hoffmann und Campe.

마리오 케슬러, 1995년.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과 유대인, 억압과 관용 사이에서. 베를린, 아카데미 출판사.

Keßler, Mario. 1995. Die SED und die Juden. Zwischen Repression und Toleranz. Berlin: Akademie Verlag.

하이너 코이프 및 한스-위르겐 비르트(발행인), 1991년. 사회심리 제45권, 동독으로부터의 작별. 바인하임, 심리학 출판 연합.

Keupp, Heiner/Wirth, Hans-Jürgen (Hrsg.). 1991. Psychosozial 45. Abschied von der DDR. Weinheim: Psychologie Verlags Union.

- 폴커 클렘, 1991년. 동독에서의 권력 남용 및 부정부패. 슈투트가르트, 독일 출판사.
Klemm, Volker. 1991. *Korruption und Amtsmissbrauch in der DDR*. Stuttgart: Deutsche Verlags-Anstalt.
- 크리스토프 클레쓰만, 한스 미셀비츠 및 귄터 비허트(발행인), 1999년. 독일의 과거 - 공동의 도전과제, 두 번이나 세계대전을 치렀던 역사의 힘든 극복 과정. 베를린, 크리스토프 링크스 출판사.
Kleßmann, Christoph/Misselwitz, Hans/Wichert, Günter (Hrsg.). 1999. *Deutsche Vergangenheiten - eine gemeinsame Herausforderung. Der schwierige Umgang mit der doppelten Nachkriegsgeschichte*. Berlin: Christoph Links Verlag.
- 클라우스 쾨니히 및 폴커 메스만, 1995년. 독일의 행정체제 전환에 있어 조직 및 인사상의 문제.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König, Klaus/Messmann, Volker. 1995. *Organisations- und Personalprobleme der Verwaltungstransformation in Deutschland*. Baden-Baden: Nomos Verlag.
- 게랄트 미하엘 크라우트, 1997년. 법률 왜곡? 법치국가의 시험대 위에 선 동독의 사법제도. 뮌헨, 벡 출판사.
Kraut, Gerald Michael. 1997. *Rechtsbeugung? Die Justiz der DDR auf dem Prüfstand des Rechtsstaates*. München: Beck.
- 파이벨 쿠퍼스베르크, 2002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등장과 쇠락. 뉴저지, 트랜잭션 출판사.
Kupferberg, Feiwel. 2002. *The Rise and Fall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 아돌프 라우프스, 1998년. 동독의 합법과 불법, 결산 연구. 하이델베르크, C. 빈터 대학 출판사.

Laufs, Adolf. 1998. Recht und Unrecht der DDR, Versuch einer Bilanz. Heidelberg: Universitätsverlag C. Winter.

크리스토프 링크스 및 한네스 바르만, 1990년. 우리는 민족이다 - 새로운 시작을 맞은 동독. 베를린.

Links, Christoph/Bahrman, Hannes. 1990. Wir sind das Volk, Die DDR im Aufbruch, Berlin.

클라우스 뢰더쎄, 1992년. 국가의 몰락 - 불법은 남는가? 구 동독 정부의 범죄행위.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주르캄프 출판사.

Lüderssen, Klaus. 1992. Der Staat geht unter - das Unrecht bleibt? Regierungskriminalität in der ehemaligen DDR, Frankfurt am Main: Suhrkamp.

잉가 마르코비츠, 1993년. 전개과정 - 동독 사법부의 붕괴에 관한 기록 일지. 뮌헨, 벡스 출판서적.

Markovits, Inga. 1993. Die Abwicklung. Ein Tagebuch zum Untergang der DDR-Justiz. München: Beck sche Verlagsbuchhandlung.

클라우스 마르크센(발행인), 2000년 - 2009년. 형사 사법과 동독의 불법행위. 베를린, 드 그뤼터 출판사.

Marxen, Klaus (Hrsg.). 2000-2009. Strafjustiz und DDR- Unrecht, Berlin: de Gruyter.

클라우스 마르크센 및 게르하르트 베를레, 1999년. 동독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청산 - 최종 결과. 베를린, 드 그뤼터 출판사.

Marxen, Klaus/Gerhard Werle. 1999. Die strafrechtliche Aufarbeitung von DDR-Unrecht. Eine Bilanz. Berlin: De Gruyter.

아루투르 제임스 맥아담스, 2001년. 통일 독일에서의 과거에 대한 평가. 캠브리지, 캠브

리지 대학 출판사.

McAdams, Arthur James. 2001. *Judging the Past in Unified German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로타 메르텐스 및 디터 보이크트(발행인), 1998년.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 국가의 희생자와 가해자. 베를린, 둔커 운트 훔블트 출판사.

Mertens, Lothar/Voigt, Dieter (Hrsg.). 1998. *Opfer und Täter im SED-Staat*. Berlin: Duncker & Humblot.

칼 미하엘리스 및 한스-마르틴 파브로프스키(발행인), 1992년. 현실적 사회주의 과거에 관한 논의 연구.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Michaelis, Karl/Pawlowski, Hans-Martin (Hrsg.). 1992. *Auseinandersetzung mit der realsozialistischen Vergangenheit*.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올라프 미에, 1995년. 정당성 및 금지착오 - 동서독 국경지역 및 베를린 장벽에서의 발포행위에 관한 토론 현황. 참고: 마인하르트 하인체 및 요헨 슈미트(발행인), 1995년 5월 30일 볼프강 기터의 65회 생일 기념 간행물. 비스바덴, p.647 이하.

Miehe, Olaf. 1995. *Rechtfertigung und Verbotsirrtum. Zum Stand der Diskussion über die Strafbarkeit der Todesschützen an Berliner Mauer und innerdeutscher Grenze*. In Heinze, Meinhard/Schmitt, Jochen (Hrsg.). *Festschrift für Wolfgang Gitter zum 65. Geburtstag am 30. Mai 1995*. Wiesbaden, S. 647ff.

얀 뮐러, 1999년. 1989년의 상징 - 동독의 선거조작 및 그 형사법적 청산. 베를린, 베를린 훔블트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Müller, Jan. 1999. *Symbol 89. Die DDR-Wahlfälschungen und ihre strafrechtliche Aufarbeitung*. Berlin: Dissertation an der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클라우스 뮐러, 1995년. 로제 조치(Aktion Rose)의 예를 통해 살펴 본 동독 사회주의 통

일당(SED) 국가 및 정당 지도부에 의한 형사 행정의 운용.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랑 출판사.

Müller, Klaus. 1995. Die Lenkung der Strafjustiz durch die SED-Staats- und Parteiführung der DDR am Beispiel der Aktion Rose. Frankfurt am Main: Lang.

볼프강 나우케, 1996년. 국가를 위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 행정 상의 특권 부여.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클로스터만 출판사.

Naucke, Wolfgang. 1996. Die strafjuristische Privilegierung staatsverstärkter Kriminalität. Frankfurt am Main: Klostermann.

울리히 노이만, 2000년. 법률 남용 사례에서 살펴본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차원에서의 과거 근절. 박사학위 논문. 쾰른 대학교.

Neumann, Ulrich, 2000. Die strafrechtliche Vergangenheitsbewältigung von SED-Unrecht am Beispiel der Rechtsbeugung. Dissertation: Universität zu Köln.

하로 오토, 1994년. 구 동독 지역에서 발생한 사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추 시효에 관한 원칙. 참고: 법학.

Otto, Harro. 1994. Grundsätze der Strafverfolgungsverjährung von Straftaten auf dem Gebiet der ehemaligen DDR. In: Jura.

에른스트-울리히 핑커트(발행인), 1998년. 독일의 내적 통일 - 꿈인가 악몽인가? 목표인가 강박관념인가? 뮌헨, 빌헬름 핑크 출판사.

Pinkert, Ernst-Ullrich (Hrsg.). 1998. Deutschlands "innere Einheit". Traum oder Alptraum, Ziel oder Zwangsvorstellung?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페터 프르츠빌스키, 1992년. 정치 사무소의 현장 - 호네커 문서. 라인벡 바이 함부르크, 로볼트 출판사.

Przbylski, Peter. 1992. Tatort Politbüro. Die Akte Honecker. Reinbek bei Hamburg:

Rowohlt.

랄프 게오르크 로이트, 1992년. “슈타지 비공식 요원” - “가옥 관청의 조사” 및 “슈톨페 사건”에 관한 문서 자료.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울슈타인 출판사.

Reuth, Ralf Georg. 1992. “IM Sekretär”. Die “Gauck-Recherche” und die Dokumente zum “Fall Stolpe.” Frankfurt am Main: Ullstein.

요아힘 리델, 1998년. 동서독 국경지역에서의 사살행위를 특별히 고려한 동독 과거의 형사법적 청산. 푸르스텐펠트브룩, 케스터-호이스러-재단.

Riedel, Joachim. 1998. Die strafrechtliche Aufarbeitung der DDR-Vergangenhei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Todesschüsse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Fürstenfeldbruck: Kester-Haeusler-Stiftung.

헨닝 로제나우, 1996년. 국가 위임에서의 사살 행위 - 동서독 국경지역에서 총기를 사용한 국경수비대의 형사법적 책임.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Rosenau, Henning. 1996. Tödliche Schüsse im staatlichen Auftrag.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ung von Grenzsoldaten für den Schusswaffengebrauch an der deutschdeutschen Grenze. Baden-Baden: Nomos.

토랄프 뚰믈러, 2000년. 법정에 선 동서독 국경지역에서의 폭력사건. 베를린, 슈피츠 베를린 출판사.

Rummler, Toralf. 2000. Die Gewalttaten an der deutsch-deutschen Grenze vor Gericht. Berlin: Berlin-Verlag Spitz

토랄프 뚰믈러, 1999년. 법정에 선 동서독 국경지역에서의 폭력사건. 베를린,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Rummler, Toralf. 1999. Die Gewalttaten an der deutsch-deutschen Grenze vor Gericht. Berlin: Dissertation an der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마르틴 사브로프 외(외) - 발행인, 2007년. 동독에 대한 회고는 어디를 향하는가? - 논의에 관한 기록. 괴팅엔, 반덴회크 운트 루프레히트 출판사.

Sabrow, Martin und andere (Hrsg.). 2007. Wohin treibt die DDR-Erinnerung? Dokumentation einer Debatte.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게오르그-지크프리트 슈무트츨러, 1992년. 흐름에 역행하여 - 슈타지 하에서의 라이프치히 경험. 괴팅엔, 반덴회크 운트 루프레히트 출판사.

Schmutzler, Georg-Siegfried. 1992. Gegen den Strom, Erlebnis aus Leipzig unter der Stas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롤프 슈나이더, 1992년. 슬픔이 없는 국민 - 동독의 몰락 이후의 기록. 괴팅엔, 슈타이들 출판사.

Schneider, Rolf. 1992. Volk ohne Trauer. Notizen nach dem Untergang der DDR. Göttingen: Steidl Verlag.

질케 슈만, 1997년. 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산하 슈타지 비밀서류를 담당하게 될 연방의원(발행인) - 문서자료. 폐기 처리 또는 공개? 슈타지 비밀문서 관리법의 입법에 관하여. 베를린.

Schumann, Silke. 1997. Der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rsg.). Dokumente. Vernichten oder Offenlegen? Zur Entstehung des Stasi-Unterlagen-Gesetzes. Berlin.

볼프강 자이벨, 1996년. 신연방주에서의 행정체제 건립 - 국가 기관 설립에 관한 상호 의사소통의 논리, 공공분야의 현대화. 특별호 제 5권, 베를린, 에드 지그마 출판사.

Seibel, Wolfgang. 1996. Verwaltungs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Zur kommunikativen Logik staatlicher Institutionenbildung, Modernisierung des öffentlichen Sektors. Sonderband 5. Berlin: Ed. Sigma.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 독재 청산 재단(발행인), 2007년. 동독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추 - 사실 및 통계 수치. 베를린, 구텐드록 출판사.

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Hrsg.). 2007. Die Strafverfolgung von DDRUnrecht, Fakten und Zahlen, Berlin: Gutendruck.

클라우스 쾰(발행인), 1994년. 1945년 및 1989년 과거사의 극복. 베를린, 국민과 세계 출판사.

Sühl, Klaus (Hrsg.). 1994. Vergangenheitsbewältigung 1945 und 1989. Berlin: Verlag Volk und Welt.

발터 쥐쓰, 1999. 슈타지의 최후, 권력자들은 왜 1989년 혁명을 막아낼 수 없었는가. 베를린, 크리스토프 링크스 출판사.

Süß, Walter. 1999. Staatssicherheit am Ende. Warum es den Mächtigen nicht gelang, 1989 eine Revolution zu verhindern. Berlin: Christoph Links Verlag.

한스 후버투스 폰 뤼네, 1997년. “정치적 수용 불가…?” 독일 통일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본 동독 출신 검사 및 판사에 대한 검증. 베를린, 노모스 출판사.

von Roenne, Hans Hubertus. 1997. “Politisch untragbar……?” Die Überprüfung von Richtern und Staatsanwälten der DDR im Zuge der Vereinigung Deutschlands. Berlin: Nomos Verlagsgesellschaft.

위르겐 베버 및 미하엘 피아촐로(발행인), 1995년. 법정 앞에서 선 독재 - 독일 사법을 통한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 불법행위의 청산. 뮌헨, 올초크 출판사.

Weber, Jürgen/Piazolo, Michael (Hrsg.). 1995. Eine Diktatur vor Gericht. Aufarbeitung von SED-Unrecht durch die deutsche Justiz. München: Olzog.

우베 베젤, 1994년. 호네커에 대한 공판 - 법정 앞에 선 국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아이히보른 출판사.

Wesel, Uwe, 1994. Der Honecker-Prozeß: ein Staat vor Gericht, Frankfurt am Main: Eichborn.

프리드리히 볼프, 2005년. 합의와 정의 - 동독과 독일의 사법. 베를린, 노이에 베를린 출판사.

Wolff, Friedrich, 2005. Einigkeit und Recht, Die DDR und die deutsche Justiz, Berlin: Neue Berlin Verlagsgesellschaft.

슈테판 볼레, 2008년. 텔레비전 작전 - 동독과 서독에서의 슈타지와 미디어. 괴팅엔, 반 덴회크 운트 루프레히트 출판사.

Wolle, Stefan, 2008. Operation Fernsehen, Die Stasi und die Medien in Ost und West,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헬무트 볼만/한스-울리히 데를리엔/클라우스 쾨니히/볼프강 렌취/볼프강 자이벨 (발행인), 1997년. 동독에서의 정치 및 행정의 구조적 변환. 오프라덴, 레스케 운트 부트리히 출판사.

Wollmann, Helmut/Derlien, Hans-Ulrich/König, Klaus/Renzsch, Wolfgang/Seibel, Wolfgang (Hrsg.), 1997. Transformation der politisch-administrativen Strukturen in Ostdeutschland. Opladen: Leske + Budrich.

랄프 K. 뷔스텐베르크(발행인), 1998년. 진실, 법률 및 화해 - 독일과 남아프리카에서의 정치적 변혁 이후 과거사에 대한 연구.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랑 출판사.

Wüstenberg, Ralf K. (Hrsg.), 1998. Wahrheit, Recht und Versöhnung. Auseinandersetzung mit der Vergangenheit nach den politischen Umbrüchen in Südafrika und Deutschland, Frankfurt am Main: Lang.

3. 군통합

베르너 E. 압라쓰, 2003년. 군대의 해체: 178 근무일. 독일 연방군 매거진 3/2003, 제 2권, p 48-50.

Ablaß, Werner E. 2003 Eine Armee löst sich auf: 178 Amtstage. Magazin der Bundeswehr 3/2003, Heft 2, 48-50.

위의 저자와 동일, 1992. 귀영 신호 - 국가인민군에서 독일연방군으로. 뒤셀도르프, 코무날-출판사.

Ders. 1992. Zapfenstreich. Von der NVA zur Bundeswehr. Düsseldorf: Kommunal-Verlag.

데트레프 발트(발행인), 1997년. 변환기 이후의 새로운 출발 - 종군 목사의 신앙상담, 문화세금 및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Bald, Detlef (Hrsg.). 1997. Aufbruch nach der Wende. Militärseelsorge, Kultursteuern und das Staat-Kirche-Verhältnis. Baden-Baden: Nomos.

데트레프 발트/안드레아스 프뤼퍼트(발행인), 1997년. 전쟁으로부터 국방 개혁에 이르기까지 - 서독 독일 연방군과 동독 국가인민군의 모범적인 상에 관한 담론.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Bald, Detlef/Prüfert, Andreas (Hrsg.). 1997. Vom Krieg zur Militärreform. Zur Debatte um Leitbilder in Bundeswehr und Nationaler Volksarmee. Baden-Baden: Nomos.

아른트 바우어캠퍼(발행인), 1998년. 이중적인 현대사 - 1945년부터 1990년까지의 동서독 관계. 본, 디츠 출판사.

Bauerkämper, Arnd (Hrsg.). 1998. Doppelte Zeitgeschichte. Deutsch-deutsche Beziehungen 1945-1990. Bonn: Dietz.

빅 프레드, 국가인민군의 구형 무기를 매입할 때 정말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슈톨텐베르크는 의회에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참고: 잡지 슈피겔 에 실린 기사, 1992년 제 9호, 1992년 2월 24일, p. 50-53.

Big Fred. Was geschah wirklich beim Verkauf der alten NVA-Waffen? Stoltenberg soll dem Parlament Auskunft geben. In: Der Spiegel 9/1992, 24.02.1992, S. 50-53.

울리히 브란덴부르크, 1992년. “동무들”이 떠나간다 - 통독 이후 독일 내에서의 소련군 및 향후 소련군의 상황. 쾰른, 동구학 및 국제학 연방연구소.

Brandenburg, Ulrich. 1992. The “Friends” Are Leaving. Soviet and Post-Soviet Troops in Germany after Unification. Köln: Bundesinstitut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클라우스-위르겐 브렘, 한스-후버투스 마크 및 마르틴 링크(발행인), 평화를 위한 결정 - 독일 연방군의 50년, 1955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프라이부르크 임 브라이스가우, 롬바흐 출판사.

Bremm, Klaus-Jürgen/Mack, Hans-Hubertus/Rink, Martin (Hrsg.). Entschieden für Frieden. 50 Jahre Bundeswehr, 1955 bis 2005. Freiburg im Breisgau: Rombach.

로타 W. 브렌네-베게너, 2000년. 자신의 힘으로 - 서독 연방군과 동독 인민군 및 서방국 군대 사이의 긴장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독일의 소련군. 함부르크, Editiononline.de.

Brenne-Wegener, Lothar W. 2000. Auf eigene Faust. Als Eisbrecher zwischen Bundeswehr, Nationaler Volksarmee und Westgruppe der sowjetischen Truppen in Deutschland. Hamburg: Editiononline.de.

팔코 브린너 및 미하엘 슈토르크, 1998년. 적군의 이미지에서 통일군으로: 두 명의 해당 군인의 개인적 시각으로 바라 본 통일된 독일 연방군. 로스톡, 로스톡 대학교, 정치 및 행정학 연구소.

Brinner, Falko/Storck, Michael. 1998. Vom Feindbild zur Armee der Einheit: die Bundeswehr der Einheit aus der persönlichen Sicht von zwei betroffenen Soldaten. Rostock: Universität Rostock, Institut für Politik- und Verwaltungswissenschaft.

독일 연방 국방부, 1994년 백서 - 독일 연방 공화국의 안보와 연방군의 발전을 위해.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1994. Weißbuch. Zur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zur Entwicklung der Bundeswehr.

외르크 칼리쓰(발행인), 1994년. 군대의 퇴각 - 주둔지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독일 내에서의 지역적 전환. 1994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록컴 기독교 아카데미 회의를 기록한 문서. 레부르크-록컴: 록컴 기독교 아카데미, 의사록 기록보관소. Calließ, Jörg (Hrsg.). 1994. Die Soldaten ziehen ab - was wird aus den Standorten - Regionale Konversion in Deutschland. Dokumentation einer Tagung der Evangelischen Akademie Loccum vom 18. bis 20. November 1994. Rehburg-Loccum: Evangelische Akademie Loccum, Protokollstelle.

자비네 콜머, 1994년. 독일 통일은 명령에 따른 통일인가? 국방의무자와 독일의 통일 과정. 오프라덴, 서독 출판사.

Collmer, Sabine. 1994. Einheit auf Befehl? Wehrpflichtige und der deutsche Einigungsprozeß.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자비네 콜머 및 게오르그-마리아 마이어, 1993년. 식민지화인가 아니면 통합인가? 독일 연방군과 독일의 통일; 현황 파악. 오프라덴, 서독 출판사.

Collmer, Sabine/Meyer, Georg-Maria. 1993. Kolonisierung oder Integration? Bundeswehr und deutsche Einheit; eine Bestandsaufnahme.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위의 저자와 동일, 1992. 과거의 구호는 “군기를 높이 들고” - 오늘날의 구호는 “연방을

위하여”. 뮌헨, 독일 연방군 사회학 연구소. 논문 제 65권.

Dies. 1992. Früher “Zur Fahne” – Heute “Zum Bund”. München: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der Bundeswehr. Arbeitspapiere Heft 65.

토르스텐 디트리히/한스 엘러트/뤼디거 벤츠케(발행인), 1998년. 정당의 역할 수행에 있어 – 동독 무장 조직에 관한 설명 자료. 베를린, 크리스토프 링크스 출판사.

Diedrich, Torsten/Ehlert, Hans/Wenzke, Rüdiger (Hrsg.). 1998. Im Dienste der Partei. Handbuch der bewaffneten Organe der DDR. Berlin: Ch, Links Verlag.

군나 디구취, 2004년. 국가인민군의 종말과 신연방주에서의 연방군 구축 과정.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페터 랑 출판사.

Digutsch, Gunnar. 2004. 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und der Aufbau der Bundeswehr in den neuen Ländern.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한스 엘러트(발행인), 2004년. 동독의 국방, 국가 및 사회 – 연구분야, 결과 및 전망. 베를린, 크리스토프 링크스 출판사.

Ehlert, Hans (Hrsg.). 2004. Militär, Staat und Gesellschaft in der DDR. Forschungsfelder, Ergebnisse, Perspektiven. Berlin: Ch, Links Verlag.

위의 저자와 동일, (발행인), 2002. 미래가 없는 군대 – 국가인민군의 최후와 독일 통일, 동시대 증인들의 보고서 및 서류 문서. 베를린, 크리스토프 링크스 출판사.

Ders. (Hrsg.). 2002. Armee ohne Zukunft. Das Ende der NVA und die deutsche Einheit. Zeitzeugenberichte und Dokumente. Berlin: Ch, Links Verlag.

위의 저자와 동일, (발행인), 1996. 구 소련군 점령지역 및 동독에서의 국방정책과 안보 정책 – 참고 문헌(1945년 – 1995년). 뮌헨, 볼트 출판사.

Ders. (Hrsg.). 1996. Die Militär- und Sicherheitspolitik in der SBZ/DDR. Eine Bibliographie (1945–1995). München: Boldt.

디터 파르빅(발행인), 1992년. 하나의 국가 - 하나의 군대, 국가인민군에서 독일연방군으로. 프랑크푸르트 압 마인, 레포트 출판사.

Farwick, Dieter (Hrsg.). 1992. Ein Staat - Eine Armee. Von der NVA zur Bundeswehr. Frankfurt am Main: Report-Verlag.

베른하르트 플렉켄슈타인, 1996년. 통일 이후의 독일: 수렴 및 갈등에 관한 개요, 통일 이후의 독일: 일치점과 차이점. 슈트라우스베르크, 독일 연방군 사회학 연구소. 논문 제 98권.

Fleckenstein, Bernhard. 1996. Germany after Unification: Converging and Conflicting Views. Deutschland nach der Einheit: Ubereinstimmungen und Differenzen, Strausberg: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der Bundeswehr. Arbeitspapiere Heft 98.

한스-요아힘 기쓰만(발행인), 1992년. 통일된 독일에서의 전환, 하나의 국가 - 두 가지 전망?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Gießmann, Hans-Joachim (Hrsg.). 1992. Konversion im vereinten Deutschland. Ein Land - zwei Perspektiven? Baden-Baden: Nomos.

한스-요아힘 기쓰만, 1992년. 달갑지 않은 유산 - 동독 군대 조직의 해체. 에곤 바르의 추천사가 실려 있음.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Gießmann, Hans-Joachim. 1992. Das unliebsame Erbe. Die Auflösung der Militärstruktur der DDR. Mit einem Vorwort von Egon Bahr. Baden-Baden: Nomos.

군터 헬만(발행인), 1994년. 연합군의 주둔과 독일 통일 - 국방력이 가져온 정치적 결과. 헬가 하프텐도른의 60회 생일을 기념하면서.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Hellmann, Gunther (Hrsg.). 1994. Alliierte Präsenz und deutsche Einheit. Die politischen Folgen militärischer Macht. Helga Haftendorn zum 60. Geburtstag. Baden-Baden: Nomos.

한스-헤르만 헤르틀레, 1994년. 장벽의 붕괴 이후 - 평화로운 해결책을 향한 모색: 군사적 투입의 준비과정에 대한 시작과 끝. 베를린 논문집 및 사회학 연구에 관한 보고서 제 94권. 베를린, 베를린 자유대학 사회학 중앙연구소.

Hertle, Hans-Hermann, 1994. Nach dem Fall der Mauer. Der Weg zur friedlichen Lösung:

Anfang und Ende der Vorbereitung eines militärischen Einsatzes. Berliner Arbeitshefte und Berichte zur sozialwissenschaftlichen Forschung Nr. 94, Berlin: Zentralinstitut für sozialwissenschaftliche Forschung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테오도르 호프만, 1993년. 최후의 명령, 어떤 장관의 회고. 베를린, 미틀러 출판사.

Hoffmann, Theodor, 1993. Das letzte Kommando. Ein Minister erinnert sich. Berlin: Mittler.

슈테판 후크/하르트무트 클뤼버(발행인), 2007년. 전환의 시기 - 독일 통일을 맞이하는 독일의 해군. 보쿰, 빈클러 출판사.

Huck, Stephan/Klüver, Hartmut (Hrsg.), 2007. Die Wende. Die deutsche Marine auf dem Weg in die Einheit. Bochum: Winkler.

한스-아돌프 야콥젠/한스-위르겐 라우텐베르크, 1991년. 독일 연방군과 유럽의 안보 질서 - 독일 연방군의 향후 과제 연구를 위한 독립위원회 최종 보고서. 본, 부비어 출판사.

Jacobsen, Hans-Adolf/Rautenberg, Hans-Jürgen, 1991. Bundeswehr und europäische Sicherheitsordnung. Abschlußbericht der Unabhängigen Kommission für die künftigen Aufgaben der Bundeswehr. Bonn: Bouvier.

연간 간행물, 독일 통합의 10년, 통일 군대의 10년. 2000. 슈트라우스베르크, 독일 연방군 사회학 연구소.

Jahresschriften, 10 Jahre vereintes Deutschland. 10 Jahre Armee der Einheit, 2000.

Strausberg: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der Bundeswehr.

한스 페터 폰 키르히바흐, 1998년. 온 마음을 담아 손을 가지고 - 엘베강과 오더강 사이의 군인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레포트 출판사.

Kirchbach, Hans Peter von, 1998. Mit Herz und mit Hand. Soldaten zwischen Elbe und Oder. Frankfurt am Main: Report Verlag.

한스 페터 폰 키르히바흐/만프레드 마이어스/빅터 보크트, 1992년. 통일이라는 모험 - 신연방주 지역에서의 독일 연방군 구축.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레포트 출판사.

Kirchbach, Hans Peter von/Meyers, Manfred/Vogt, Victor, 1992. Abenteuer Einheit. Zum Aufbau der Bundeswehr in den neuen Ländern. Frankfurt am Main: Report-Verlag.

파울 클라인(발행인), 1993년.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가? 국가인민군을 독일 연방군에 편입 시키기 위한 중간 결산 보고.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Klein, Paul (Hrsg.). 1993. Beispielhaft? Eine Zwischenbilanz zur Eingliederung der Nationalen Volksarmee in die Bundeswehr. Baden-Baden: Nomos.

파울 클라인/베르너 크리젤/에케하르트 리퍼트, 1997년. 군대와 사회 - 1979년부터 1997년까지의 군대사회학에 관한 참고 문헌. 슈트라우스베르크, 독일 연방군 사회학 연구소. 보고서 제 66권.

Klein, Paul/Kriesel, Werner/Lippert, Ekkehard, 1997. Militär und Gesellschaft. Bibliographie zur Militärsoziologie 1979-1997. Strausberg: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der Bundeswehr. Berichte Band 66.

프리트회프 H. 크나베, 1994년. 적군의 깃발 아래에서, 군사력 대변환 시대에 있어 가치 전환 - 국가인민군으로부터 독일 연방군으로. 오프라덴, 서독 출판사.

Knabe, Frithjof H, 1994. Unter der Flagge des Gegners. Wertewandel im Umbruch in den Streitkräften - von der NVA zur Bundeswehr.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하인츠-올리히 코르, 1993년. 독일 통일에 있어서의 심리학적 문제. 본 논문은 1993년 6월 11일-12일 양일간 개최된 한국심리학회 주관 독일통일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제출된 것임. 뮌헨, 독일 연방군 사회학 연구소. 논문 제 81권.

Kohr, Heinz-Ulrich. 1993. Psychological Problems in the German Unifi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Congress on the German Unification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eoul, June 11-12, 1993. München: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der Bundeswehr. Arbeitspapiere Heft 81.

플커 코프, 2009년. 국가인민군의 최후와 유산 - “통일 군대”로 향하는 기나긴 여정인가? 참고: 군대 역사, 역사교육 잡지 3/2009. p. 14-17.

Koop, Volker. 2009. Ende und Erbe der NVA - ein langer Weg zur “Armee der Einheit”? In: Militärgeschichte. Zeitschrift für historische Bildung 3/2009. S. 14-17.

플커 코프, 1995년. 동독 국가인민군은 어떻게 전환되었는가? 국가인민군의 발자취를 찾아. 본, 부비어 출판사.

Koop, Volker. 1995. Abgewickelt? Auf den Spuren der Nationalen Volksarmee. Bonn: Bouvier.

발터 크라츠, 2003년. 동독에서의 변환 과정 - 철수한 소련군이 남긴 군사적 토대, 이에 관한 연구, 건전화 및 임무 변경에 관하여. 베를린, 트라포-출판사.

Kratz, Walther. 2003. Konversion in Ostdeutschland. Die militärischen Liegenschaften der abgezogenen Sowjetischen Streitkräfte, ihre Erforschung, Sanierung und Umwidmung. Berlin: Trafo-Verlag.

위르겐 쿨만/크리스토퍼 단데커(발행인), 1992년. 냉전 이후의 무장군대. 본 논문은 1990년 7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국제사회학협회(ISA) 제 12차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것임. 뮌헨, 독일 연방군 사회학 연구소. 국제 포럼 제 13권.

Kuhlmann, Jürgen/Dandeker, Christopher (Hrsg.). 1992. Armed Forces after the Cold

War. Papers presented at the XIIth World Congress of Sociology,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ISA), Madrid/Spain, July 1990. München: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der Bundeswehr, FORUM International Volume 13.

페터 요아힘 라프, 1992년. 하나의 국가 - 하나의 군대, 국가인민군에서 독일연방군으로. 독일 통일 포럼, 전망 및 논쟁점 제 9호. 본/바트 고데스베르크,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Lapp, Peter Joachim. 1992. Ein Staat - Eine Armee. Von der NVA zur Bundeswehr, Forum Deutsche Einheit, Perspektiven und Argumente Nr. 9. Bonn/Bad Godesberg: Friedrich-Ebert-Stiftung.

로버트 레베게른, 2002년.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동서독 국경에서의 봉쇄 상황에 관한 역사. 에어푸르트, 튀링엔 정치 교육 주정부 센터.

Lebegern, Robert. 2002. Zur Geschichte der Sperranlagen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1945-1990. Erfurt: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Thüringen.

니나 레온하르트, 2005년. 국가인민군 군인과 “통일 군대”. 참고: 클라우스-위르겐 브렘/한스-후버투스 마크/마르틴 링크(발행인), 평화를 위한 결정 - 독일 연방군의 50년, 1955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프라이부르크, 롬바흐 출판사. p. 457-470.

Leonhard, Nina. 2005. Die Soldaten der NVA und die “Armee der Einheit.” In Bremm, Klaus-Jürgen/Mack, Hans-Hubertus/Rink, Martin, Hrsg., Entschieden für Frieden. 50 Jahre Bundeswehr, 1955 bis 2005. Freiburg: Rombach Verlag, S. 457-470.

니나 레온하르트, 2004년. 연방군과 “내적 통일” - 동독군과 서독군에 관한 비교 연구 설명. “통일 군대” 연구 프로젝트에 있어 문제 제기 및 첫 번째 연구 결과. 슈트라우스베르크, 독일 연방군 사회학 연구소. 논문 제 136권.

Leonhard, Nina. 2004. Die Bundeswehr und die “innere Einheit”: Einstellungen von

ost- und westdeutschen Soldaten im Vergleich. Problemaufriss und erste Ergebnisse des Forschungsprojektes "Armee der Einheit". Strausberg: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der Bundeswehr. Arbeitspapiere Heft 136.

프랑크 내글러, 2007년. 1955년부터 2005년까지의 독일 연방군 - 회고, 개요 및 전망. 뮌헨, 올덴부르크 출판사.

Nägler, Frank. 2007. Die Bundeswehr 1955 bis 2005. Rückblenden, Einsichten, Perspektiven. München: Oldenbourg.

클라우스 나우만, 1994년. 대변혁 시대에 있어 하나의 세계에 속한 독일 연방군. 베를린, 지들러 출판사.

Naumann, Klaus. 1994. Die Bundeswehr in einer Welt im Umbruch. Berlin: Siedler.

클라우스 나우만(발행인), 1996년. 국가인민군(NVA) - 요구와 진실. 선별된 문서 자료집. 함부르크, 미틀러 출판사.

Naumann, Klaus (Hrsg.). 1996. NVA. Anspruch und Wirklichkeit. Nach ausgewählten Dokumenten. Hamburg: Mittler.

한스-마르틴 오토머/칼 디펜바흐, 1993년. 독일 안보정책의 발전과 독일 연방군의 역사. 독일 연방 국방부의 연구 발주에 따른 결과물임. 베를린, 미틀러 운트 존 출판사.

Ottmer, Hans-Martin/Diefenbach, Karl. 1993. Die Entwicklung deutscher Sicherheitspolitik und die Geschichte der Bundeswehr. Im 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der Verteidigung. Berlin: Mittler & Sohn.

한스-요아힘 리프, 1992년. 독일 연방군의 목적은 무엇인가? 통일된 독일에서의 국방력에 대한 합법성과 임무. 멜레, 에른스트 크노트 출판사.

Reeb, Hans-Joachim. 1992. Bundeswehr - wozu? Auftrag und Legitimation von Streitkräften im vereinten Deutschland. Melle: Ernst Knoth.

콘돌레자 라이스/필립 젤리코프, 1996년. 통일된 독일과 변화된 유럽. 캠브리지, 하버드 대학 출판사.

Rice, Condoleezza/Zelikow, Philip. 1996. Germany united and Europe transform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마티아스 로그, 2009년. 국민의 군대? 동독의 국방과 사회. 베를린, 크리스토프 링크스 출판사.

Rogg, Matthias. 2009. Armee des Volkes? Militär und Gesellschaft in der DDR, Berlin: Ch, Links Verlag.

베르너 폰 쉘벤, 2005년. 독일 연방군과 동독의 재건. 클라우스-위르겐 브렘/한스 후버투스 마크/마르틴 링크(발행인), 평화를 위한 결의 - 독일 연방군의 50년, 1955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프라이부르크, 롬바흐 출판사. p. 441-455.

von Scheven, Werner. 2005. Die Bundeswehr und der Aufbau Ost. Bremm, Klaus-Jürgen/Mack, Hans-Hubertus/Rink, Martin (Hrsg.). Entschieden für Frieden. 50 Jahre Bundeswehr, 1955 bis 2005. Freiburg: Rombach Verlag, S. 441-455.

위의 저자와 동일, 1997년. 독일에 현존하는 두개의 국군을 통합하는 과정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전망: 평화 배당금이 있는가? 참고: 베르너 페니히(발행인), 우리가 힘을 합하면 일어설 수 있지만, 우리는 현재 분단된 상태이다. 1990년대 한국과 독일의 비교 고찰. 함부르크, 아베라 출판사. p. 231-241.

Ders. 1997. Military and Economic Aspects of Integrating two Armed Forces in Germany: Is there a Peace Dividend? In: Pfennig, Werner (Hrsg.). United We Stand, Divided We Are. Comparative Views on Germany and Korea in the 1990's. Hamburg: Abera Verlag, S. 231-241.

외르크 쇤봄, 1992년. 두 개의 군대와 하나의 조국. 베를린, 지들러 출판사.

Schönbohm, Jörg. 1992. Zwei Armeen und ein Vaterland. Berlin: Siedler

게르하르트 슈타인바흐, 1997년. 변환의 과정 - 군사지역에서의 도시 계획, 실험적 도시 건설 및 주거지 건설에 관한 연구 계획. 최종 보고서. 본, 독일 연방 토지개발, 건설 및 도시건설부.

Steinebach, Gerhard. 1997. Konversion - Stadtplanung auf Militärflächen, Forschungsvorhaben des Experimentellen Wohnungs- und Städtebaus. Endbericht. Bonn: Bundesministerium für Raumordnung, Bauwesen und Städtebau.

게르하르트 슈톨텐베르크, 1999년. 회고 및 발전상황 - 1945년부터 1999년까지의 독일 현대사. 함부르크, 미틀러 출판사.

Stoltenberg, Gerhard. 1999. Erinnerungen und Entwicklungen, Deutsche Zeitgeschichte 1945-1999. Hamburg: Mittler.

게르하르트 슈톨텐베르크, 1997년. 전환점 - 1947년부터 1990년까지의 독일 정치의 각 단계. 베를린, 지들러 출판사.

Stoltenberg, Gerhard. 1997. Wendepunkte. Stationen deutscher Politik 1947-1990. Berlin: Siedler.

클라우스 P. 슈토르크만, 2007년. 연방군의 전통적 이해관계에서 본 국가인민군. 브레멘, 템멘 출판사.

Storkmann, Klaus P. 2007. Die NVA im Traditionsverständnis der Bundeswehr. Bremen: Temmen.

브루노 토쓰(발행인), 냉전으로부터 독일 통일로 - 독일 국방역사에 대한 분석 및 동시대 증인들의 보고서, 1945년부터 1995년까지. 뮌헨, 올텐부르크 출판사.

Thoß, Bruno (Hrsg.). Vom Kalten Krieg zur Deutschen Einheit. Analysen und Zeitzeugenberichte zur deutschen Militärgeschichte 1945 bis 1995. München: Oldenbourg.

롤란드 보크트, 1994년.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에서의 변혁에 대처하기 위한 지침. 주정부의 발주에 따른 연구임: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제 1차 선거기간, 인쇄물 1/1203. 서방 국가 군대 및 변혁과정을 담당하는 총리의 전권 대리인에 의해 발행됨.

Vogt, Roland. 1994. Leitlinien für Konversion im Land Brandenburg. Antrag der Landesregierung; Landtag Brandenburg, 1. Wahlperiode, Drucksache 1/1203. Herausgegeben vom Bevollmächtigten des Ministerpräsidenten für die Westgruppe der Streitkräfte und Konversion.

토비아스 보이코트, 1995년. 참고문헌 목록 - 1989년 및 1990년 이후부터의 국가인민군에 대한 선별적 임무슈트라우스베르크, 독일 연방군 사회학 연구소, 논문 제 94권.

Voigt, Tobias. 1995. Bibliographie: Ausgewählte Arbeiten zur Nationalen Volksarmee seit 1989/90. Strausberg: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der Bundeswehr. Arbeitspapiere Heft 94.

아르민 바그너 및 마티아스 울, 2007년. 소련군에 반대하는 독일 연방 정보국 - 동독에서 펼친 서독의 군사적 첩보활동. 베를린, 크리스토프 링크스 출판사.

Wagner, Armin und Uhl, Matthias. 2007. BND contra Sowjetarmee. Westdeutsche Militärspionage in der DDR. Berlin: Christoph Links Verlag.

미하엘 볼프존, 1990년. 독일에 대한 우려를 씻으라! 에어랑엔, 슈트라우베 출판사.

Wolffsohn, Michael. 1990. Keine Angst vor Deutschland! Erlangen: Straube.

오토-에버하르트 잔더, 2000년. 구동독지역 및 서독지역에서 새롭게 정비될 군대에서의 군 전통에 관한 전망과 문제점 - 서독 연방군과 동독 국가인민군 사이의 군 전통에 관한 비교 고찰(1950-1990). 박사학위 논문. 키일, 크리스티안-알브레히츠-대학 철학부.

Zander, Otto-Eberhard. 2000. Probleme und Aspekte der Tradition in neuen deutschen Streitkräften in West und Ost. Ein Vergleich der Traditionen von Bundeswehr und Nationaler Volksarmee (1950-1990). Dissertation, Kiel: Philosophische Fakultät

der Christian-Albrechts-Universität.

4. 통일된 도시에서의 경찰

클라우스-디터 바움가르텐 및 페터 프라이탁, 2004년. 동독의 국경 - 역사, 사실 그리고 배경. 베를린, 에디션 오스트 출판사.

Baumgarten, Klaus-Dieter/Freitag, Peter. 2004. Die Grenzen der DDR. Geschichte, Fakten, Hintergründe. Berlin: Edition Ost.

한스-디터 베렌트, 2008년. “안녕하세요, 동독 여권 검문입니다.” -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동서독 접경지역에서 검문 및公安조직의 활동상에 관하여. 슈코이디츠, GNN 출판사.

Behrendt, Hans-Dieter. 2008. “Guten Tag, Passkontrolle der DDR.” Über die Tätigkeit der Kontroll- und Sicherungsorgane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1945 und 1990. Schkeuditz: GNN-Verlag.

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산하 슈타지 비밀서류 담당 관청(발행인), 1994년. 범죄수사대의 작업구역 I - 슈타지의 임무, 구조 및 관계. 베를린, BStU 출판사.

Der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rsg.). 1994. Das Arbeitsgebiet I der Kriminalpolizei. Aufgaben, Struktur und Verhältnis zum Ministerium für Staatsicherheit. Berlin: BStU.

연방 국경수비대 협회 - 연방경찰 노동조합, 2001년. 연방 국경수비대 협회의 50년 연대기 - 1951년부터 2001년까지... 안보로 향하는 공동의 길.

Bundesgrenzschutz-Verband - Gewerkschaft der Polizei des Bundes. 2001. Chronik 50 Jahre Bundesgrenzschutz-Verband 1951-2001..... der gemeinsame Weg in die Sicherheit.

클라우스 데트머, 2003년. 베를린 범죄수사대 구축과 발전. 참고: 베를린의 역사와 현재, 베를린 주정부 문서보관소 2003년 연보, 7 - 25 페이지.

Dettmer, Klaus, 2003. Entwicklung und Aufbau der Kriminalpolizei in Berlin. In: Berli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Jahrbuch des Landesarchivs Berlin 2003. S. 7-25.

독일 경찰, . 경찰 노동조합 회보. 베를린 발행. 1990년 및 1991년.

Deutsche Polizei, Zeitschrift der Gewerkschaft der Polizei, Ausgabe Berlin, Jahre 1990 und 1991.

토르스텐 디트리히, 한스 엘러트 및 뢰디거 벤츠케(발행인), 1998년. 정당의 역할 수행에 있어 - 동독 무장 조직에 관한 설명 자료. 베를린, 크리스토프 링크스 출판사.

Diedrich, Torsten/Ehlert, Hans/Wenzke, Rüdiger (Hrsg.). 1998. Im Dienste der Partei. Handbuch der bewaffneten Organe der DDR. Berlin: Chr. Links.

빌헬름 디틀, 2004년. 연방범죄수사국(BKA) 스토리. 뮌헨, 크나우르 출판사.

Dietl, Wilhelm. 2004. Die BKA-Story. München: Knauer.

베를린 경찰 사료 수집 후원회(발행인), 1999년. 베를린 경찰 - 10년이 지난 이후. 총 2권. 58 및 78 페이지.

Förderkreis Polizeihistorische Sammlung Berlin (Hrsg.). 1999. Berliner Polizei: 10 Jahre danach, 2 Bände. 58 und 78 Seiten.

한스 프리케, 1999년. 이전 - 당시 - 이후, 과거 동독 국경수비대 사령관의 보고서. 슈코이디츠, GNN 출판사.

Fricke, Hans. 1999. Davor - Dabei - Danach. Ein ehemaliger Kommandeur der Grenztruppen der DDR berichtet. Schkeuditz: GNN-Verlag.

라인하르트 하젤로프, 2000년. 인민경찰의 변혁 - 법치국가에 걸맞는 민주적 경찰로의

탈바꿈. 뤼벡, 슈미트-뤼힐트 출판사.

Haselow, Reinhard. 2000. Der Wandel der Volkspolizei zu einer rechtsstaatlichdemokratischen Polizei. Lübeck: Schmidt-Römhild.

빌리 헬만, 2001년. 나의 첫번째 삶 - 어떤 인민경찰청장의 회고. 베를린, 에디션 오스트 출판사.

Hellmann, Willi. 2001. Mein erstes Leben. Ein General der VP erinnert sich, Berlin: edition ost.

게오르크 헤르프스트리트, 1998년. 1989년 가을 동독 인민경찰의 상황에 관한 보고 - 노이 브란덴부르크 지역에서의 변혁 연대기. 슈베린, 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산하 슈타지 비밀서류를 담당하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정부 대의원.

Herbstritt, Georg. 1998. Die Lageberichte der Deutschen Volkspolizei im Herbst 1989. Eine Chronik der Wende im Bezirk Neubrandenburg. Schwerin: Der Landesbeauftragte für Mecklenburg-Vorpommer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안드레아 헤르트 및 베른하르트 리쓰너, 1995년. “안보 담당 40주년 기념일”로부터(1989년 10월) 명령에 의한 경찰 데모에 이르기까지(1990년 1월). 에어푸르트 독일 인민경찰 구역관할 지도부의 문서 자료. 에어푸르트, 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산하 슈타지 비밀서류를 담당하는 주정부 대의원.

Herz, Andrea/Lißner, Bernhard. 1995. Vom “Sicherungseinsatz 40. Jahrestag” (Oktober 1989) zur verordneten Polizeidemonstration (Januar 1990). Dokumente aus dem Bestand des Führungsstabes der Bezirksbehörde der Deutschen Volkspolizei Erfurt. Erfurt: Der La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하르트무트 P. 호프만, 2009년. 인민당의 3단계 변혁 과정 - 1989년부터 1991년까지의

베를린. 베를린, 박사학위 논문 독일 사이트.

Hoffmann, Hartmut P. 2009. Drei Phasen der Transformation der Volkspolizei, Berlin 1989 bis 1991. Berlin: dissertation.de.

한스 휘프너, 1999년. 베를린 경찰 - 194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힌켈디 재단 발행. 로렌츠 뎀프스의 머리말이 실려 있음. 제 2판. 베를린, 야론 출판사.

Hübner, Hans. 1999. Berliner Polizei, Von 1945 bis zur Gegenwart, Hrsg. von der Hinckeldey-Stiftung. Mit einer Einführung von Laurenz Demps, 2. Auflage, Berlin: Jaron.

폴커 코프, 1996년. 배척된 상태 - 동독 국경수비대의 붕괴.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출판 회사.

Koop, Volker. 1996. Ausgegrenzt. Der Fall der DDR-Grenztruppen. Berlin: Brandenburgisches Verlags-Haus.

한스-위르겐 랑에(발행인), 2000년. 국가, 민주주의 및 독일의 내부 안보. 오프라덴, 레스케 운트 부트리히 출판사. 특히 중요한 참고 서적: 마르틴 빈터, 경찰 철학 및 독일 연방공화국에서의 대응적 경찰활동 - 1960년부터 1990년 통일에 이르기까지. P. 203 - 220.

Lange, Hans-Jürgen (Hrsg.). 2000. Staat, Demokratie und innere Sicherheit in Deutschland. Opladen: Leske + Budrich. Darin vor allem: Martin Winter, Polizeiphilosophie und protest polici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von 1960 bis zur staatlichen Einheit 1990. S. 203-220.

페터 요아힘 라프, 1999년. 평화 시의 교전 업무,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동독의 경계 체제. 본, 베르나르트 & 그라페 출판사.

Lapp, Peter Joachim. 1999. Gefechtsdienst im Frieden. Das Grenzregime der DDR 1945-1990. Bonn: Bernard & Graefe.

게르하르트 R. 레만, 2007년. 나는 나의 조국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언제나 진심으로 충성할 것을 맹세하노라 – 동독 국경수비대 및 국경경찰 근무 40년 동안으로부터의 기억과 회고. 제 1판. 피리츠, 아미쿠스 출판사.

Lehmann, Gerhard R. 2007. Ich schwöre: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meinem Vaterland, …… allzeit treu zu dienen – Erinnerungen und Gedanken aus vierzig Dienstjahren in Grenzpolizei und Grenztruppe der DDR. Föriz: Amicus.

한스 모드로우(발행인), 1994년. 커다란 집 –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 중앙위원회 내부 간부의 보고. 베를린.

Modrow, Hans (Hrsg.). 1994. Das große Haus. Insider berichten aus dem ZK der SED. Berlin.

게르하르트 뫼르케, 1999년 – 2005년. 인민경찰로부터 튀링엔 주정부 소속 경찰로의 전환. 총 3권. 슬라이츠, 뫼르케 출판사.

Mörke, Gerhard. 1999–2005. Von der Volkspolizei zur Thüringer Landespolizei. 3 Bände. Schleiz: Mörke.

라이마르 리하르트, 2005년. 장벽과 철조망 사이에서 – 한 국경 수비 군인의 침묵에 관한 보고. 할레, 프로젝트 출판사 188.

Richard, Raimar. 2005. Zwischen Mauer und Stacheldraht. Ein Grenzsoldat bricht sein Schweigen. Halle: Projekte-Verlag 188.

위르겐 리터 및 페터 요아힘 라프, 2007년. 경계 – 독일의 건축물. 제 6판. 베를린, 크리스트토프 링크스 출판사.

Ritter, Jürgen/Lapp, Peter Joachim. 2007. Die Grenze. Ein deutsches Bauwerk. 6. Auflage. Berlin: Ch. Links.

토랄프 룬믈러, 2000년. 법정에 선 동서독 국경지역에서의 폭력사건. 베를린, 슈피츠 베

를린 출판사.

Rummler, Toralf. 2000. Die Gewalttaten an der deutsch-deutschen Grenze vor Gericht. Berlin: Berlin-Verlag Spitz.

게오르크 쉘트츠, 2004년. 장벽붕괴로 인한 투입상황. 참고: 베를린의 역사와 현재, 베를린 주정부 문서보관소 연보. 베를린, 만 출판사/메두사 출판사/지들러 출판사 합작. p. 177 - 196

Schertz, Georg. 2004. Einsatzlage Mauerfall. In: Berli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Jahrbuch des Landesarchivs Berlin. Berlin: Mann-/Medusa-/Siedler-Verlag. S. 177-196.

디트마 숄트케, 2005년. 우리를 갈라놓은 국경 - 동서독 국경에 대한 동시대 증인들의 보고. 베를린, 콰스터 출판사.

Schultke, Dietmar. 2005. Die Grenze, die uns teilte - Zeitzeugenberichte zur innerdeutschen Grenze. Berlin: Köster.

디트마 숄트케, 1999년. 그 누구도 지나지 못한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동서독 접경 지역에서의 역사. 확장 신판. 베를린, 아우프바우 출판사.

Schultke, Dietmar. 1999. Keiner kommt durch. Die Geschichte der innerdeutschen Grenze

1945-1990. Erweiterte Neuauflage. Berlin: Aufbau.

디터 술체, 2006년. 독일 인민경찰의 총망라 - 역사, 임무 및 제복. 베를린, 노이에 베를린 출판사.

Schulze, Dieter. 2006. Das große Buch der Deutschen Volkspolizei. Geschichte, Aufgaben, Uniformen. Berlin: Das Neue Berlin.

노버트 슈타인본, 1993년. 1945년부터 1992년까지의 베를린 경찰 - 냉전 시대 예비 병력

의 모습으로부터 친국민적 경찰로의 변환의 길. 베를린, 베를린 출판사.

Steinborn, Norbert. 1993. Die Berliner Polizei 1945 bis 1992. Von der Militärreserve im kalten Krieg auf dem Weg zur bürgernahen Polizei? Berlin: Berlin-Verlag.

5. 국가 구조의 변화

토마스 암머 및 요한네스 쿠페, 1991년.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으로부터 민주 사회주의당(PDS)으로. 본, 독일 종합 연구소.

Ammer, Thomas/Kuppe, Johannes. 1991. Von der SED zur PDS. Bonn: Gesamtdeutsches Institut.

만프레드 베렌트(발행인), 1991년. 변혁이라는 험난한 길 -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으로부터 민주 사회주의당(PDS)으로. 문서화 기록. 베를린, 디츠 출판사.

Behrend, Manfred (Hrsg.). 1991. Der schwere Weg der Erneuerung: von der SED zur PDS; eine Dokumentation. Berlin: Dietz.

아르투어 벤츠, 하인리히 매딩 및 볼프강 자이벨(발행인), 1993년. 독일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의 행정 개혁과 행정 정책.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Benz, Arthur/Mäding, Heinrich/Seibel, Wolfgang (Hrsg.). 1993. Verwaltungsreform und Verwaltungspolitik im Prozeß der deutschen Einigung. Baden-Baden: Nomos.

로타 비스키, 1995년. 자유인가 또는 사회주의인가? 베를린, 민주 사회주의당(PDS) 원 칙위원회.

Bisky, Lothar. 1995. Freiheit oder Sozialismus? Berlin: Grundsatzkommission der PDS.

카를하인츠 브레썩(발행인), 1993년. 사민당(SPD)의 2000년 - 사민당(SPD)의 현대화. 베를린, 쉬렌 출판사.

Blessing, Karlheinz (Hrsg.). 1993. SPD 2000. Die Modernisierung der SPD. Berlin: Schüren.

만프레트 보기쉬, 2004년. 독일 자유민주당(LDPD)과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 국가적 위기. 베를린, 동독 역사에 관한 연구 토론회.

Bogisch, Manfred. 2004. Die LDPD und die Staatskrise 1989/90. Berlin: Forscher und Diskussionskreis DDR-Geschichte.

프리드리히 볼/루돌프 크라우스, 1990년. 개미잡이 새와 같은 정당, 사민당(SPD)의 통일 반대. 본, 독일 기민당(CDU)

Bohl, Friedrich/Kraus, Rudolf. 1990. Die Wendehals-Partei. SPD gegen die Wiedervereinigung. Bonn: CDU.

하인리히 보르트펠트, 1992년.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으로부터 민주 사회주의당(PDS)으로 - 민주주의로의 전환인가? 베를린, 부비어 출판사.

Bortfeldt, Heinrich. 1992. Von der SED zur PDS: Wandlung zur Demokratie? Berlin: Bouvier.

빌헬름 뷁르클린 및 힐케 레벤스토르프, 1997년. 독일의 엘리트들 - 모집과 통합. 오프라덴, 레스케 운트 부트리히 출판사.

Bürklin, Wilhelm/Rebenstorf, Hilke. 1997. Eliten in Deutschland. Rekrutierung und Integration. Opladen: Leske + Budrich.

독일 기민당(CDU), 1993년. 독일 통일의 3년 - 크나큰 도전과 우리 조국을 위한 기회. 본, CDU. 1993. Drei Jahre Deutsche Einheit. Große Herausforderungen und Chancen für unser Land. Bonn.

체라르도 키아로몬테, 1992년. 민주 사회주의당(PDS), 어려운 출발 - 예고된 변혁의 고

통과 희망. 나폴리: 쿠엔 출판사.

Chiaromonte, Gerardo. 1992. PDS: un decollo difficile; travagli e speranze di una trasformazione annunciata. Neapel: Cuen.

한스-울리히 데를리엔, 클라우스 쾨니히, 볼프강 렌취, 볼프강 자이벨 및 헬무트 볼만, 1997년. 동독에서의 정치 및 행정의 구조적 변환. 오프라덴, 레스케 운트 부트리히 출판사.
Derlien, Hans-Ullrich/König, Klaus/Renzsch, Wolfgang/Seibel, Wolfgang/Wollmann, Hellmut. 1997. Transformation der politisch-administrativen Strukturen in Ostdeutschland. Opladen: Leske + Budrich.

한스-울리히 데를리엔 및 슈테판 로크, 1994년. “새로운 정치 엘리트인가? 새로 설립된 5개 주 의회 소속 의원의 모집 및 경력”. 참고: 의회사안 회보1-4/1994, p. 61 - 94
Derlien, Hans-Ullrich/Lock, Stefan. 1994. Eine neue politische Elite? Rekrutierung und Karrieren der Abgeordneten in den fünf neuen Landtagen. In: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1-4/1994, S. 61-94.

독일 연방의회, 1993년. 민주 사회주의당(PDS)의 결산 보고, 연방의회 제 12차 회기 상 반기 동안의 좌파 리스트. 본.

Deutscher Bundestag. 1993. Bilanz der PDS, Linke Liste zur Halbzeit der 12. Legislaturperiode des Bundestages. Bonn.

호르스트 디트첼, 2007년. 연속성과 변화 -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민주 사회주의당 (PDS) 목표 설정. 베를린, 헬레 판케 출판사.

Dietzel, Horst. 2007. Kontinuität und Wandel: die Programmatik der PDS von 1990 bis 2007. Berlin: Helle Panke.

크리스티안 폰 디트푸르트, 1998년. 동독에 대한 그리움 또는 좌파적 대안 - 민주 사회 주의당(PDS)에서의 여행. 쾰른, 키펜호이어 운트 비취 출판사.

Ditfurth, Christian von. 1998. Ostalgie oder linke Alternative: meine Reise durch die PDS. Köln: Kiepenheuer und Witsch.

미하엘 에딩거, 2002년. 동독 변혁 시기에 있어서의 헌법 제정 - 튀링엔 주정부 및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본 비교 분석. 참고: 튀링엔 주정부의회 연보. 에어푸르트. P. 68 - 72

Edinger, Michael. 2002. Verfassungsgebung in der ostdeutschen Transformation - eine vergleichende Analyse zu Thüringen und Brandenburg. In Jahrbuch des Thüringer Landtags. S. 68-72.

하르트무트 에쎄(발행인), 2000년. 변혁기 이후의 변화. 비스바덴, 서독 출판사.
Esser, Hartmut (Hrsg.). 2000. Der Wandel nach der Wende. Wiesbaden: Westdeutscher Verlag.

베른트 파울렌바흐 및 하인리히 포트호프(발행인), 2001년. 독일 사회 민주주의와 1989년 및 1990년의 대혁명. 베를린, 클라텍스트 출판사.
Faulenbach, Bernd/Potthoff, Heinrich (Hrsg.). 2001. Die deutsche Sozialdemokratie und die Umwälzung 1989/90. Berlin: Klartext.

일제 피셔(발행인), 2009년. 통일, 그리고 사회적 형성 -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사민당 (SPD) 지도부 문서를 기반으로 한 자료. 본, 디츠 출판사.
Fischer, Ilse (Hrsg.). 2009. Die Einheit. Sozial gestalten. Dokumente aus den Akten der SPDFührung 1989/1990. Bonn: Dietz Verlag.

페터 플라이쉬만, 1995년. 녹색당이 표방하는 국가와 민주주의 - 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컨셉 및 전략에 관한 연구조사. 1980년 녹색당의 창당부터 1990년 독일 통일을 맞이한 시점까지를 중심으로. 베를린, 베를린 자유대학 박사학위 논문.
Fleischmann, Peter. 1995. Nation und Demokratie bei den Grünen. Eine Untersuchung

der politischen Konzeptionen und Strategien der Partei Die Grünen von Ihrer Gründung 1980 bis zu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1990. Berlin: Dissertation an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안드레아스 프라우데, 1993년. “현실적 사회주의” 대신에 “개혁적 사회주의”를 채택할 것인가?: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으로부터 민주 사회주의당(PDS)으로. 뮌스터, LIT 출판사.

Fraude, Andreas. 1993. “Reformsozialismus” statt “Realsozialismus” : von der SED zur PDS. Münster: LIT.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브란덴부르크 주정부 사무소, 1995년. 민주 사회주의당(PDS) – 구조, 프로그램 및 역사에 관한 이해. 1995년 2월 18일 포츠담에서 열린 회의 발표자료. Friedrich-Ebert-Stiftung / Landesbüro Brandenburg (Hrsg.) 1995. Die PDS: Strukturen, Programm, Geschichtsverständnis. Beiträge einer Tagung am 18.02.1995 in Potsdam.

그레고르 기지, 1992년. 이의 있음! 대화, 서신 및 연설, 베를린, 알렉산더 출판사.
Gysi, Gregor. 1992. Einspruch! Gespräche, Briefe, Reden. Berlin: Alexander-Verlag.

그레고르 기지(발행인), 1990년. 우리에게 제 3의 길이 필요하다. 민주 사회주의당(PDS)의 프로그램 및 당위성. 함부르크: 콘크리트 리테라투어 출판사.

Gysi, Gregor (Hrsg.). 1990. Wir brauchen einen dritten Weg: Selbstverständnis und Programm der PDS. Hamburg: Konkret Literatur Verlag.

올라프 하르트케, 1990년. 결론적으로는 좌파인가? – 민주 사회주의당(PDS)의 당위성에 관한 격론; 목표 설정, 구조, 정책 이해. 베를린, 진보적 연단.

Hartke, Olaf. 1990. Konsequenz links? Kontroverses zum Selbstverständnis der PDS; Programmatik, Strukturen, Politikverständnis. Berlin: Podium Progressiv.

뤼디거 헨켈, 1994년. 국가 정당의 역할 수행에 있어 - 동독의 정당과 조직에 관하여, 동독 정당 및 주요 조직의 역량을 검증하는 독립위원회 발행.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회사.
Henkel, Rüdiger. 1994. Im Dienste der Staatspartei. Über Parteien und Organisationen der DDR, hrsg. von der Unabhängigen Kommission zur Überprüfung des Vermögens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DDR. Baden-Baden: Nomos-Verlags-Gesellschaft

볼프강 헤르츠베르크 및 파트릭 폰 주어 뮐렌(발행인), 1993년.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 1989년 동독의 사회 민주주의 첫 출발. 코부르크: 새로운 언론 출판사.
Herzberg, Wolfgang/von zur Mühlen, Patrik (Hrsg.). 1993. Auf den Anfang kommt es an. Sozialdemokratischer Neubeginn in der DDR 1989. Coburg: Neue Presse.

볼프강 애거 및 미하엘 발터, 1998년. 독일을 위한 동맹. 쾰른, 벨라우 출판사.
Jäger, Wolfgang/Walter, Michael. 1998. Die Allianz für Deutschland. Köln: Böhlau.

에크하르트 예쎄 및 콘라드 뢰프(발행인), 1998년. 독일의 선거. 베를린, 둔크너 운트 홈볼트 출판사.
Jesse, Eckhard/Löw, Konrad (Hrsg.). 1998. Wahlen in Deutschland. Berlin: Duncker und Humblot.

우베 운, 2009년. 정당 및 협회 시스템의 변화. 참고: 정치와 현대사, 28/2009, p. 28-34
Jun, Uwe. 2009. Wandel des Parteien- und Verbändesystems.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8/2009, S. 28-34.

슈테펜 캄라트, 1996년. 민주주의 새 출발 -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페터 랑 출판사.
Kammradt, Steffen. 1996. Der Demokratische Aufbruch. Frankfurt/Main: Peter Lang.

프란츠-루드비히 크네마이어(발행인), 1991년. 동독에서의 지방자치제도 구축. 바덴-

바덴, 노모스 출판사.

Knemeyer, Franz-Ludwig (Hrsg.). 1991. Aufbau kommunaler Selbstverwaltung in der DDR. Baden-Baden: Nomos.

크리스토프 코프케(편집자), 1990년. 민주 사회주의당(PDS) - 좌파를 위한 전망인가? 베를린, 젊은 민주주의자 베를린 주정부협회.

Kopke, Christoph (Red.). 1990. PDS - Perspektiven für die Linke? Berlin: Landesverband Berlin der Jungdemokraten.

칼-루돌프 코르테, 1994년. 기회를 잘 이용했는가? 독일 통일을 위한 정책. 베를린: 캠퍼스 출판사.

Korte, Karl-Rudolf. 1994. Die Chance genutzt? Die Politik zur Einheit Deutschlands. Berlin: Campus.

에버하르트 쿠르트(발행인), 1999년. 1970년대부터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 독재 체제가 붕괴할 때 까지 동독에서의 야당. 오프라덴, 레스케 운트 부트리히 출판사.

Kuhrt, Eberhard (Hrsg.). 1999. Opposition in der DDR von den 70er Jahren bis zum Zusammenbruch der SED-Herrschaft. Opladen: Leske + Budrich.

요한네스 쿠페, 1991년.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으로부터 민주 사회주의당(PDS)으로. 본, 전독일 연구소.

Kuppe, Johannes. 1991. Von der SED zur PDS. Bonn: Gesamtdeutsches Institut.

페터 요아힘 라프, 1998년. 매각 사태 - 연합정당의 최후. 베를린, 에디션 오스트 출판사.

Lapp, Peter Joachim. 1998. Ausverkauft. Das Ende der Blockparteien. Berlin: edition ost.

프랑크 뢰블러, 요제프 슈미트 및 하인리히 티어만(발행인), 1991년. 조직화 문제의 관점에서 살펴 본 통일 - 각 정당 및 협회의 전 독일적 연합. 보쿰, 브록마이어 대학 출판사.

Löbler, Frank/Schmid, Josef/Tiermann, Heinrich (Hrsg.). 1991. Wiedervereinigung als Organisationsproblem: Gesamtdeutsche Zusammenschlüsse von Parteien und Verbänden. Bochum: Universitäts-Verlag Brockmeyer.

파트릭 모로, 1992년. 민주 사회주의당(PDS), 포스트 공산주의 정당의 해부. 베를린, 부비어 출판사.

Moreau, Patrick. 1992. PDS: Anatomie einer postkommunistischen Partei. Berlin: Bouvier.

베른트 무지올레크 및 카롤라 부트케(발행인), 1991년. 동독의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정치적 운동 및 정당. 베를린, 바시스트룩 출판사.

Musiolek, Berndt/Wuttke, Carola (Hrsg.). 1991. Parteien und politische Bewegungen im letzten Jahr der DDR. Berlin: Basisdruck.

게로 노이게바우어/라하르트 슈퇴쓰, 1999년. 민주 사회주의당(PDS), 역사, 조직, 유권자 및 경쟁. 오프라덴, 프레쎬 드룩 출판사.

Neugebauer, Gero/Stöss, Richard 1999 Die PDS. Geschichte, Organisation, Wähler, Konkurrenten. Opladen: Presse Druck.

게로 노이게바우어, 1996년. 민주 사회주의당(PDS), 역사, 조직, 유권자 및 경쟁. 오프라덴: 레스케 운트 부트리히 출판사.

Neugebauer, Gero. 1996. Die PDS: Geschichte, Organisation, Wähler, Konkurrenten. Opladen: Leske und Budrich.

게로 노이게바우어, 1996년. 민주 사회주의당(PDS) 및 노동조합. 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교육정보 담당부.

Neugebauer, Gero. 1996. PDS und Gewerkschaften. Bonn: Friedrich-Ebert-Stiftung, Abteilung GPI.

마야 노이만 및 디안 쉐폴드, 1996년. 독일 지방자치법의 발전 양상, 민주화 및 탈 중앙화의 양상인가? 바젤, 비르켄호이저 출판사.

Neumann, Maja/Schefold, Dian. 1996. Entwicklungstendenzen der Kommunalverfassungen in Deutschland. Demokratisierung und Dezentralisierung? Basel: Birkenhäuser.

베른트 오쿤(발행인), 1992년. 시스템 이전보다는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변혁이 나올 것인가? 중부 유럽 및 동부 유럽에서의 변혁. 라이프치히, 라이프치히 대학교 출판사.

Okun, Bernd (Hrsg.). 1992. Systemtransformation als Systemübertragung?: Umbrüche in Mittel- und Osteuropa. Leipzig: Leipziger Universitäts-Verlag.

민주 사회주의당(PDS)/좌파 리스트(발행인), 1994년. 신탁관리청에 관한 개요 - 신탁관리청의 임무, 활동, 결과 및 보상 문제에 관하여. 에거스도르프, 마티아스 키르히너 출판사.

PDS/Linke Liste (Hrsg.). 1994. Blickpunkt Treuhandanstalt. Die THA - Auftrag, Tätigkeit, Folgen, Wiedergutmachung. Eggersdorf: Matthias Kirchner.

파비안 페터슨, 1998년.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 동안 독일 통일이 진행될 당시의 사민당(SPD) 지도부의 야당 전략 - 자체 봉쇄를 통한 전략적 마비상태인가? 함부르크, Dr. 코바트 출판사.

Peterson, Fabian. 1998. Oppositionsstrategie der SPD-Führung im deutschen Einigungsprozeß 1989/90. Strategische Ohnmacht durch Selbstblockade? Hamburg: Dr. Kovač.

한스 라이헬트, 1997년. 농민의 피리가락인가? 독일 민주주의 농민당(DBD)의 역사 - 1948년부터 1990년까지. 베를린, 에디션 오스트 출판사.

Reichelt, Hans. 1997. Blockflöten - oder was? Zur Geschichte der Demokratischen Bauernpartei Deutschlands (DBD) 1948 bis 1990. Berlin: edition ost.

미하엘 리히터, 1995년. “연합정당 기민당(CDU)의 역할, 의미, 그리고 작용 가능성”. 참고: 독일 연방의회 제 12차 선거회기(발행인), 전문 연구 위원회 자료 ”독일에서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 독재 역사 및 결과의 청산”, 제 II권, 권력, 결정, 그리고 책임에 관하여. 바덴-바덴/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P. 2587 - 2638.

Richter, Michael 1995. “Rolle, Bedeutung und Wirkungsmöglichkeiten der Blockparteien – die CDU”, in: Deutscher Bundestag 12. Wahlperiode (Hrsg.) : Materialien der Enquete-Kommission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in Deutschland”, Bd. II, Macht, Entscheidung, Verantwortung. Baden-Baden/ Frankfurt amMain, S. 2587-2638.

카르스텐 테쓰머, 1991년. 동독의 대변혁 전후 시기에서 바라 본 동서독 정당 관계. 에어랑엔, 독일 현대사 문제 연구협회 출판사.

Tessmer, Carsten. 1991. Innerdeutsche Parteibeziehungen vor und nach dem Umbruch in der DDR. Erlangen: Verlag Deutsche Gesellschaft für zeitgeschichtliche Fragen.

마르쿠스 트롬머, 2002년. 독일 통일로 향한 과거의 발판.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페터랑 출판사.

Trömmer, Markus. 2002. Der vergangene Halt in die Einheit Deutschlands.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디미트리 차초스(발행인), 1991년. 독일 전역에 적용될 정당법 마련을 위한 길. 과도기 기간에 관한 문서자료 첨부.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Tsatsos, Dimitri (Hrsg.). 1991. Auf dem Weg zu einem gesamtdeutschen Parteienrecht. Mit einer Dokumentation der Übergangszeit. Baden-Baden: Nomos.

독립위원회, 1993년. 동독 정당 및 주요 조직의 역량을 검증하는 제2차 중간 보고서. 베를린, 독립위원회.

Unabhängige Kommission. 1993. Zweiter Zwischenbericht zur Überprüfung des

Vermögens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DDR, Berlin: Unabhängige Kommission.

한스-요아힘 베엔 및 페터 R. 바일레만(발행인), 1990년. 새로운 시기를 맞이한 정당들 - 비공산주의 정당과 동독의 정치적 통합. 멜레,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Veen, Hans-Joachim und Weilemann, Peter R. (Hrsg.). 1990. Parteien im Aufbruch, Nichtkommunistische Parteien und politische Vereinigungen der DDR, Melle: Konrad-Adenauer-Stiftung.

크리스티안 벨첼, 1992년.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으로부터 민주 사회주의당(PDS)으로 - 독트린에 기반한 국가 정당이 경쟁 체제 하의 정치 정당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페터 랑 출판사.

Welzel, Christian. 1992. Von der SED zur PDS: eine doktrinegebundene Staatspartei auf dem Weg zu einer politischen Partei im Konkurrenzsystem?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6. 사회적 변화의 영역

90년대 - 그 갑작스러운 종말과 “처리방법”.

<http://www.tvddr.de/geschichte/90er>.

90er - Das jähe Ende und die “Abwicklung”. <http://www.tvddr.de/geschichte/90er>.

페터 암즐러/베르너 바이덴펠트(발행인), 1995년. 독일인을 하나로 뭉치는 것은 무엇이고, 둘로 나누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독일 통일 이후의 분위기 및 여론. 마인츠, 독일연구그룹.

Amsler, Peter/Weidenfeld, Werner (Hrsg.). 1995: Was eint und was trennt die Deutschen? Stimmung- und Meinungsbilder nach der Vereinigung. Mainz:

Forschungsgruppe Deutschland.

아른트 바우어캄퍼(발행인), 1998년. 이중적인 현대사 - 1945년부터 1990년까지의 동서독 관계. 본, 디츠 출판사.

Bauerkämper, Arnd (Hrsg.). 1998. Doppelte Zeitgeschichte. Deutsch-deutsche Beziehungen 1945-1990. Bonn: Dietz.

울리히 베커, 호르스트 베커, 발터 롤란트, 1992년. 새로운 출발과 두려움 사이에서 - 독일 통일 이후 동독 및 서독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의 감정. 뒤셀도르프, 에콘-출판사.
Becker, Ulrich/Becker, Horst/Rohland, Walter. 1992. Zwischen Angst und Aufbruch. Das Lebensgefühl der Deutschen in Ost und West nach der Wiedervereinigung. Düsseldorf: Econ-Verlag.

페터 벤티, 1992년. 우리의 유산 - 동독은 우리에게 무엇이었고,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함부르크/취리히, 루흐터한트-문학출판사.

Bender, Peter. 1992. Unsere Erbschaft. Was war die DDR - was bleibt von ihr? Hamburg/Zürich: Luchterhand-Literaturverlag.

게오르크 C. 베르취, 에른스트 헤틀러, 마티아스 디츠, 2008년.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SED) - 멋진 통일 설계. 쾰른, 타셴 출판사.

Bertsch, Georg C./Hedler, Ernst/Dietz, Matthias. 2008. SED. Schönes Einheitsdesign. Köln: Taschen Verlag.

게르하르트 베지어 및 슈테판 볼프(발행인), “목사, 기독교인 및 천주교인,“ 구 동독 국가안보 및 교화 담당 연방부처. 노이키르헨-블뤼, 노이키르헨너 출판사.

Besier, Gerhard/Wolf, Stephan (Hrsg.). “Pfarrer, Christen und Katholiken.” Das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der ehemaligen DDR und die Kirch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요한네스 베틀게, 2006년. 동독의 브랜드 - 틈새 생존과 시장 지배력 사이에서. 동독 브랜드의 성공에 관한 분석: 로트캡헨, 오메가 및 플로레나 브랜드의 예를 들어. 자르브뤼켄, Dr. 뮐러 출판사.

Bethge, Johannes. 2006. Ostmarken zwischen Nischendasein und Marktführerschaft. Eine Analyse des Erfolgs ostdeutscher Marken am Beispiel der Marken Rotkäppchen, Omega und Florena, Saarbrücken: Verlag Dr. Müller

엔스 비스키, 2005년. 독일 문제 - 통일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는 이유. 베를린, 로블트 출판사.

Bisky, Jens. 2005. Die deutsche Frage. Warum die Einheit unser Land gefährdet. Berlin: Rowohlt.

카를 브룩마이어 및 게르다 하우페(발행인), 1989년. 동독 및 동독지역 주에서의 시민운동에 관하여. 오프라텐, 서독 출판사.

Bruckmeyer, Karl/Haufe, Gerda (Hrsg.). 1989. Die Bürgerbewegungen in der DDR und in den ostdeutschen Ländern.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울리히 부쉬, 볼프강 쿤 및 클라우스 슈타이니츠(발행인), 2009년. 동독의 발전과 쇠퇴. 함부르크, VSA 출판사.

Busch, Ulrich, Kühn, Wolfgang und Steinitz, Klaus (Hrsg.). 2009. Entwicklung und Schrumpfung in Ostdeutschland. Hamburg: VSA Verlag.

크리스티안 디트리히 및 우베 슈바베(발행인), 1994년. 적과 친구, 1981년부터 1989년 10월 9일까지 라이프치히에서 있었던 평화의 기도 행사에 관한 문서 자료. 라이프치히. Dietrich, Christian/Schwabe, Uwe (Hrsg.). 1994. Freunde und Feinde. Dokumente zu den Friedensgebeten in Leipzig zwischen 1981 und dem 9. Oktober 1989. Leipzig:

귄터 드로스도프스키, 1991년. “분단된 국가 상황에서의 독일어”. 독일 언어 및 시문학

아카데미, 1991년도 연보.

Drosdowski, Günter, 1991. "Deutsch – Sprache in einem geteilten Land". Deutsche Akademie für Sprache und Dichtung: Jahrbuch 1991.

라이너 에커트, 일코-자샤 코발크추크 및 울리케 포페, 1995년. 자기 주장 및 조율의 중간에서 – 동독에서의 야당 및 저항의 형태. 베를린, 크리스토프 링크스 출판사.

Eckert, Rainer/Kowalczyk, Ilko-Sascha/Poppe, Ulrike, 1995. Zwischen Selbstbehauptung und Anpassung. Formen des Widerstandes und der Opposition in der DDR. Berlin: Ch. Links Verlag.

볼프강 엥글러, 1999년. 동독 주민,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연구. 베를린, 아우푸바우 출판사.

Engler, Wolfgang, 1999. Die Ostdeutschen, Kunde von einem verlorenen Land. Berlin: Aufbau-Verlag.

올리버 에리히엘로 및 아른트 취쉴, 2009년. 동독 성공의 비밀 – 뛰어난 동독 브랜드의 생존 전략 및 이를 통해 얻게되는 교훈. 비스바덴, 가블러 출판사.

Errichiello, Oliver/Zschiesche, Arnd, 2009. Erfolgsgeheimnis Ost. Survivalstrategien der besten Marken – und was Manager daraus lernen können. Wiesbaden: Gabler.

크리스텔 파버 및 트라우테 마이어(발행인), 1992년. 자유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서 – 통일이라는 코르셋. 독일 통일이 동서독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 베를린, 시그마 에디션 출판사.

Faber, Christel/Meyer, Traute (Hrsg.), 1992. Unterm neuen Kleid der Freiheit das Korsett der Einheit. Auswirkungen der deutschen Vereinigung für Frauen in Ost und West. Berlin: Edition Sigma.

하르트무트 페어, 1996년. 독자적인 대중과 사회적 운동 – 동독과 폴란드에 있었던 시민

운동에 관한 사례 연구. 오프라덴, 레스케 운트 부트리히 출판사.

Fehr, Hartmut. 1996. Unabhängige Öffentlichkeit und soziale Bewegungen. Fallstudien über die Bürgerbewegungen in Polen und der DDR. Opladen: Leske + Budrich.

산드라 펜드리히/마티아스 실링, 2003년. 2012년까지 튀링엔에서 실시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국민개발 프로그램의 효과. 청소년 관리국을 위한 실무 지침서. 주정부 복지국정부의 의뢰로 제작된 것임. 튀링엔 연방 청소년 관리국 제 5부서.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어린이 및 청소년 지원 통계 작업관리국.

Fendrich, Sandra/Schilling, Matthias. 2003. Auswirkungen der Bevölkerungsentwicklung auf die Arbeitsfelder der Kinder- und Jugendhilfe bis zum Jahre 2012 in Thüringen. Eine Arbeitshilfe für Jugendämter, erstellt im Auftrag des Landesamts für Soziales und Familie, 18 Abteilung 5 – Landesjugendamt Thüringen, Dortmund: Dortmunder Arbeitsstelle Kinderund Jugendhilfestatistik.

카를 빌헬름 프리케, 1991년. 안보국 내부분서 – 권력, 구조 및 동독 슈타지의 해체 – 분석 및 문서 자료. 쾰른, 학술과 정치 출판사.

Fricke, Karl Wilhelm. 1991. MfS intern, Macht, Strukturen, Auflösung der DDRStaatssicherheit. Analysen und Dokumentation. Köln: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토마스 겐지케, 1998년. 새로운 연방 주민 – 통합 없이 진행되는 변혁의 과정. 오프라덴, 서독 출판사.

Gensicke, Thomas. 1998. Die neuen Bundesbürger. Eine Transformation ohne Integration.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크리스티아네 게른, 카를-디터 오프 및 페터 포쓰, 1993년. 국민 자신의 혁명. 슈투트가르트, 클레트-코타 출판사.

Gern, Christiane/Opp, Karl-Dieter/Voß, Peter. 1993. Die volkseigene Revolution.

Stuttgart:Klett-Cotta.

1990년 3월 18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인민회의 선거에 관한 법. 1990년 2월 20일.
www.verfassungen.de/de/ddr/wahlgesetz90.htm. 베를린.

Gern, Christiane/Opp, Karl-Dieter/Voß, Peter. 1993. Die volkseigene Revolution.
Stuttgart: Klett-Cotta.

게르트-요아힘 글래쓰너(발행인), 1996년. 통일 이후의 독일 - 현대사를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 암스테르담 및 애틀란타, GA, 로도피 출판사.

Glaeßner, Gert-Joachim (Hrsg.). 1996. Germany after Unification: Coming to Terms with the Recent Past. Amsterdam, Atlanta: Ga: Rodopi.

만프레트 괴르테마커, 2005년. 통일을 향한 길 - 정치적 교육에 관한 정보. 제 250권.
본, 연방 정치교육센터.

Görtemaker, Manfred. 2005. Der Weg zur Einheit.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Heft 250.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라이너 그리스, 2003년. 매체로서의 제품 - 동독과 서독에서의 제품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문화사. 라이프치히, 라이프치히 대학 출판사

Gries, Rainer. 2003. Produkte als Medien. Kulturgeschichte der Produktkommunikation in der Bundesrepublik und der DDR. Leipzig: Leipziger Universitäts-Verlag.

앙드레 한, 1998년. 협상 테이블 - 국민과 권력. 동독의 마지막 시기에 있어 정치 문화. 베를린, 암 파르크 출판사.

Hahn, André. 1998. Der Runde Tisch. Das Volk und die Macht. Politische Kultur im letzten Jahr der DDR. Berlin: Verlag am Park.

안네그레트 한/기젤라 푸허/헨닝 샬러/ 로타 샤르리히(발행인), 1990년. 1989년 11월 4

- 일 - 저항, 인간, 그리고 연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프로펠라엔 출판사.
- Hahn, Annegret/Pucher, Gisela/Schaler, Henning/Scharrich, Lothar (Hrsg.). 1990. 4. November 89. Der Protest. Die Menschen. Die Reden. Frankfurt/Main: Propyläen.
- 하르트무트 호이썬만/디터 래플레/발터 지벨, 2008년. 도시정책. 본, 연방정치교육센터.
- Häußermann, Hartmut/Läpple, Dieter/Siebel, Walter. 2008. Stadtpolitik.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 미하엘 하이네만, 2007년. 동독에서 간식 산업의 역사. 레버쿠젠, IZS 출판사.
- Heinemann, Michael. 2007. Geschichte der Süßwarenindustrie in der DDR, Leverkusen: IZSVerlag.
- 로버트 헤트라게/카를 렌츠(발행인), 1995년. 변환기 이후의 독일. 뮌헨, 벡 출판사
- Hettlage, Robert/Lenz, Karl (Hrsg.). 1995. Deutschland nach der Wende. München: Beck,
- 올라프 게오르그 클라인, 2004년. 당신들은 우리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동독과 서독은 왜 속내를 터놓고 함께 이야기하지 않는가. 베를린, 프로 비즈니스 출판사.
- Klein, Olaf Georg. 2004. Ihr könnt uns einfach nicht verstehen! Warum Ost- und Westdeutsche aneinander vorbeireden. Berlin: Pro Business.
- 위의 저자와 동일, 2002년. “동독과 서독은 왜 속내를 터놓고 함께 이야기하지 않는가...”. 참고: 정치와 현대사, 2002년 9월 16일. p. 3 - 5.
- Ders. 2002. “Warum Ost- und Westdeutsche aneinander vorbeireden ……”. In: Politik und Zeitgeschichte, 16.09.2002. S. 3-5.
- 프란치스카 클라이너(발행인), 2009년. 동독이 남겨 놓은 것. 베를린, 오일렌슈피겔 출판사.

Kleiner, Franziska (Hrsg.). 2009. Was von der DDR blieb. Berlin: Eulenspiegel-Verlag.

위의 저자와 동일(발행인), 2006년. 동독에 관한 서류더미. 베를린, 오일렌슈피겔 출판사.
Dies, 2006. Das DDR-Sammelsurium. Berlin: Eulenspiegel-Verlag.

콘라트 라이, 2009년. 동독 상품의 개선 행렬 - 독일 통일이 가져 온 정서 및 상품에 관한 역사. <http://www.oeko-net.de/kommune/kommune1-97/tlay197.html>.
Lay, Conrad, 2009. Der Siegeszug der Ostprodukte - Zur Mentalitäts- und Produktgeschichte der deutschen Vereinigung. <http://www.oeko-net.de/kommune/kommune1-97/tlay197.html>.

한스-게오르그 레만, 1995년. 독일의 연대기 - 1945년부터 1995년까지. 본, 부비어 출판사.
Lehmann, Hans-Georg, 1995. Deutschland-Chronik, 1945-1995. Bonn: Bouvier.

슈테판 레센니히 및 프랑크 놀마이어(발행인), 2006년. 독일의 분열된 사회 -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캠퍼스 출판사.
Lessenich, Stephan/Nullmeier, Frank (Hrsg.). 2006. Deutschland eine gespaltene Gesellschaft. Frankfurt am Main: Campus.

에버하르트 만샤츠, 1994. 동독이 남긴 유산으로서의 청소년 지원. 뮌스터, 보툼 출판사.
Mannschatz, Eberhard, 1994. Jugendhilfe als DDR-Nachlass. Münster: Votum.

이나 메르켈, 1999년. 유토피아와 욕구 - 동독에서의 소비문화 역사. 쾰른, 빌라우 출판사
Merkel, Ina, 1999. Utopie und Bedürfnis. Die Geschichte der Konsumkultur in der DDR. Köln: Böhlau.

위의 저자와 동일(발행인), 기적의 경제 - 60년대 동독에서의 소비문화. 쾰른, 빌라우

출판사

Dies. (Hrsg.). 1996. Wunderwirtschaft. DDR-Konsumkultur in den 60er Jahren. Köln: Böhlau.

하이너 모일레만, 2002년. “통일된 독일에서의 가치 및 가치 변화”. 참고: 정치와 현대사 2002년 9월 15일. p. 13 - 22 .

Meulemann, Heiner, 2002. Werte und Wertwandel im vereinten Deutschland. In: Politik und Zeitgeschichte 15.9.2002, S. 13-22.

에어하르트 노이버트, 2008년. 우리들의 혁명 - 1989년 및 1990년 당시의 이야기. 뮌헨, 피퍼 출판사.

Neubert, Ehrhart. 2008. Unsere Revolution. Die Geschichte der Jahre 1989/90. München: Piper.

위의 저자와 동일, 1990년. 신교도적 혁명. 베를린, 콘텍스트 출판사.
Ders. 1990. Eine protestantische Revolution. Berlin: Kontext-Verlag.

클라우스 오페, 1994년. 빛의 끝에 나있는 터널 - 새로운 동독에서의 정치적 변환에 관한 연구.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캠퍼스 출판사.

Offe, Claus. 1994. Der Tunnel am Ende des Lichts: Erkundungen der politischen Transformation im Neuen Osten. Frankfurt am Main: Campus.

디르크 필립젠(발행인), 1993년. 우리가 국민이다 - 1989년 동독의 혁명적인 가을로부터의 목소리. 더럼, NC: 듀크 대학 출판사.

Philipsen, Dirk (Hrsg.). 1993. We Were the People: Voice from East Germany's Revolutionary Autumn of 1989.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루트 라이어 및 뢰디거 래처(발행인), 1996년. 동독에 근무하는 서독 관리에게 지급되는

“추가 수당“ 및 “동독 주민 증명서“에 관하여 - 동서독에 관한 논의. 베를린, 아우프바우-타셴부흐 출판사

Reiher, Ruth/Läzer, Rüdiger (Hrsg.). 1996. Von “Buschzulage” und “Ossinachweis”. Ost-West-Deutsch in der Diskussion. Berlin: Aufbau-Taschenbuch-Verlag.

롤프 라이씨히(발행인), 1993년. 미래로 향하는 귀로 - 동독에서의 험난한 변혁 과정 진행에 관하여. 프랑크푸르트, 캠퍼스 출판사.

Reißig, Rolf (Hrsg.). 1993. Rückweg in die Zukunft. Über den schwierigen Transformationsprozeß in Ostdeutschland. Frankfurt: Campus-Verlag.

리타 쥐쓰무트 및 H. 슈베르트(발행인), 1992년. 여성들도 통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뮌헨, 피퍼 출판사.

Süssmuth, Rita/Schubert, Helga (Hrsg.). 1992. Bezahlen die Frauen die Wiedervereinigung? München: Piper.

A. 브래들리 싱레톤, 매리언 J. 기본 및 캐트린 S. 맥, (발행인), 1995년. 독일 통일의 차원 - 경제적, 사회적 및 법적 분석. 볼더, CO: 웨스트뷰 출판사.

Shingleton, A. Bradley/Gibbon, Marian J. /Mack, Kathryn S. (Hrsg.). 1995. Dimensions of German Unification: Economic, Social, and Legal Analyses. Boulder, Co: Westview Press.

지모네 티파흐-슈나이더, 1998년. 동독 선전에 관한 대사전. 캠페인, 광고문구, 메이커, 및 상표. 베를린, 슈바르츠코프 운트 슈바르츠코프 출판사.

Tippach-Schneider, Simone. 1998. Das große Lexikon der DDR-Werbung. Kampagnen und Werbesprüche, Macher und Produkte, Marken und Warenzeichen. Berlin: Schwarzkopf & Schwarzkopf.

라인하르트 울브리히, 1996년. 훌륭한 동독 상품에 관한 소사전. 쾰텐, 미카도 출판사.

Ulbrich, Reinhard. 1996. Kleines Lexikon großer Ostprodukte. Köthen: Micado-Verlag.

카린 바이쓰/할라 킨델베르거(발행인), 2006년. 자본 이전 제공 및 교육적 성공 사이의 동독 이주민. 프라이부르크 임 브라이스가우, 람버투스 출판사.

Weiss, Karin/Kindelberger, Hala (Hrsg.). 2006. Zuwanderer in Ostdeutschland zwischen Transferexistenz und Bildungserfolg. Freiburg im Breisgau: Lambertus-Verlag.

브리기테 용, 1999년. 조국의 승리 - 독일 통일 및 여성의 격하. 앤 아버: 미시건 대학 출판사.

Young, Brigitte. 1999. Triumph of the Fatherland: German Unification and the Marginalization of Wome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자비네 침머링 및 체노 침머링, 1990년. 동독의 새로운 연대기. 베를린, 트리뷴 출판사. Zimmerling Sabine/Zimmerlin Zeno. 1990. Neue Chronik DDR. Berlin: Tribüne Verlag.

7. 미디어

청소년 문학 사업공동회 및 교육학술노조(GEW) 미디어. 2001년. 청소년 문학 및 미디어 기고문. 제12권. 2001년 부록. 바인하임, 유벤타 출판사.

Arbeitsgemeinschaft Jugendliteratur und Medien der GEW. 2001. Beiträge Jugendliteratur und Medien. 12. Beiheft 2001. Weinheim: Juventa Verlag.

지모네 바르크/지크프리트 로카티스(발행인), 2003년. 세계로 향한 창 - 동독의 국민과 세계 출판사 이야기. 베를린. 크리스토프 링크스 출판사.

Barck, Simone/Lokatis, Siegfried (Hrsg.). 2003. Fenster zur Welt. Eine Geschichte des

DDRVerlags Volk und Welt, Berlin: Ch, Links Verlag.

헬무트 G. 바우어 및 슈테판 오리(발행인), 1996년. 콘텐츠 구성과 테크닉의 활용 - 통일된 독일의 미디어 발전을 위한 기고문. 베를린, 비스타스 출판사.

Bauer, Helmut G. /Ory, Stephan (Hrsg.). 1996. Inhalt gestalten, Technik nutzen. Beiträge zur Medienentwicklung im vereinten Deutschland. Berlin: Vistas Verlag.

틸만 벡크, 1992년.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던 당시 초기 동독 미디어 상에서의 변화 - 노이에 도이칠란트 및 베를리너 차이퉁을 기반으로 장벽이 붕괴된 시점부터 구 동독에서 최초로 주 의회 선거가 개최된 시점까지. 프라이부르크/브라이스가우(학위 논문).

Beck, Tilmann. 1992. Die Veränderung in den früheren DDR-Medien im Jahr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anhand des Neuen Deutschlands und der Berliner Zeitung vom Fall der Berliner Mauer bis zu den ersten Landtagswahlen in der ehemaligen DDR. Freiburg/Breisgau. (Examensarbeit)

라이너 본, 크누트 히켄티어 및 에고 뮐러(발행인), 1992년. 베를린 장벽쇼. 베를린, 라이너 본 출판사.

Bohn, Rainer/Hickenthier, Knut/Müller, Eggo (Hrsg.). 1992. Die Mauer-Show. Berlin: Rainer Bohn Verlag.

비프케 보마스, 2005년. 양대 라디오 방송국. 쾰른 대학교 라디오 경제학 연구소 연구논문. 제 206호. 쾰른.

Bomas, Wiebke. 2005. Der Duale Rundfunk. Arbeitspapiere des Instituts für Rundfunkökonomie an der Universität zu Köln, Heft 206. Köln.

디터 브록마이어 및 에어링 아이히홀츠(발행인), 1999년. 디지털 변혁 - 독일 텔레비전을 둘러싼 투쟁. 함부르크, 인포디스트 출판사.

Brockmeyer, Dieter/Eichholz, Erling (Hrsg.). 1999. Die Digitale Wende. Der K(r)ampf

um das deutsche Fernsehen, Hamburg: Infodienst Verlag.

힐트라우트 카스퍼-헤너 및 이르미 슈바이거(발행인), 2008년. 독일과 문학에서의 변혁 - 언어와 미디어. 괴팅엔, 괴팅엔 대학 출판사.

Casper-Hehne, Hiltraud/Schweiger, Irmay (Hrsg.). 2008. Deutschland und die "Wende" in Literatur, Sprache und Medien. Göttingen: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한니 힐 및 헤르만 마인, 1999년. 공공법상의 라디오 방송국 - 정치적 교육에 관한 정보, 제 260권. 본.

Chill, Hanni/Meyn, Hermann, 1999. Öffentlich-rechtliche Rundfunkanstalten.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Heft 260. Bonn.

베르너 클라우스(발행인), 1991년. 미디어와 변혁, 변혁과 미디어. 베를린, 비스타스 출판사.

Claus, Werner (Hrsg.) 1991. Medien-Wende, Wende-Medien. Berlin: Vistas Verlag.

독일 라디오 방송국 아카이브. <http://1989.dra.de/themendossiers/politik.html>. 2010년 8월 9일.

Deutsches Rundfunkarchiv. <http://1989.dra.de/themendossiers/politik.html>. 09.08.2010.

페터 아이젠만 및 게르하르트 히르셔(발행인), 1992년. 시대 정신에 희생하여 - 학술, 신문방송학 및 정치 교육에 있어서의 동독. 마인츠 및 뮌헨, 폰 하제 운트 쾰러 출판사. Eisenmann, Peter/Hirscher, Gerhard (Hrsg.). 1992. Dem Zeitgeist geopfert. Die DDR in Wissenschaft, Publizistik und politischer Bildung. Mainz, München: v. Hase & Koehler.

유럽의 텔레비전: 독일의 독립성, 정책 및 규제.

http://www.eumap.org/topics/media/television_europe/national/germany/media ger2.pdf. 2010년 8월 9일.

Fernsehen in Europa: Regulierung, Politik und Unabhängigkeit Deutschland.

http://www.eumap.org/topics/media/television_europe/national/germany/media ger2.pdf. 09.08.2010.

라이너 플라스크ampf, 1999년. 주정부 미디어 기구 협회 - 성공적으로 해체된 조직의 보기인가? 독일 라디오 심의회의 정치적 기능과 관리 기능. [http://www.ub.uni-](http://www.ub.uni-konstanz.de/v13/volltexte/1999/144//pdf/144_1.pdf)

[konstanz.de/v13/volltexte/1999/144//pdf/144_1.pdf](http://www.ub.uni-konstanz.de/v13/volltexte/1999/144//pdf/144_1.pdf)

Flaskamp, Reiner. 1999. Die Landesmedienanstalten als erfolgreich scheiternde

Organisation? Kontroll- und politische Funktion der Rundfunkaufsicht in Deutschland.

http://www.ub.uni-konstanz.de/v13/volltexte/1999/144//pdf/144_1.pdf

베아테 길리아르, 1996년. (재)통일의 수사법 - 동독 및 서독 신문을 통한 정체성의 형성. 뉴욕, 페터 랑 출판사.

Gilliar, Beate. 1996. The rhetoric of (re)unification: constructing identity through East and West German newspapers. New York: Peter Lang.

마랄 헤르프스트, 2002년. 민주주의와 입마개 - 국가 설립 및 베를린 장벽 건립 당시의 베를린 독일 라디오 방송국. 베를린, 비스타스 출판사.

Herbst, Maral. 2002. Demokratie und Maulkorb. Der deutsche Rundfunk in Berlin zwischen Staatsgründung und Mauerbau. Berlin: Vistas Verlag.

페터 호프 및 디터 비데만(발행인), 1991년. 변환기 구 동독의 미디어. 베를린, 비스타스 출판사.

Hoff, Peter/Wiedemann, Dieter (Hrsg.). 1991. Medien der Ex-DDR in der Wende. Berlin: Vistas Verlag.

귄터 회네, 2007년. 대백과사전: 동독의 디자인. 쾰른, 코메트 출판사.

Höhne, Günter. 2007. Das Große Lexikon: DDR-Design. Köln: Komet.

귄터 홀츠바이씨히, 1989년. 동독의 매스미디어. 베를린, 홀츠아펠 출판사.

Holzweißig, Günter. 1989. Massenmedien in der DDR. Berlin: Holzapfel.

미디어 위원회의 비공개 회의. 2002년. 새로운 미디어법에 따른 위기와 기회, 디지털화 및 지역 방송, 시민 미디어. <http://www.lfm-nrw.de/downloads/redehahn-09112002.pdf>. 2010년 8월 9일.

Klausurtagung der Medienkommission. 2002. Risiken und Chancen nach dem neuen Mediengesetz. Digitalisierung, Lokalfunk, Bürgermedien. <http://www.lfmnrw.de/downloads/redehahn-09112002.pdf>. 09.08.2010.

멕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정부의회. 2000년. 주정부 정부에 의한 지시, 멕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정부에서 언론 시스템의 발전상에 관한 보고. 슈베린.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Hrsg.). 2000. Unterrichtung durch die Landesregierung. Bericht über die Entwicklung des Pressewesens in Mecklenburg-Vorpommern. Schwerin.

크리스토프 링크스, 2009년. 동독 출판사들의 운명 - 사유화와 이로 인한 결과. 베를린, 크리스토프 링크스 출판사.

Links, Christoph. 2009. Das Schicksal der DDR-Verlage. Die Privatisierung und ihre Konsequenzen. Berlin: Ch. Links Verlag.

지크프리트 로카티스, 2005년. 독일 통일 진행과정 동안의 동독 서점 및 출판사 시스템의 해체. “독일 통일 이후 동서독 도서 시장 및 출판사 통합 - 독일의 예를 통한 교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회의 발표문. 베를린 자유대학, 2005년 10월 20일.

Lokatis, Siegfried. 2005. Die Auflösung des Buchhandels- und Verlagssystems der

DDR im deutschen Vereinigungsprozeß. Vortrag im Rahmen der Internationalen Konferenz "Buchmarkt- und Verlagsintegration zwischen Ost- und Westdeutschla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Lehren aus Deutschland". Freie Universität Berlin, 20.10.2005.

미디어 정책에 관한 개념. <http://www.mdr.de/nachrichten/1214561-hintergrund-1214598.html>. 2010년 8월 9일. Medienpolitische Begriffe. <http://www.mdr.de/nachrichten/1214561-hintergrund-1214598.html>. 09.08.2010.

슈테판 마이, 2005년. 꽃이 만발한 경치 대신 적막한 사막 - 1989년 이후 동독 신문업계가 맞이한 대변혁의 과정 - 특히 작센-안할트 주정부의 상황을 중심으로. 할레-비텐베르크. <http://stefanmey.files.wordpress.com/2010/03/transformation-der-ddr-zeitungslandschaft.pdf>. 2010년 8월 19일.

Mey, Stefan. 2005. Öde Wüste statt blühender Landschaft. Die Transformation der DDRZeitungslandschaft nach 89 mit besonderem Fokus auf die Situation in Sachsen-Anhalt. Halle-Wittenberg. <http://stefanmey.files.wordpress.com/2010/03/transformation-der-ddrzeitungslandschaft.pdf>. 19.08.2010

홀거 뮐러, 2001년. 라디오 시스템의 발전, 역사적 연관성. 뎀플링엔. Müller, Holger. 2001. Entwicklung des Rundfunkwesens. Historische Bezüge. Bempflingen.

엘리자베스 뉘레-노이만, 빈프리트 슐츠 및 위르겐 빌케(발행인), 2002년. 피셔 대사전. 신문방송학, 매스 커뮤니케이션.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피셔 타셴뷔허 출판사. Noelle-Neumann, Elisabeth/Schulz, Winfried/Wilke, Jürgen (Hrsg.). 2002. Fischer Lexikon. Publizistik, Massenkommunikation. Frankfurt am Main: Fischer

Taschenbücher.

동독에서의 언론, 발행부수, 언론인 및 검열. <http://www.mdr.de/damals/lexikon/1601457>. 2010년 8월 9일.

Presse in der DDR, Auflagen, Journalisten, Zensur.

<http://www.mdr.de/damals/lexikon/1601457>. 09.08.2010.

토르스텐 라데마허, 2001년. 텔레비전 역사에 관한 간략한 입문. 지겐:

<http://www.medienstudent.de/studi/tvgesch.htm>. 2010년 8월 9일.

Rademacher, Thorsten, 2001. Kurze Einführung in die Fernsehgeschichte. Siegen:

<http://www.medienstudent.de/studi/tvgesch.htm>. 09.08.2010.

게르하르트 라인, 1990년. 1987년부터 1990년까지의 신교도적 혁명. 독일어 강독본. 베를린, 비허른 출판사.

Rein, Gerhard, 1990. Die protestantische Revolution 1987–1990. Ein deutsches

Lesebuch. Berlin: Wichern–Verlag.

하이데 리텔(발행인), 1994년. 우리와 함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 동독 미디어의 40년. 베를린, 비스타스 출판사.

Riedel, Heide (Hrsg.), 1994. Mit uns zieht die neue Zeit. 40 Jahre DDR–Medien.

Berlin: Vistas Verlag.

마리-크리스틴 룬란트, 1993년. 출판사 시스템에서의 변화 및 구 동독에서의 서점 현황 – 1989년부터 1991년까지를 중심으로. 비스바덴.

Rumland, Marie–Kristin, 1993. Veränderungen im Verlagswesen und Buchhandel der ehemaligen DDR 1989–1991. Wiesbaden.

1945년 이후의 독일 라디오 방송국. <http://www.epoche-3.de/rundfunk.php>. 2010년 8

월 9일.

Rundfunk in Deutschland nach 1945. <http://www.epoche-3.de/rundfunk.php>.
09.08.2010.

독일의 라디오 방송법: 입문. <http://www.jura.uni.sb.de/BIJUS/rundfunk>. 2010년 8월 9일.

Rundfunkrecht in Deutschland: Einführung.
<http://www.jura.uni.sb.de/BIJUS/rundfunk>. 09.08.2010.

한네 이자벨 샤퍼, 1993년. “동독에서의 많은 새로운 변화”, 신연방주에서의 일간지가 갖는 의미에 대한 첫번째 기본 데이터. 뮌헨, 독일 연방군 사회학 연구소. 논문 제 78권. Schaffer, Hanne Isabell, 1993. “Im Osten viel Neues”. Erste Rahmendaten zur Bedeutung der Tagespress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München: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der Bundeswehr, Arbeitspapiere Heft 78.

베아테 슈나이더, 2004년. 동독에서의 미디어 변혁 이후. 정치적 견해 411/2004. Schneider, Beate, 2004. Nach der Medienwende in der DDR. Die politische Meinung 411/2004.

빈프리트 슐츠, 2003년. 정치의 미디어화인가 또는 미디어의 정치화인가? http://www.okwi.wiso.uni-erlangen.de/pdf_dateien/Mainz_2003.pdf. 2010년 8월 9일. Schulz, Winfried, 2003. Mediatisierung der Politik oder Politisierung der Medien? http://www.okwi.wiso.uni-erlangen.de/pdf_dateien/Mainz_2003.pdf. 09.08.2010.

빈프리트 슐츠, 2004년. 미디어화에 관하여, 미디어 이론에 입각한 미디어화라는 개념의 재구성. http://www.okwi.wiso.uni-erlangen.de/pdf_dateien/DGPuK_Medialisierung_end.pdf. 2010년 8월 9일.

Schulz, Winfried. 2004. Medialisierung. Eine medientheoretische Rekonstruktion des Begriffs. http://www.okwi.wiso.uni-erlangen.de/pdf_dateien/DGPuK_Medialisierung_end.pdf. 09.08.2010.

샤를르 쉬데코프(발행인), 1990년. “우리가 바로 국민이다!”. 독일 혁명에 관한 텍스트, 고지문, 그리고 전단. 라인벡 바이 함부르크, 로볼트 출판사.

Schüddekopf, Charles (Hrsg.). 1990. “Wir sind das Volk!”. Flugschriften, Aufrufe und Texte einer deutschen Revolution. Reinbeck bei Hamburg: Rowohlt.

에디트 슈필하겐(발행인), 1993년. 그래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동독 미디어에 관한 체험. 베를린, 비스타스 출판사.

Spielhagen Edith (Hrsg.). 1993. So durften wir glauben zu kämpfen. Erfahrungen mit DDRMedien. Berlin: Vistas Verlag.

동독 일간신문. http://de.wikipedia.org/wiki/Tageszeitungen_der_DDR. 2010년 8월 9일. Tageszeitungen der DDR. http://de.wikipedia.org/wiki/Tageszeitungen_der_DDR. 09.08.2010.

지모네 티파흐-슈나이더, 1998년. 동독 선전에 관한 대사전. 캠페인, 광고문구, 메이커, 및 상표. 베를린, 슈바르츠코프 운트 슈바르츠코프 출판사.

Tippach-Schneider, Simone. 1998. Das große Lexikon der DDR-Werbung. Kampagnen und Werbesprüche, Macher und Produkte, Marken und Warenzeichen. Berlin: Schwarzkopf & Schwarzkopf.

동독 인민회의. 1990년. 의견의 자유, 정보의 자유, 그리고 미디어의 자유의 보장에 관한 동독 인민회의 결의문. 베를린.

Volkskammer der DDR, 1990. Beschluss der Volkskammer über die Gewährleistung der Meinungs-, Informations-, und Medienfreiheit. Berlin.

발트라우트 벤데, 2004년. 문화 - 미디어 - 문학, 미디어 문화학으로서의 문학 연구. 뷔르츠부르크, 쾨니히스하우젠 운트 노이만 출판사.

Wende, Waltraut. 2004. Kultur - Medien - Literatur. Literaturwissenschaft als Medienkulturwissenschaft. Würzburg: Königshausen und Neumann.

유타 볼퍼트, 2004년. 1989년부터 1996년 기간 동안의 혁명과 미디어 사이의 극본 텍스트. 베를린, 알렉산더 출판사.

Wolfert, Jutta. 2004. Theatertexte zwischen Medien und Revolution 1989-1996. Berlin: Alexander Verlag.

1989년 이후의 독일 연방공화국 신문. <http://www.lanacs.ac.uk/staff/smithb1/text207/vorlesung/wende.htm>. 2010년 8월 9일.

Zeit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en seit 1989.

<http://www.lanacs.ac.uk/staff/smithb1/text207/vorlesung/wende.htm>. 09.08.2010.

8.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 비교

에버하르트 홀트만(발행인), 2006년. 작센-안할트의 주정부 정책 - 소개 매뉴얼. 막테부르크, 미텔도이처 출판사.

Holtmann, Everhard (Hrsg.). 2006. Landespolitik in Sachsen-Anhalt. Ein Handbuch. Magdeburg: Mitteldeutscher Verlag.

9. 노동조합

요아힘 베르크만 및 루디 슈미트(발행인), 1996년. 산업적인 관계 - 위기의 상황 아래에서의 현실과 제도화. 오프라텐, 레스케 운트 부트리히 출판사.

Joachim Bergmann/Rudi Schmidt (Hrsg.), 1996. Industrielle Beziehungen. Institutionalisation und Praxis unter Krisenbedingungen. Opladen: Leske + Budrich.

마리안 벨츠, 2007년. 재산법에 의거한 바이마르 노동조합 재산에 대한 보상절차.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Belz, Marian, 2007. Die Restitution des Weimarer Gewerkschaftsvermögens nach dem Vermögensgesetz. Baden-Baden: Nomos.

볼프강 에켈만, 한스-헤르만 헤르틀레 및 라이너 바이너르트, 1990년. 동독 자유노동 내 부문서 -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이라는 대형 조직에 관한 내부적 견해. 베를린, 트렙타워 출판회사.

Eckelmann, Wolfgang/Hertle, Hans-Hermann/Weinert, Rainer. 1990. FDGB intern. Innenansichten einer Massenorganisation der SED. Berlin: Treptower Verlags-Haus.

플커 아이헨너, 1992년. 동독에서의 조직화된 이익 관계, 마르부르크, 메트로폴리스 출판사.

Eichener, Volker. 1992. Organisierte Interessen in Ostdeutschland. Marburg: Metropolis-Verlag.

동독 자유노동(FDGB). 1988년. 역사와 조직. 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발행.

Der Freie Deutsche Gewerkschaftsbund (FDGB). 1988. Geschichte und Organisation. Bonn: Friedrich-Ebert-Stiftung.

미하엘 피히터 및 마리아 쿠르프운, 1993년. 증거의 확보 - 신연방주에서의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DGB)과 산하 노동조합, 1989년부터 1991까지를 중심으로. 뒤셀도르프, 한스-뵉클러 재단 발행.

Fichter, Michael/Kurbjuhn, Maria. 1993. Spurensicherung. Der DGB und seine Gewerkschaft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1989-1991. Düsseldorf: Hans-Böckler-

Stiftung.

미하엘 피히터 및 슈테판 루츠, 1991년. 신연방주에서의 노동조합 설립 - 1989년부터 1991년까지의 일련의 사안에 관한 연대기 - 서류 문서 첨부. 베를린, 베를린 자유대학 사회학 연구를 위한 중앙연구소.

Fichter, Michael/Lutz, Stefan. 1991. Gewerkschafts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e Chronik der Ereignisse 1989-1991 - mit Dokumentenanhang. Berlin: Zentralinstitut für sozialwissenschaftliche Forschung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울리히 길, 1989년. 동독 자유노총(FDGB). 이론 - 역사 - 조직 - 기능 - 비판. 오프라덴, 레스케 운트 부트리히 출판사.

Gill, Ulrich. 1989. Der Freie Deutsche Gewerkschaftsbund (FDGB). Theorie - Geschichte - Organisation - Funktion - Kritik. Opladen: Leske + Budrich.

울리히 길, 1991년. 동독 자유노총(FDGB), 1945년부터 1990년 해체될 때까지의 동독 노동조합. 쾰른, 분트 출판사.

Gill, Ulrich. 1991. FDGB. Die DDR-Gewerkschaft von 1945 bis zu ihrer Auflösung 1990. Köln: Bund-Verlag.

프레트 헨네베르거 및 베른트 켈러, 1992년 신연방주에서의 공공 업무 - 과도기 단계에서의 고용, 이익단체 및 임금 정책. 참고: 폴커 아이헨너, 1992년. 동독에서의 조직화된 이익 관계, 제 1 반제본. 마르부르크, 메트로폴리스 출판사.

Henneberger, Fred/Keller, Berndt. 1992. Der öffentliche Diens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schäftigung, Interessenverbände und Tarifpolitik im Übergang. In: Völker Eichener. 1992. Organisierte Interessen in Ostdeutschland, 1. Halbband. Marburg: Metropolis-Verlag.

안드레아스 헤르프스트, 빈프리트 랑케 및 위르겐 빈클러, 1994년. 동독의 운영 방식. 조

직 및 기관 사전, 총 3권. 라인백, 로볼트 출판사.

Herbst, Andreas/Ranke, Winfried/Winkler, Jürgen, 1994. So funktionierte die DDR. Lexikon der Organisationen und Institutionen, 3 Bde. Reinbek: Rowohlt.

한스-헤르만 헤르틀레, 1990년. 비개입 원칙 - 1972년부터 1989년까지의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DGB) 및 동독 자유노총(FDGB)의 관계 또는 독일 통일 및 민주주의 변혁 과정에 있어 노동조합의 무기력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외교 고위 당직자의 기고문. 베를린, 베를린 자유대학 사회학 연구를 위한 중앙연구소.

Hertle, Hans-Hermann, 1990. Nicht-Einmischung. Die DGB/FDGB-Beziehung von 1972 bis 1989 oder Der Beitrag der Spitzenfunktionärs-Diplomatie zur gewerkschaftlichen Lähmung im demokratischen Umbruch- und deutschen Einigungsprozess. Berlin: Zentralinstitut für sozialwissenschaftliche Forschung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한스-헤르만 헤르틀레 및 라이너 바이너르트, 1991년. 동독 자유노총(FDGB)의 해체와 그 재산을 둘러싼 논쟁. 베를린, 베를린 자유대학 사회학 연구를 위한 중앙연구소.

Hertle, Hans-Hermann/Weinert, Rainer, 1991. Die Auflösung des FDGB und die Auseinandersetzung um sein Vermögen. Berlin Zentralinstitut für sozialwissenschaftliche Forschung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미하엘 키트너(발행인), 1993년. 1993년도 노동조합 연보. 데이터 - 사실요건 - 분석. 쾰른, 분트 출판사.

Kittner, Michael (Hrsg.), 1993. Gewerkschaftsjahrbuch 1993. Daten - Fakten - Analysen. Köln: Bund-Verlag.

위의 저자와 동일(발행인), 1992년. 1992년도 노동조합 연보. 데이터 - 사실요건 - 분석. 쾰른, 분트 출판사

Ders. (Hrsg.), 1992. Gewerkschaftsjahrbuch 1992. Daten - Fakten - Analysen. Köln:

Bund-Verlag.

위의 저자와 동일(발행인), 1991년. 1991년도 노동조합 연보. 데이터 - 사실요건 - 분석. 쾰른, 분트 출판사.

Ders. (Hrsg.). 1991. Gewerkschaftsjahrbuch 1991. Daten - Fakten - Analysen. Köln: Bund-Verlag.

지크리트 코흐-바움가르텐, 1992년. 동서독 통합 과정에 있어서의 노동조합, 참고: 정치 교육, 학문적 기반 마련 및 수업 현장을 위한 기고문, 제 25회차, 1992년, 제 1권: 독일 통일 이후의 중간 결산.

Koch-Baumgarten, Sigrid. 1992. Gewerkschaften im deutsch-deutschen Vereinigungsprozess, in: Politische Bildung. Beiträge zur wissenschaftlichen Grundlegung und zur Unterrichtspraxis, 25. Jg., 1992, H. 1: Zwischenbilanz nach der Vereinigung Deutschlands.

볼프강 R. 랑엔부히, 랄프 뢰틀레프스키 및 베른트 바이어그라프, 1983년. 독일 연방공화국 문화정치 사전 -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문화정치 사전과 비교해서. 슈투트가르트, 메츨러 출판사.

Langenbacher, Wolfgang R./Rytlewski, Ralf/Weyergraf, Bernd. 1983. Kulturpolitisches Wörterbuch Bundesrepublik Deutschland /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im Vergleich. Stuttgart: Metzler.

로타 린트너 및 헤르만 흥거, 1996년. 고찰, 제 1권.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소련군 점령 지역 내에서의 건축 분야 산업 노동조합. 1950년부터 1990년까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내에서의 건축 및 임업 분야 산업 노동조합.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광업, 농업 및 환경 관련 산업노조.

Lindner, Lothar/Hunger, Hermann. 1996. Im Rückblick. Band I. Die Industriegewerkschaft Bau in der sowjetischen Besatzungszone 1945 bis 1949. Die

Industriegewerkschaft Bau-Hol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50 bis 1990. Frankfurt am Main: Industriegewerkschaft Bauen-Agrar-Umwelt.

마티아스 로딩 및 우베 로젠탈, 1998년. 신연방주에서의 노동조합 및 경영조직법 상의 이익대표부 설립 및 제도화 과정. 함부르크, 코바크 출판사.

Loeding, Matthias/Rosenthal, Uwe. 1998. Aufbau und Institutionalisierung gewerkschaftlicher und betriebsverfassungsrechtlicher Interessenvertret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Hamburg: Kovač.

프랑크 뢰블러, 요제프 슈미트 및 하인리히 티어만(발행인), 1991년. 조직화 문제의 관점에서 살펴 본 통일 - 각 정당 및 협회의 전 독일적 연합. 보쿰, 브록마이어 대학 출판사.

Löbler, Frank/Schmid, Josef/Tiemann, Heinrich. 1992. Wiedervereinigung als Organisationsproblem. Gesamtdeutsche Zusammenschlüsse von Parteien und Verbänden. Bochum: Universitäts-Verlag Brockmeyer.

클라우스 뢰르라인, 1993년. 조합원 개발. 참고: 미하엘 키트너(발행인), 1993년. 1993년도 노동조합 연보. 데이터-사실요건-분석. 쾰른, 분트 출판사.

Löhrlein, Klaus. 1993. Mitgliederentwicklung. In: Michael Kittner (Hrsg.), 1993. Gewerkschaftsjahrbuch 1993. Daten - Fakten - Analysen. Köln: Bund-Verlag.

발터 뮐러-엔취, 1997년. 산업적 관계에 있어서의 사회학 - 입문 내용.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캠퍼스 출판사.

Müller-Jentsch, Walther. 1997. Soziologie der Industriellen Beziehungen. Eine Einführung. Frankfurt am Main: Campus-Verlag.

발터 뮐러-엔취 및 페터 이터만, 2000년. 산업적인 관계 - 데이터, 시간적 순서 및 트렌드 - 1950년부터 1999년까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캠퍼스 출판사.

Müller-Jentsch, Walther/Ittermann, Peter. 2000. Industrielle Beziehungen. Daten,

Zeitreihen, Trends 1950–1999. Frankfurt am Main: Campus-Verlag.

테오 피르커, 한스-헤르만 헤르틀레, 위르겐 캐틀러 및 라이너 바이너르트, 1990년. 동독 자유노총(FDGB) - 대변혁의 끝, 독립적인 노동조합으로 가는 길인가? 쾰른, 분트 출판사.

Pirker, Theo/Hertle, Hans-Hermann/Kädtler, Jürgen/Weinert, Rainer. 1990. FDGB - Wende zum Ende. Auf dem Weg zu unabhängigen Gewerkschaften? Köln: Bund-Verlag.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DGB) 정기 연방회의 제 14차 프로토콜. 1990년. 함부르크. Protokoll 14. ordentlicher Bundeskongress DGB, 1990. Hamburg.

유럽 금속공동체 정기 노동조합의 날을 맞이한 제 16차 프로토콜 - 본 회의는 1989년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베를린에서, 그리고 1989년 11월 21일 및 22일 양일간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개최됨., 발행지 표기 및 발행연도 표기 없음. 797 페이지.

Protokoll des 16. ordentlichen Gewerkschaftstages der IG Metall vom 22.-28.10.1989 in Berlin und vom 21./22.11.1989 in Frankfurt a.M., o.O., o.J., S. 797.

쿠르트 토마스 슈미츠 및 하인리히 티만, 1990년. 노동조합의 통일로 향하는 길 - 보고서. 참고: 독일 아카이브. 제 22회차.

Schmitz, Kurt Thomas/Tiemann, Heinrich. 1990. Auf dem Weg zur Gewerkschaftseinheit - Ein Bericht. In: Deutschland Archiv, 22. Jg.

슈테판 게르트-뤼디거, 안드레아스 헤르프스트, 크리스티네 크라우스, 다니엘 퀴헨마이스터 및 데트레프 나카트(발행인), 2002년. 동독의 거대 조직과 정당. 설명 자료. 베를린, 디츠 출판사.

Stephan, Gerd-Rüdiger/Herbst, Andrea/Krauss, Christine/Küchenmeister, Daniel/Nakath, Detlef Nakath (Hrsg.). 2002. Die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DDR. Ein Handbuch. Berlin: Dietz.

라이너 바이너르트 및 프란츠-오토 길레스, 1999년. 동독 자유노총(FDGB)의 붕괴. 결정에 대한 압박의 증가, 제도화된 행동반경의 제약 및 엄격한 계급주의 조직구조의 붕괴. 비스바덴.

Weinert, Rainer/Gilles, Franz-Otto, 1999. Der Zusammenbruch des Freien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FDGB). Zunehmender Entscheidungsdruck, institutionalisierte Handlungsschwäche und Zerfall der hierarchischen Organisationsstruktur. Wiesbaden.

만프레트 빌케 및 한스-헤르만 헤르틀레, 1992년. 동독과 서독 사이의 독일 노동조합의 역사 - 연구 보고서. 베를린, 베를린 자유대학 언론 및 정보센터.

Wilke, Manfred/Hertle, Hans-Hermann, 1992. Deutsche Gewerkschaftsgeschichte zwischen Ost und West. Forschungsbericht. Berlin: Presse- und Informationsstelle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10. 엘리트 변동

빌헬름 뷔르클린(발행인), 1997년. 독일의 엘리트들 - 모집과 통합. 오프라덴, 레스케 운트 부트리히 출판사.

Bürklin, Wilhelm (Hrsg.), 1997. Eliten in Deutschland. Rekrutierung und Integration. Opladen: Leske + Budrich.

H.-J. 게르크스/ M. 폴만, 1999년. 통일 이전 및 이후의 경제적 엘리트 - 전환 과정의 분리 내용. 참고: S. 호른보스텔(발행인), 사회주의적 엘리트 - 동독에서의 수평적 및 수직적 편차 표본. 오프라덴, 서독 출판사. P. 223 - 252.

Gergs, H.-J./Pohlmann, M., 1999. Ökonomische Eliten vor u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Die Selektivität des Transformationsprozesses. In: Hornbostel, S. (Hrsg.), Sozialistische Eliten. Horizontale und vertikale Differenzierungsmuster in der DDR,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S. 223-252.

M. 하르트만, 2006년. 엘리트 모집 과정의 시장화인가? 최고 관리자 모집의 경우를 들어. 참고: H. 뮌클러/ G. 슈트라센베르거/ M. 볼렌더(발행인), 변혁기를 맞이한 독일의 엘리트들. 프랑크푸르트 및 뉴욕. P. 431 - 454.

Hartmann, M., 2006. Vermarktlichung der Elitenrekrutierung? Das Beispiel der Topmanager. In: Münkler, Herfried/ Straßenberger, G./ Bohlender, M., (Hrsg.), Deutschlands Eliten im Wandel. Frankfurt/ New York, S. 431-454.

디르크 아르네 하이엔, 2008년. 시간 경과 상으로 살펴 본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정부 엘리트들. 포츠담 대학교 경제 사회학부 세미나 자료. 2007/08 겨울 학기.

Heyen, Dirk Arne, 2008. Regierungseliten in Brandenburg im Zeitverlauf. Seminararbeit an der Wirtschafts- und Sozialwissenschaftlichen Fakultät der Universität Potsdam, Wintersemester 2007/08.

슈테판 호른보스텔, 2000년. 생존자, 식민지 유럽 이주민, 그리고 새로운 이주민 - 동독의 구 엘리트 및 신 엘리트. 참고: 교재 자료, Nr. 139, p. 123 - 136.

Hornbostel, Stefan. 2000. Von Überlebenden, Kolonisten und Newcomern. Neue und alte Eliten in Ostdeutschland. In: Kursbuch, Nr. 139, 123-136.

안나 클라인 및 빌헬름 하이트마이어, 2009년. 동서독 통합 결산 - 정책 및 현대사를 기반으로. 28/2009, p. 16-21.

Klein, Anna/Heitmeyer, Wilhelm. 2009. Ost-westdeutsche Integrationsbilanz.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8/2009, S. 16-21.

베른트 마르텐스, 2007년. 유대교 개종자의 순수 이론 고수 - 경제적 직위 엘리트들의 정치적 태도에 관한 표본 - 동서독 비교를 중심으로. 참고: 사회학 회보, 제 36호, p. 118 - 130 .

Martens, Bernd. 2007. Orthodoxie der Proselyten - Einstellungsmuster ökonomischer Funktionseliten im Ost/West-Vergleich. In: Zeitschrift für Soziologie, 36, S. 118-130.

베른트 마르텐스, 2005년. 변혁이 드리운 기나긴 그림자, 동독 경제 엘리트들의 커리어.
참고: 역사 사회 연구, 제 30호, p. 231 - 237.

Martens, Bernd. 2005. Der lange Schatten der Wende. Karrieren ostdeutscher
Wirtschaftseliten. In: Historical Social Research, 30, S. 231-237.

악셀 잘하이저, 2009년. 정당에 충성하고, 계획을 엄수하며,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는가?
동독 산업간부의 모집 요강 및 커리어 관리. 비스바덴, VS 사회학 출판사.

Salheiser, Axel. 2009. Parteitreu, plangemäß, professionell? Rekrutierungsmuster und
Karriereverläufe von DDR-Industriekadern.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비르기트 자틀러, 2009년. 소개말을 대신하여: 큰 구조, 거대한 과정 및 막대한 비교 -
해석의 틀. 참고: 비르기트 자틀러(발행인), 유럽 경제 엘리트 - 자본주의의 새로운 정
신과 사회주의적 국가의 침식 사이에서. 베를린. p. 19 - 70 .

Sattler, Birgit. 2009. In Lieu of an Introduction: Big Structures, Large Processes and
Huge Comparisons - A Frame of Interpretation. In: Sattler, Birgit., (Hrsg.), European
Economic Elites. Between a New Spirit of Capitalism and the Erosion of State
Socialism, Berlin, S. 19-70.

루디 슈미트, 2005년. 동독 관리자의 두 가지 세계, 참고: 역사 사회 연구, 제 30호, p.
231 - 237.

Schmidt, Rudi. 2005. Die zwei Welten der ostdeutschen Manager. In: Historical Social
Research, 30, S. 231-237.

에어하르트 슈라이버, 2002년. “변환 시기”를 맞이한 엘리트들 - 동독 변환 과정이 진행
되는 동안의 협회 및 기업결합의 지도부. 뮌헨, 메링출판사.

Schreiber, Erhard. 2002. Eliten in “Wechseljahren”. Verbands- und
Kombinatsführungskräfte im ostdeutschen Transformationsprozess. München: Mering.

M. 폴만, 1996년. 변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의 관리자급 엘리트들. 참고: M. 폴만/ R. 슈미트(발행인), 동독 산업에 대한 매니지먼트. 오프라텐, 서독 출판사. p. 63 - 98.
 Pohlmann, M. .1996. Manageriale Eliten im Transformationsprozeß. In: Pohlmann, M./Schmidt, R., (Hrsg.), Management in der ostdeutschen Industrie.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S. 63-98.

11.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 일람

12. 독일 재통일 : 재정정책, 비용 및 조달

게오르게 A. 아커로프, 앤드류 K. 로제 및 자넷 L. 엘렌, 1991년. “냉전시대로부터의 동독: 현재의 연합이 가져온 경제적 후유증” 경제 활동에 관한 브루킹 연구소 논문. 제 I. 권. 1-101 페이지.

Akerlof, George A. /Rose, Andrew K. /Yellen, Janet L, 1991. “East Germany in from the Cold: The Economic Aftermath of Currency Un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I, S. 1-101.

디터 브뤼머호프(발행인), 2000년. 통일의 효용과 비용.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Brümmerhoff, Dieter (Hrsg.). 2000. Nutzen und Kosten der Wiedervereinigung. Baden-Baden: Nomos Verlag.

독일 연방 재정부, 1993년. 새로운 재정의 분배. 본.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1993. Die neue Finanzverteilung. Bonn.

어원 L. 콜리어 Jr. 1995년. “독일 통일의 비용과 이익” 참고: 강명규 및 헬무트 바그너 (편저자). 독일과 한국 - 통일의 교훈.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사. 75-95페이지.

Collier, Irwin L. Jr. 1995. "Costs and Benefits of German Unification." In: Kang, Myoungkyu/Wagner, Helmut, eds.,: Germany and Korea. Lessons in Unific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S.75-95.

빈프리트 뒤스트 및 로프 크로커, 1993년. 통일 이후의 재정 정책. 쾰른, 독일연구소 출판사.

Fuest, Winfried/Kroker, Rolf. 1993. Die Finanzpolitik nach der Wiedervereinigung. Köln: Deutscher Instituts-Verlag.

게르트 그뢰칭어, 1990년. 값비싼 독일 - 동독은 얼마짜리 인가?. 베를린, 로트부흐 출판사.

Grözinger, Gerd. 1990. Teures Deutschland. Was kostet uns die DDR. Berlin: Rotbuch-Verlag.

카를 하인리히(발행인), 1997년. 통일 이후 6년 - 변혁 과정을 거치는 동안의 성공, 적자, 그리고 향후 전망. 베를린 및 뮌헨, 둔커 운트 훔볼트 출판사.

Karl Heinrich (Hrsg.). 1997. Wiedervereinigung nach sechs Jahren. Erfolge, Defizite, Zukunftsperspektiven im Transformationsprozess. Berlin/München: Duncker und Humblot.

게르하르트 뎀부르흐(발행인), 1995년. 통일과 붕괴 - 동서 갈등이 종료된 이후의 유럽과 독일. 오프라텐, 레스케 운트 부트리히 출판사.

Lehmbruch, Gerhard (Hrsg.). 1995. Einigung und Zerfall. Deutschland und Europa nach dem Ende des Ost-West-Konflikts. Opladen: Leske + Budrich.

하인리히 매딩, 1995년. "독일 통일 -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재정 이전" 참고: 강명규 및 헬무트 바그너(편저자). 독일과 한국 - 통일의 교훈.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사.

Mäding, Heinrich. 1995. "German Unification: The Financial Transfers from West to

East Germany.” In: Kang, Myoung-kyu/Wagner, Helmut, eds.,: Germany and Korea. Lessons in Unific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알로이스 오버하우저(발행인), 1995년. 인프라 구조의 확대와 각 지자체 간의 재정적 밸런스 - 독일 통일의 재정 문제. 제 3부. 베를린.

Oberhauser, Alois (Hrsg.), 1995. Ausbau der Infrastruktur und Kommunaler Finanzausgleich. Finanzierungsprobleme der deutschen Einheit, Teil 3. Berlin.

위의 저자와 동일(발행인), 1995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특수한 재정적 관점에서 - 독일 통일의 재정 문제. 제 4부. 베를린

Ders., Alois (Hrsg.), 1995. Spezielle Finanzierungsaspekte im Zeitablauf. Finanzierungsprobleme der deutschen Einheit, Teil 4. Berlin.

얀 프리베/루돌프 히켈, 1991년. 통일의 가격.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피셔 타셴부흐 출판사.

Priewe, Jan/Hickel, Rudolf, 1991. Der Preis der Einheit. Frankfurt am Main: Fischer Taschenbuch Verlag.

볼프강 렌취, 1994년. 연방 차원에서의 문제 극복 - 1995년부터 신연방주 지역을 독일 전역에 대한 재정적 밸런스 수준으로 편입하는 문제. 의회사안 회보, 제 1권. p. 116 - 138.

Renzsch, Wolfgang, 1994. Föderative Problembewältigung: Zur Einbeziehung der neuen Länder in einen gesamtdeutschen Finanzausgleich ab 1995.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Heft 1, S. 116-138.

위의 저자와 동일, 1991년. 재정헌법과 재정적 밸런스 - 통화 개혁 및 독일 통일을 맞이 하는 동안 독일 연방 공화국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어떠한 형식을 갖추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1948년부터 1990까지). 본, 디츠 출판사.

Ders, 1991. Finanzverfassung und Finanzausgleich. Die Auseinandersetzungen um ihre

politische Gestalt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wischen Währungsreform und deutscher Vereinigung (1948 bis 1990). Bonn: Dietz.

게르하르트 A. 리터, 2006년. 통일의 가격 - 통일과 사회복지주의 국가의 위기. 뮌헨, 벡 출판사.

Ritter, Gerhard A. 2006. Der Preis der Einheit. Die Wiedervereinigung und die Krise des Sozialstaats. München: Beck.

악셀 쾨펠페니히, 1998년. “독일 통일과 경상 수지상의 적자 문제”. 참고: 대여금과 자본 1-4, p. 190 - 216.

Schimmelpfennig, Axel. 1998. “Die deutsche Vereinigung und das Leistungsbilanzdefizit”. In: Kredit und Kapital 1-4, S. 190-216.

클라우스 슈테른(발행인), 1991년. 독일의 통일 - 법률의 통일, 제 1권, 재산 - 새로운 헌법 - 재정법. 쾰른, 하이만스 출판사.

Stern, Klaus (Hrsg.). 1991. Deutsche Wiedervereinigung. Die Rechtseinheit, Band 1, Eigentum - Neue Verfassung - Finanzverfassung. Köln: Heymanns.

13. 농업

라이너 아르트, 1990년. 농업조정법에 관한 설명. 베를린, 하우페 출판사.

Art, Reiner. 1990. Landwirtschaftsanpassungsgesetz. Erläuterungen. Berlin: Haufe.

우베 바스티안, 2003년. 신연방주 농촌 지역에 있어 사회 경제적 변환 과정. 본 조사에서 핵심 연구대상이 되었던 지역은 구 동독의 볼가스트 지역과 안클람 지역이었으며, 특히 오늘날 오스트-포어폼머른 관할 행정구역인 치텐 구역의 “라싸너 빈켈”에 초점을 맞춤. 베를린, 자유대학, 박사학위 논문. www.diss.fu-berlin.de/2003/208. 2010년 8월 31일

에 협의됨.

Bastian, Uwe. 2003. Sozialökonomische Transformationen im ländlichen Raum der neuen Bundesländer. Das Untersuchungsgebiet ist die Region der ehemaligen Kreise Wolgast und Anklam, insbesondere der "Lassaner Winkel" im Amtsbereich Ziethen des heutigen Landkreises Ostvorpommern. Berlin: Freie Universität, Dissertation. www.diss.fuberlin.de/2003/208. Konsultiert am 31.08.2010

크리스티안 뵘제, 1994년. 독일의 통일이 신연방주 지역의 농업 분야에 있어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조사 - 이는 과정 분석에 따라 차등화 시킨 종합적 연산 방식을 기본으로 함. 비터술리크 및 본, 벨레 출판사.

Böse, Christian. 1994. Untersuchungen zu den Auswirkungen der deutschen Vereinigung auf die Landwirtschaf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uf der Grundlage eines prozeßanalytisch differenzierten Gesamtrechnungsansatzes. Witterschlick/Bonn: Wehle.

토마스 브뤼크너(발행인), 1992년. 농업생산조합(LPG) - 현재의 의미. 동독의 농업 집중도 - 농업 구역의 새로운 탈바꿈. 하노버, 국제화 출판사. 신탁관리청 문서 자료,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제 8권. 베를린: 신탁관리청 1994년.

Brückner, Thomas (Hrsg.). 1992. LPG - Was nun - Agrarkonzentration im Osten Deutschlands - die Neugestaltung des ländlichen Raumes. Hannover: Internationalismus. Dokumentation Treuhandanstalt 1990-1994, Band 8. Berlin: Treuhandanstalt 1994.

A. 겔더만, C.G. 오이켄 및 마르틴 오데닝, 1996년. 독일의 농업 투자 진흥에 관한 경영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조사. 참고: 농업 투자 진흥 - 지금까지의 발전 상황, 현재의 상황, 미래를 위한 대안적 방법, 농업 연금은행, 제 10권.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Geldermann, A./Eucken, C. G./Odening, Martin. 1996. Betriebswirtschaftliche Untersuchung der landwirtschaftlichen Investitionsförderung in Deutschland. In:

Landwirtschaftliche Investitionsförderung: Bisherige Entwicklung, aktueller Stand, Alternativen für die Zukunft, 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 Band 10. Frankfurt /Main.

다비트 S. 켈레러/김학민, 2005년. 통일 이후 북한 기업들의 민영화 - 경제 이행의 교훈. 코리아 옵저버, 제 36권. 제 1호. 2005년 봄. 21-67 페이지.

Kelleher, David S./Kim, Hak-Min, 2005. Post-Unification Privatization of North Korean Enterprises: Lessons from Transition Economies. Korea Observer, Vol. 36, No. 1, Spring 2005. S. 21-67.

만프레트 키피нг, 2000년. 오버비에라 지역의 농부들, 작센-튀링엔 주정부 지역의 농업,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보이하, 작스 출판사.

Kipping, Manfred. 2000. Die Bauern in Oberwiera. Landwirtschaft im Sächsisch-Thüringischen 1945-1990. Beucha: Sax.

게르하르트 크렌츠, 1996년. 1945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농업 발전 상황에 관한 메모, 노이 브란덴부르크 지역 출신의 동시대 증인의 회고와 고백. 연방 농림부 및 맥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정부 자연보호협회에서 발생. 슈베린: 맥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정부 유한회사.

Krenz, Gerhard. 1996. Notizen zur Landwirtschaftsentwicklung in den Jahren 1945-1990. Erinnerungen und Bekenntnisse eines Zeitzeugen aus dem Bezirk Neubrandenburg. Herausgegeben vom Ministerium für Landwirtschaft und Naturschutz des Landes Mecklenburg-Vorpommern. Schwerin: Landgesellschaft Mecklenburg-Vorpommern mbH.

동독의 농업 관련 조합. 2003년. 참고: 호르히 & 구크, 제 41권, 2003년, 베를린, 사단법인 "1월 15일" 시민위원회.

Ländliche Gesellschaft in der DDR. 2003. In: Horch & Guck, Heft 41/2003, Berlin: Bürgerkomitee "15. Januar" e.V.

한스 루프트, 1998년. 농업의 관점.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페터 랑 출판사.

Luft, Hans. 1998. Blickpunkt Landwirtschaft. Frankfurt/M.: Lang.

위의 저자와 동일, 1997년. 신탁관리청이 제시한 모델에 반대한 동독의 농업. 베를린, 디츠 출판사.

Ders. 1997. Landwirtschaft Ost kontra Treuhandmodell. Berlin: Dietz-Verlag.

볼프강 밀히, 2000년. 개별 기업들의 신연방주에 대한 투자 지원 분석 연구 - 작센-안할트 주정부의 예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경제, 사회학적 농경협회 회보, 제 36권.

Milch, Wolfgang. 2000. Analyse der einzelbetrieblichen Investitionsförder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 am Beispiel von Sachsen-Anhalt. Schriften der Gesellschaft für Wirtschafts- und Sozialwissenschaften des Landbaues e.V., Bd. 36.

한스 미텔바흐, 1992년. 농업에 있어서의 구조적 변환. 본-바트 고데스베르크,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발행.

Mittelbach, Hans. 1992. Strukturwandel in der Landwirtschaft. Bonn-Bad Godesberg: Friedrich-Ebert-Stiftung.

라이너 뮌히, 라인하르트 바우어른슈미트, 2002년. 농촌에 대한 고찰 - 새롭게 편입된 5개의 신연방주 지역에 있어 기존 국민 공동의 소유로 되어 있던 농업 및 임업 재산에 대한 사유화 과정의 연대기. 베를린, 구 동독 지역 토지 매각 및 관리회사(BVVG).

Münc, Rainer/Bauernschmidt, Reinhard. 2002. Land in Sicht - Eine Chronik der Privatisierung des ehemals volkseigenen Vermögens der Land- und Forstwirtschaft in den fünf neuen Bundesländern. Berlin: BVVG 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gesellschaft.

새로운 농업, 농업법에 대한 서신 - 농업법 및 기업법 회보 제 5권/2010년.

Neue Landwirtschaft, Briefe zum Agrarrecht - Zeitschrift für Agrar- und

Unternehmensrecht, Heft 05/2010.

폴크마르 니스, 1990년. 농업생산조합(LPG)의 새로운 조직화, 동독의 농업을 독일 연방 공화국 농업헌법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법적 전환 가능성. 세인트 아우구스틴, 플루크 운트 페더 출판사.

Nies, Volkmar, 1990. Neuorganisation der LPG. Rechtliche Gestaltungsmöglichkeiten für die Integration der Landwirtschaft der DDR in die Agrarverfass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t. Augustin: Pflug und Feder.

헨너 파펜디크, 1990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보다 나은 경제적 미래를 위한 길; 정치 교육 및 사회 민주주의 협회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동으로 주관한 회의 - 본 회의는 슈베린에서 1990년 8월 23일 및 24일 양일간 개최되었음. 회의 보고서. 참고: 학술적 담론. 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http://library.fes.de/fulltext/fo-wirtschaft/00271toc.htm> (2010년 9월 20일).

Papendieck, Henner, 1990. Mecklenburg-Vorpommern : Wege in eine bessere wirtschaftliche Zukunft ; eine Tagung des Vereins für politische Bildung und Soziale Demokratie und der Friedrich-Ebert-Stiftung am 23. und 24. August 1990 in Schwerin/Tagungsbericht. In: Wissenschaftliche Diskurse. Bonn: Friedrich-Ebert-Stiftung; <http://library.fes.de/fulltext/fo-wirtschaft/00271toc.htm> (20.09.2010).

미하엘 라베르트, 1994년. 구 동독 지역의 농업생산조합 부채 문제 및 그 법적 후계단체에 대한 채무 탕감에 관하여. 키일, 바우크 학술 출판사.

Rawert, Michael, 1994. Die Verschuldung der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in der ehemaligen DDR und die Entschuldung ihrer Rechtsnachfolger. Kiel: Wissenschafts-Verlag Vauk.

안드레아 로테 및 알렉세이 리씨차, 2005년. 변환 과정에 있어서의 동독 농업 분야 - 초기 상황, 발전상 및 문제점. 참고: 중동부 유럽 농업발전 연구소(IAMO) - 토론 자료, 제

81호. 할레/잘레: 중동부 유럽 농업발전 연구소.

Rothe, Andrea/Lissitsa, Alexej. 2005. Der ostdeutsche Agrarsektor im Transformationsprozess – Ausgangssituation, Entwicklung und Problembereich. In: IAMO – Discussion Papers No. 81. Halle/Saale: Institut für Agrarentwicklung in Mittel- und Osteuropa.

바르바라 쉬어, 2001년. 사회주의적 마을에서의 일상 생활 – 메르크스레벤과 소속 농업 생산조합(LPG) – 1945년부터 1990년까지 급박한 변화를 거처온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농업 정책. 뮌스터, 박스만 출판사.

Schier, Barbara, 2001. Alltagsleben im sozialistischen Dorf. Merxleben und seine LPG im Spannungsfeld der SED-Agrarpolitik 1945–1990. Münster: Waxmann.

클라우스 슈미트(발행인), 2009년. 동독의 농업, VEG, LPG 및 협력관계 – 이를 위한 방법과 절차, 과거의 상황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현재 상황. 클렌체, 아그리메디아 출판사.

Schmidt, Klaus (Hrsg.). 2009. Landwirtschaft in der DDR. VEG, LPG und Kooperationen. Wie sie wurden, was sie waren, was aus ihnen geworden ist. Clenze: Agrimedia.

위의 저자와 동일(발행인), 1990년. 동독의 농업경제 – 시장경제로의 전환길에서. 본, 동독 농경제학 아카데미 산하 농업경제 연구소

Ders. (Hrsg.). 1990. DDR-Landwirtschaft auf dem Weg in die Marktwirtschaft. Bonn: Institut für Agrarökonomie der Akademie der Landwirtschaftswissenschaften der DDR

헤르만-요제프 슈미츠, 1994년. 신연방주에서의 농업경제 발전에 관한 전망 – 대안적인 농업 정책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적합한 시뮬레이션을 차별화하여 구현한 후 이를 분석함. 비터술리크: 벨레 출판사.

Schmitz, Hermann-Josef, 1994. Entwicklungsperspektiven der Landwirtschaf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regionaldifferenzierte Simulationsanalysen alternativer

agrarpolitischer Szenarien, Witterschlick: Wehle.

롤프 슈나이더스, 1997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과거 농업을 독일 및 유럽적 맥락에서 재조직 - 국영으로부터 민영 농업으로. 참고: 베르너 페니히(발행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 1990년대 한국과 독일의 비교 고찰. 함부르크, 아베라 출판사. p. 139 - 146.

Schneiders, Rolf. 1997. The Reorganization of former GDR's Agriculture within a National and European Context: From State to Private Farming. In: Pfennig, Werner (Hrsg.), United We Stand - Divided We Are. Comparative Views on Germany and Korea in the 1990's, Hamburg: Abera, S. 139-146.

이나 슈만/위르겐 크나우스(발행인), 2004년. 블랑켄하인 지역의 농업생산조합(LPG): 농업생산조합(LPG)의 역사 - 작센 주정부 블랑켄하인에 소재한 리터구츠 마을의 예를 통해 살펴봄(1945년부터 1991년까지). 블랑켄하인 보고서, 제 13권.

Schumann, Ina/Knauss, Jürgen (Hrsg.). 2004. LPG in Blankenhain: Die Geschichte der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LPG) am Beispiel des Rittergutsdorfs Blankenhain in Sachsen (1945 bis 1991). Blankenhainer Berichte, Band 13.

W. 슈테펜스 및 B. 로스트, 1997년. 작센 안할트 주정부에서 농업에 대한 투자 진흥의 효율성 - 법인에 대한 확대 시도. 미발표 연구서, 가르데레겐/할레.

Steffens, W./Rost, B. 1997. Effizienz der investiven Förderung der Landwirtschaft in Sachsen-Anhalt - Erweiterungsuntersuchung auf juristische Personen. Unveröffentlichte Studie, Gardelegen/Halle.

알프레드 슈트로테, 1994년. 신탁관리청: 명성 그 이상인가? - 농업 경제를 중심으로 살펴 본 사회복지 비판적 조사 및 사회 정책적 조사, 핀네베르크, 아그리메디아 출판사.

Strothe, Alfred. 1994. Treuhandanstalt: besser als ihr Ruf? Eine sozialkritische und gesellschaftspolitische Untersuchung vor allem für den Bereich der Land- und

Ernährungswirtschaft, Pinneberg: Agrimedia.

카를-하인츠 티만, 2004년. 경작지 구획과 농업, 참고: 브란덴부르크 측량, 2004년 2월 발행, 포츠담,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산하 내무부.

Thiemann, Karl-Heinz, 2004. Flurordnung und Landwirtschaft in: Vermessung Brandenburg, Ausgabe 2/2004, Potsdam: Ministerium des Innern des Landes Brandenburg.

카를-프리드리히 퇴네, 1993년. 신연방주에서 농업의 구조적 변화, 소유관계에 대한 규정 및 농업 지역의 새로운 탈바꿈. 베를린, 베를린 기술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Thöne, Karl-Friedrich, 1993. Die agrarstrukturelle Entwickl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Zur Regelung der Eigentumsverhältnisse und Neugestaltung ländlicher Räume. Berlin: Technische Universität, Dissertation.

요한네스 바르베크, 2000년. 독일 통일의 진행 과정에 있어 동독 농업의 대변혁, 경제적 압력 - 정치적 결단. 뮌헨, 뮌헨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Warbeck, Johannes, 2000. Die Umwandlung der DDR-Landwirtschaft im Prozeß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Ökonomische Zwänge - politische Entscheidungen, München: Ludwig Maximilians Universität, Dissertation.

헬무트 비젠탈 (발행인), 1996년. 특권으로서의 통일, 동독 지역에서의 변환에 대한 비교 연구적 관점.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캠퍼스 출판사.

Wiesenthal, Helmut. (Hrsg.). 1996. Einheit als Privileg. Vergleichende Perspektiven auf die Transformation Ostdeutschlands. Frankfurt am Main: Campus-Verlag.

14. 신탁관리청과 구동독지역 재건

그레트헨 비누스, 1992년. 1989년 이래로 변환 과정에 있어 기업 인사제도 구조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한 단기 연구 보고서: 이미 사유화된 기계제작 회사와 아직 신탁관리청의 관리를 받고 있는 기계제작 회사의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베를린, 죄스트라 출판사.

Binus, Gretchen. 1992. Kurzstudie Veränderungen der betrieblichen Personalstruktur im Transformationsprozeß seit 1989: dargestellt am Beispiel eines privatisierten und eines noch der Treuhandanstalt unterstellten Maschinenbauunternehmens. Berlin: Söstra.

비르기트 브로이엘(발행인), 1993년 신탁관리청 내부 자료. 베를린, 올슈타인 출판사.

Breuel, Birgit (Hrsg.). 1993. Treuhand intern. Berlin: Ullstein.

연방 통일문제 관련 특별업무 전담청, 2003년. 신속한 사유화의 과정, 강건한 건전화 정책, 신중한 폐업 처리: 연방 통일문제 관련 특별업무 전담청과 신탁관리청의 13년 동안의 업무수행에 관한 고찰. 베를린, 벡바이저 출판사.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Hrsg.). 2003. Schnell privatisieren, entschlossen sanieren, behutsam stilllegen: ein Rückblick auf 13 Jahre Arbeit der Treuhandanstalt und der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Berlin: Wegweiser.

헤르베르트 브뤼커, 1995년. 동독의 사유화 과정 - 제도 경제적 시각에서의 분석.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캠퍼스 출판사.

Brücker, Herbert. 1995. Privatisierung in Ostdeutschland: eine institutionenökonomische Analyse. Frankfurt/Main, Campus.

마르쿠스 분크, 1996년. 신탁관리청을 통해 정치적 의도를 경제적 관점으로 변환시키는 전략에 관한 공개 비판. 뮌헨, 뮌헨 루드비히-막시밀리안 대학 박사학위 논문.

Bunk, Markus. 1996. Die öffentliche Kritik an der ökonomischen Umsetzung

politischer Ziele durch die Treuhandanstalt. München: Dissertation an der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페터 크리스트 및 랄프 노이바우어, 1991년. 자국 내의 식민지, 신탁관리, 본과 5개 신연방주의 경제적 심각성 - 헬무트 슈미트 머릿말 수록. 베를린. 로볼트 출판사.

Christ, Peter und Neubauer, Ralf. 1991. Kolonie im eigenen Land. Die Treuhand, Bonn und die Wirtschaftskatastrophe der fünf neuen Länder. Mit einem Vorwort von Helmut Schmidt. Berlin: Rowohlt.

어윈 L. 콜리어 Jr. 1998년. 마녀의 이중적 저주와 동독의 경제적 재조직. 참고: 베르너 페니히(편저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 1990년대 독일과 한국의 비교 고찰. 함부르크, 아베라 출판사.

Collier, Irwin L., Jr. 1998. The Twin-Curse of the Bitch-Goddess and Economic Reconstruction of East Germany. In: Pfennig, Werner, ed.: United We Stand - Divided We Are. Comparative Views on Germany and Korea in the 1990's. Hamburg: Abera Verlag.

로버트 드레프니키, 1994년. 문서자료. 베를린, 신탁관리청.

Drewnicki, Robert. 1994. Dokumentation. Berlin: Treuhandanstalt.

볼프강 댁케/프리츠 빌마(발행인), 1995년. 동독의 식민지화 - 독일 통합과정에 대한 대안 및 비판적 분석. 뮌스터, 아젠다 출판사.

Dümcke, Wolfgang/Vilmar, Fritz (Hrsg.). 1995. Kolonialisierung der DDR. Kritische Analysen und Alternativen des Einigungsprozesses. Münster: Agenda-Verlag.

볼프람 피셔, 헤르베르트 막스 및 한스 카를 슈나이더, 1993년. 신탁관리청: 불가능에 대한 시도. 베를린, 아카데미 출판사.

Fischer, Wolfram/Hax, Herbert/Schneider, Hans Karl (Hrsg.). 1993. Treuhandanstalt.

Das Unmögliche wagen, Berlin: Akademie-Verlag.

볼프람 피셔, 헤르베르트 막스 및 한스 카를 슈나이더, 1993년. 신탁관리청: 불가능에 대한 시도 - 연구 보고서. 베를린, 아카데미 출판사.

Fischer, Wolfram/Max, Herbert/Schneider, Hans Karl (Hrsg.). 1993. Treuhandanstalt: Das Unmögliche wagen, Forschungsberichte, Berlin: Akademie Verlag.

크리스토퍼 프레제, 1995년. 신탁관리청의 사유화 업무진행 활동 - 국가체제의 변환과정에서 있어 사유화 작업의 전략과 절차.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캠퍼스 출판사.

Freese, Christopher. 1995. Die Privatisierungstätigkeit der Treuhandanstalt: Strategien und Verfahren der Privatisierung in der Systemtransformation, Frankfurt am Main: Campus.

플로리안 하르틀, 1995년. 기본법 상의 재정헌법 시스템에 있어서의 신탁관리청. 베를린, 페터 랑 출판사.

Hartl, Florian. 1995. Die Treuhandanstalt im System der Finanzverfassung des Grundgesetzes, Berlin: Peter Lang.

요한네스 헤스, 1997년. 신탁관리청의 기업 매각 - 오래된 자기 재산에 대한 보호와 일자리 보장이라는 첨예한 분야를 다루는 계약. 베를린, 둔커 & 훔블트 출판사.

Heß, Johannes. 1997. Unternehmensverkäufe der Treuhandanstalt: Verträge im Spannungsfeld zwischen Arbeitsplatzsicherung und Alteigentümerschutz, Berlin: Duncker & Humblodt.

루돌프 히켈/얀 프리베, 1994년. 잘못된 시작 이후 - 독일 통일의 경제적 전망.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피셔 출판사.

Hickel, Rudolf/Priewe, Jan. 1994. Nach dem Fehlstart, Ökonomische Perspektiven der deutschen Einigung, Frankfurt am Main: Fischer.

페터 홈멜호프(발행인), 1990년. 신탁관리청 및 신탁관리법. 쾰른: 법, 경제 및 세무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포럼 출판사.

Hommelhoff, Peter (Hrsg.). 1990. Treuhandanstalt und Treuhandgesetz. Köln: Verlag Kommunikationsforum Recht, Wirtschaft, Steuern.

할레 경제연구소(발행). 2009년. 1990년 이후의 동독의 전환 과정 - 경제적, 사회적 지표를 반영하면서. (할레 경제연구소-특별호 1/2009). 할레.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IWH) (Hrsg.). 2009. Ostdeutschlands Transformation seit 1990 im Spiegel wirtschaftlicher und sozialer Indikatoren. (IWH-Sonderheft 1/2009). Halle.

크리스타 루프트, 1992년. 신탁관리 리포트. 베를린, 아우프바우 타셴부흐 출판사.

Luft, Christa. 1992. Treuhandreport. Berlin: Aufbau Taschenbuch-Verlag.

카를-하인츠 파케, 2009년. 동독에서의 전환 정책 - 부분적인 성공. 정책 및 현대사를 기반으로. 28/2009. p. 22-27.

Paqué, Karl-Heinz. 2009. Transformationspolitik in Ostdeutschland: ein Teilerfol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8/2009, S. 22-27.

카를-하인츠 파케, 2009년. 결산 보고 - 독일 통일의 경제적 분석. 뮌헨, 한저 출판사.

Paqué, Karl-Heinz. 2009. Die Bilanz. Eine wirtschaftliche Analyse der Deutschen Einheit. München: Hanser.

롤프 라이씨히(발행인), 1993년. 미래로 향하는 귀로, 동독에서의 험난한 변혁 과정 진행에 관하여.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캠퍼스 출판사.

Reißig, Rolf (Hrsg.). 1993. Rückweg in die Zukunft. Über den schwierigen Transformationsprozeß in Ostdeutschland. Frankfurt am Main: Campus-Verlag.

베르너 슐츠 및 루트거 폴머(발행인), 1992년. 청산 대신 발전을. 베를린, 크리스토프 링크스 출판사.

Schulz, Werner/Volmer, Ludger (Hrsg.). 1992. Entwickeln statt abwickeln. Berlin: Ch. Links Verlag.

호르스트 지버트, 1993년. 통일이라는 무모한 모험, 경제 정책적 요법. 슈투트가르트, 독일 출판협회.

Siebert, Horst. 1993. Das Wagnis der Einheit. Eine wirtschaftspolitische Therapie. Stuttgart: Deutsche Verlags-Anstalt.

게를린데 진, 한스-베르너 진 1992년. 냉랭한 시작 - 독일 통일에 관한 국민경제 관점에서 의견의 견해. 튀빙엔, 모르 출판사.

Sinn, Gerlinde/Sinn, Hans-Werner. 1992. Kaltstart. Volkswirtschaftliche Aspekte der deutschen Vereinigung. Tübingen: Mohr.

마르크 켐플러, 1994년. 신탁관리청의 설치 - 구 동독 국가소유 재산의 관리에서 사유화로.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캠퍼스 출판사.

Kemmler, Marc. 1994. Die Entstehung der Treuhandanstalt: von der Wahrung zur Privatisierung des DDR-Volkseigentums. Frankfurt am Main: Campus.

클라우스 쾰러, 1995년. 동독의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 - 신탁관리청의 4년 반이라는 세월. 베를린, 둔커 & 훔볼트 출판사.

Köhler, Claus. 1995. Der Übergang von der Planwirtschaft zur Marktwirtschaft in Ostdeutschland: viereinhalb Jahre Treuhandanstalt. Berlin: Duncker & Humblodt.

위의 저자와 동일. 클라우스 쾰러, 1995년. “동독 경제의 사유화 과정: 신탁관리청의 역할” 참고: 루디거 폴(발행인), 동독의 도전과제 -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의 5년. 베를린: 아날뤼티카 출판사.

Ders.: Köhler, Claus. 1995. "Die Privatisierung der ostdeutschen Wirtschaft: Die Rolle der Treuhandanstalt." In: Pohl, Rüdiger (Hrsg.): Herausforderung Ostdeutschland: Fünf Jahre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Berlin: Analytica.

카를 리히트블라우, 1993년. 신탁관리청의 사유화 업무 및 기업 건전화 업무. 쾰른, 독일 연구소 출판사.

Lichtblau, Karl. 1993. Privatisierungs- und Sanierungsarbeit der Treuhandanstalt. Köln: Deutscher Instituts-Verlag.

한스 뢰르, 2002년. 동독 국가재산을 둘러싼 싸움 - 신탁관리청에 의한 신연방주 농업경제 사유화 과정에 관한 연구. 베를린, 둔커 운트 훔볼트 출판사.

Löhr, Hanns, 2002. Der Kampf um das Volkseigentum: eine Studie zur Privatisierung der Landwirtschaf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urch die Treuhandanstalt. Berlin: Duncker & Humblodt.

베른트 루케, 1995년. 신탁관리청의 사유화 정책 - 계량 경제적 관점에서의 분석. 베를린 자유대학 소속 경제학 전문부서.

Lucke, Bernd. 1995. Die Privatisierungspolitik der Treuhandanstalt : eine ökonomische Analyse. Berlin: Fachbereich Wirtschaftswissenschaft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라인하르트 뢰켄, 1998년. 신탁관리청 및 그 후속 기관 - 변환 과정에 있어 기업 정책과 조직 개발. 뮌스터 대학 박사학위 논문.

Lüken, Reinhard. 1998. Treuhand - BvS. Unternehmenspolitik und Organisationsentwicklung in der Transformation. Dissertation an der Universität Münster.

마티아스 마리살, 1993년. 신탁관리청의 정치적 행동반경. 베를린, 페터 랑 출판사.

Marissal, Matthias. 1993. Der politische Handlungsrahmen der Treuhandanstalt. Berlin:

Lang.

코르트 마이어, 1995년. 신탁관리청 기업에서의 사회복지 계획 규제. 포츠담 대학 박사 학위 논문.

Meyer, Cord. 1995. Sozialplanregelungen in Treuhandunternehmen. Dissertation an der Universität Potsdam.

안-카트린 노이게바우어, 1993년. 동독 기업에서의 일시적 국가 지분율 - 사유화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보충적인 조치. 파펜바일러, 첸타우루스 출판사.

Neugebauer, Ann-Kathrin. 1993. Vorübergehende Staatsbeteiligung an ostdeutschen Unternehmen: eine ergänzende Maßnahme im Privatisierungsprozeß. Pfaffenweiler: Centaurus-Verlag.

앙겔리카 파르쉬, 1993년. 1990년 6월 17일자로 제정된 신탁관리법에 의거하여 새로 편입된 5개 신연방주에서 신규로 건립된 자본회사에 대한 구조 개편 - 구연방주지역에서의 설립 절차와 비교했을 때를 근거로 한 비판적 분석. 베르기쉬 글라트바흐, 오일 출판사.

Paarsch, Angelika. 1993. Die Restrukturierung der nach dem Treuhandgesetz vom 17. Juni 1990 in den fünf neuen Bundesländern neu geschaffenen Kapitalgesellschaften: eine kritische Analyse anhand vergleichbarer Gründungsvorgäng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Bergisch Gladbach: Eul.

안드레아 로벤-바렌홀트, 1995년. 피고용자의 사회복지 계획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신탁관리청의 책임 여부. 파펜바일러, 첸타우루스 출판사.

Robben-Vahrenhold, Andrea. 1995. Die Haftung der Treuhandanstalt für Sozialplanansprüche der Arbeitnehmer. Pfaffenweiler: Centaurus-Verlag.

볼프강 자이벨, 2005년. 관리되어진 환상 - 신탁관리청 및 그 후속 기관을 통한 동독 경제의 사유화 과정, 1990년부터 2000년까지를 중심으로.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캄푸스

출판사.

Seibel, Wolfgang. 2005. *Verwaltete Illusionen: die Privatisierung der DDR-Wirtschaft durch die Treuhandanstalt und ihre Nachfolger 1990 – 2000*. Frankfurt am Main: Campus.

올리히 지버스, 1995년. *신탁관리청 기업의 처리*. 함부르크 대학 박사학위 논문.

Sievers, Ulrich. 1995. *Die Abwicklung von Treuhandunternehmen*. Dissertation an der Universität Hamburg.

알프레드 슈트로테, 1994년. *신탁관리청: 명성 그 이상인가? – 농업 경제를 중심으로 살펴 본 사회복지 비판적 조사 및 사회 정책적 조사*. 핀네베르크, 아그리메디아 출판사.

Strothe, Alfred. 1994. *Treuhandanstalt: besser als ihr Ruf? Eine sozialkritische und gesellschaftspolitische Untersuchung vor allem für den Bereich der Land- und Ernährungswirtschaft*. Pinneberg: AgriMedia.

신탁관리청, 1993년. 199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한 서독 마르크화에 대한 초기 결산. 베를린.

Treuhandanstalt. 1993. *DM-Eröffnungsbilanz zum 1. Juli 1990*. Berlin.

신탁관리청, 1993년. *중산층에 대한 신탁관리청 이니셔티브*. 베를린.

Treuhandanstalt. 1993. *Treuhand-Initiative Mittelstand*. Berlin.

귀도 투쌍, 1993년. *동독 공산당 소유 재산과 신탁관리청 – 신탁관리청 전담 관리에 있어 최근에 제기된 법률적 문제*. 쾰른, 경제 및 세무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포럼 출판사.

Toussaint, Guido. 1993. *DDR-Parteivermögen und die Treuhandanstalt: aktuelle Rechtsprobleme bei der treuhänderischen Verwaltung*. Köln: Verlag Kommunikationsforum Recht, Wirtschaft, Steuern.

요스트-프리드리히 폰 옹거, 2002년. 신탁관리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 베를린, 슈피츠 출판사.

von Unger, Jobst-Friedrich. 2002. Staatliche Kontrolle über die Treuhandanstalt. Berlin: Spitz.

제 12회차 선거기간의 조사위원회. 1994년. 신탁관리청: 제 12회차 독일 연방의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본.

Untersuchungsausschuss der 12. Wahlperiode. 1994. Treuhandanstalt: Bericht des Untersuchungsausschusses des 12. Deutschen Bundestages. Bonn.

베르톨트 포겔, 1999년. 직업도 없이 자본주의 시대로 - 동독 사회가 대변혁을 맞이하는 가운데 취업노동의 진행 상황. 함부르크, VSA 출판사.

Vogel, Berthold. 1999. Ohne Arbeit in den Kapitalismus. Der Verlauf der Erwerbsarbeit im Umbruch der ostdeutschen Gesellschaft. Hamburg: VSA-Verlag.

쿠르트 포글러-루드비히(발행인), 1991년. 신연방주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 뮌헨, 경제연구 정보연구소.

Vogler-Ludwig, Kurt (Hrsg.). 1991. Perspektiven für den Arbeitsmark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München: Ifo-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롤프 발터, 베티나 마이쓰너 및 위르겐 슈라이버. 2009년. 미래로 향한 다리 - 1989년부터 2009년까지의 튀링엔의 경제 발전. 에어푸르트, 튀링엔 정치교육 주정부센터.

Walter, Rolf/Meißner, Bettina/Schreiber, Jürgen. 2009. Brücken in die Zukunft.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Thüringens 1989-2009. Erfurt: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Thüringen.

지크프리트 벤첼, 2000년. 동독의 가치는 무엇이었나? 이러한 가치는 오늘날 어디에 있는가? 베를린, 다스 노이에 베를린 출판사.

Wenzel, Siegfried. 2000. Was war die DDR wert? Und wo ist dieser Wert geblieben?
Berlin: Das Neue Berlin.

슈테판 비르트겐, 1993년. 신탁관리청 기업의 매입 - 경영학적 관점에서의 논지. 베를린, 학문과 실제 출판사.

Wirtgen, Stefan. 1993. Kauf von Treuhandunternehmen: ein betriebswirtschaftlicher Leitfaden. Berlin: Wissenschaft und Praxis.

디 비르트샤프트(발행인). 콤비나트 - 그로부터 나온 결과물. 뮌헨, 디 비르트샤프트 출판사.

Die Wirtschaft (Hrsg.). Kombinate. Was aus ihnen geworden ist. München: Verlag die Wirtschaft.

15. 사법 및 행정

크누트 아멜룽, 1996년. 독일 사법을 통한 동독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법상의 청산 조치, 중간 보고서. 드레스덴, 드레스덴 대학 출판사.

Amelung, Knut. 1996. Die strafrechtliche Bewältigung des DDR-Unrechts durch die deutsche Justiz. Ein Zwischenbericht. Dresden: Dresden University Press.

아르투어 벤츠/하인리히 매딩/볼프강 자이벨, 1993년. 독일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의 행정 개혁과 행정 정책.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Benz, Arthur/Mädig, Heinrich/Seibel, Wolfgang. 1993. Verwaltungsreform und Verwaltungspolitik im Prozess der deutschen Einigung. Baden-Baden: Nomos.

루츠 바이어만 및 올리히 베츨, 1990년. 이제는 민주주의인가? - 혁명이 가져 온 입법의 일상에 관하여. 비판적 사법 2/1990: 193 페이지 이하.

Beyermann, Lutz/Wetzl, Ulrich. 1990. Demokratie Jetzt? – Zum Gesetzgebungsalltag einer Revolution. Kritische Justiz 2/1990: S. 193ff.

로타 비스키/ 우베-장 호이어/미하엘 슈만(발행인), 1994년. “불법국가?” 정치적 정의 및 동독 과거 청산. 함부르크, VSA 출판사.

Bisky, Lothar/Heuer, Jens-Uwe/Schumann, Michael (Hrsg.). 1994. “Unrechtsstaat?” Politische Justiz und die Aufarbeitung der DDR-Vergangenheit, Hamburg: VSA-Verlag.

트리스티안 불랑어(발행인), 2002년. 전환기의 법. 베를린, 베를리너 데바테 출판사.
Boulanger, Christian (Hrsg.). 2002. Recht in der Transformation, Berlin: Berliner Debatte.

알렉산더 폰 브뤼네크 및 프란츠-요제프 파이네(발행인), 2004년.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에 대한 국가 및 행정법.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von Brüneck, Alexander/Peine, Franz-Joseph (Hrsg.). 2004. Staats- und Verwaltungsrecht für Brandenburg, Baden-Baden: Nomos.

연방 내독관계부, 1985년. 동독에 관한 매뉴얼. 총 2권. 제 3판.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1985. DDR-Handbuch, 2 Bände, 3. Auflage.

미하엘 뷔르쉬, 1999년. “동독에서의 새로운 변화”, 동독 각 도시 및 지자체에서의 행정 개혁. 참고: 각 도시 및 지자체의 행정 개혁, 실제-프로젝트-전망. 본,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발행.

Bürsch, Michael. 1999. Im Osten was Neues: Verwaltungsreform in ostdeutschen Städten und Gemeinden. In: Verwaltungsreformen in Städten und Gemeinden, Praxis – Projekte – Perspektiven, Bonn: Friedrich-Ebert-Stiftung.

크리스틴 대스트너, 1998년. 독일 통일의 성립을 위한 결정에 있어 각 주정부의 협력. 참고: 에크하르트 클라인(발행인), 독일 통일 과정에 있어 각 주정부 및 연방상원의 역할. 베를린, 둔커 운트 훔블트 출판사.

Dästner, Christin, 1998. Die Mitwirkung der Länder bei den Entscheidungen zur Wiedergestaltung der Einheit Deutschlands. In: Klein, Eckart (Hrsg.): Die Rolle des Bundesrates und der Länder im Prozeß der deutschen Einheit. Berlin: Duncker & Humblot.

한스 울리히 데를린, 1991년. 정권 교체와 인사 정책 - 정치적 청산 및 동독 국가관료의 직업 공무원 편입을 위한 고찰. 참고: 밤베르크 대학 행정학 기고문. 제 27호.

Derlien, Hans Ulrich, 1991. Regimewechsel und Personalpolitik. Beobachtungen zur politischen Säuberung und zur Integration der Staatsfunktionäre der DDR in das Berufsbeamtentum. In: Verwaltungswissenschaftliche Beiträge der Universität Bamberg, Nr. 27

독일 연방하원, 1994년. 인쇄물 12/6854. 독일 통일 및 신연방주에서의 재건을 위한 자료. 본.

Deutscher Bundestag, 1994. Drucksache 12/6854.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onn.

독일 연방하원, 1995년. 인쇄물 13/2280. 독일 통일 및 신연방주에서의 재건을 위한 자료. 본.

Deutscher Bundestag, 1995. Drucksache 13/2280.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onn.

카를-프리트리히 도이틀러, 1990년. 동독에서의 의미 깊은 법률 개정 - 유한회사 (GmbH) 및 유한합자회사(GmbH & Co)에 대한 새로운 회사법. 1990년 7월 1일부터.

Deutler, Karl-Friedrich, 1990. Bedeutsame Gesetzesänderungen in der DDR - Neues

Gesellschaftsrecht für die GmbH und die GmbH & Co ab 01-07-1990

공공행정, 잡지 1992. 제 9권

Die Öffentliche Verwaltung, Zeitschrift 1992. Heft 9.

게르하르트 도른베르거 및 우테 도른베르거, 1990년. 통일조약과 경제, 무역 및 회사법에 있어서의 법적인 동화. 참고: 경영 1990년, 동독 리포트 1, 3122-3126 페이지.

Dornberger, Gerhard/Dornberger, Ute. 1990. Der Einigungsvertrag und die Rechtsangleichung im Wirtschafts-, Handels- und Gesellschaftsrecht. In: Der Betrieb 1990, DDR-Report 1, S. 3122-3126

울리히 드로프닝, 1990년. 동서독 법적 동화에 관한 고찰. 동서독 법률잡지.

Drobning, Ulrich. 1990. Überlegungen zur innerdeutschen Rechtsangleichungen. Deutsch-Deutsche Rechtszeitschrift.

한스 A. 엔겔하르트, 1990년. 국가조약이 발효된 이후 동서독 법적 동화에 관한 현황과 전망. 동서독 법률잡지.

Engelhard, Hans A. 1990. Stand und Perspektiven Deutsch-Deutscher Rechtsangleichung nach Inkrafttreten des Staatsvertrages. Deutsch-Deutsche Rechtszeitschrift.

라이너 파우펠, 1992년.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에서의 새로운 사법제도 구축. 바덴-바덴.

Faupel, Rainer. 1992. Der Neuaufbau der Justiz in Brandenburg. Baden-Baden.

새롭게 편입된 신연방주에서의 사법작용의 조정을 위한 법 (사법작용 조정법). 1992년 6월 26일.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Rechtspflege-Anpassungsgesetz - RpflAnpG). 26.06.1992.

사법작용의 면제를 위한 법. 1993년 1월 11일.

Gesetz zur Entlastung der Rechtspflege. 11.01.1993.

변호사 허용, 공증인 고용 및 명예 재판관의 임명을 위한 자격검증법. 1992년 7월 24일.

Gesetz zur Prüfung von Rechtsanwaltszulassungen, Notarbestellungen und Berufungen ehrenamtlicher Richter. 24.07.1992.

동독 민법전 개정 및 보완을 위한 법(민법개정법). 1990년 6월 28일.

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s Zivilgesetzbuches der DDR(Zivilrechtsänderungsgesetz). 28.06.1990.

요아힘 옌스 헤쎄, 2000년.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에서의 정부개혁 및 행정개혁. 베를린, 국가 학술 및 실무 유럽센터.

Hesse, Joachim Jens. 2000. Regierungs- und Verwaltungsreform in Brandenburg. Berlin: Europäisches Zentrum für Staatswissenschaft und Staatspraxis.

외르크 힐트바인/디르크 올디크스/마티아스 샤이, 1993년. 동서독 국경 지역에서의 발포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하이델베르크, 뮐러 출판사.

Hiltwein, Jörg/Oldigs, Dirk/Schey, Matthias. 1993.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von Todesschützen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Heidelberg: Müller.

엘마르 후코, 2000년. 독일 연방 법무부 베를린 관청건물. 새 주간 법률관보 부록. 제 19호.

Hucko, Elmar. 2000. Das Berliner Dienstgebäude de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Beilage zur Neuen Juristischen Wochenschrift, Heft 19.

폴크마 예쉬, 1990년. 동서독 상거래에 대한 법률 적용에 있어 새롭게 나타난 문제점. 동서독 법률잡지.

Jesch, Volkmar. 1990. Aktuelle Probleme der Rechtsanwendung im innerdeutschen

Handel, Deutsch-Deutsche Rechtszeitschrift.

볼프 카알 및 볼프강 펠러, 1992년. 신연방주에서의 사법행정가 적응. NJ. 441 페이지.

Kahl, Wolf/Peller, Wolfgang. 1992. Anpassung der Rechtspfleger im Beitrittsgebiet. NJ. S. 441

쿠르트 켐퍼 및 로버트 레너, 1991년. 법적 효력이 있는 동독 형사판결에 대한 검증. NJW. 239페이지.

Kemper, Kurt/Lehner, Robert. 1991. Überprüfung rechtskräftiger Strafurteile der DDR. NJW. S. 329

프란츠-루드비히 크넬마이어, 1994년. 중앙통제국가였던 동독의 모습에서 탈피해 새로운 신연방주에 행정적 탈중앙화 및 민주주의 건립을 추구하는 동부독일의 모습으로. 참고: 헬무트 노이하우스(발행인), 헌법과 행정. 쾰른, 벨라우 출판사.

Knemeyer, Franz-Ludwig. 1994. Vom zentralistischen Verwaltungsstaat DDR zum demokratischen Neubau einer dezentralisierten Verwaltung in den jungen Bundesländern. In: Neuhaus, Helmut (Hrsg.) Verfassung und Verwaltung. Köln: Böhlau.

알브레히트 코쉬츠크(발행인), 1995년. 각 도시 및 지자체에서의 행정 개혁 - 현황, 프로젝트 및 전망. 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Koschützke, Albrecht (Hrsg.). 1995. Verwaltungsreformen in Städten und Gemeinden: Praxis, Projekte, Perspektiven. Bonn: Friedrich-Ebert-Stiftung.

클라우스 쿨니히/볼커 메스만, 1995년. 독일의 행정체제 전환에 있어 조직 및 인사상의 문제.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König, Klaus/Messmann, Volker. 1995. Organisations- und Personalprobleme der Verwaltungstransformation in Deutschland. Baden-Baden: Nomos.

하인츠 퀴스터링, 1995년.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에서의 행정체계 재건 4년. 참고: 행정회보 41(1995년), 83 - 89 페이지.

Köstering, Heinz. 1995. Vier Jahre Verwaltungsaufbau im Land Brandenburg. In Verwaltungsrundschau 41(1995), S. 83-89.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및 다니엘 호프만, 1998년. 독일 정책에 관한 문서 자료. 독일 통일 -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 연방 총리실 서류를 기반으로 한 특별 편집판. 뮌헨, R. 올덴부르크 출판사.

Küsters, Hanns Jürgen/ Hofmann Daniel. 1998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작센-안할트 주정부, 주의회 전문 연구 위원회, 1994년. "행정 개혁". 작센-안할트 주 정부의 새로운 행정 조직을 위한 제안. 막데부르크.

Land Sachsen-Anhalt, Landtag Enquete-Kommission. 1994 "Verwaltungsreform": Vorschläge zur Neuorganisation der Verwaltung in Sachsen-Anhalt. Magdeburg.

게르하르트 램브루흐, 1994년. 독일 정치 경제의 변혁과정에서의 각 기관, 이해관계 및 분야별 변화. 참고: 사회연구 저널.

Lehmbruch, Gerhard. 1994. Institutionen, Interessen und sektorale Variationen in der Transformationsdynamik der politischen Ökonomie Deutschlands. In: Journal für Sozialforschung.

잉가 마르코비츠, 1993년. 전개과정 - 동독 사법부의 최후에 관한 기록 일지. 뮌헨, 벡 출판사.

Markovits, Inga. 1993. Die Abwicklung. Ein Tagebuch zum Ende der DDR-Justiz. München: Beck.

볼프강 마이어-헤제만, 1991년. 신연방주에서의 행정 및 사법 구축과정에 대한 지원. 참고: 행정 아카이브, 82 (1991년), 578 - 590 페이지.

Meyer-Hesemann, Wolfgang. 1991. Hilfen zum Aufbau von Verwaltung und Justiz in den neuen Ländern. In Verwaltungsarchiv, 82 (1991) S. 578-590.

새로운 사법. 입법 및 법률 적용에 관한 회보 11/1991.

Neue Justiz, Zeitschrift für Rechtsetzung und Rechtsanwendung 11/1991.

의회. 1994년 6월 17일.

Das Parlament, 17.06.1994

에른스트 파페르만, 1992년. 신연방주 지역에서의 각 지자체 구역 개혁. 참고: 행정 개관.

Pappaermann, Ernst. 1992. Kommunale Gebietsreform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Verwaltungsrundschau.

라이너 피차스(발행인), 1991년. 독일 연방공화국으로 새롭게 편입된 신연방주에서의 사법통일 및 행정개혁. 제 12권. 사단법인 공공업무에 관한 학술 연구소(WIÖD).

Pitschas, Rainer (Hrsg.) 1991. Rechtsvereinheitlichung und Verwaltungsreform in den neuen Lä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and 12, Wissenschaftliches Institut Öffentlicher Dienst (WIÖD) e.V.

베르너 룩크리겔, 1993년.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에서의 새로운 행정 건립. 참고: H. J. 폰 외르트첸(발행인), 건립계획 II에서의 법치국가적 행정 - 특별 관청 및 행정의 통일.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Ruckriegel, Werner. 1993. Neubau der Verwaltung in Brandenburg. In: von Oertzen, H. J.(Hrsg.): Rechtsstaatliche Verwaltung im Aufbau II, Sonderbehörden und Einheit der Verwaltung. Baden-Baden: Nomos.

한스 후버투스 폰 뢰네, 1997년. “정치적 수용 불가…?” 독일 통일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본 동독 출신 검사 및 판사에 대한 검증. 베를린 및 바덴-바덴.

von Roenne, Hans Hubertus. 1997. “Politisch untragbar…?” Die Überprüfung von Richtern und Staatsanwälten der DDR im Zuge der Vereinigung Deutschlands. Berlin/Baden-Baden.

헨닝 로제나우, 1998년. 국가의 명령에 따른 치명적 사격 발포 - 동서독 접경 지역에서 사격 무기를 사용한 국경수비대 군인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Rosenau, Henning. 1998. Tödliche Schüsse im staatlichen Auftrag.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ung von Grenzsoldaten für den Schußwaffengebrauch an der deutsch-deutschen Grenze. Baden-Baden: Nomos.

디안 쉘폴드 및 마야 노이만, 1996년. 독일 지방자치법의 발전 양상 - 민주화 및 탈 중앙화의 양상인가? 바젤, 비르켄호이저 출판사.

Schefold, Dian/Neumann Maja. 1996. Entwicklungstendenzen der Kommunalverfassungen in Deutschland: Demokratiesierung und Dezentralisierung? Basel: Birkhäuser Verlag

볼프강 자이벨, 1996년. 신연방주에서의 행정체제 건립 - 국가 기관 설립에 관한 상호 의사소통의 논리, 공공분야의 현대화. 특별호 제 5권.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Seibel, Wolfgang. 1996. Verwaltungs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Zur kommunikativen Logik staatlicher Institutionenbildung, Modernisierung des öffentlichen Sektor. Sonderband 5. Baden-Baden: Nomos.

잉고 폰 뮌히(발행인), 1991년. 독일 통일에 관한 문서 자료. 슈투트가르트, 크뢰너 출판사.
von Münch, Ingo (Hrsg.). 1991. Dokumente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Stuttgart: Kröner.

위르겐 베버/미하엘 피아촐로(발행인), 1995년. 법정 앞에서 선 독재 - 독일 사법을 통한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 불법행위의 청산. 뮌헨, 올초크 출판사.

Weber, Jürgen/Piazolo, Michael (Hrsg.). 1995. Eine Diktatur vor Gericht. Aufarbeitung von SED-Unrecht durch die deutsche Justiz. München: Olzog.

토마스 비히만, 2001년. 독일 통일을 위한 법률 정책, 법의 통일화와 보상문제에 관한 독일 연방 법무부의 기고문. 분데스안차이거 출판사.

Wichmann, Thomas. 2001. Rechtspolitik für die Deutsche Einheit. Der Beitrag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zu Rechtseinheit und Wiedergutmachung. Bundesanzeiger Verlag.

토마스 빌라쉴크, 2007년. 신연방주에서의 입법 -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예를 들어. 함부르크, Dr. 코바크 출판사.

Willaschek, Thomas. 2007. Die Gesetzgeb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m Beispiel Brandenburg. Hamburg: Dr. Kovač.

헬무트 볼만, 한스-울리히 데를리엔, 클라우스 쾨니히, 볼프강 렌취 및 볼프강 자이벨(발행인), 1997년. 동독에서의 정치 및 행정의 구조적 변환. 오프라덴, 레스케 운트 부트리히 출판사.

Wollmann, Helmut/Derlien, Hans-Ulrich/König, Klaus/Renzsch, Wolfgang/Seibel, Wolfgang(Hrsg.). 1997. Transformation der politisch-administrativen Strukturen in Ostdeutschland. Opladen: Leske + Budrich.

16. 재무부

17. 보건 및 연금 시스템

연방 노동 사회복지부(발행인). 2007년. 1945년부터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 제 11권: 1989년부터 1994년까지, 독일 연방공화국, 통일을 맞이한 사회복지 정책.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Hrsg.). 2007. Geschichte der Sozialpolitik seit 1945 - Band 11: 1989 - 1994,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zialpolitik im Zeichen der Vereinigung. Baden-Baden: Nomos Verlag.

연방 노동 사회복지부(발행인). 1991년. 연금보험에 관한 100가지 질문사항 - 신연방주에 대한 연금 이전법 초안에 관한 질의응답. 본, 연방 노동 사회복지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Hrsg.). 1991. 100 Fragen zur Rentenversicherung: Fragen und Antworten zum Entwurf des Rentenüberleitungsgesetzes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Bonn: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연방 노동 사회복지부(발행인). 1991년. 연금보험에 관한 150가지 질문사항 - 신연방주에 대한 연금 이전법에 관한 질의응답. 본, 연방 노동 사회복지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Hrsg.). 1991. 150 Fragen zur Rentenversicherung: Fragen und Antworten zum Rentenüberleitungsgesetz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Bonn: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연방 노동 사회복지부(발행인). 1989년. 연금개혁법 1992, 텍스트 발행. 본, 연방 노동 사회복지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Hrsg.). 1989. Rentenreformgesetz 1992 Textausgabe. Bonn: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연방 노동 사회복지부(발행인). 1989년. 연금개혁법 1992, 연금이전법 - 텍스트 발행.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연방 노동 사회복지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Hrsg.), 1989. Rentenreformgesetz 1992 Renten-Überleitungsgesetz – Textausgabe. Frankfurt/Main: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연방보건부. 2010년. 신연방주에서의 현대적인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문제 – 간호보험 법 제 52조에 의거한 투자 프로그램 . 본, 연방보건부.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2010. Aufbau einer modernen Pflegeinfrastruktu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 Investitionsprogramm nach Art. 52 Pflege-Versicherungsgesetz. Bonn: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연방 보건 사회보장부. 2004년. 신연방주에서의 보건: 보건 관련 상황 및 발전 현황에 관 하여. 본, 연방 보건 사회보장부.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2004. Gesundheit in den neuen Ländern: Gesundheitliche Lage und Stand der Entwicklung. Bonn: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연방 보건 사회보장부. 2003년. 독일 통일의 일부로서 보건 개혁. 본, 연방 보건 사회보장부.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2003. Die Gesundheitsreform – ein Stück deutsche Einheit. Bonn: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연방보건부. 2000년. 신연방주에서의 보건: 현황, 문제점 및 전망 – 독일 통일의 10년. 본, 연방보건부.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2000. Gesundheit in den neuen Ländern: Stand, Probleme und Perspektiven nach 10 Jahren Deutsche Einheit. Bonn: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연방보건부. 1995년. 신연방주에서의 보건 체계: 독일 통일의 5년. 본, 연방보건부.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1995. Das Gesundheitswesen in den neuen
 Ländern: 5 Jahre deutsche Einheit. Bonn: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사무 근로자 연방보험공단(발행인), 1990년. 통일 조약 및 법적 연금보험. 베를린, 사무
 근로자 연방보험공단.

Bundesversicherungsanstalt für Angestellte (Hrsg.), 1990. Einigungsvertrag und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Berlin: Bundesversicherungsanstalt für Angestellte.

사무 근로자 연방보험공단(발행인), 1990년. 동독 연금법에 관한 정보와 전망. 베를린,
 사무 근로자 연방보험공단.

Bundesversicherungsanstalt für Angestellte (Hrsg.), 1990. Informationen und
 Perspektiven zum Rentenrecht der DDR. Berlin: Bundesversicherungsanstalt für
 Angestellte.

사무 근로자 연방보험공단(발행인), 1990년. 동독과의 국가 조약 및 법적 연금보험. 베를
 린, 사무 근로자 연방보험공단.

Bundesversicherungsanstalt für Angestellte (Hrsg.), 1990. Staatsvertrag mit der DDR
 und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Berlin: Bundesversicherungsanstalt für Angestellte.

마르크 폰 미크벨(발행인), 2010년. 독일 통일의 20년과 사회보험 - 회고와 전망에 관하
 여. 보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의 사회보험공단 문서보관소 및 연구소.

Miquel, Marc von (Hrsg.), 2010. 20 Jahre deutsche Einheit und Sozialversicherung -
 Rückblick und Ausblick. Bochum: Dokumentations- und Forschungsstelle der
 Sozialversicherungsträger in NRW.

헤르베르트 그로체크 및 헤르베르트 뤼셀. 신연방주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변환에 관한
 연구위원회 소속. 1997년. 의료보험 공담 및 노령보험. 오프라덴, 레스케 운트 부트리히

출판사.

Mrotzeck, Herbert/Püschel, Herbert für die Kommission für die Erforschung des Sozialen und Politischen Wandels in den Neuen Bundesländern, 1997. Krankenversicherung und Alterssicherung. Opladen: Leske + Budrich.

하르트무트 라이너스, 1993년. 보건구조법 - 이는 “사회복지 역사의 징후”인가? 보건 정책상의 지표 정립에 대한 작업 보고서. 베를린, 사회복지 연구를 위한 베를린 학술센터.
Reiners, Hartmut, 1993. Das Gesundheitsstrukturgesetz - Ein “Hauch von Sozialgeschichte” Werkstattbericht über eine gesundheitspolitische Weichenstellung. Berlin: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게르하르트 A. 리터, 2006년. 통일의 가격 - 통일과 사회복지주의 국가의 위기. 뮌헨, 벡 출판사.
Ritter, Gerhard A, 2006. Der Preis der Einheit. Die Wiedervereinigung und die Krise des Sozialstaats. München: Beck.

로버트 코흐 연구소(발행인), 200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의 20년 - 독일 내의 보건 상황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베를린, 로버트 코흐 연구소.
Robert Koch-Institut (Hrsg.), 2009. 20 Jahre nach dem Fall der Mauer: Wie hat sich die Gesundheit in Deutschland entwickelt?. Berlin: Robert Koch-Institut

한스-울리히 슈프레, 1994년. 사회복지 국가의 통합 - 독일의 사회복지 통일을 위하여: 발전과 인상.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Spree, Hans-Ulrich, 1994. Der Sozialstaat eint - zur sozialen Einheit Deutschlands: Entwicklungen und Eindrücke. Baden-Baden: Nomos Verlag.

마리온 탕에만, 1995년. 동서독 통합 과정에 있어서의 중간 조직 - 독일 적십자사, 빈민 구호단체, 국민연대. 콘스탄츠, 하르통-고레 출판사(박사학위 논문).

Tangemann, Marion. 1995. Intermediäre Organisationen im deutsch-deutschen Einigungsprozeß – Deutsches Rotes Kreuz, Diakonisches Werk, Volkssolidarität. Konstanz: Hartung – Gorre Verlag (Buchausgabe einer Dissertation).

독일 연금보험 관리공단협회(발행인), 1996년. 1996년 1월 1일부터 신연방주에서의 연금 추가금 및 보충 금액에 대한 정산.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독일 연금보험 관리공단협회. Verband Deutscher Rentenversicherungsträger (Hrsg.), 1996. Verrechnung von Auffüllbeträgen und Rentenzuschlägen seit dem 1. Januar 1996 in den neuen Bundesländern. Frankfurt/Main: Verband Deutscher Rentenversicherungsträger.

독일 연금보험 관리공단협회(발행인), 1994년.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개 신연방주에 대한 연금 경과규정법. 제 4판.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독일 연금보험 관리공단협회. Verband Deutscher Rentenversicherungsträger (Hrsg.), 1994. Rentenübergangsrecht für die fünf neuen Länder 1992–1996. 4. Aufl. Frankfurt am Main: Verband Deutscher Rentenversicherungsträger.

독일 연금보험 관리공단협회(발행인), 1993년. 1992년도의 연금 개혁: 가장 핵심적인 신규 규정에 관한 요약. 제 5판.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독일 연금보험 관리공단협회. Verband Deutscher Rentenversicherungsträger (Hrsg.), 1993. Rentenreform '92: Die wichtigsten Neuregelungen im Überblick. 5. Aufl. Frankfurt/Main: Verband Deutscher Rentenversicherungsträger.

위르겐 바젼, 1997년. 국립병원 체제로부터 보험의사 변원 체제로 – 서독에서 외래 진료의 변환 과정에 관한 조사 연구.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캠퍼스 출판사. Wasem, Jürgen. 1997. Vom staatlichen zum kassenärztlichen System: Eine Untersuchung des Transformationsprozesses der ambulanten ärztlichen Versorgung in Deutschland. Frankfurt am Main: Campus-Verlag.

위의 저자와 동일, 1992년. “종합병원” 시대에서 보험의사 병원의 시대로 - 동독에서 외래진료 의사의 결정적 상황을 재구성 하기 위한 시도. 쾰른, 막스 플랑크 사회학 연구소.
 Ders., 1992. Von der “Poliklinik” in die Kassenarztpraxis: Versuch einer Rekonstruktion der Entscheidungssituation ambulant tätiger Ärzte in Ostdeutschland. Köln: Max-Planck-Institut für Gesellschaftsforschung.

18. 교육

지크리트 비스쿠페크, 2002년. 정치 교육에 있어서의 변환 과정 - 구 동독의 국가인민학 으로부터 신연방주의 정치 수업에 이르기까지. 슈발바흐 및 타우누스, 보헨샤우 출판사.
 Biskupek, Sigrid. 2002. Transformationsprozesse in der politischen Bildung. Von der Staatsbürgerkunde in der DDR zum Politikunterricht in den neuen Ländern, Schwalbach/Taunus: Wochenschau Verlag.

빌헬름 블레크, 1994년. 동독 박사학위 논문,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 지배 하에서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보안유지 및 박사진급의 실상. 쾰른, 서독 출판사.
 Bleek, Wilhelm. 1994. DDR-Dissertationen. Promotionspraxis und Geheimhaltung von Doktorarbeiten im SED-Staat. Köln: Westdeutscher Verlag.

독일 연방 내무부, 1996년. 신연방주에 대한 문화 진흥 지원의 5년. 본.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1996. 5 Jahre Kulturförderung für die neuen Länder. Bonn.
 독일 연방 내독부(발행인), 1985년. 동독에 관한 지침서. 제 2권, M-Z. 쾰른.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Hrsg.). 1985. DDR-Handbuch, Bd.2 M-Z. Köln.

페터 두테크 및 하인츠-엘마르 테노르트(발행인), 1994년. 독일 교육현장의 변환 - 출구가 불확실한 학습 과정. 바인하임 및 바젤, 벨츠 출판사.

Dudeck, Peter/Tenorth, Heinz-Elmar (Hrsg.). 1994. Transformationen der deutschen Bildungslandschaft. Lernprozeß mit ungewissem Ausgang. Weinheim/Basel: Beltz.

하이케 드뤼갈라, 2005년. 동독 교사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발전 및 학교 및 학업과의 연관성. 베를린, Dr. 퀴스터 출판사.

Drygalla, Heike. 2005. Entwicklung demokratischer Einstellungen ostdeutscher Lehrer und ihre Relevanz für Schule und Studium. Berlin: Dr. Köster.

B. 에버트, 2010년. 학교의 능력을 지원하라 - 학습의 특이점 인식 및 기본 능력의 배양. 뮌헨, 돈 보스코 출판사.

Ebbert, B. 2010. Schulfähigkeit fördern - Lernauffälligkeiten erkennen, Basiskompetenzen stärken, München: Don Bosco.

라이너 에커트, 볼프강 퀴틀러 및 구스타프 제버(발행인), 1992년. 위기, 대변혁, 새로운 시작 - 동독의 역사학에 관한 비판적이고 자기성찰적인 기록 문서,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슈투트가르트, 클레트-코타 출판사.

Eckert, Rainer/Küttler, Wolfgang/Seeber, Gustav (Hrsg.). 1992. Krise, Umbruch, Neubeginn. Eine kritische und selbstkritische Dokumentation der DDR-Geschichtswissenschaft 1989/90. Stuttgart: Klett-Cotta.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에 대한 제 1차 학교개혁법 - 1991년 4월 25일자 임시법.

Erstes Schulreformgesetz für das Land Brandenburg - Vorschaltgesetz vom 25. April 1991.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정부에 대한 제 1차 학교개혁법 - 1991년 4월 26일 제정.

Erstes Schulreformgesetz des Landes Mecklenburg-Vorpommern vom 26. April 1991.

작센-안할트 주정부에 대한 학교개혁법 - 1991년 5월 24일자 임시법.

Schulreformgesetz für das Land Sachsen-Anhalt - Vorschaltgesetz vom 24. Mai 1991.

한스-베르너 폭스, 2002년. 각 주정부의 교육 시스템 비교 연구, 법적 요건 - 구조 - 교육학적 혁신. 함부르크, 독일 연방군사대학.

Fuchs, Hans-Werner, 2002. Bildungssysteme im Ländervergleich, Rechtsgrundlagen - Strukturen - pädagogische Innovationen, Hamburg: Universität der Bundeswehr.

위의 저자와 동일, 1997년. 독일 변환기 이후의 교육과 학술. 오프라덴, 레스케 운트 부트리히 출판사.

Ders., 1997. Bildung und Wissenschaft seit der Wende, Opladen: Leske + Budrich.

위의 저자와 동일, 1997년. 동독에서의 교육 및 학술 정책상의 변화과정과 중요사안에 대한 연대기 - 1989년부터 1996년까지를 중심으로. 함부르크, 연방 군사대학.

Ders., Chronik bildungs- und wissenschaftspolitischer Entwicklungen und Ereignisse in Ostdeutschland 1989 bis 1996, Hamburg: Universität der Bundeswehr.

위의 저자와 동일, 1996년. 동독의 교육 및 학술 시스템과 신연방주에서의 그 변환 과정. 함부르크, 연방 군사대학.

Ders., 1996. Das Bildungs- und Wissenschaftssystem der DDR und seine Transformatio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Hamburg: Universität der Bundeswehr.

위의 저자와 동일, 1996년. 동독 교육 시스템의 변환 과정을 주제로 현대화 이론에 입각한 분석 연구. 함부르크, 연방 군사대학.

Ders., 1996. Zur modernisierungstheoretischen Analyse der Transformation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Hamburg: Universität der Bundeswehr.

위의 저자와 동일, 1996년. 신연방주에서의 취학전 교육 및 공교육 학교 시스템, 발전과정 - 트렌드 - 전망. 함부르크, 연방 군사대학.

Ders., 1996. Vorschulerziehung und allgemeinbildendes Schulwes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ntwicklungen - Tendenzen - Perspektiven, Hamburg: Universität

der Bundeswehr.

위의 저자와 동일, 1995년. 독일 변혁기 이후의 교육 정책 - 동독 교육 시스템의 구조변환을 위한 문서 기록(1989년부터 1994년까지). 오프라덴, 레스케 운트 부트리히 출판사.
Ders.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게르트 가이슬러 및 올리히 비크만, 1995년. 동독의 학교와 교육, 연구 및 기록문서. 노이비트 암 마인, 루흐터한트 출판사.

Geißler, Gert und Wiegmann, Ulrich, 1995. Schule und Erziehung in der DDR. Studien und Dokumente. Neuwied am Main: Luchterhand.

통합 사회주의 교육법. 1965년 2월 25일.

Gesetz über das einheitliche sozialistische Bildungssystem. 25.02.1965.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있어 학교 시스템의 사회주의적 발전을 위한 법. 1959년 12월 2일.
Gesetz über die sozialistische Entwicklung des Schulwesens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02.12.1959.

틸만 그라메스, 헨닝 슐루쓰 및 한스-요아힘 포글러, 2006년. 동독의 국가인민학 - 문서자료 모음. 비스바덴, 사회학 VS 출판사.

Grammes, Tilman/Schluß, Henning/Vogler, Hans-Joachim, 2006. Staatsbürgerkunde in der DDR. Ein Dokumentenband.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카를-하인츠 귄터, 1979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교육 제도. 베를린, 국민과 지식 인민 출판사.

Günter, Karl-Heinz, 1979. Das Bildungswes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lin: Volk und Wissen.

페터 헨켄보르크, 2007년. “민주주의 학습과 인지력을 바탕으로 인정함을 통해 사는 삶, 동독에서의 정치 수업을 위한 전문교원 능력에 대한 경험적 연구 조사를 바탕으로”. 참고: 쿠어지프 2007, 제 2권, 35 - 43 페이지.

Henkenborg, Peter, 2007. “Demokratie lernen und leben durch kognitive Anerkennung. Eine empirische Untersuchung zur Lehrerprofessionalität im Politikunterricht in Ostdeutschland”. In: Kursiv 2007, Heft 2, S. 35-43.

후버트 헤트베어, 1976년. 동독의 교육제도 - 1945년 이후의 구조적, 내용적 발전 변화. 쾰른, 키펜호이어 운트 비취 출판사.

Hettwer, Hubert. 1976. Das Bildungswesen in der DDR - Strukturelle und inhaltliche Entwicklung seit 1945. Köln: Kiepenheuer & Witsch.

얀 호프만 및 헬무트 조더, 1991년. 1989년 10월부터 1990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제도화된 교육 구조 영역 바깥에서 발생한 교육 이념 관련 사상에 관한 내용 분석적 연구 조사. 베를린, 베를린 훔볼트 대학 박사학위 논문.

Hofmann, Jan/Soder, Helmut, 1991. Inhaltsanalytische Untersuchung von im Zeitraum Oktober 1989 bis März 1990 außerhalb institutionalisierter Strukturen entstandenen bildungskonzeptionellen Vorstellungen. Berlin: Dissertation an der Humbolt-Universität zu Berlin.

프레야 클리어, 1990년. 조국에 대한 거짓말 - 동독에서의 교육. 뮌헨, 킨들러 출판사.

Klier, Freya, 1990. Lüg Vaterland - Erziehung in der DDR. München: Kindler.

G. 클라인, 1999년. 어린이의 학습능력을 어떻게 구비할 것인가? - 성공적인 초기 학습에 관한 토론. 오늘날의 유치원 제 1권. 프라이부르크.

Klein, G. 1999. Kinder schulfähig machen? Zur Diskussion um einen erfolgreichen Schulanfang. Kindergarten heute 1. Freiburg.

가브리엘레 쾰러/게오르그 크나우쓰/페터 체들러(발행인), 2000년. 1990년의 교육정책 통합과정. 오프라덴, 레스케 운트 부트리히 출판사.

Köhler, Gabriele/Knauss, Georg/Zedler, Peter (Hrsg.). 2000. Der bildungspolitische Einigungsprozeß 1990. Opladen: Leske + Budrich.

하인츠-헤르만 크뤼거/지빌레 라인하르트/카트린 쾰터스-콰니히/니콜 파프/랄프 슈미트/아드리엔네 크라피델/프랑트 틸만, 2002년. 청소년과 민주주의 - 시험대에 오른 정치 교육, 작센-안할트 주정부를 중심으로 한 질적, 양적 조사 연구. 오프라덴, 레스케 운트 부트리히 출판사.

Krüger, Heinz-Hermann/Reinhardt, Sibylle/Kötters-König, Catrin/Pfaff, Nicolle/Schmidt, Ralf/Krappidel, Adrienne/Tillmann, Frank, 2002. Jugend und Demokratie - Politische Bildung auf dem Prüfstand. Eine quantitative und qualitative Studie aus Sachsen-Anhalt. Opladen: Leske+Budrich,

크리스토프 로이스만/한스 페터 클라우스니처, 1993년. “학교 영역에 있어서의 신연방주 및 구연방주 결합을 위하여 - 각 주정부 교육부장관 회의의 일환으로서 초지역적 협력 조치에 관한 단상(현황: 1992년 여름)”, 참고: 교육학 및 학교일상 48

Leusmann, Christoph/Klausnitzer, Hans Peter, 1993. “Zum Zusammenwachsen der alten und neuen Länder im Schulbereich - eine Skizze der Maßnahmen länderübergreifender Zusammenarbeit im Rahmen der Kultusministerkonferenz (Stand: Sommer 1992)”, In: Pädagogik und Schulalltag 48

우베 마르쿠스, 2009년. 우리나라 학교의 가치는 무엇이었나? 동독의 인민교육. 베를린. Markus, Uwe, 2009. Was war unsere Schule wert? Volksbildung in der DDR, Berlin.

호르스트 니켈, 1990년. 경제적 시스템의 관점에서 바라 본 학교 취학교육의 문제점, 교육 및 수업의 심리학 제 37권. 217-227 페이지.

Nickel, Horst, 1990. Das Problem der Einschulung aus ökologisch-systemischer Perspektive. Psychologie in Erziehung und Unterricht, Heft 37, S. 217 - 227.

마냐 오를로프스키, 2006년.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정치 교육” 수업, 질적, 양적 조사 연구. 베를린, 로고스 출판사.

Orlowski, Manja, 2006. Das Unterrichtsfach “Politische Bildung” in Brandenburg. Eine qualitative und quantitative Studie. Berlin: Logos.

카를-지크베르트 레베르크/파울 카이저/티노 하임(발행인), 2006년. 그림 논란의 종말, 동독에서의 미술 교육에 관한 논쟁. 베를린, B & S 지벤하르 출판사.

Rehberg, Karl-Siegbert/Kaiser, Paul/Heim, Tino, Hrsg. 2006. Das Ende des Bilderstreits. Die Debatte um die Kunst in der DDR. Berlin: B & S Siebenhaar Verlag

자울 B. 로빈존, 1970년. 사회적 프로세스에서의 학교 개혁 - 상호문화적 비교 연구, 제 1권: 서독, 동독, 그리고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 슈투트가르트, 클레트 출판사.

Robinson, Saul B. 1970. Schulreform im gesellschaftlichen Prozeß - Ein interkultureller Vergleich, Band 1: BRD, DDR, UdSSR. Stuttgart: Klett.

고트프리트 슈나이더, 1988년. 성인 교육에 관하여. 베를린, 국민과 지식 출판사.

Schneider, Gottfried, 1988. Erwachsenenbildung. Berlin: Volk und Wissen.

작센시에 대한 학교법 - 1991년 8월 1일 제정.

Schulgesetz für den Freistaat Sachsen vom 1. August 1991.

독일 연방공화국 각 주정부 교육부장관 상임회의 담당 사무국(발행인), 1998년.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일, 교육부장관 회의의 50년 - 1948년부터 1998년까지. 노이비트/크리트 펠/베를린.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rsg.), 1998. Einheit in der Vielfalt: 50 Jahre Kultusministerkonferenz 1948-1998. Neuwied/Kriftel/Berlin

P.B. 질코르스키, 1988년. “학교 수준심화”에 관한 참고문헌 목록. LEU 보고서 88/9.

Sikorski, P.B. 1988. Bibliographie zum Thema "Schulreife". LEU-Bericht 88/9.

R.-D. 톨/ C. 로테, P.B. 질코르스키, H. 쿠허, 1988. "학교 수준심화"에 관한 고찰. LEU 보고서 88/8.

Thiel, R.-D./Rothe, C./Sikorski, P. B./Kucher, H. 1988. Überlegungen zum Thema "Schulreife". LEU-Bericht 88/8.

R.-D. 톨/ P.B. 질코르스키, 1989년. 초등학교 취학 보류의 경우에 있어 통일된 대처방법을 위한 기준 목록의 초안. LEU 보고서 89/4.

Thiel, R.-D./Sikorski, P.B.. 1989. Entwurf eines Kriterienkatalogs zur einheitlichen Vorgehensweise bei der Zurückstellung vom Besuch der Grundschule. LEU-Bericht 89/4.

디터 보이코트 및 로타 메르텐스(발행인), 1995년. 학문연구와 국가보안 사이의 침해한 대립관계에 있어서의 동독의 학술(독일 연구학회회보, 제 45호). 베를린

Voigt, Dieter/Mertens, Lothar (Hrsg.). 1995. DDR-Wissenschaft im Zwiespalt zwischen Forschung und Staatssicherheit (Schriften des Gesellschaft für Deutschlandforschung, 45). Berlin.

독일 연방 공화국(서독)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동독) 사이에 체결된 독일 통일의 성립을 위한 계약(통일조약), 제 37조 4항 교육. 1990년. 베를린.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Einigungsvertrag), Artikel 37 Absatz 4 Bildung. 1990. Berlin.

1991년 3월 21일자 임시 교육법.

Vorläufiges Bildungsgesetz vom 21. März 1991.

클라우스 페터 발라벤(발행인), 2003년. 신연방주에서의 정치 교육에 관한 설명지침. 슈발바흐 및 타우누스, 보헨샤우 출판사.

Wallraven, Klaus Peter (Hrsg.). 2003. Handbuch politische Bild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Schwalbach, Taunus: Wochenschau Verlag.

슈테판 바인가르츠, 2003년. 독일의 실험실 - 독일 사회학에 대한 도전과제로서의 동독 변환 과정. 뮌스터, 리트 출판사.

Weingarz, Stephan, 2003. Laboratorium Deutschland - Der ostdeutsche Transformationsprozess als Herausforderung für die deutschen Sozialwissenschaften, Münster: Lit.

바르바라 벨미츠, 2003년. 동독에서의 장애인 교육학 발전에 관하여. 참고: 온라인 치료 교육학. Nr. 4, 21 - 44 페이지.

Wellnitz, Barbara. 2003. Zur Entwicklung der Körperbehindertenpädagogik in der DDR. In: Heilpädagogik online. Nr. 4, S. 21-44.

19. 환경

원자력 익스프레스(발행인), 1997년. 그리고 다른 곳도 안된다! 원자력발전소 반대운동의 역사. 괴팅엔, 디 베르크슈타트 출판사.

Atom-Express (Hrsg.). 1997. ... und auch nicht anderswo! Die Geschichte der Anti-AKWBewegung. Göttingen: Verlag Die Werkstatt.

한스-게오르그 배히톨트 및 빌리 A. 슈미트, 1995년. 오랜 부담과 공간 배치 계획 - 유럽이 직면한 도전과제. 취리히: 국토 계획 및 지역 개발계획 연구소, ETH 취리히.

Bächtold, Hans-Georg/Schmid, Willy A. 1995. Altlasten und Raumplanung - Eine europäische Herausforderung. Zürich: Institut für Orts-, Regional- und

Landesplanung, ETH Zürich.

위르겐 F. 바우르(발행인), 1991년. 에너지 경제법의 개혁 - 변화 계획에 대한 분석.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Baur, Jürgen F. (Hrsg.). 1991. Reform des Energiewirtschaftsgesetzes. Eine Analyse der Änderungsvorschläge. Baden-Baden: Nomos.

미하엘 벨라이티스 및 알트라스트 비스무트, 1992년. 독일 우어안베르크바우 지역의 예외적 상태, 환경파괴 및 보건 문제.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브란데스 운트 아프젤 출판사. Beleites, Michael/Altlast Wismut. 1992. Ausnahmezustand, Umweltkatastrophe und das Sanierungsproblem im deutschen Uranbergbau. Frankfurt am Main: Brandes & Apsel.

연방 환경, 자연보호 및 원자력 안전부(발행인), 1996년. 구부채의 정리. 본.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Hrsg.). 1996. Altlastensanierung. Bonn.

연방 환경, 자연보호 및 원자력 안전부(발행인), 1994년. 동독의 갈탄발전소 정리. 본.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Hrsg.). 1994. Braunkohlesanierung Ost. Bonn.

연방 환경, 자연보호 및 원자력 안전부(발행인), 1991년. 친환경적 구축, 신연방주에서의 친환경적 폐기처리 및 개발의 가격. 본.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Hrsg.). 1991. Ökologischer Aufbau, Eckwerte der ökologischen Sanierung und Entwicklung in den neuen Ländern. Bonn.

연방 경제부, 1992년. 통일 독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 본.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1992. Energiepolitik für das vereinte Deutschland.

Bonn.

카프라 프리토프, 1987년. 전환기. 뮌헨, 쉐르츠 출판사.

Capra, Fritjof. 1987. Wendezeit. München: Scherz Verlag.

파울 J. 크루첸 및 미하엘 뮐러(발행인), 푸른 지구의 종말 - 기후변화의 위험과 탈출구. 뮌헨, 벡 출판사.

Crutzen, Paul J./Müller, Michael. (Hrsg.). 1990. Das Ende des blauen Planeten. Der Klimakollaps - Gefahren und Auswege. München: Beck.

얀 판 뒤크, 1994년. 5개의 새로운 신연방주에 대한 지자체 전력공급.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랑 출판사.

van Dyk, Jan. 1994. Kommunale Elektrizitätsversorgung in den fünf neuen Bundesländern. Frankfurt am Main: Lang.

북부 에너지 발전 유한회사, 2009년. 라인스베르크 - 독일 발전소 역사의 한 장. 베를린. Energiewerke Nord GmbH. 2009. Rheinsberg. Ein Kapitel deutscher Kraftwerksgeschichte. Berlin.

튀링엔시(발행인), 1999년. 199년도 환경 보고서. 에어푸르트. Freistaat Thüringen. (Hrsg.). 1999. Umweltbericht 1999. Erfurt.

프리즈 가스만, 1994년. 지구 온실효과는 어떻게 된 것인가? 슈투트가르트, 전문협회 출판사.

Gassmann, Fritz. 1994. Was ist los mit dem Treibhaus Erde? Stuttgart: Verlag der Fachvereine.

슈테판 골코프스키, 1997년. 독일 공기청정 유지정책의 비용 효과. 베를린.

Golkowsky, Stefan. 1997. Kostenwirksamkeit von Luftreinhaltepolitik in Deutschland. Berlin.

그린피스, 1992년. 지자체 에너지 발전 - 각 지자체들에 대한 행동 지침. 베를린.

Greenpeace. 1992. Kommunale Energieversorgung - Ein Handlungsleitfaden für Kommunen. Berlin.

그린피스, 1990년. 동독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 - 신연방주 에너지 발전의 공영화 문제. 베를린.

Greenpeace. 1990. Was DDR-Kommunen beachten müssen. Kommunalisierung der Energieversorg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rlin.

P. 하이니케 및 G. 알버, 1991년. 에너지 절약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에 있어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지침. 본, 본 에너지 리포트 출판사.

Heinicke, P. und Alber, G. 1991. Energie-Sparen. Handbuch für rationelle Energienutzung in Kommune und Industrie. Bonn: Verlag Bonner Energiereport.

엠마누엘 하이니쉬, 1992년. 동독의 환경오염, 환경물질인 염소화 탄화수소의 현실에 대한 기고. 다름슈타트, 학술 서적회사.

Heinisch, Emanuel. 1992. Umweltbelastung in Ostdeutschland. Praxisbeiträge zur ökologischen Chemie von Chlorkohlenwasserstoffen.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구스타프 A. 헨케, 1998년. 오랜 부담의 청산, 현상 적용을 위한 현상 자료. 에센, 볼칸 출판사.

Henke, Gustav A. 1998. Altlasten-Sanierung: aus der Praxis für die Praxis. Essen: Vulkan-Verlag.

가쓰너 홀츠나겔, 1992년. 명상 - 환경 논란에 있어 합의점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협상 조치. 본, 에코노미카 출판사.

Holznagel, Bernd/Gaßner, Harmut/Lahl, Uwe. 1992. Meditation. Verhandlungen als Mittel der Konsensfindung bei Umweltstreitigkeiten. Bonn: Economica-Verlag.

카를-헤르만 뢰블러 및 한스-위르겐 카센스(발행인), 1993년. 신연방주에서의 자연보호. 타우누슈타인, 블로트머 출판사.

Hübler, Karl-Hermann/Cassens, Hans-Jürgen. (Hrsg.). 1993. Naturschutz in den neuen Bundesländern. Taunusstein: Blottner.

프레데 흐벨폰트, 1993년. 신연방주에서의 에너지 시스템 개선조치 -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를 처리할 것인가? 포츠담, 사단법인 탈중앙적 에너지 사용 네트워크.

Hvelplund, Frede. 1993. Erneuerung der Energiesystem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 aber wie? Potsdam: Netzwerk Dezentrale Energie-Nutzung e.V.

마르틴 예니케, 1996년. 산업국가의 환경 정책 - 발전 - 결산 - 성공요건. 베를린, 에디션 시그마 출판사.

Jänicke, Martin. 1996. Umweltpolitik der Industrieländer. Entwicklung - Bilanz - Erfolgsbedingungen. Berlin: Edition Sigma.

파울 키르히호프, 1993년. 조세 세금법에 있어서의 환경 보호. 쾰른, Dr. 오토 슈미트 출판사.

Kirchhof, Paul. 1993. Umweltschutz im Abgaben- und Steuerrecht. Köln: Verlag Dr. Otto Schmidt.

한스 디터 크나프, 1990년. 동독의 국립공원 - 유럽 하우스를 위한 초석. 참고: 국립공원 2/1990.

Knapp, Hans Dieter. 1990. Nationalparks in der DDR - Bausteine für ein europäisches

Haus. In: Nationalpark 2/1990.

우타 크니쉐프스키 및 필립 부르크하르트, 1994년. 다른 사람에게 광도를 파주는 사람... 작센 주정부의 암석 채굴. 드레스덴, 하인리히-뵐 재단 산하 지속적 사고를 위한 교육연구소

Knischewski, Uta/Burkhard, Philip. 1994. Wer andern eine Grube gräbt Gesteinsabbau in Sachsen. Dresden: Bildungswerk Weiterdenken in der Heinrich-Böll-Stiftung

툼 쾨니히스 및 롤란트 쉘플러, 1993년. 에너지 합의? 향후 에너지 정책에 관한 논란. 뮌헨, 라벤 출판사.

Koenigs, Tom/Schaeffer, Roland. 1993. Energiekonsens? Der Streit um die zukünftige Energiepolitik. München: Raben-Verlag.

발터 코마르, J. 마티에스 및 마르틴 바이스하이머, 1993년. 동독 환경보호 실패의 원인. 쾰른, 독일연구소 출판사.

Komar, Walter/Matthies, J./Weisheimer, Martin. 1993. Ursachen für das Versagen des Umweltschutzes in der DDR. Köln: Deutscher Instituts-Verlag.

발터 크라츠, 2003년. 동독에서의 변환 과정 - 철수한 소련군이 남긴 군사적 토대, 이에 관한 연구, 건전화 및 임무 변경에 관하여. 베를린, 트라포-출판사.

Kratz, Walther. 2003. Konversion in Ostdeutschland. Die militärischen Liegenschaften der abgezogenen Sowjetischen Streitkräfte, ihre Erforschung, Sanierung und Umwidmung. Berlin: Trafo-Verlag.

펠릭스 크리스티안 마테스, 1999년. 전기산업과 독일 통일 - 동독의 전기산업 변환에 관한 사례 연구. 베를린: F.C. 마테스 출판사.

Matthes, Felix Christian. 1999. Stromwirtschaft und deutsche Einheit. Eine Fallstudie

zur Transformation der Elektrizitätswirtschaft in Ost-Deutschland. Berlin: F.C. Matthes.

작센-안할트 주정부 환경 및 국토계획부, 1997년. 1997년도 환경보고서. 막테부르크.
Ministerium für Raumordnung und Umwelt des Landes Sachsen-Anhalt. 1997.
Umweltbericht 1997. Magdeburg.

작센 자유시의 지역개발 및 환경부, 1998년. 환경보고서. 드레스덴.
Ministerium für Umwelt und Landesentwicklung des Freistaates Sachsen. 1998.
Umweltbericht. Dresden.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국토계획, 자연보호 및 환경부, 1990년. 환경 저널 1990. 포츠담.
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aumordnung des Landes Brandenburg.
1990. Umweltjournal 1990. Potsdam.

울리히 페트쇼프, 위르겐 마이어호프 및 클라우스 토마스베르거, 1990년. 동독의 환경보
고서 - 환경파괴의 결과, 회복 비용, 친환경적 재건축을 위한 전략. 프랑크푸르트 암 마
인, S. 피셔 출판사.
Petschow, Ulrich/Meyerhoff, Jürgen/Thomasberger, Claus. 1990. Umweltreport DDR.
Bilanz der Zerstörung. Kosten der Sanierung. Strategien für den ökologischen Umbau.
Frankfurt/Main: S. Fischer.

라인하르트 프리엠 및 한스 글라우버, 1992년. 환경친화적 경제활동 - 경험과 전략, 그
리고 모델.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피셔 타셴부흐 출판사.
Pfriem, Reinhard und Glauber, Hans. 1992. Ökologisch Wirtschaften. Erfahrungen,
Strategien, Modelle. Frankfurt am Main: Fischer-Taschenbuch-Verlag.

작센 연방청, 2009년. 환경보호를 위한 시작. 드레스덴.
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2009. Aufbruch für den Umweltschutz. Dresden.

슈테판 슈미트하이니, 1992년. 경로 변경 - 글로벌 기업들의 개발 전망 및 환경. 뮌헨, 아르테미스 운트 빈클러 출판사.

Schmidheiny, Stephan, 1992. Kurswechsel. Globale unternehmerische Perspektiven für Entwicklung und Umwelt. München: Artemis & Winkler.

베르너 슐츠 및 루트거 폴머(발행인), 1992년. 청산 대신 발전을 - 5개의 신연방주에 대한 경제정책적 및 친환경적 재건축 컨셉. 베를린, 크리스토프 링크스 출판사.

Schulz, Werner/Volmer, Ludger, (Hrsg.). 1992. Entwickeln statt abwickeln. Wirtschaftspolitische und ökologische Umbau-Konzepte für die fünf neuen Länder. Berlin: Ch. Links Verlag.

연방환경청, 2000년. 구 부채 파악을 위한 전 독일적 개요 - 의심되는 국토면적 평가 현황 및 구 부채 청산의 현황. 베를린, 인터넷: www.umweltbundesamt.de

Umweltbundesamt, 2000. Bundesweite Übersicht zur Altlastenerfassung, zum Stand der Bewertung altlastverdächtiger Flächen und zum Stand der Sanierung von Altlasten. Berlin, Über Internet: www.umweltbundesamt.de

연방환경청, 1998년. 독일의 환경의식, 대표적 대국민 설문조사의 결과. 베를린. Umweltbundesamt, 1998. Umweltbewusstsein in Deutschland, Ergebnisse einer repräsentativen Bevölkerungsumfrage. Berlin.

헬무트 슈피츨라이, 1989년. 또 다른 에너지 미래 - 원자력 개발경제와 환경 재앙 대신 절약적 에너지 사용을. 슈투트가르트, 본 악투엘 출판사.

Spitzley, Helmut, 1989. Die andere Energiezukunft. sanfte Energienutzung statt Atomwirtschaft und Klimakatastrophe. Stuttgart: Bonn aktuell.

베른하르트 페어벡, 1994년. 환경 파괴의 인류학 - 미래의 변혁과 그림자. 다름슈타트: 학술 서적회사.

Verbeck, Bernhard, 1994. Die Anthropologie der Umweltzerstörung: Die Evolution

und der Schatten der Zukunft,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우리들의 하르츠 산맥. 제 9호. 2010년. 피셔 운트 툴바 출판사.

Unser Harz, Heft 9, 2010, Verlag Fischer und Thielbar.

헬무트 바이트너 및 마르틴 예니케, 1998년. 선구자의 봉기와 몰락 - 콜 총리 시대의 환경정책에 대한 결산. 참고: 콧트릭 베버(발행인), 콜 총리 시대의 결산 - 독일의 기독교 자유주의 정책,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오프라텐, 201-228 페이지.

Weidner, Helmut/Jänicke, Martin. 1998. Vom Aufstieg und Niedergang eines Vorreiters. Eine umweltpolitische Bilanz der Ära Kohl. In: Wewer, Göttrik (Hrsg.). Bilanz der Ära Kohl, Christlich-liberale Politik in Deutschland 1992-1998, Opladen, S. 201-228.

에른스트-울리히 폰 바이츠쾅커, 1992년. 에리히 폰 바이츠쾅커, 1992년. 지구 정책, 환경의 새로운 백년의 문턱에서 바라본 환경친화적 실질 정책. 다름슈타트: 학술 서적회사. Weizsäcker, Ernst-Ulrich von, 1992. Erdpolitik. Ökologische Realpolitik an der Schwelle zum Jahrhundert der Umwelt,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클라우스 프랑크(발행인), 1994년. 환경 갈등 - 그 해결책을 위한 중재 과정. 타우누스 슈타인, 블로트너 출판사.

Claus, Frank (Hrsg.). 1994. Umweltkonflikte. Vermittlungsverfahren zu ihrer Lösung. Taunusstein: Blottner.

미하엘 취이쾅, 2003년. 동독의 환경보호 - 빨리 사라져 버리는 테마에 관한 시도. 정책 및 현대사를 기반으로. 27/2003권. 33페이지 이하.

Zschiesche, Michael. 2003. Umweltschutz in Ostdeutschland - Versuch über ein schnell verschwundenes Thema.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and 27/2003, S. 33ff.

20. 면담록

우베 울리히(발행인), 2010년. 작은 흐름에서 큰 흐름으로 - 드레스덴 남녀 주민을 대상으로 독일 통일 및 평화적 혁명에 관해 실시한 15개 설문조항에 대한 답변. 드레스덴, 정치 교육을 위한 작센 주정부센터.

Ullrich, Uwe (Hrsg.). 2010. Vom Rinnsal zum Strom. Dresdnerinnen und Dresdner beantworten 15 Fragen zur Friedlichen Revolution und Deutschen Wiedervereinigung. Dresden: Sächsische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1.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울리히 알브레히트, 1996년. 독일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 - “아무도 득이 없던” 상황에서 급작스런 성공으로. 참고: 정책 및 현대사를 기반으로, 40/1996. 3-11 페이지. Albrecht, Ulrich. 1996. Die internationale Regelung der Wiedervereinigung. Von einer “nowin” - Situation zum raschen Erfolg.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0/1996, S. 3-11.

독일 연방 외무부, 1995년. 독일 연방공화국의 외교정책 - 1949년부터 1994년까지의 외교 문서. 연방 외교부 창립 125주년을 맞이한 기념으로 발행. 쾰른: 학술과 정치 출판사. Auswärtiges Amt, 1995. Außen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okumente von 1949 bis 1994; herausgegeben aus Anlaß des 125. Jubiläums des Auswärtigen Amts. Köln: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리하르트 엘베/프랑크 키슬러, 1993년. 첨예한 대립 속의 협상 테이블, 독일 통일을 향해 가는 외교적인 길.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Elbe, Richard/Kiessler, Frank. 1993. Ein runder Tisch mit scharfen Kanten. Der diplomatische Weg zur deutschen Einheit. Baden-Baden: Nomos Verlag

프랑소아 미테란트, 1996년. 독일에 관하여.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라이프치히: 인젤 출판사. (불어판: De l'Allemagne, De la France. Paris: Poches.)

Mitterand, François. 1996. Über Deutschland. Frankfurt am Main, Leipzig: Insel Verlag. (Französische Ausgabe: De l'Allemagne, De la France. Paris: Poches.)

게르하르트 운티트 이외, 2010년.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에 있어 2014년부터 202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유럽의 구조 정책을 도입하는 사안에 대한 행동 옵션과 요구조건 - 독일 연방 경제기술부의 의뢰로 수행된 연구작업, 용역 수주 22/09. BMWi 출판사.

Untiedt, Gerhard et al. 2010. Anforderungen und Handlungsoptionen für den Einsatz der europäischen Strukturpolitik in den Jahren 2014–2020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schließlich Berlin – Studie im 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Dienstleistungsauftrag 22/09. BMWi-Publikation.

콘돌레자 라이스/필립 켈리코프, 1997년. 외교의 결정적 순간, 독일 통일과 유럽 분단의 종말. 베를린: 프로펠라엔 출판사.

Zelikow, Philip und Rice, Condolezza. 1997. Sternstunde der Diplomatie. Die deutsche Einheit und das Ende der Spaltung Europas. Berlin: Propyläen.

22. 부록

23. 브란덴부르크주 - 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쿠어트 아다미 및 크리스티나 뢰베너(발행인), 1998년.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회의 역사 (브란덴부르크 역사 연구 제 3호). 포츠담,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출판사.

Adamy, Kurt/Hübener, Kristina (Hrsg.). 1998. Geschichte der brandenburgischen Landtage. (Brandenburgische Historische Studien 3). Potsdam: Verlag für Berlin-Brandenburg.

프리드리히 베크, 크리스티나 휘베너, 만프레트 괴르테마커, 클라우스 나이트만(발행인), 2010년. 브란덴부르크,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주정부 - 그 역사와 현재. 베를린, :be.bra 학술 출판사.

Beck, Friedrich/Hübner, Kristina/Görtemaker, Manfred/Neitmann, Klaus (Hrsg.). 2010. Brandenburg. Neues altes Land. Geschichte und Gegenwart. Berlin: be.bra wissenschaft verlag.

디터 보가이 및 도리스 비트홀터, 2010년. 주정부 노동시장에 관한 비교 분석: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에 관한 최신 지역연구. 참고: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 지사, 지역적 연구 협력망을 통한 분석과 보고.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 베를린-브란덴부르크.

Bogai, Dieter und Wiethölter, Doris. 2010 Vergleichende Analyse von Länderarbeitsmärkten: aktualisierte Länderstudie Brandenburg. In IAB regional, Berichte und Analysen aus dem Regionalen Forschungsnetz. IAB Berlin-Brandenburg.

위의 저자와 동일, 2006년. 브란덴부르크 동북 지역에 대한 보고서. 참고: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 지사, 베를린-브란덴부르크 02/2006.

Dies. 2006. Bericht für den Nordosten Brandenburg. In IAB regional, Berlin-Brandenburg 02/2006

위의 저자와 동일, 2006년. 주정부 노동시장에 관한 비교 분석. 브란덴부르크 서남 지역에 대한 보고서. 참고: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 지사, 지역적 연구 협력망을 통한 분석과 보고.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 베를린-브란덴부르크 03/2006.

Dies. 2006. Vergleichende Analyse von Länderarbeitsmärkten. Bericht für den Südwesten Brandenburg. In IAB regional. Berichte und Analysen aus dem Regionalen Forschungsnetz. IAB Berlin-Brandenburg 03/2006.

위의 저자와 동일, 2006. 브란덴부르크 동남 지역에 대한 보고서: 코트부스 시와 엘베 엘스터, 슈프레-나이쎄 및 오버슈프레발트-라우지츠 등의 군 단위를 포괄하는 독일

노동청의 관할 구역. 참고: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 지사, 보고 및 분석.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04/2006.

Dies. 2006. Bericht für den Südosten Brandenburgs. Der Arbeitsagenturbezirk Cottbus mit der kreisfreien Stadt Cottbus und den Landkreisen Elbe Elster, Spree-Neiße und Oberspreewald-Lausitz. In: IAB regional, Berichte und Analysen. IAB Berlin Brandenburg 04/2006.

위의 저자와 동일, 2006년. 브란덴부르크 동쪽 지역에 대한 보고서. 참고: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 지사, 보고 및 분석.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 베를린-브란덴부르크 05/2006.

Dies. 2006. Bericht für den Osten Brandenburgs. In: IAB regional, Berichte und Analysen. IAB Berlin-Brandenburg 05/2006.

위의 저자와 동일, 2006년. 브란덴부르크 서북 지역에 대한 보고서. 참고: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 지사, 보고 및 분석.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 베를린-브란덴부르크 06/2006.

Dies. 2006. Bericht für den Nordwesten Brandenburgs. In: IAB regional, Berichte und Analysen. IAB Berlin-Brandenburg 06/2006.

페터-미하엘 한, 2009년. 브란덴부르크의 역사. 뮌헨, 벡 출판사.

Hahn, Peter-Michael. 2009. Geschichte Brandenburgs. München: Beck.

만프레트 슈톨페, 1997년. 7년, 7개의 다리 - 미래에 대한 고찰. 베를린, 지틀러 출판사.

Stolpe, Manfred. 1997. Sieben Jahre, sieben Brücken. Ein Rückblick in die Zukunft. Berlin: Siedler.

위의 저자와 동일, 1994년. 민주주의 시도. 베를린.

Ders. 1994. Demokratie wagen. Berlin.

게브하르트 디머/에버하르트 쿠어트, 1991년. 독일 문제의 연대기, 독일의 통일에 관한 세 편의 발표문. 뮌헨, 올초크 출판사.

Diemer, Gebhard/Kurth, Eberhard. 1991. Chronik der Deutschen Frage. Mit den drei Verträgen zur Einigung Deutschlands. München: Olzog Verlag.

악셀 하르트만(발행인), 1991년. 독일 통일에 관한 발표문. 레겐스부르크, 발할라 운트 프라에토리아 출판사.

Hartmann, Axel (Hrsg.). 1991. Verträge zur deutschen Einheit. Regensburg: Walhalla und Praetoria Verlag.

로타 드메지에르, 2010년. 나는 내 아이들이 더 이상 거짓을 말하지 않아도 되기를 희망한다. 독일 통일에 관한 나의 이야기. 프라이부르크, 헤르더 출판사.

de Maizière, Lothar. 2010. Ich will, dass meine Kinder nicht mehr lügen müssen, Meine Geschichte der deutschen Einheit. Freiburg/Br.: Herder Verlag.

울리히 맬러트(발행인), 2002년. 동독 연구 편람 - 아카이브, 연구기관, 도서관, 정치 교육 시설, 협회, 박물관 및 기념지에 관한 설명 지침. 베를린, 크리스토프 링크스 출판사.

Mählert, Ulrich (Hrsg.). 2002. Vademekum DDR-Forschung. Ein Leitfaden zu Archiven, Forschungsinstituten, Bibliotheken, Einrichtungen der politischen Bildung, Vereinen, Museen und Gedenkstätten. Berlin: Ch, Links.

클라우스 슈테른(발행인), 1990년 - 1991년. 독일 통일에 관한 발표문 및 법률 서류, 총 3권. 뮌헨, 벡 출판사.

Stern, Klaus (Hrsg.). 1990-1991. Verträge und Rechtsakte zur deutschen Einheit. 3 Bände. München: Beck.

V. 전체 약어 목록

V. 전체 약어 목록

AA	외교부(독일 연방공화국 외교부)
AAUG	청구 및 기대권에 관한 전환법
ABC-Waffen	원자력 및 생화학 무기
ABM	일자리 창출 조치
ADN	동독 국영통신사
ÁÉB	ÁLTALÁNOS Értékforgalmi Bank (일반 환거래 은행)
AfD	독일동맹
AFPN	농업 투자진흥 프로그램
AGCK	동독 기독교회 작업공동체
AKE	조사 조율 실무팀
ALM	농업 시장질서 담당청
AM	외교부 장관
Anm	지침
AOK	지역의료보험조합
ARG	구부채 규정법
AusglLeistG	조정급부법
Az	문서기호
BArch	연방 문서 보관청
BARoV	연방 미해결 재산문제 처리 담당청
BB	독일 연방은행
BDA	독일 고용주 연방협회
BEK	기독교회연합 (동독)
BfA	연방노동청
BFD	자유 민주주의자 협회
BGBI	연방관보

BK	연방총리
BK	연방총리실
BM	연방부, 연방장관
BMA	연방 노동 사회복지부
BMB	연방 내독 관계부
BMBW	연방 교육 학술부
BMELF	연방 식품, 농업 및 임업부
BMF	연방 재무부
BMG	연방 보건부
BVVG	토지 매각관리 유한회사
BMI	연방 내무부
BMJ	연방 법무부
BMV	연방 교통부
BMWf	연방 경제부
BND	국영통신
BPA	연방 공보처/연방 정부 언론정보처
BPräs	연방대통령
BRat	연방 상원
BRD	독일 연방공화국
BReg	연방정부
BSG	연방사회복지법
BSHG	연방사회부조법
BTag	연방의회
BT-Drucksache	연방의회 인쇄물
BverfG	연방헌법재판소
BVA	연방보험공단
BVerfGE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BVG	연방보훈법

BvS	연방 통일 관련 특별업무 소관청
BZ	베를리너 차이퉁
CdS	주정부 수상청장
CDU	기민연합
ChBK	연방총리실장
CSU	기사연합
CSSF	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룩셈부르크 금융감독 위원회)
C-Waffen	화학 무기
CWC AG	주식회사 중앙 외국환 및 신용은행
D	독일
DA	민주주의 봉기
DAK	독일 사무근로자 의료보험
DBD	독일 민주주의 농민당
DBV	독일 농민협회
DD	복사본
DDR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FG	구제지원협회
DGB	독일 노동조합협회
DIHT	독일 산업 및 상공회의
DJ	현대 민주주의
DLF	독일 라디오
DM	독일 마르크화
dpa	독일 통신사
DRK	독일 적십자
DRV	독일 연금보험 공단
DSU	독일 사회연합
DVP	독일 인민경찰

DW	구제사업단
EALG	보상 및 변제법
e.G.	등록 협동조합
EKD	독일 개신교회
EV	통일조약
F	프랑스
FAZ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FDGB	동독 자유노총
FDJ	자유 독일 청년회
FDP	독일 자유 민주주의당
FEDI OEB	“여행 서비스” 노동조합 여행사무소 (나중에 유한회사 FEDI 여행서비스로 변경)
FR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
FS	텔렉스
GAK	공동체 과제 “농업구조 및 해안선 보호 개선방안“
GAP	공동 농업정책
GBI	법률 관보
GBL	농업에서의 집단 농작
GEW	교육 및 학술 분야 노조
GG	독일 기본법
GKV	법정 의료보험
GL	팀장
GRG	보건개혁법
GS	사무총장
GSG	보건구조법
GST	스포츠 및 기술 협회
HA	주요 부서
hs	필기로

HV A	중앙관리본부 설명
IAMO	중부 및 동부 유럽 농업발전 연구소
IHK	상공협회
IFM	평화 및 인권 이니셔티브
IWF	국제 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 V.	대신하여, 대리로
JP	청소년단
KAAG	투자신탁
KB	동독 문화연합
KfW	부흥금융금고
KK	의료보험
KMK	교육부 장관 회의
KoKo	상업조정회의
KPD	독일 공산당
KPO	오스트리아 공산당
KSZE	유럽 안보 및 협력 회의
KULAP	문화지원 프로그램
KV	의료보험
KWG	은행법
LBG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토지 측량 및 지리적 기본 정보
LASD	독일 정책과장
LDPD	독일 자유민주당
LGT	LGT Bank Ltd. (리히텐슈타인)
LPG	농업 생산 협동조합
LwAltschG	농업 구 부채법
LwAnpG	농업 적응법
LZB	주정부 중앙은행
MAH	동독 무역부

MBW	동독 교육 및 학술부
MD	사무차관
M/DDR	동독 마르크화
MdA	동독 노동 및 사회복지부
MDg	부국장
MELF	동독 식량, 농업 및 임업부
MfAA	동독 외무부
MfS	슈타지
MKB	Magyar Kulkereskedelmi Bank Rt. (헝가리 외환은행)
MNB	Magyar Nemzeti Bank (헝가리 국책은행)
MP	국무총리
MR	참사관
Mrd.	십억 단위
MVZ	의료지원센터
NDPD	독일 민족 민주당
NBL	신연방주
NF	새로운 포럼
NfD	오직 업무 상의 목적으로만
Novum	Novum 유한 상사회사
NRW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OEB	조직 직영회사
ORVAG	주식회사 ORVAG 조직 및 행정관리(스위스)
OVG	상급 행정재판소
PA	보도 자료
PartG-DDR	동독 정당법
PDS	민주 사회주의당
PK	PENZINTEZETI KOZPONT(헝가리 은행)
PMO	동독의 정당과 거대 조직

PMO-Vermogen	동독 정당 및 거대조직의 재산
PVKV	정당 재산위원회 규정
RBgm	현임 시장
RGW	상호 경제협력 위원회
RiVG	행정재판소 재판관
RL	업무 부서장
RR	정부위원회
RTL	룩셈부르크 라디오 텔레비전
RUG	연금경과법
RV	연금보험
SBZ	구 소련군 점령지역
SDP	동독 사회민주주의당
SED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SEDDiktStiftG	SED 독재 청산 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
SFR	스위스 프랑
SGB	사회법전
SMAD	독일 소련 군사행정
SPD	독일 사회민주주의당
St	정무차관
StaV	상주대표부
StGB	형법
SU	소련 연방
SV	사회보험
TAS	신탁관리-전개-특별재산
THA	신탁관리청
THA/BvS	신탁관리청/통일 관련 특별업무를 위한 연방청
TK	기술자 의료보험
TEUR	일천 유로 단위

TLG	신탁청 유한 부동산회사
UdSSR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연합
UFV	독립 여성협회
UKPV	정당 재산 독립위원회
ULA	이관 조직
USPD	독일 독립 사회민주주의 정당
UV	산재보험
VdgB	상호 농경협력협회
VEB	인민 직영회사
VEG	인민 재산
VermG	미해결 재산문제 처리를 위한 법률(재산법)
VG	행정재판소
VK	동독 인민회의
VL	좌파 연합
VOB	조직 직영회사 연합
VS	기밀자료
VwGO	행정재판소법령
WWU	통화 및 경제연합, 통화, 경제 및 사회연합
z. A.	고용 목적
Zentrag	중앙 인쇄, 구매 및 감사 유한회사
ZK d.	SED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중앙위원회
ZPA	정당 중앙 문서보관소
ZV	중앙이사회

VI.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VI.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연번	성명	기관
1	크리스티네 베르크만 박사 (Dr. Christine Bergmann)	베를린 사민당(SPD)
2	어윈 콜리어 교수 (Prof. Ph.D.Irwin Collier)	베를린 자유대학, 존 F. 케네디 연구소
3	라이너 에커트 교수 (Prof. Dr. Rainer Eckert)	현대사 포럼(디렉터)
4	알렉산더 피셔 박사 (Dr. Alexander Fisher)	베를린 독일 경제연구소(DIW)
5	베르트 플로라트 박사 (Dr. Bernd Florath)	슈타지 문서관리청(BStU)
6	미하엘 호프만 교수 (Prof. Dr. Michael Hoffmann)	예나 프리드리히-쉴러 대학, 사회학 연구소
7	에버하르트 홀트만 교수 (Prof. Dr. Everhard Holtmann)	할레-비텐베르크 미틴 루터 대학교, 정치학 연구소
8	위르겐 코카 교수 (Prof. Dr. Dr. h.c. mult. Jürgen Kocka)	베를린 자유대학, 프리드리히-마이네케 연구소
9	이유재 교수 (Prof. Dr. You Jae Lee)	튀빙엔 대학
10	크리스타 루프트 (Prof. Dr. Christa Luft)	모드로 정부의 경제부장관
11	이리나 모어 박사 (Dr. Irina Mohr)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베를린 포럼
12	게르하르트 A. 리터 교수 (Prof. em. Dr. Dres. h.c. Gerhard A. Ritter)	원헨 루드비히-막시밀리안스 대학, 역사 세미나
13	마르틴 T. W. 로젠펠트 교수 (Prof. Dr. Martin T.W. Rosenfeld)	할레 경제연구소, 도시경제과
14	클라우스 슈뢰더 (Dr. habil. Klaus Schroeder)	베를린 자유대학, 국가 사회주의 통일당(SED) 국가 연구협회
15	뤼디거 질라프 (Rüdiger Sielaff)	프랑크푸르트/오더, 슈타지 문서관리청(BStU)
16	요헨 슈타트 박사 (Dr. Jochen Staadt)	베를린 자유대학, 국가 사회주의 통일당(SED) 국가 연구협회
17	베르너 폰 쉘벤 중장(Generalleutnant a. D. Werner von Scheven)	독일연방군
18	만프레드 빌케 교수 (Prof. Dr. Manfred Wilke)	베를린 자유대학, 현대사 연구소(베를린 지부)

VII. 면담자 목록

VII. 면담자 목록

연번	이름	해당 권	기관	직위
1	보리스 앙거러 (Boris Angerer)	18 교육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학교 및 미디어 주 정부 연구소(LISUM)	
2	로제마리 벡 (Dr. Rosemarie Beck)	18 교육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학교 및 미디어 주 정부 연구소(LISUM)	
3	외르크 벡켄 (Jörg Becken)	17 보건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의료보험 조합 문서보관서 책임자	프리랜서 역사가
4	크리스티네 베르크만 박사(Dr. Christine Bergmann)	자문위원회	베를린 시민당(SPD)	
5	프리드리히 폰 비스마 르크 박사(Dr. Friedrich von Bismarck)	19 환경	갈탄 발전소 정리를 위한 연방 및 주정부 사업사무소	사업사무소장
6	에크하르트 블로흐 (Eckhard Bloch)	17 보건	독일 사무근로자 의료보험	원칙 문제 및 법률 문제 담당부서, 동 독 통합을 위한 프 로젝트팀장
7	보르만 (Bohrmann)	02 과거 청산	BStU - 슈타지 문서관리청	법학자
8	미하엘 볼레 박사 (Prof. Dr. Michael Bolle)		베를린 자유대학	
9	쿠노 뵈제 박사 (Dr. Kuno Böse)	04 경찰	베를린 내무 담당 평의회	前 차관
10	한스-오토 브로이티감 박사(Dr. Hans-Otto Bräutigam)	15 사법		장관 역임

연번	이름	해당 권	기관	직위
11	마르틴 브릭 (Martin Brick)	13 농업	멕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농업, 환경 및 소비자보호부	농업, 환경 및 소비자 보호부 장관
12	울리히 브뤼크너 박사 (Dr. Ulrich Brückner)	21 유럽연합	스텐포드 대학 베를린 프로그램	유럽학담당
13	어윈 콜리어 교수 (Prof. Dr. Irwin Collier)	자문위원회	베를린자유대학 존 F. 케네디 연구소	교수
14	마르틴 다이멜 (Martin Deimel)	13 농업	MLUV 멕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15	토비아스 돌라제 (Tobias Dollase)	02 파거 청산	연방 SED 독재청산 재단	법률가
16	라이너 에커트 교수 (Prof. Dr. Rainer Eckert)	자문위원회	현대사포럼	디렉터
17	바르벨 페스트 박사 (Dr. Bärbel Fest)	04 경찰	베를린 경찰	담당자
18	클라우스 피셔 (Klaus Fischer)	13 농업	멕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농업, 환경 및 소비자보호부	전문부서 351 - GAK 지원 책임자
19	베른트 플로라트 박사 (Dr. Bernd Florath)	자문위원회	슈타지 비밀문서 담당청	프로젝트 팀장
20	라인하르트 프리кке (Reinhard Fricke)	07 미디어	새로운 독일	정치 편집국
21	다니엘 게르스텐하우어 (Daniel Gerstenhauer)	10 엘리트 변동	예나 프리드리히-쉴러 대학	
22	질케 글라처 (Sylke Glatzer)	17 보건	독일 연금보험 협회	원칙문제 담당 부서
23	귄터 헬지히 박사 (Dr. Günter Hälsig)	19 환경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환경, 보건 및 소비자보호부	환경, 기후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담당부장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연번	이름	해당 권	기관	직위
24	헬게 하이데미어 박사 (Dr. Helge Heidemeyer)	02 과거 청산	연방 대의원(BStU)	부장
25	헤쎄(Heßbe)	02 과거 청산	연방 법무부	전문부서 ZA2
26	브루노 힐덴브란트 박사 (Dr. Bruno Hildenbrand)	17 보건	예나 대학	교수
27	하이코 힝스트 (Heiko Hingst)	12 재정	연방 재무부	정부 디렉터
28	노르베르트 호크스트라 (Dr. Norbert Hoekstra)	12 재정	연방 재무부	참사관, 전문부서 I B 1 -
29	에버하르트 홀트만 교수 (Prof. Dr. Everhard Holtmann)	08 작센 및 작센-안할트	할레-비텐베르크 마틴-루터 대학	교수
30	엔스 뢰트만 (Jens Hüttmann)	18 교육	SED 독재청산 연방재단	교육 담당자
31	얀제(Jahnze)	02 과거 청산	베를린 주정부법원	검사
32	안드레아 요제피니 박사 (Dr. Andrea Jozefini)	17 보건	연방 보건부	전문부서 LS 3
33	우베 칼베 (Uwe Kalbe)	07 미디어	새로운 독일	정치 편집국
34	브리기타 카우어스 박사 (Dr. Brigitta Kauers)	14 신탁청	연방 재무부	
35	마르틴 카일 (Martin Keil)	19 환경	작센-안할트 주정부 구 부채 처리 담당청	사업단장
36	비르기트 크뢰너 (Birgit Kröner)	18 교육	교육, 학술 및 연구 평의회관청	차관, 인사보좌관

연번	이름	해당 권	기관	직위
37	볼프강 크뤼거 박사 (Dr. RA Wolfgang Krüger)	13 농업	독일 농부협회	FB 농업법
38	주잔제 크셴카 (Susanne Kschenka)		코트부스 모바일 자문팀	
39	힌리히 퀴스너 (Hinrich Kuessner)	17 보건	사단법인 독일-아프리카 협력	의장
40	이유재 교수(Prof. Dr. You Jae Lee)	자문위원회	튀빙엔 대학	교수
41	이-포이커 미영 (Dr. Mi-yong Lee-Peuker)	19 환경	환경 연구를 위한 헬름홀츠 센터	
42	가브리엘레 뢰버트 (Gabriele Löbert)	12 재정	연방 경제 및 기술부	고위 자문관
43	크리스타 루프트 교수 (Prof. Dr. Christa Luft)	자문위원회	모드로 정부	前 경제부 장관
44	안더스 룬트그렌 (Anders Lundgren)		외무부, 전문부서 341(동아시아)	외무부
45	할카 마크 (Halka Mack)	03 국방	포츠담 군사역사 연구청	도서담당자
46	한스-후버투스 마크 교 수(Dr. Hans-Hubertus Mack)	03 국방	포츠담 군사역사 연구청	청장
47	헬가 만넥크 (Helga Manneck)	12 재정	연방 경제 및 기술부	참서관
48	게르하르트 마르틴 (Gerhard Martin)	13 농업	MV 연방부	
49	페터 마썩 교수 (Prof. Dr. Peter Massing)	18 교육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연번	이름	해당 권	기관	직위
50	펠릭스 크리스티안 마테스(Dr. Felix Christian Matthes)	19 환경	사단법인 환경연구소	에너지 및 기후정책 연구협력관
51	베른트 마르텐스(Bernd Martens)	10 엘리트 변동	예나 대학	
52	하이케 크리스티나 매칭(Dr. Heike Christina Mätzing)	18 교육	브라운슈바이크 기술대학, 국제 교파서 연구 게오르그-에커트 연구소	협력 경제학자
53	힐트루트 마이(Hiltrud May)	18 교육	교육부 장관 회의 행정실	전문부서 ID
54	파스칼 미하엘리스(Pascal Michaelis)		베를린 자유대학, 역사 및 문화학 전문학과	IT 시스템관리자
55	지크프리트 밀케 교수(Prof. Dr. Siegfried Mielke)	09 노동조합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56	이리나 모어 박사(Dr. Irina Mohr)	자문위원회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베를린 포럼	
57	하르트무트 몰덴하우어(Hartmut Moldenhauer)	04 경찰	베를린 경찰	경찰청장
58	헤르베르트 므로체크(Herbert Mrotzeck)	17 보건	독일 사무근로자 의료보험	동독 지역담당자
59	루돌프 뮐러(Rudolf Müller)	17 보건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노동, 보건, 사회복지 및 여성부	포츠담 구역의사, 재해보호 및 구조활동 담당자
60	아르눌프 뮐러-헬름브레히트(Arnulf Müller-Helmbrecht)	19 환경	연방 환경부	前 국립공원 프로그램 담당자
61	물처 박사(Mulzer)	02 과거 청산	베를린 주 검찰총장	
62	베른하르트 파울젠(Bernhard Paulsen)	12 재정	연방 재무부	전문부서 IB1

연번	이름	해당 권	기관	직위
63	한스-위르겐 피커트 (Hans-Jürgen Pickert)	07 미디어	도이체 벨레(독일 방송)	DW 편집국
64	빌헬름 폴테 (Dr. Wilhelm Polte)	지역적 차원		막데부르크 시장
65	요한네스 포젤 (Johannes Posel)		베를린 자유대학, 역사 및 문화학 전문학과	전문학과 IT 책임자
66	노버트 라데마허 (Norbert Rademacher)	14 신탁청	연방 재무부	
67	안야 라이히 (Anja Reich)	07 미디어	베를리너 차이퉁	매거진
68	제니퍼 라이헤 (Jennifer Reiche)	04 경찰	베를린 주정부 문서보관소	
69	하르트무트 라이너스 (Hartmut Reiners)	17 보건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노동, 보건, 사회복 지 및 여성부	보건정책 원칙문제 전문부서장
70	라인홀트 라이트슈스터 (Reinhold Reitschuster)	18 교육	베를린 교육, 학술 및 연구 평의회관청	최고 학교위원회, 사회학 및 정치교육 전문부서
71	페터 리스벡 (Peter Riesbeck)	07 미디어	베를리너 차이퉁	정치 편집국
72	게르하르트 A. 리터 교 수(Prof. em. Dr. Dres. h.c. Gerhard A. Ritter)	자문위원회	뮌헨 루드비히-막시밀리안스 대학, 역사 세미나	
73	마르틴 로젠펠트 교수 (Prof. Dr. Martin T.W. Rosenfeld)	12 재정	할레 경제연구소, 도시경제부	교수
74	베르트 로젠탈 (Bert Rosenthal)	02 과거 청산	BStU -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슈타지 문 서관리청	
75	레기나 루자비 (Dr. Regina Rousavy)	04 경찰	베를린 주정부 문서보관소	전문부서 II 담당자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연번	이름	해당 권	기관	직위
76	페터 뢰터스 (Peter Rütters)	09 노동조합	베를린 자유대학	
77	데틀레프 잔 (Detlev Sann)	17 보건	작센시 환경 및 농업부	공공사무 담당관
78	코르넬리아 샤희 (Cornelia Schach)	18 교육	독일 연방 노동 연합회	
79	베르너 폰 쉐벤 (Werner von Scheven)	03 국방 및 자문위원회	독일 연방군	중장 전역
80	하인리히-오토 쉬르머 (Heinrich-Otto Schirmer)	12 재정	연방 경제 및 기술부	전문부서 ZA4
81	루돌프 요제프 슈라퍼 (Dr. Rudolf Joseph Schläffer)	03 국방	포츠담 군사역사 연구청	준장
82	카를-하인츠 슈미츠 (Dr. Karl-Heinz Schmitz)	03 국방	베를린 주정부협회	명예의장
83	엘렌-루트 슈나이더 (Ellen-Ruth Schneider)	18 교육	고문위원	사단법인 사업단장
84	슈뢰더 박사 (Schröder)	02 과거 청산	연방 법무부	
85	클라우스 슈뢰더 (Dr. habil. Klaus Schroeder)	자문위원회	베를린 자유대학, SED 국가 연구협회	
86	제바스티안 쉬체 (Sebastian Schütze)	12 재정	연방 경제 및 기술부	전문부서 ZA4
87	안드레아 슈베르머 (Andrea Schwermer)	18 교육	교육부 장관 회의 행정실	전문부서 II A

연번	이름	해당 권	기관	직위
88	마티아스 폰 슈바넨플 뤼겔(Dr. Matthias von Schwanenflügel)	17 보건	연방 보건부	
89	빌프리트 사이링 (Wilfried Seiring)	18 교육	베를린 인권협회	前 베를린 교육청장
90	뤼디거 질라프 (Rüdiger Sielaff)	자문위원회	BStU 프랑크푸르트/오더	
91	요헨 슈타트 (Dr. Jochen Staadt)	자문위원회	베를린 자유대학, SED 국가 연구협회	
92	카린 슈템물러 (Karin Stemmler)	07 미디어	베를리너 차이퉁	독자편지 편집국
93	리하르트 슈퇴스 (Prof. Dr. Richard Stöss)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94	가브리엘레 슈튀르체 베허(Gabriele Stürzebecher)	18 교육	베를린 교육, 학술 및 연구 평의회관청	
95	아르놀트 바아츠 (Arnold Vaatz)	19 환경	아르놀트 바츠 선거사무실, MdB	작센 정무차관 역임
96	라르스 포겔 (Lars Vogel)	10 엘리트 변동	예나 대학	
97	요아힘 미하엘 풀무트 (Dr. Joachim Michael Vollmuth)	15 사법	연방 공공행정 아카데미	前 “독일 통일의 범 주 안에서 성인교육” 프로젝트 팀장
98	쾨빌레 폴크홀츠 (Sybille Volkholz)	18 교육		베를린 학교, 직업 교육 및 스포츠 장 학사 역임
99	K-디터 포스 (K.-Dieter Voß)	17 보건	GKV 최고협회	1990년 동독 보건 부 자문위원
100	디터 바이리히(Dieter Weirich)	07 미디어	도이체 벨레(독일 방송)	방송사장 역임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연번	이름	해당 권	기관	직위
101	로타 H. 바이제(Lothar H. Weise)		한독협회	베를린 연금보험 공단장
102	한스-요아힘 베르진-질 라프(Hans-Joachim Wersin-Sielaff)	19 환경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환경, 보건 및 소비자보호부	언론 및 홍보 담당관
103	엘리자베스 베셀 (Elisabeth Wessel)	19 환경	연방 환경부	전문부서 담당관ZG III 3 NBL
104	만프레트 빌케(Prof. Dr. Manfred Wilke)	자문위원회	베를린 자유대학, 현대사 연구소 (베를린 지부)	교수
105	라이너 분슈크(Rainer Wunschick)	13 농업	동업자 협회	기업 컨설턴트
106	로타 차일레 (Lothar Zscheile)	18 교육		

- 독일 통일 20년 계기 -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발행처 : 통일부 통일정책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TEL 02-2100-5772, FAX 02-2100-5779

발행일 : 2011년 4월

표지디자인 | 편집디자인 | 인쇄

사회복지법인 **나누리**



중증장애인생산품인증업체 보건복지부인증 2008.8.6

TEL 02-2269-8412~4, FAX 02-2265-0864

